

UN軍支援史

國防軍史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發 刊 辭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두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 양대블록의 갈등구조이었던 냉전체제하에서 빚어졌습니다. 최초에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이념을 달리한 양대세력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모두 20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하여 국제전 성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국운이 위태롭게 되자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집단안전보장 원칙하에 국제질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 21개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 혹은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였고, 40여 개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들도 구호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들 유엔군은 자유와 평화 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이역만리 한국에 참전하여 생소한 기후풍토에 시달리면서도 용전분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장병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거나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힘입어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침략을 응징한 후 전전현상(戰前現狀)에서 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전투부대 및 물자를 지원해 준 유엔회원국에 감사와 전물장병에 대하여 애도를 드립니다.

이에 국방군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참전과 역할, 그리고 전훈을 우리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하여 1980년에 2권(한국전쟁사: 제10권, 제11권)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행부수가 한정된데다 방대한 양이어서 보다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참전사의 편찬을 각계에서 요망해 왔습니다.

당 연구소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우리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그들의 참전 의의와 기여 및 전훈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하기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와 최근 전쟁 당사국들이 공개한 자료에 의거, 유엔의 참전결정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들의 활동상을 단행본으로 엮어 『UN軍支援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UN軍支援史』가 국방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엔군의 활약상 이해는 물론 향후 국방정책 수립에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유엔군의 지원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8년 12월

國防軍史研究所 所長 朴 淳 贊

일 러 두 기

1. 한국전쟁에 파견된 전투부대 지원국과 의료부대 지원국의 활동은 한국에 도착한 순서대로 수록하였고, 이들 국가 중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벨기에-룩셈부르크로 통합하여 서술하였다.
2. 한국전쟁 기간중 다수의 국가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구호물자 및 현금을 지원하였으나 종합된 자료가 미흡하여 이들의 개별적인 활동상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3.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서술하였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안에 넣었다.
5.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장에 처음 나올 경우에 () 안에 원어를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넣었다.

6.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하게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당시 관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7.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고,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8.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의 내용을 망라하였다.
9. 부대표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중공군을 CCF로, 북한군을 NK로 표시하였다.
10. 이 책에 수록된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이며, 현지 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에 표기하였다.

목 차

제 1 장 유엔군의 참전배경

제 1 절	대한민국과 유엔	1
	1. 한국문제 유엔 이관	1
	2. 한국임시위원단(UNTOCK)의 설치	5
	3. 한국위원단(UNCOK)의 활동	8
제 2 절	유엔의 참전결의	10
	1. 한국전쟁의 발발	10
	2. 북한군 침략행위정지 결의	12
	3. 대한(對韓) 군사원조 결의	15
	4. 미국의 군사조치	18
제 3 절	유엔군의 구성	22
	1. 유엔의 지상군 파견요청	22
	2. 유엔군사령부(UNC)의 창설	25
	3.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29
	4. 유엔군의 제문제	31

제 2 장 유엔군의 지원경과

제 1 절	북한의 남침과 지연작전기	34
1.	한·미연합전선의 구축	34
2.	유엔군의 병력 증강	36
3.	낙동강방어선에서 결전	39
4.	후방지원의 강화	41
제 2 절	유엔군의 총반격과 북진작전기	43
1.	유엔군의 총반격 준비	44
2.	유엔군의 38도선 돌파 결정	45
3.	유엔의 통한(統韓) 결의	48
4.	유엔의 군사지원 감축	51
5.	중공군과 조우	52
제 3 절	중공군의 참전과 재반격작전기	55
1.	유엔군의 철수계획	56
2.	유엔군의 증원 노력	58
3.	제8군사령관의 공세전략	60
4.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63
5.	휴전전략의 모색	66
6.	유엔군의 새로운 작전지침	68

제 4 절	전선의 교착과 휴전협상기	70
1.	휴전회담의 개막	70
2.	제한목표 공격전략	72
3.	적극방어전략	74
4.	후방차단작전의 강화	76
5.	유엔의 휴전협상 지원	78
6.	휴전협정 조인	80

제 3 장 전투부대 지원국의 활동

제 1 절	미 국	82
1.	참전경위	82
2.	지상군의 활동	84
3.	해군의 활동	126
4.	공군의 활동	136
5.	참전결과	150
제 2 절	영 국	160
1.	참전경위	160
2.	지상군의 활동	163
3.	해군의 활동	183
4.	참전결과	188

제 3 절	오스트레일리아	194
	1. 참전경위	194
	2. 지상군의 활동	196
	3. 해군의 활동	207
	4. 공군의 활동	210
	5. 참전결과	212
제 4 절	네덜란드	217
	1. 참전경위	217
	2. 지상군의 활동	219
	3. 해군의 활동	232
	4. 참전결과	234
제 5 절	뉴질랜드	238
	1. 참전경위	238
	2. 지상군의 활동	239
	3. 해군의 활동	245
	4. 참전결과	249
제 6 절	캐나다	253
	1. 참전경위	253
	2. 지상군의 활동	255
	3. 해군의 활동	268

4. 공군의 활동	272
5. 참전결과	273
제 7 절 프 랑 스	278
1. 참전경위	278
2. 지상군의 활동	279
3. 참전결과	292
제 8 절 필 리 핀	295
1. 참전경위	295
2. 지상군의 활동	297
3. 참전결과	310
제 9 절 터 키	314
1. 참전경위	314
2. 지상군의 활동	316
3. 참전결과	325
제10절 타 이	329
1. 참전경위	329
2. 지상군의 활동	331
3. 해군의 활동	337
4. 공군의 활동	341
5. 참전결과	343

제11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348
	1. 참전경위	348
	2. 공군의 활동	350
	3. 참전결과	358
제12절	그 리 스	361
	1. 참전경위	361
	2. 지상군의 활동	363
	3. 공군의 활동	374
	4. 참전결과	377
제13절	벨기에·룩셈부르크	380
	1. 참전경위	380
	2. 지상군의 활동	383
	3. 참전결과	390
제14절	에티오피아	394
	1. 참전경위	394
	2. 지상군의 활동	396
	3. 참전결과	402
제15절	콜롬비아	406
	1. 참전경위	406

2. 지상군의 활동	409
3. 해군의 활동	416
4. 참전결과	417

제 4 장 의료지원국의 활동

제 1 절 스웨덴	421
1. 참전경위	421
2. 주요활동	423
3. 연 표	426
제 2 절 인 도	427
1. 참전경위	427
2. 주요활동	428
3. 연 표	435
제 3 절 덴 마크	437
1. 참전경위	437
2. 주요활동	438
3. 연 표	444

제 4 절	노르웨이	445
	1. 참전경위	445
	2. 주요활동	447
	3. 연 표	449
제 5 절	이탈리아	450
	1. 참전경위	450
	2. 주요활동	451
	3. 연 표	454

제 5 장 물자지원국의 활동

제 1 절	유엔의 물자지원 결의	456
제 2 절	유엔의 지원체제	459
	1.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459
	2. 유엔한국재건단(UNKRA)	461
제 3 절	물자지원국(기관)의 활동	463
	1. 유엔회원국의 지원	464
	2. 국제기구의 지원	467

제 4 절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의 활동	473
1.	물자지원 요청	473
2.	구호물자의 도입	476
3.	전재민 구호	479
4.	난민 재정착 지원	481
5.	보건 및 의료시설 지원	482
6.	직업훈련 및 농사지도	484

제 6 장 유엔군의 참전과 영향

제 1 절	유엔군의 참전	485
제 2 절	참전결과	488
제 3 절	참전영향	492
●	참고문헌	500

제 1 장 유엔군의 참전배경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벗어난 각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5년 10월 24일 5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연합(UN: The United Nation)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유엔과 한국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부수립 이전의 1947년부터이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북한군이 불법남침을 개시한 한국전쟁이었다. 이들의 침략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자 유엔은 미국의 주도적 역할 아래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하였고,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을 주축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5개국은 휴전이 조인될 때까지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 1 절 대한민국과 유엔

1. 한국문제 유엔 이관

1943년 11월 카이로(Cairo)에서 개최된 전후처리회담에서 열강들은 한국의 신탁통치를 선언하였고, 뒤늦게 대일전(對日戰)에 참전한 소련마저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에 동의함으로써 전후

2 UN軍支援史

한국의 신탁통치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리고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한국을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였고, 소련, 영국, 중국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미국의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게 되었다.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24일 평양, 25일 개성, 그리고 28일까지는 해주, 김화, 화천, 양양까지 전개하여 38도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이 지휘하는 제1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 이들은 26일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제를 완료하였으며, 군정 실시기관으로 로마넨코(A. A. Romanenko) 소장이 사령관인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¹⁾

한편 미국도 오키나와(沖繩) 주둔 제24군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선발대는 소련군보다 22일이나 늦은 9월 4일 김포비행장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로부터 4일 늦게 인천에 상륙한 제7사단은 서울·경기·충청 일원에, 9월 말에 도착한 제40사단은 경상도에, 마지막으로 10월 16일에 도착한 제6사단은 전라도 지방에 각각 배치되었다.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9월 7일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다는 선포문을 발표하였고,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9월 12일 제7사단장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

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8.

에 임명함으로써 미국도 본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²⁾

미국은 남한에 진주(進駐)한 후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미 일련의 전후처리회담을 통하여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를 협의·처리하기 위한 회담의 개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김일성(金日成)을 내세워 북한을 위성국가화하려는 계획에만 주력하고 회담의 개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미국은 12월에 3국 외상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3국 외상들은 카이로선언을 이행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 5개년 신탁통치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³⁾

한국 내에서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의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은 처음부터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계열만 협의대상으로 하자는 소련측 주장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이 맞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개최 50일 만인 5월 8일 무기 휴회되었다.

수차에 걸친 회담재개 요청을 거부해 오던 소련은 1947년 3월 미국이 외교정책을 소련의 팽창정책에 정면대응으로 수정하자 회담 재개에 동의하였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벽두부터 제1차 회담의 재판(再版)이 되었고,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8월 26일 모스크바협정의 이행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대국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4대국 회담

2)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11.

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pp. 18~19.

4 UN軍支援史

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⁴⁾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국제정세는 급격히 냉전으로 치달게 되었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함으로써 신탁통치를 더 거론하지 않게 되고, 이는 신탁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의사와도 일치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주도하에 독립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소련의 한반도 독점 의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9월 17일 마침내 한국문제를 제2차 유엔총회에 제기하였다.⁵⁾

유엔에서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소련과 협조하여 모스크바협정에 따라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소련과 더 이상의 공동노력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이유를 밝혔다.⁶⁾

한편 그 동안 한반도 공산화를 꿈꾸어 온 소련은 이에 맞서 9월 26일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을 1948년 초까지 완전 철수시킴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이 한국문제는 한반도를 군정으로 통치중인 미·소의 영역에서 벗어나 유엔으로 이관됨으로써 유엔이라는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4)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 18일 미국측 대표단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위원회의 업무의 중지를 제의하자 소련측이 21일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5) 외무부, 「한국외교의 20년」, 1966, p. 12.

6) 국방부, 「국방사」(제1집),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 123~124.

2. 한국임시위원단(UNTOCK)의 설치

1947년 9월 23일 한국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제1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토의·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미국은 10월 16일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결의안의 요지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며, 이러한 정부가 수립된 후에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다.”는 것이었다.⁷⁾

이에 대하여 소련은 “유엔은 한국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으며, 모든 외국군은 통일된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철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모든 강대국들을 한반도로부터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의하였다.

10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유엔 정치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선 정부수립 후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반면 소련은 ‘선 외국군 철수 후 정부수립’안을 내세웠다. 또한 미국은 남북대표의 선출을 위해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소련은 유엔 토의에 남북한 대표를 동시에 초청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때 유엔총회는 한국 국민의 독립에 대한 요청이 긴급하고 정당함은 물론 점령군의 조기철수의 당위성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와 총선거에 관한 결의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였다.⁸⁾ 이를 계기로 한반

7) 국방부, 「국방사」(제1집), p. 124.

8) 외무부, 「한국 외교 30년」, p. 23.

6 UN軍支援史

도 문제는 ‘유엔 관리하에 정부수립’이라는 방침 아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총회결의 제112호 II(요지)

- ① 정부수립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도록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국 국민의 대표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 ② 공정한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 전역에 걸쳐 여행, 감시,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는 9개국(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대표로 구성된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설치한다.
- ③ 한국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1948년 3월 1일 이전에 동 위원단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다.
- ④ 선거 후 이들의 대표자들이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원단에 통보한다.
- ⑤ 정부는 남북한 군정당국으로부터 정부의 제 권한을 이양받고,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여 가급적 조속히(가능하면 90일 이내) 점령군이 철수하도록 관계국들과 협의한다.
- ⑥ 위원단은 사태발전에 따라 유엔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

이 유엔의 결의(1947. 11. 14)에 따라 인도의 메논(K. P. S. Menon)을 의장으로 하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벽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위원단은 소련 점령군사령관의 거부로 북한지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남한지역에서만 그들의 활동이 보장되었다. 이에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 조치에 따라 남한지역에서는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제헌국회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제정한 헌법

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 무렵 소련은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점령군의 철수를 제기한 이후 유엔에서도 매년 점령군의 철수를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1948년 9월 북한 정권의 외국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소련군은 12월 말까지 철군을 완료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아울러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10월 19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⁹⁾

이에 한국 정부는 소련의 동시 철군 제안의 음모를 폭로한 다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남북한 간에 평화교섭이 달성될 때까지 미군의 계속 주둔 결의안을 채택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철수 연기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10월 30일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는 12월 12일에 대한민국을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¹⁰⁾

총회결의 제195호 III(요지)

- ① 유엔임시위원단의 보고를 승인하고
- ②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치력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동 정부가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한다.
- ③ 점령군이 가급적 조속히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 ④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시리아의 7개국

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2.

10) 외무부, 「한국의외교 30년」, pp. 182~183.

8 UN軍支援史

으로 구성되는 유엔한국위원단(UNCO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을 새로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활동을 승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완전 독립과 통일을 실현하려는 동 위원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미군 철수일정의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자 소련은 이 결의 직후인 12월 16일 한반도에서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고, 미군의 조기철수를 강요하였다. 이에 미국도 우리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주한미군의 조기철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구체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 제24군단의 주력은 1949년 1월 15일 철수하고 7,500명 정도의 1개 연대전투단과 임시 군사고문단만 잔류시켰다. 그러나 이들도 6월 30일까지는 철수시킬 계획이었다.¹¹⁾

3. 한국위원단(UNCOK)의 활동

당초 계획대로 주한미군의 마지막 세대인 연대전투단이 유엔한국위원단 제3분과위원회의 감시하에 6월 29일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한국에는 7월 1일부로 472명으로 편성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국군의 편성과 훈련에 관한 자문역할과 미 군사원조의 효율성 보장 임무를 맡게 되었다.¹²⁾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북한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38도선에서 무장도발을 빈도와 규모 면에서 점점 확대하였고, 이러한 긴장 속에

1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52~53.

1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 56.

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9월 제4차 유엔총회가 개시되자 한국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대유엔 외교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제4차 유엔총회는 1949년 10월 21일자 결의 제293호(Ⅳ)로써 ① 유엔위원단을 존속 및 강화시킬 것 ② 동 위원단이 한국에서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지 모르는 사태의 진전을 감시·보고하고,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및 기타의 우호관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대의제정부(代議制政府)의 계속적 발전을 위하여 전 한국에 걸쳐 감시와 협의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¹³⁾

이 결의에 따라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터키로 새로 구성된 유엔한국위원단은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는 1950년 5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유엔한국위원단의 감독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130명의 국회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총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군사적 통합과 유엔한국위원단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¹⁴⁾

이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5월 12일 유엔한국위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군사력, 38도선 일대의 적 배치상황, 최근의 활동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유엔한국위원단은 유엔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1, 2차에 걸친 유엔결의 내용의 목적이 완전히 수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반도 분할에 기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우호적 교류에 대한 장애요인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국 점령군의 철수는 감시 및 입증할 수 있었으나 소련 점령군의 철수는 감시 또는 입증

1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p. 184

14)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62.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현 정세는 대한민국의 안녕, 복지를 위협할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38도선을 감시해 온 유엔한국위원단은 38도선 충돌사건이 증가하자 북한의 의도를 탐지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소련을 통한 외교적 탐색을 건의하였다. 또한 6월 초에는 남한의 해방을 요구하는 북한의 라디오 방송 빈도가 증가하자 경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시반을 증가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을 예의 주시하게 되었다.¹⁵⁾

제 2 절 유엔의 참전결의

1. 한국전쟁의 발발

북한의 남침 전쟁계획은 1948년 9월 김일성 정권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김일성·스탈린·모택동 3자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는 장비를, 중공으로부터는 병력을 지원받아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 1개 비행사단, 그리고 110척의 함정 등 총 19만 8천여 명의 군사력으로 전쟁을 준비하였다.¹⁶⁾ 이는 국군에 비해 병력은 2배, 장비는 수치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한 것이었다.

전쟁준비가 완료되자 북한은 1950년 5월 말에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극비리에 구체적인 3단계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¹⁷⁾

15)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54.

1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32~33.

17)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78.

이에 따르면 북한군은 제1단계로 국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포위 점령 및 국군 주력부대를 섬멸한 후 제2단계로 일제히 남진하여 국군예비대를 격멸하며, 제3단계로 미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속전속결로 부산까지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한군은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남파하여 배합전선 형성에 대비하는 한편, 군단급 훈련을 가장하여 공격부대를 6월 23일까지 38도선 북쪽 10~15km에 위치한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정찰명령과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자위력 확보를 위해 대미군원(對美軍援) 교섭을 벌이고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심화되었다. 이때 미국은 전쟁발발 직전까지도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여,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의 전력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북한의 남침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날 무렵인 1950년 5월 10일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은 외신기자들과의 회담석상에서 “북한군은 그 병력을 38도선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이승만(李承晩) 대통령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5~6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원조만이 북한의 침략을 방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이런 와중에서도 국군은 1950년 3월에 마련된 군 방어계획에 따라 주저항선의 방어진지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개전 전까지 국군의 방어진지 구축은 적의 곡사화기에 병력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중심방어력도 부족하였다.

1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92.

특히 주요 접근로상의 대전차방어 대책이 미흡하여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짙은 안개가 산골을 메운 악천후를 이용하여 그들의 공격계획대로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야포와 박격포의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일제히 T-34 전차를 앞세운 기습남침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한국전쟁의 막이 오르게 되었고, 이 소식은 주한 외교사절이나 특파원들에 의하여 전 세계로 전파됨으로써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되었다.

2. 북한군 침략행위정지 결의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순간에 무너지자 주한 미 대사 무초(Jhon J. Muccio)는 이 사실을 국무부로 보고하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의 남침을 자력으로 격퇴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 주미대사 장면(張勉)에게 직접 미국 정부에 원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유엔한국위원단도 이날 21:00에 중앙방송을 통하여 “북한은 즉각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한 다음 평화회의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¹⁹⁾

북한은 6월 25일 04:00경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였다. ...모든 공격은 38도선을 기점으로 서울로 접근하는 도로를 통하여 자행되었다. ...위원단은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어 전면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19)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p.167~168.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위원단은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보다 조금 앞서 미국도 주한 미대사관과 극동사령관의 상황보고를 통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유엔사무총장 리에게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²⁰⁾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지 하루 만인 6월 26일 04:00(25. 14:00 현지시간)에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최와 더불어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엔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미국 대표 그로스(Ernest A. Gross)가 무초 대사의 보고를 기초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한 후 결의안 초안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이런 중대사태의 피해당사자인 한국 대표를 참석시켜 직접 호소를 듣자고 제의하였다. 이때 유고슬라비아 대표가 북한 대표도 참석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거부되었다. 결국 장면 대사만이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장 대사는 미리 준비해 온 “북한의 우리에게 대한 침략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한국 정부 수립에 유엔이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2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66.



한국에서 북한군 철수를 결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평화유지에 기본적인 책임을 지닌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요지의 성명문을 낭독하였다.²¹⁾

이후 미국의 제안을 영국이 약간 수정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²²⁾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련 대표가 불참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 결의는 가결될 수 있었다. 이때 소련 대표는 1950년 1월부터 자유중국이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보유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주소(駐蘇) 미국대사를 통하여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

21)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168.

22)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69.

청하는 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²³⁾

공산 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

안전보장이사회는……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며
2. 유엔한국위원단
 - 가.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없이 보낼 것
 - 나.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
 -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동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북한 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이는(‘6·26결의’)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 안전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는 첫 번째 유엔의 결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결의의 초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지하고 전쟁 전의 38도선 북으로 철수시키도록 하는 데 있었다.

3. 대한(對韓) 군사원조 결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 결정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유엔사무총장도 한국 정부 및 국회의 지원요청과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접수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02:00경(26, 12:00 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한표옥(韓豹瑬) 참사관에게 전화로 “일이 맹랑하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우긴 하나 모자라는 것

23)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170.

이 너무 많다. 즉각 장 대사와 함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을 만나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긴급훈령하였다. 이에 장면 대사는 백악관을 방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회가 미국 의회와 유엔에 보내는 “북한의 침략을 격퇴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즉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을 전달하였다.²⁴⁾

그리고 유엔한국위원단은 ‘6·26 유엔결의’ 후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 노력이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침략을 중지하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므로 유엔의 결의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유엔으로 제출하였다.²⁵⁾

…북한의 진격은 신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내일 서울에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으로 보아 유엔한국위원단은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동 위원단의 중재를 수락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양측이 중립국의 중재하에 평화협상에 동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어떤 회원국 정부가 긴급중재를 하도록 요청할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위원단은 서울에서 대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요한 작전이 사실상 며칠 안에 끝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대로 휴전과 북한군의 철수문제가 실현성이 없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6·26 유엔결의’를 수행하기 위한 해·공군의 지원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한국이 북한의

24) 한표옥,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pp. 86~87.

25) 국방군사연연구소, 앞의 책, p. 173.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8일에 열렸다. 먼저 미국의 오스틴(Warren R. Austin) 대표가 한국사태의 진전상황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 남침행위를 비난하면서 '6·26결의'와 같은 아무런 효과 없는 결의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⁶⁾ 이어서 장면 주미대사도 '안보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이번에는 유고 대표가 북한 대표의 초청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내놓아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으나 그의 제안은 무산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인 28일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인도, 이집트)로 가결하였고, 이때도 소련은 불참하였다.

한국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문²⁷⁾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북한 당국에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도선 북쪽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대한민국도 유엔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유엔은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바이다.

26)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105.

27) 국방부, 「한국전쟁사」(제1권), (전사편찬위원회, 1977), p. 954.

이와 같이 ‘6·28결의’의 핵심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주소 미대사를 통하여 소련 정부에 각서를 전달하고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한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예상대로 거부되었다.

‘6·28결의’는 ‘6·26결의’와 더불어 유엔이 창설된 이후 국제평화의 파괴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 안전보장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 대 국군 및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되었다.²⁸⁾

4. 미국의 군사조치

1949년 초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북한군의 남침을 우려한 정부와 국회는 군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미국 정계 및 의회 인사들의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동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여 국군의 전력증강은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6일 새벽에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오늘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당신 나라에서 좀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라는 항의조의 지원요청을 하였다. 또한 주한 미 대사 무초와 당시 일본

2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75.

을 방문중인 국무부 관리도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건의하였다.²⁹⁾

미국은 유엔의 참전결의에 앞서 26일 정오경 트루먼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무, 국방, 각군 장관 및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들이 블레어하우스에 모여 군사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과 유사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였듯이 이를 허용하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창설과 원칙마저도 위태롭게 된다고 판단하고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최초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은 즉시 극동군사령관에게 아래와 같이 전달되었다.³⁰⁾

- ① 한국에 군사장비 지원, 주한 미 군사고문단의 잔류, 미군의 군사작전 통제, 미국인의 안전한 철수 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한국에 조사단의 파견을 인가한다.
- ② 서울-김포-인천지역의 상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약과 장비를 한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적절한 해·공군의 엄호를 인가한다.
- ③ 미국인 가족과 주한 미대사관이 결정하는 다른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김포-인천지역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가한다.
- ④ 제7함대는 즉시 사세보(佐世保)로 진출하여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도록 명령한다.

이에 극동군사령부는 26일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미국의 비전

2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71.

30)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72.

투요원들의 수송을 지원하였고, 27일에는 전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파견하였다. 이때 조사반은 잔류중인 미 군사고문단의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수원에 전방사령부(ADCOM)³¹⁾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처치 장군은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장군과 연합사령부 설치에 합의하였다.³²⁾

이런 일련의 군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히 악화되어 27일에는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서울이 곧 실함될 것”이라는 보고와 한국 정부 및 국회로부터 긴급 지원요청을 접하게 되자 미국은 경악스런 상황보고와 북한이 ‘6·26 유엔결의’를 따를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날(27일) 두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³³⁾

이 회의에서 미국은 극동의 해·공군에 내려진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의 해·공군의 제한적 운용조치를 철회하고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 전차, 포병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군에게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극동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³⁴⁾ 이 조치에 이어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행위 종결을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나는 극동의 해·공군부대에 한국군의 엄호와 지원을 하도록 명령하였다.”라는 성명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6·26결의’에 근거하여 2단

31) 이 기구의 정확한 명칭은 ‘극동군 주한 전방지휘 및 연락단(Advance Command and Liason Group in Korea GHQ)’이지만 전방지휘소(ADCOM)로 약칭한다.

3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103.

3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78.

34)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79.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승선하는 미군

계 군사조치인 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였고, 이는 극동군사령관에 의해 즉시 시행에 옮겨졌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의 ‘6·28결의’에 의거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로써 29일에는 맥아더 장군이 직접 한국 전선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그는 30일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선시찰 보고서를 미 국방부로 제출하였다. 이날 지상군의 파견도 맥아더 장군에게 일임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명실공히 제한된 육·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지체없이 제8군사령관에게 주일미군 중 규슈(九州)에 주둔중인 제24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하도록 명령하였고, 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는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스미스부대는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전방사령부가 있는 대전으로 출발하였고, 이어서 사단 주력부대들도 속속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제 3절 유엔군의 구성

1. 유엔의 지상군 파견요청

미국을 제외한 유엔회원국 중 ‘6·28결의’에 의거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제의한 나라는 영국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영연방국가들이었다. 영국은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및 프리깃함 5척으로 구성된 해군기동부대의 파견을 통보하였고, 29일에는 오스트리아가 구축함 1척과 프리깃함 1척으로 구성된 해군과, 일본에 주둔중인 무스탕 전투기 1개 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수라바야에 기지를 둔 구축함 1척의 지원을 제의하였고, 대만도 33,000명의 지상군 파견을 제의하였다.³⁵⁾ 이를 심사한 미 합참본부는 다른 국가의 파견제의를 승인하였으나 대만의 파견제의를 정치적 문제, 대만의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제의가 더 나오지 않자 유엔사무총장은 7월 14일 유엔의 ‘6·26결의’와 ‘6·28결의’에 지지를 표시한 53개국에 “나는 통합군사령부가 추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귀 정부가 전투부대, 특히 지상군부대를 포함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³⁶⁾

이때 맥아더 장군은 유엔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될 지상군부대는 자체 지원포병을 구비한 증강된 보병대대 규모(약 1,000명)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부대들은 미군 사단이나 연대에 배속될 것이므

35)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p. 115~117.

36)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122.

로 전투시 연락을 위한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요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 합참은 한국전쟁의 국제적인 국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징적 의미인 1개 중대규모의 파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7월 중순 이후 한국전쟁 참전을 지원하는 회원국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해군을 최초로 지원한 것처럼 7월 25일 보병 3개 대대로 구성된 1개 여단, 1개 기갑연대, 지원포병 및 기타부대 등 총 7,000명 규모의 부대를 제의하였고, 그 선발대는 홍콩에 주둔중인 2개 대대로 편성된 1개 여단으로 8월 20일 파견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도 1,000명으로 구성된 1개 보병대대를, 뉴질랜드는 1,000명으로 구성된 1개 포병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8월 초에는 캐나다가 3개 대대로 구성된 1개 여단과 1개 장거리 수송대대의 지원을 제의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영연방국가인 터키, 타이, 필리핀, 그리스가 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다. 터키는 자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500명 규모의 연대전투단을, 타이는 4,000명 규모의 전투단 파견을 제의하였다. 미 합참은 타이군은 장비와 훈련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나 아시아인의 부대라는 정치적 가치를 인정하여 수락하였다. 타이군의 참전은 유엔의 조치가 아시아에 대한 ‘백인의 전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이었다.³⁷⁾ 같은 맥락에서 필리핀의 5,0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의 파견 제의도 수락되었다. 그리고 그리스가 6대의 C-47 수송기와 3,800명으로 구성된 증강된 1개 산악보병여단을 제의하였다. 미 합참본부

37)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130.

는 자국 내의 전력감소를 우려하였으나 그리스에서 공산계릴라 소탕전을 벌인 바 있는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의 요청에 의거 그리스의 파견제의도 승인되었다.

당시 서부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이 일천하여 한국전쟁의 참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7월 14일 프랑스가 1척의 초계정 파견에 이어 1개 보병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20일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합동 군사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미 합참의 요망에 따라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각각 1개 대대규모의 독립된 부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 50명으로 구성된 룩셈부르크의 부대는 벨기에 대대에 통합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³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미국이 전투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투기 없이 조종사와 지상근무요원만으로 된 전투기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 무렵 비전투부대의 파견을 제의한 덴마크는 의사와 간호원을 갖춘 병원선을, 스웨덴은 야전병원을, 노르웨이는 부대수송용 선박을, 그리고 중립국인 인도는 앰블런스 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8월 23일까지 7개국으로부터 약 25,000명의 지상 전투병력을 지원받게 되었고, 9월 5일까지는 4개국의 파병도 추가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파병을 제의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3개월 내에는 도착되지 못하였다.³⁹⁾

38)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131.

39)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163.

2. 유엔군사령부(UNC)의 창설

국군이 7월 초 한강방어선에서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유엔의 ‘한국 군사원조 결의’에 의거 미국의 육·해·공군이 참전하였고, 이어 영국의 해군, 오스트레일리아의 해·공군, 뉴질랜드 해군도 참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유엔회원국들도 참전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휘·통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 리는 한국지원협조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지원의 협조는 물론 다른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현지 지휘관으로부터도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유엔사무총장 리는 7월 3일 전쟁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미국이 유엔군을 지휘하되 한국지원협조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자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⁴⁰⁾

그러나 이 결의안은 미국 정부와 현지 지휘관 사이에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작전지휘상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미국측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⁴¹⁾

대신 미국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전쟁의 전반적인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사항도 현지 작전사령관이 아닌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7월 7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회원국들의 군사행동에 통

4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00~101. 한국지원협조위원회 (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

4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235~236.

일성과 집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군사령부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 설치 결의안(요지)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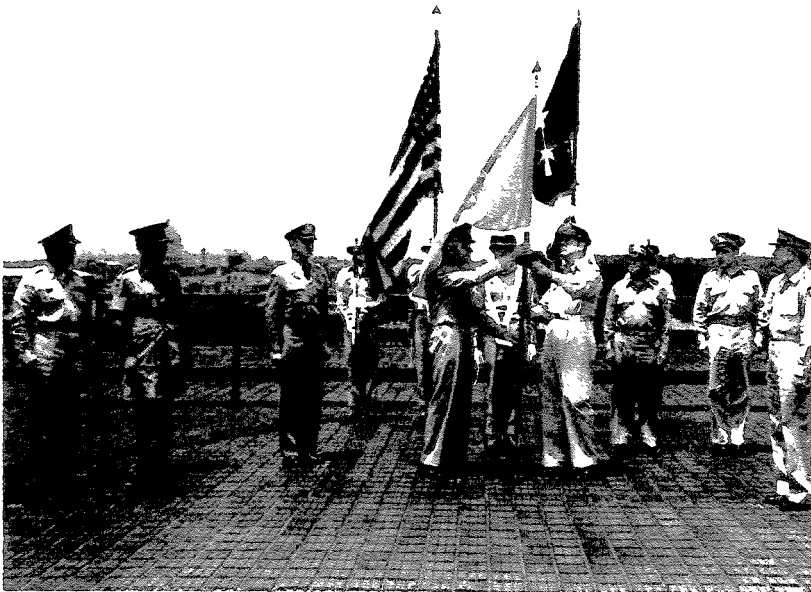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로 확정하고…

- ① 모든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군사력과 기타지원을 미국 책임하의 통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가 운용할 것을 권고하며,
- ② 미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통합군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 ③ 통합군사령관은 그의 재량으로 북한군과 작전중에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가하며,
- ④ 미국이 통합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실시된 작전경과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제하에 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제반 군사작전을 합동참모본부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을 대신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침을 제시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전투 및 근무지원부대의 파견제외도 국무부와 국방부를 거쳐 합동참모본부로 통보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들의 적부를 심사하여 파

42)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110.



클린스 장군이 유엔기를 맥아더 장군에게 인계

견여부를 건의하게 되었다.⁴³⁾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은 ‘7·7 유엔의 결의’에 따라 당일 유엔 주재 미 대사를 통하여 유엔기를 전달하였고, 합동참모본부는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추천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7월 12일 맥아더 장군에게 상세한 작전지침을 하달하여 “미국의 작전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에게 “13일부로 주한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고, 워커 장군은 7월 13일 도쿄(東

4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36.

京)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고 미 지상군은 물론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유엔 지상군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⁴⁴⁾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 중 아직 미국 이외 여타 회원국들은 해·공군만이 참전하고 지상군은 참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회원국의 참전결정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송에도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⁴⁵⁾

당시 유엔회원국들이 유엔의 '6·28결의'에 의거 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말까지 군대를 파견한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유엔군 참전현황(1950. 7. 31. 기준)

군 별	국 가 별 참 전 현 황
지 상 군	미국 : 제24사단(제19, 제21, 제34연대), 제25사단(제24, 제27, 제35연대), 제1기병사단(제5, 제7, 제8연대)
해 군	미국 : 1개 함대 및 지원함대. 영국 :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소형함 3척. 오스트레일리아 : 구축함 1척, 소형함 2척. 프랑스 : 소형함 1척. 네덜란드 : 구축함 1척. 캐나다 : 구축함 3척. 뉴질랜드 : 소형함 2척.
공 군	미국 : 1개 전술항공비행단, 2개 폭격비행단, 1개 비행수송대대. 영국 : 1개 전투비행대대, 1개 비행수송중대. 캐나다 : 1개 비행수송중대. 오스트레일리아 : 1개 전투비행대대, 1개 비행수송중대.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38.

4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38.

45)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37.

3.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한국 정부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미 제8군사령부도 대구로 이동하여 지상군의 작전을 담당하게 되자 국군의 작전권 이양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군은 각 군별로 미군과 실질적인 연합작전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7월 13일부터는 육군본부도 제8군사령부와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이때부터 통합작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이승만 대통령은 14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시하의 정책적인 조치로써 구두로 먼저 정일권(丁一權) 총참모장에게 유엔군사령관부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하달한 다음, 주한 미대사 무초를 통하여 맥아더 장군에게 정식으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⁴⁶⁾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군사 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18일 무초 대사를 통하여 수락의 뜻을 표명하는 회신을 보내 옴으로써 그 효력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북한군과 싸우는 전 부대에 대한 지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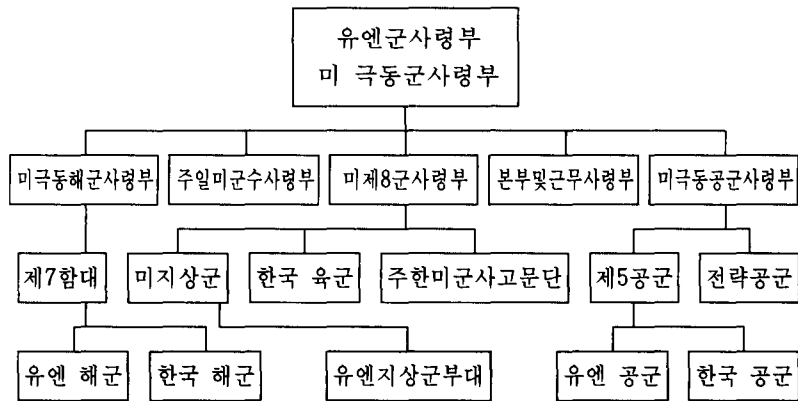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한 유엔군사령관은 정일

46)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39.

권 총참모장에게 작전협조를 요망하는 구두통보와 함께 제8군사령관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요지의 일반명령을 하달하여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의 육군부대는 제8군사령관, 해군부대는 제7함대사령관, 공군부대는 제5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작전을 통제하였다. 그 중 한 방법은 통상적인 경우로서 제8군사령관이 한국 육군 총참모장에게 한국 육군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통제사항을 요청하여 육군 총참모장이 이를 한국군 지휘계통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한국군이 미군의 군단이나 사단에 배속될 경우로서 이때는 미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전통제가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느 것이든 한국전쟁 기간 중 지휘체제상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은 없었다.⁴⁷⁾

<표 1-2>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계⁴⁸⁾



4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40.

48)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37.

이 무렵 신성모 국방장관의 담화 발표에 이어 16일 육·해·공군 총참모장은 국군의 지휘 혼란을 우려하여 “...우리 국군은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7월 14일 연합군의 일원으로 유엔군사령관 지휘하에 들어가 확고부동한 작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엔군사령관 지시로 본관이하 군의 주요부대가 작전행동을 하고자 부득이 대구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일선부대나 지휘계통에는 추호의 변동도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⁴⁹⁾

이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 대통령의 서한과 이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동의서한 내용은 25일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하여 유엔에 전달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와 같이 맥아더 장군은 국군의 지휘권마저 이양받게 되자 24일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인원이 제한되어 독립적인 참모부를 편성하지 못하고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요원들에게 이중임무를 부여하여 참모로 임명하였다.⁵⁰⁾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 부대 중 지상군은 제8군사령부를, 해군은 극동해군사령부를, 공군은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하여 그들의 작전을 통제·지원하게 되었다.

4. 유엔군의 제문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5개국의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하나의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결합시켜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들 국가의 군대들은 자국의 사정, 한국으로의 이동거리 등이

49) 정일권, 「전쟁과 휴전」, p. 78.

5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03.

각각 상이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한국에 도착함으로써 부대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 일부 영연방국가에서 파견된 군은 기초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장비도 잘 갖추고 있어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곤란이나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어 협조도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 9월에 필리핀 대대가 도착하였을 때는 새로운 부대의 장비와 훈련을 소개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대구에 유엔군수용소를 개소하여 터키, 타이, 인도,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에티오피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군대들을 화기조작은 물론 현지적응훈련을 시켜 전투준비를 지원해 주었다. 전투준비가 완료된 부대는 대대급은 미군 연대에, 여단은 미군 사단에, 영연방부대는 사단으로 통합시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이들을 지원받은 미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방어나 공격임무에 적절히 운용하였다.

한국의 지형이 산악지형이고 또 겨울은 몹시 추워서 일부 유엔군 부대들은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부대 중 터키와 그리스 군은 한국의 기후와 지형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었던 반면 타이, 인도와 같이 평지와 더운 지방에서 온 회원국 부대들은 기후와 산악지형에 익숙하는 데 무척 고생하였다.

또한 필리핀과 그리스와 같이 대부분 유엔군은 본국에서도 미군 장교들이 훈련을 시켜 온 관계로 미국 화기와 장비 및 전술교리에 익숙하였지만, 일부 국가의 군대들은 미군의 장비조작과 훈련에 있어 일정한 기간과 시련 그리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뒤에야 익숙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엔군은 언어상의 장벽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통역장교를 운용하였지만 지휘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다국적군을 형성함에 있어 개별국가들의 풍속

과 전통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었다. 종교적인 차이는 물론 국민들의 식성마저 달라 보급문제 특히 급양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회교국인 터키군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힌두교국인 인도군은 쇠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군인들은 미군보다 더 많은 빵과 감자를 좋아했으며, 타이군은 쌀과 매운 고추장의 보급을 원하고 있었다.

이때 한국으로 파견되는 부대의 규모도 문제가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최초 장비와 지원포병대를 갖춘 1,000명 정도의 파병을 원하였으나, 미국,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대급을 파견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자체 포병은 물론 행정 및 군수지원 부대가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미군이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리지웨이 장군과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봄에 대대급을 파견한 국가들은 최소한 연대 전투단이나 여단 정도로 그들의 병력을 증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⁵¹⁾

51)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55.

제 2 장 유엔군의 지원경과

제 1 절 북한의 남침과 지연작전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처음에는 국군과 북한군의 대결이었으나 유엔의 군사원조 결의에 의거 미국을 필두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대결양상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여 적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벌여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였다. 이때부터 북한군은 9월 중순까지 이 방어선에서 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두 차례나 전 역량을 투입시켜 총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유엔군의 강력한 화력과 저항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력이 와해되었다.

반면 유엔군은 이 동안 증원부대의 도착으로 부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각 전투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체제도 정비하는 등 공세이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민간인 구호에 대한 결의안’에 따라 민간인 구호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1. 한·미 연합전선 구축

38도선에서 물러난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을 무렵 전선을 시찰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일격에 북한군을 격멸하

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이때 그는 1단계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유엔군의 전력을 보강하며, 2단계는 유엔군의 강력한 제공·제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 후방에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조기에 만회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상군의 선발대인 스미스부대가 7월 4일 오산에 배치되면서 개전 이후 최초로 한·미연합전선이 형성되었고, 미군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국군은 그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분담하여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국군과 미군은 연합하여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고 최대의 시간을 획득하며 그 동안 적에게는 최대의 손실을 가하면서 지연전을 벌이게 되었다.¹⁾

이때 연합전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아군이 중요예상접로를 점령하고 있었으나, 부대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부대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북한군은 오산전투 후 처음으로 미 지상군이 참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면 미군도 이 전투를 통해서 북한군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초기 작전에서 실패한 미군은 축차진지인 평택-천안-조치원과 차령산맥 선에서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고 금강-소백산맥 선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7월 13일 그 동안 작전을 주도한 주한 미군사령부(USAFIK: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를 해체하고 대구에 미 제8군사령부(EUSAK: Eighth US Army in Korea)를 설치하였다. 지상작전을 통제하게 된 제8군사령관 위커 장군은 “제8군은 적을 저지하고, 현 방어선을 확보하여 군사상황을 안정

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203.

시킴과 아울러 차기공세를 위하여 필요한 전력을 증강한다.”는 작전방침하에 금강-소백산맥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²⁾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유엔군은 이 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전을 시도하였지만 무더운 날씨와 연이은 후퇴작전으로 사기마저 저하되어 북한군의 독전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술적 요충인 대전이 실패된 데 이어 영동과 추풍령마저 피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4사단장인 딘(William F. Dean) 장군마저 실종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제8군은 7월 26일 전선을 정리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축차진지인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³⁾

2. 유엔군의 병력 증강

당시 미국 군부는 물론 한국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선을 이탈한 맥아더 장군도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결과 맥아더 장군은 미 국방부에 1개 연대전투단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한강방어선)에 즉시 증원하고 조기반격을 위하여 일본에서 2개 사단규모를 가능한 증파할 계획임을 보고하여 승인받았다.⁴⁾

이 방침에 따라 주일미군(제1기병, 제7, 제24, 제25사단) 중 먼저 제24사단이 7월 4일 한국전쟁에 투입되었고, 다른 사단들도 한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세가 불

2)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44.

3)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1963, p. 107.

4)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1990, p. 101.

리해지자 맥아더 장군은 그가 최초로 북한군을 저지·격퇴시키는 데 필요한 병력의 소요판단을 수정하게 되었다.⁵⁾

맥아더 장군은 첫 번째 조치로써 7월 2일 해병항공부대를 포함한 1개 해병연대전투단의 긴급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3일 후에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어떤 계획된 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사단, 제2특수공병여단, 그리고 제82공정사단의 1개 연대를 증원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미 합참은 해상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이들 부대의 파견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7월 “...북한군의 강력한 침략의지를 저지하고 격퇴하려면, 나의 판단으로는 4~4.5개 상당의 완편된 보병사단, 공수능력을 구비한 1개 공정연대전투단, 3개의 중전차대대로 구성된 기갑연대, 그리고 증원포병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연이어(9일) “한국의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10:1 이상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남단의 방어에 충분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질지 점차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나는 이미 획득한 부대 외에 4개 사단으로 구성되고 해당 근무부대를 보유한 1개 군을 가용한 모든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이 지역으로 파견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거듭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 이동준비를 완료한 미 제25사단이 10일 두 번째로 한국에 파견됨으로써 맥아더 장군이 최초 계획된 부대들은 전부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들은 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5)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 120.

당하여 밀리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신속한 남하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초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금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면 상륙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던 제1기병사단마저 포항으로 이동시켜 이들을 증원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맥아더 장군은 극동군사령부를 방문한 콜린스(Lawton J. Collins) 장군과의 회담에서 이미 투입된 3개 사단으로 전선을 안정시키고, 미국에서 증원되는 부대를 상륙·반격작전에 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하였다. 따라서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을 격멸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증원요청한 부대수는 총 8개 사단에 1개 군사령부를 추가한 것이었다.⁶⁾

그리고 19일 맥아더 장군은 7월 말이면 미군의 증원, 유엔군의 증원, 한국군 등으로 구성이 복잡해질 것에 대비하여 이들을 확고하게 전술적으로 통제할 군단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심하고 미 육군에 의무부대, 헌병부대, 2개의 통신대대가 배속된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조기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⁷⁾

콜린스 장군이 귀국하면서부터 미 합참과 극동군사령부 간에 극동군사령부의 증원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제29연대가 7월 24일, 제5연대전투단이 7월 31일 한국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주에는 제1임시해병여단과 제2사단의 2개 연대가 도착하여 낙동강방어선으로 급히 투입되었다. 제2해병연대전투단은 인천상륙에 대비 일본으로 직행하였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영국이 홍콩에 주둔중인 제27여단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전쟁에 두 번째로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6)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149.

7)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181.

3. 낙동강방어선에서 결전

유엔군은 1950년 7월 말 대한민국의 존립은 물론 유엔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인 낙동강방어선으로 물러나게 됨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때 유엔군이 점령한 낙동강방어선은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일명 ‘부산교두보선’이라고 하며 또 워커 장군이 설정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워커라인’이라고도 한다. 이 방어선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에 연하여 설정되었으며, 남쪽의 마산으로부터 남지-왜관-낙정리-영덕을 잇는 동서간 약 80km, 남북간 약 160km의 ‘ㄱ’모양의 방어선이다. 방어선의 대부분은 하천과 고지군 등 천연장애물로 형성되어 외곽방어선의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산을 중심으로 방어선상의 중요지점인 마산, 남지, 왜관, 영덕에 이르는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어 내선작전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다.⁸⁾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이 낙동강선으로 물러나고 있을 무렵인 27일 제8군 지휘소를 방문하여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한국전쟁에서 제2의 덩커크(Dunkirk) 철수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8군사령관도 29일 상주로 철수한 제25사단을 방문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는다. 철수한다면 대살육이 뒤따를 뿐이다. 반드시 방어선을 지켜라, 그렇지 못하면 그곳에서 죽어라.”라는 사수명령(Stand or Die)을 하달하였다.⁹⁾

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96.

9)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95.

이 방침에 따라 제8군의 낙동강선 방어개념은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고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한 반격준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공세행동으로써 적을 교란하고, 공세로 전환하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방어기간에도 절대로 공격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군은 제공권이 없어 모든 부대의 주간행동이 제한됨은 물론 그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입은 손실과 보충마저 여의치 못하여 전투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8월 초 날이 갈수록 전황이 그들에게 불리해져 가는 것에 조바심이 나자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독전을 명령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쌍방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생사의 기로가 된 이 방어선에서 한국전쟁 기간중 최대의 결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북한군은 부산을 점령하면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집념하에 8월 초와 9월 초에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공세에 대구 시내에도 간헐적으로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영천이 돌파되어 국군 전선도 양분되는 등 낙동강방어선은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전황이 위기로 치닫자 대구 철수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9월 5일 제8군사령부에서는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데이비드선(Davidson Line)¹¹⁾으로의 철수문제를 거론하였지만 제8군사령관은 사령부만 부산으로 이동하고 현전선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¹²⁾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은 막강한 유엔 해·공군의 적극적인

10)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41.

11) Davidson Line은 미 제8군이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산 서북쪽-밀양 북동 고지대-울산 북쪽을 연하여 축성자재를 사용하여 구축한 방어선이다.

1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p. 415~417.

화력지원과 전쟁지도부의 대구 사수의 비장한 결의, 장병들의 죽음을 무릅쓴 투혼에 힘입어 북한군의 저돌적인 최종공세를 마산-왜관-다부동-영천-포항 선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은 적의 기도를 좌절시킴은 물론 작전의 주도권을 넘겨받아 총반격의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4. 후방지원의 강화

당시 한국에 도착하는 주일 미군사단들은 평시 감소편성으로 병력이 부족한 데다 전투손실이 발생하여 병력보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미국에서 보충병이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한국군을 대체한다는 착상에서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제도를 실시하였다. 카투사란 미군부대에 증원된 국군병력이라는 의미로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다.¹³⁾ 이 결과 8월 24일까지 총 8,625명의 국군이 미 제7사단에 배속되었으며, 20일에는 주한미군의 제24, 제25, 제2, 제1기병사단에도 최초로 250명씩 배속되었다. 그 이후에도 카투사는 소총중대 및 포대에 100명으로 책정되었으며, 각 사단은 매 4일마다 500명씩 총 8,300명을 보충받았다.

그리고 노무자의 역할과 규모도 증대되자 부산군수사령부는 8월 중에 사령부 내에 노무과를 신설하여 노무자를 관리하였다. 당시 미군사단에는 평균 500여 명의 노무자가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보급소에서 전방부대까지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산악지대에서 지게

1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47.

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나르기도 하였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의 증원으로 군수지원 수요가 증가하자 8월 25일 주일군수사령부(JLCOM: Japan Logistical Command)를 창설하였고, 이에 따라 요코하마(橫濱)의 제8군 후방지휘소는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일본에서의 기지, 철도 관련 임무를 인계하고 주한 유엔군에 대한 군수지원 임무에만 전념하게 되었다.¹⁴⁾ 그리고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28일 제3군수사령부가 일본에서 창설되었다. 이어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 피난민과 전쟁포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던 부산군수사령부는 9월 18일 제2군수사령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 무렵 극동군사령부는 보급품의 대량수송을 위해 긴급한 물자는 공수하고 그 밖의 품목은 소위 ‘레드볼 특급(Red Ball Express)’이라 불리는 수송작전을 전개하여 요코하마에서 사세보(佐世保)까지 특급열차로 30시간, 다음 배로 옮겨 해상으로 부산까지 23시간 총 53시간을 지상과 해상으로 연계수송하여 매일 300톤을 수송하였다. 8월중 입하한 총량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9월 14일까지 부산에 양륙한 군수물자의 총량은 86만톤에 이르렀다.¹⁵⁾

그리고 피난민의 구호는 개전초기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황, 혼란에 빠진 행정체계, 부족한 물자와 예산 등으로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말 유엔군이 지연전을 마감하고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할 무렵 부산으로 철수한 피난민들의 무질서한 판자촌이 형성되면서 전재민(戰災民) 구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때까지의 민간인에 대한 구호는 미국이 긴급조치로써 제공하

14)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49.

15) Roy E. Appleman, op. cit., p. 260.

는 제한된 담요, 의복, 생활필수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31일 비군사분야인 전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민간원조를 의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민간단체들로부터 식량, 의약품, 생활용품, 원자재 및 금융지원 제의가 답지하였다.¹⁶⁾

제 2 절 유엔군의 총반격과 북진작전기

유엔군은 북한군을 일거에 포위·격멸 및 구축한다는 전략목표하에 전쟁초기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온 인천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5일 개시하였고, 그 다음날인 16일 제8군도 낙동강방어선에서 총반격작전을 개시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유엔군은 근 3개월 동안에 걸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여 북한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38도선으로 진출하여 전전상태(戰前狀態)를 회복하였다.

유엔군은 이번 기회에 북한군을 완전 격멸하고,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방침하에 38도선을 돌파하였다. 북한군을 추격한 유엔군은 평양을 탈환한 데 이어 한만국경선(韓滿國境線)으로 진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은 목전으로 다가오는 듯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적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전황은 급전직하로 역전되었고, 오히려 유엔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16)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1951, p. C103.

이때부터 한국전쟁은 사실상 유엔군 대 중공군의 전쟁양상을 띠게 되어 새로운 단계의 전쟁으로 확전되었다.

1. 유엔군의 총반격 준비

맥아더 장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으로 밀리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국전쟁을 일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책을 구상하였다. 그의 참모들이 수립한 ‘블루하트(Blue Heart)’라는 암호명칭이 부여된 상륙작전의 개략적인 개념은, 남부전선의 지상군이 정면공격을 가하고 이와 병행해서 돌격부대가 적 병참선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하여 인천에 상륙한 후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적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이 계획은 북한군의 신속한 남하로 현 전선의 안정이 다급하게 되어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맥아더 장군은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하는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으로 발전시켰다.

이 계획도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상륙지역인 인천의 해안조건이 상륙작전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미 제8군과의 거리가 멀어 연결작전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수도 서울을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상륙은 유엔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방책이며, 인천의 지리적 곤란성 때문에 적이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으로 인하여 기습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7) Roy E. Appleman, op. cit., p. 488.

아울러 이 작전은 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천은 제8군이라는 ‘망치’가 북한군을 분쇄하는데 제10군단은 ‘모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¹⁸⁾ 결국 인천상륙계획은 맥아더 장군의 의도대로 8월 28일 승인되었고, 9월 6일 상륙작전 개시일도 9월 15일로 확정되었다.

한편 낙동강방어선에서 고군분투한 제8군도 9월 12일부터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남부전선에서 반격작전을 준비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북한군의 8월공세가 종료될 무렵인 8월 하순경 총공세작전을 위한 증원부대가 대거 도착하면서부터 그 동안의 전투손실과 보충, 그리고 배속 해제 등으로 인한 전투서열의 잦은 변동과 새로운 부대의 전선 투입으로 지휘계통이 복잡해지자 부대의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먼저 9월 12일 대구 정면에 배치된 미 제1, 제24사단, 국군 제1사단, 영 제27여단으로 미 제1군단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남서부 전선에 배치된 미 제2, 제25사단으로 미 제9군단¹⁹⁾도 편성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9월 16일 현 접촉선인 낙동강방어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하여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연결한다는 반격계획도 하달하였다.

2. 유엔군의 38도선 돌파 결정

유엔군은 근 3개월 동안에 걸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여 북한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서울을 수복한 데 이어 38도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전상황(戰前狀況)을 회복하였다. 이때 이 선의 돌

1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98.

19) 미 제9군단은 9월 5일 한국에 도착하여 9월 23일 창설되었고, 초대 군단장에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이 임명되었다.



중앙청에서 가진 서울 수복 기념식

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38도선 돌파가 중·소개입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욱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되었고, 이는 전쟁의 향방과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었다.²⁰⁾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자유진영 내에서도 38도선 돌파와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고, 공산진영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미국이 9월 27일 38도선 돌파는 유엔이 결의한 '6·28결의'에 의거 합법적이며, 이 결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진작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미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에게 38도선 돌파 및 북진작전에 따른 군사작전 지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을 하달하였다.²¹⁾

2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86.

21)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179.

“이 지침은 한국에서 유엔군에 의해 취해질 장차의 군사작전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송한다.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목표는 북한군의 격멸에 있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소련이나 중공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려는 어떠한 위협도 없는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만주나 소련의 국경을 월경하여서는 안 되며,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서 한국군이 아닌 다른 유엔군 부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련 및 중공과의 국경선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만주나 소련 영토에 대한 공중 및 해상작전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9·27훈령’에는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를 허용하되 작전의 목표를 북한군의 격멸이라는 군사목표로 엄격히 한정하였고, 특히 중·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작전지침이 상술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 훈령에 따라 북진작전을 준비하면서 10월 1일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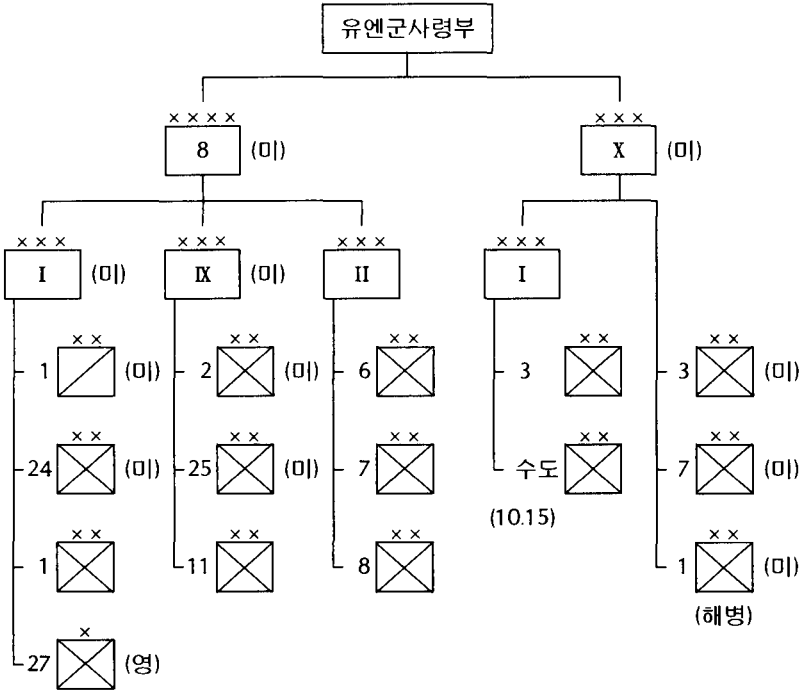
이 무렵 제8군사령관은 제10군단을 제8군에 배속시켜 한반도 내에서 작전지휘의 통일을 기하도록 원하였으나 맥아더 장군은 태백산맥과 낭림산맥으로 인하여 통합지휘 곤란, 인천항의 보급기능 제한 등을 이유로 작전권을 분리하여 제10군단을 동해안에서 독립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²³⁾

당시 유엔군의 전투편성은 <표 2-1>과 같다.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8, p. 638.

23) 국방군사연연구소, 「한국전쟁」(상), p. 498.

<표 2-1> 유엔군의 전투편성(1950. 10. 5)



영 제27여단 : 배속 오스트레일리아 대대

3. 유엔의 통한(統韓) 결의

미국은 극비리에 '9·27훈령'과 이에 따른 북진작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군사작전의 결과에 따라 수반될 북한지역 점령과 통일문제는 정치목표로 규정하고 군사목표와 분리하여 유엔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유엔에 제의할 결의안을 준비하였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한 후에 당면할 주요 문제, 즉 구호와 부흥, 정치적 통일, 안전보장을 다룰 유엔 전문기

구의 설치였다. 이 결의안은 9월 30일 영국, 필리핀 등 8개국의 공동 발의형식을 빌려 제5차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²⁴⁾ 이에 대응하여 소련은 한반도의 즉각적인 휴전, 외국군의 즉각 철수 등을 포함하는 대안을 총회에 제출하였고, 중공도 유엔군이 북진하면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나, 한국군이 38도선을 넘는 데는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결의안의 총회 표결을 앞두고 공산측의 반발과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결국 이들 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영국이 제의한 안전만 총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는 10월 7일 찬성 47표, 반대 5표, 기권 7표, 불참 1표로서 가결되었다. 이때 총회는 총회의 결의목적은 통일·독립·민주 한국정부를 수립함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통일실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권고하였다.²⁶⁾

1. (a) 전 한국에 걸쳐 안정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b)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유엔의 후원하에 선거의 실시를 포함한 모든 합헌적 조치를 취한다.
- (c) 남북한의 모든 파벌과 주민대표를 평화의 회복, 선거의 실시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유엔의 기구와 협조하도록 초청한다.
- (d) 유엔군은 상기 (a), (b)항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한국의 어느 곳에도 잔류해서는 안 된다.
- (e) 한국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4)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491.

25) James F. Schnabel, *Police and Direction*, 1972, p. 197.

2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92.

2. (a)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로써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설치하며, 이는
 - (i) 현재의 유엔한국위원단이 행사해 오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 (ii) 전 한국이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유엔을 대표한다.
 - (iii) 한국에 있어서의 구호 및 부흥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협의하여 전쟁상태의 종결시에 구호 및 부흥계획을 작성한다.
4. 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달을 촉진시킬 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연구한다.

이것이 이른바 후일 ‘10·7 통한(統韓) 결의’라고 불리어진 유엔의 결의이다. 이 결의 역시 ‘9·27훈령’과 마찬가지로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무렵 전황은 이미 북한의 전력의 와해되어 유엔군측의 군사적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유엔이 군사적 승리 후 유엔의 주도하에 한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²⁷⁾ 미 합참본부도 맥아더 장군에게 이 결의안을 통보하면서 이는 38도선 북쪽에서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측은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군사적 목표인 북한군의 격멸과 정치적 목표인 한국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결정과 유엔의 결의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완료하였다.

2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93.

4. 유엔의 군사지원 감축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할 무렵 한국에 파견된 유엔 지상군 중 미군은 제1군단에 배속중인 제24사단, 제9군단에 배속중인 제2, 제25사단, 제10군단에 배속중인 제1해병, 제3, 제7사단과 제8군예비인 제1기병사단과 제187공수단이였다. 그리고 영국 제27여단,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 필리핀 제10대대와 터키 제1여단이 부산에 도착하고 있었다.

이때 미 군부 내에서는 10월중에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이에 따라 전쟁이 종료된 이후 잉여물자의 미국으로의 재반입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군수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미 합참도 10월 4일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을 준비하였다.²⁸⁾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도 15일 개최된 웨이크 섬(Wake Island) 회담 이후 병력철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0일 유엔군의 철수계획(작전명령 제202호)을 발표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제10군단이 한국 점령군으로 지정되었으며, 거기에는 1개 미군사단, 기타 유엔회원국 부대들, 한국군, 그리고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소속되도록 계획되었다. 이외 부대들은 일본과 유럽으로 재배치될 계획이였다. 그리고 유엔회원국 부대들은 점차로 철수시키되 유럽국가에서 파견된 부대를 우선적으로 철수시키도록 되었다.²⁹⁾

이때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도 파견국의 부대들에 대한 군수지원, 정치적 측면, 작전수행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28)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206.

29)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290.

유엔군의 보충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합참은 10월 25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감축계획을 승인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도 계획된 충원요원을 줄일 것을 훈령하였다.³⁰⁾

이 계획에 의하면 지난 7월에 지상군의 파견을 약속한 국가 중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포병부대는 파견을 중지하도록 하고 캐나다, 그리스, 타이군은 1개 대대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터키부대 및 인도와 스웨덴 병원부대는 계속 필요하되 영국에서 증원부대로 이동중인 영 제29여단은 도착과 동시에 제27여단과 교대하도록 되었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국의 파견요청은 중단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외 다른 국가들로 최초 36,400명을 지원받게 되어 있었으나 이 조정으로 인하여 16,700명을 지원받게 되었다.³¹⁾

그리고 국무부에도 이 제안을 해당국가와 접촉을 갖도록 요청하였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한 여러 회원국들은 이러한 병력감축 소식을 듣고 매우 사태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계획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미 합참의 판단에 따라 감군조치는 일단 보류되었다.

5. 중공군과 조우

중공은 미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북한이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것이라는 그들의 예상이 유엔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빗나가자 최우

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p. 99.

31)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207.



중공군, 압록강을 도하 북한으로 진입하다

선 국가목표로 설정한 ‘대만수복’ 작전마저 연기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참전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모택동(毛澤東)은 1950년 10월 1일에 스탈린(Hoseph V. Stalin)과 김일성(金日成)으로부터 중공군의 파병요청을 받았다. 그는 밤을 지새우는 숙고 끝에 ‘순망치한(唇亡齒寒),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報家爲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음날 새벽 참전을 결정하였다.³²⁾ 그리고 8일 중공군의 파병이 미국 또는 유엔회원국들과 전쟁을 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중공인민이 조선인민을 돕는 민간차원의 지원이라는 의미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북변방군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으로 개칭하고 한반도로 출병명령을 하달하였다.³³⁾

이 무렵 한국전쟁 모의과정에서 모택동과 스탈린이 합의한 소련

3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3.

33)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66.

공군의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공군의 출병은 두 차례나 연기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 참전을 결심하였고, 15일 압록강 도하를 명령하였다. 중공군은 16일 선발대를 투입한 데 이어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던 날(19일) 저녁 4개 군(제38, 제39, 제40, 제42군)을 도하시켰다. 이어서 추가로 제50군과 제66군이 26일 도하함으로써 중공은 10월 말까지 6개군 18개 사단의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한반도에 배치하였다.³⁴⁾ 이때 이들은 유엔군의 관측활동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야간행군, 철저한 위장, 무선사용 통제 등으로 보안을 유지하였다.

중공군은 최초에는 방어에 유리한 산악지형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전장의 국면을 전환시켜 북한군의 철수와 재편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중공지도부는 그들의 예상집결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참전 사실을 모른 채 분산되어 전진함으로써 취약점이 노출되자 이를 기습공격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동중인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여 각개 격파하도록 명령하였다.³⁵⁾

이 기습적인 일격에 한만국경선 부근에서는 국군만 운용해야 한다는 전쟁지도상의 재한사항마저 무시하고 총공격하였던 유엔군의 한만국경선 진출은 무산되고 청천강 교두보 지역으로 철수하였고, 이후 적은 아군과 접촉을 끊고 자취를 감춤으로써 유엔군의 전쟁지도부는 대혼란을 맞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잠시나마 패배의 길로 급락하는 전환점이 되어 버렸던 것

3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80.

3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세경사, 1991), p. 20.

이다.³⁶⁾

결국 민족의 염원이던 통일의 실현은 그 기회가 목전에서 사라졌으며 민족이 더 큰 전쟁의 재앙으로 깊이 빠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제 3절 중공군의 참전과 재반격작전기

아군의 예상과는 달리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전쟁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대결구도로 발전함으로써 한반도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확대이냐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유엔군사령부와 미 합참본부, 미국과 유엔참전국, 그리고 유엔에서도 유엔군의 한반도에서의 철수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1951년 1월 12일 중공군의 강압에 의한 철수시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고, 한국 정부와 군경을 제주도으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한다는 전쟁지도방침을 결정하였다.³⁷⁾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신임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재반격을 개시하여 유엔군을 축출하려는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3월 말 38도선으로 진출 두 번째로 전쟁전의 현상을 회복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지난해 12월

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99.

37)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51.

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철군문제를 일단락짓고, 군사적으로는 전쟁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의 수립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쟁지도방침을 결정하였다.

1. 유엔군의 철수계획

유엔군은 한만국경선을 목전에 두고 10월과 11월에 아직 그 실체가 불분명한 중공군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연이어 실패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28일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미 합참본부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취할 자신의 전략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한 후 이날 밤 긴급 작전회의를 개최하여 철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³⁸⁾

이때 유엔군사령부는 병력의 우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엔군의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 합참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하여 평양-원산을 연하는 선을 확보하도록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군의 철수문제를 두고 유엔군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 간에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표출되자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이 12월 4일 급히 유엔군사령부를 방문하였다.

2차에 걸친 전략회담 결과 맥아더 장군과 콜린스 장군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부산으로 철수하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계획에는 9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는데 서울을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38)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357.

서울 북쪽에 4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고, 최종방어선은 개전초기의 낙동강방어선이었다.³⁹⁾

이 지침에 의거 12월 중순 유엔군이 한강하구-문산-김화-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1951년 초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두 번째 서울 철수를 결정하자 한국에서 유엔군의 철수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국동군사령부는 1월 7일 지난달 6일에 작성된 철군계획 초안을 철군계획(Operation Plan CINCFE 1-51)으로 확정하였다. 그 요지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질서정연하게 철수시킨다. 미군은 전면전쟁에 대비하여 국방방어선에 재배치한다. 유엔군을 모국으로 귀국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만 계획목적상 유효하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예하부대에도 하달하였다.⁴⁰⁾

그리고 미국 정부도 1951년 1월 12일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하여 결정한 유엔군의 전쟁지도지침에서 강압에 의한 철수시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되 한국 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설치하고 본토 수복을 위해 저항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⁴¹⁾

이로 인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군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엔군의 철수결정을 우려하여 노심초사하였으나 1월 중순 유엔군이 재반격을 개시하면서 철군문제는 일단락되었다.

3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39.

40)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49.

41)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51.

2. 유엔군의 증원 노력

1951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현재 한국전쟁에 참전중인 14개국⁴²⁾ 외에 다른 유엔회원국들의 참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엔과 함께 더 많은 유엔회원국을 참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월 23일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부터 각각 1개 대대규모씩 획득하기 위해 접촉중이며, 캐나다는 최초 제의한 규모(여단급)대로 파견인원을 증가하도록 요구할 계획임을 국방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나 터키로부터도 그들의 자발적인 증원은 장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미 파견제의를 한 바 있는 우루과이, 에티오피아, 쿠바와도 '군사기술적인 수준'에서 회담을 계획하였다.⁴³⁾

이러한 미국의 증원 노력에 의거 2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차관에 의한 미국 항공기의 공급조건으로 2개 대대의 파견을 고려중에 있음을 미 국방부에 통보하였다. 당시 미국은 상당한 군사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파견은 명목상의 전술적 가치보다도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이후에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⁴⁴⁾

반면 캐나다 국방장관은 2월 21일 지원부대를 갖춘 2개 대대를

42) 1950년 말까지 유엔참전국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스웨덴, 인도 등이었다.

4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389.

44)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390.

추가로 파견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는 3월 9일 유엔사무총장에게 1개 야전병원의 파견을 통보하였고, 이들은 5월 25일까지는 파견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3월 31일 국무부에 유엔회원국의 더 많은 참가를 요구하였다. 이는 미군으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적 지역이나 동원기간부대를 국내에 재배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상징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추가 파병이 가능하며, 몇몇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국무부는 미 합동참모본부가 특별히 참전을 배제시킨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참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소진되었음을 국방부로 통보하였다. 이때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엔회원국들의 지원을 반대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는 4월 28일 총선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며, 뉴질랜드는 다른 영연방국들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캐나다도 현재 파병을 준비중인 부대 외는 추가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터키는 미국의 충분한 안보공약을, 그리스는 추가적인 재정원조를 제공한다면 그 가능성은 있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악화로, 파키스탄은 카슈미르(Kashmir) 분쟁으로 제외되었고, 또한 필리핀은 국내 치안문제가 급선무였다.

한편 남아메리카지역에서도 외무장관 회의에서 파병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브라질 사단과 페루 연대전투단의 요청은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 및 우루과이는 이 문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하였으나 멕시코는 부동의하였다.⁴⁵⁾

45) 김재관(역), 「리치웨이 한국전쟁」(정우사, 1984), p. 101.

이와 같이 유엔과 미국은 유엔회원국들의 참전 확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4월 말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3. 제8군사령관의 공세전략

유엔군이 축차적인 방어전략방침에 따라 38도선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있을 무렵인 12월 23일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이 덕정 부근에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애석하게 전사하였고, 그 후임에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부임하였다.

이때 제8군의 작전방침은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지역을 최대한 활용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쳐 적의 출혈을 강요한 후 공세작전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임 사령관은 부산으로 철수를 주장하였던 워커 장군과는 달리 처음 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 제8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다시 공세를 취할 것”임을 다짐하였다.⁴⁶⁾

그리고 한미 양군의 합동작전회의에서도 “38도선에서 낙동강까지에 설정된 6개의 방어선은 유엔군이 물러나기 위하여 설정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다. 이는 각 단계마다 중공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선이다. 그리고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더라도 유엔군은 37도선 아래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⁴⁷⁾

유엔군이 1월 중순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선에서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하면서부터 새 방어선의 방어력도 개선되

46)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p. 391~392.

4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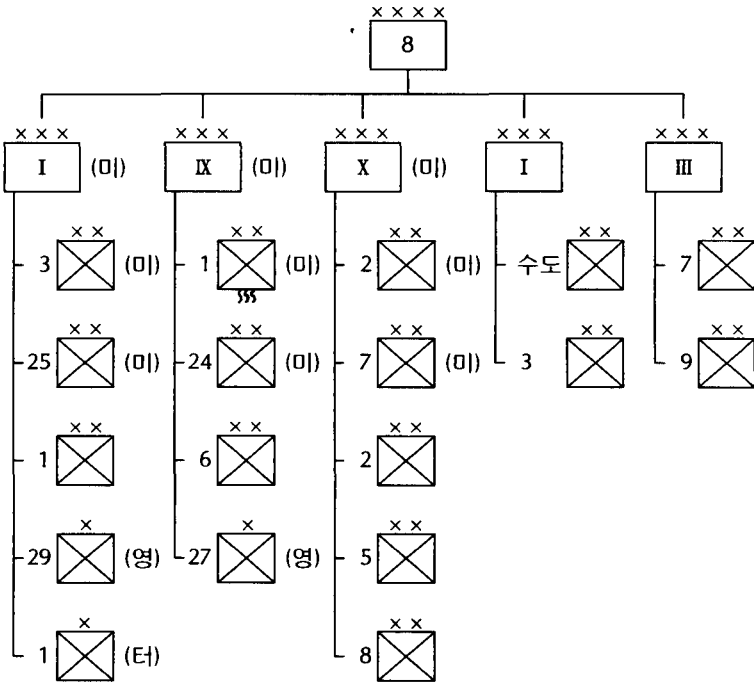
고 장병들의 사기도 향상되어 전선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유엔군의 대규모 증원이 불가한 상황을 간파한 듯 새로운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는 등 유엔군을 한국에서 축출하거나 섬멸을 기도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아군이 일정한 방어선을 장기간 점령하는 것은 심대한 피해만 예상되므로 지역의 확보보다는 적이 이동중일 때 공격하는 것이 최대한의 피해를 주거나 공세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결론짓고 공세작전으로 전환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⁴⁸⁾

- (1) 아군은 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제압하기 위해 화력과 기동력의 우세를 최대한 활용한다. 화력과 기동력에 의한 살상전술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보(步)·포(砲)·기갑(機甲) 등 제병과의 긴밀한 협동과 해·공군은 지상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에 중점을 둔다.
- (2) “나는 지역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적을 살상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작전의 주목표는 아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의 인원·물자에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는 데에 둔다.
- (3) 공격은 모험적인 작전을 회피하고 최초 소단위부대의 위력수색을 실시하여 적정을 확인한 후에 보다 강력한 전투정찰 또는 제한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전면공격으로 확대한다.
- (4) 공격간에는 공격의 속도보다는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협조와 연결을 긴밀히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축차적인 통제선을 설정한다. 그리고 공격부대에 의하여 아군 전선이 크게 들출되거나 적을 우회하여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격부대는 군단장급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 통제선을 통과한다.

48)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일신사, 1984), pp. 361~362.

(5) 적의 대규모 공세가 개시되면 아군은 인접부대 사이의 연락과 협조를 유지하면서 사전 계획된 축차방어선으로 질서 있게 후퇴하되, 어느 한 부대의 급속한 철수로 말미암아 전선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적에게 돌파구나 후방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 미 제8군의 전투편성(1951. 1. 5)



- 미 제2사단 : 배속 프랑스 대대, 네덜란드 대대
- 미 제3사단 : 배속 필리핀 대대
- 미 제24사단 : 배속 그리스 대대
- 영 제27여단 : 배속 오스트레일리아 대대, 뉴질랜드 포병대대(1. 24)
캐나다 대대(2. 9)
- 영 제29여단 : 배속 타이 대대

- (6) 후퇴간 모든 부대는 일방적인 철수가 아니라 반드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연전투를 감행하고 모든 가능한 기회를 포착하여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적의 주력을 아군의 화망속으로 유도한 다음 지상 및 항공화력을 집중 강타한다.
- (7) 적의 공격기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군은 지체없이 공세로 전환하여 반격을 개시, 지속적인 기동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여 전투력을 소모시킨다.

이리하여 유엔군은 제8군사령관의 ‘분쇄기식 전술(粉碎機式 戰術)’이라고 알려진 이 작전방침에 의거 전전상태(戰前狀態)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⁴⁹⁾

4.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유엔군은 1월 하순 제8군사령관의 작전방침에 따라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방어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일 먼저 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이 1월 25일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크리스마스공세 이후 처음으로 공격작전(Operation Thunderbolt)⁵⁰⁾을 벌여 2월 10일경 한강 남쪽 양자산 일대의 중공군 교두보만 남겨둔 채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이어서 2월 7일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전략 및 전술적 요충인 홍천을 탈환하여 차기 공격의 유리한 발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세작전(Operation Roundup)⁵¹⁾을 펼쳐 한강 남쪽-횡성-영월 선으로 진출하였다.

49)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교학사, 1984), p. 508.

5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292.

51)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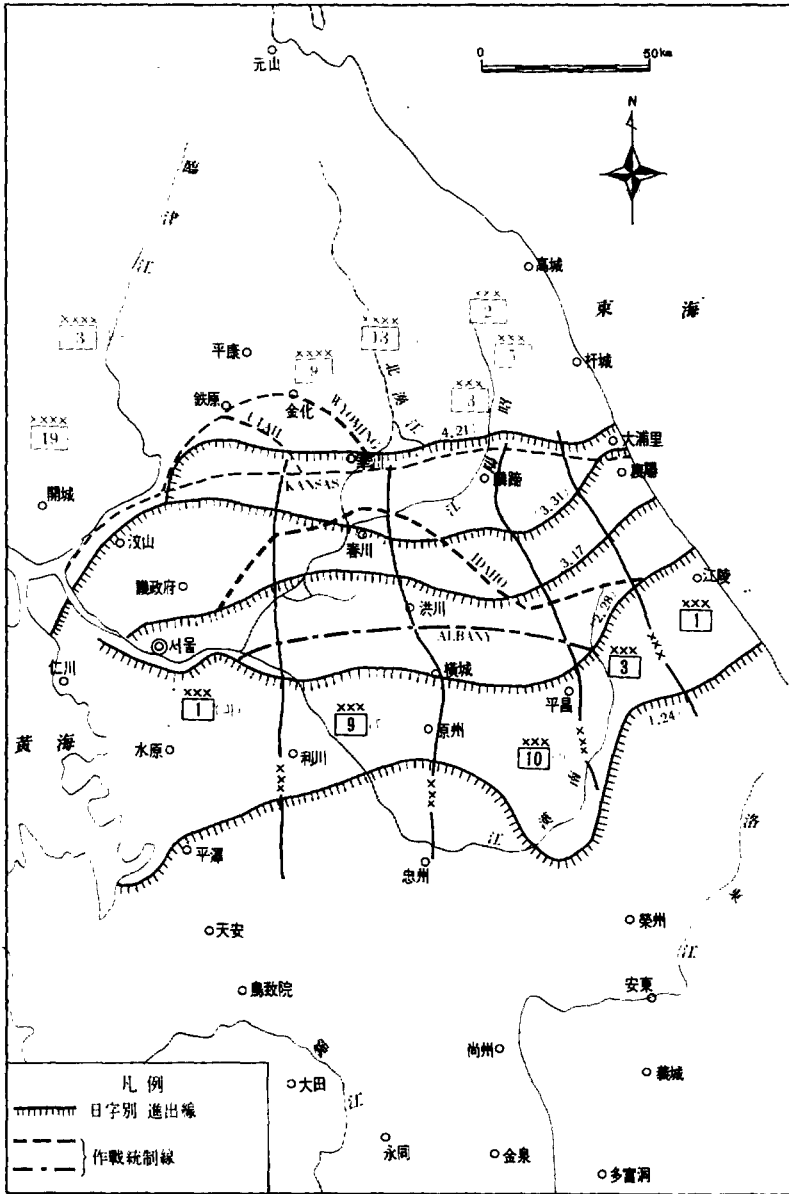
이때 중공군은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연이은 패배와 혹한 속의 철수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지평리, 횡성 일대에서 2월 공세로 대응하였으나 유엔군은 불과 수일 만에 적의 공세를 격퇴하고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8군은 적에게 새로운 공세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제천 북쪽에 형성된 돌파구 내의 적을 포위 격멸하기 위하여 2월 21일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동부전선의 제10군단으로 공격작전(Operation Killer)⁵²⁾을 개시하였다. 양 군단은 14일 동안 추격작전을 벌인 끝에 횡성-평창 선으로 진출하였고, 또한 적에게 심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다. 이 결과 유엔군은 1951년 3월 초에 한강-횡성-강릉을 연하는 방어선을 확보함으로써 서울 재탈환은 물론 38도선 진출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적이 서울을 고수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전선의 중앙인 춘천일대에 대돌파구를 형성하여 일단 적을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북한군으로 분리시킨 다음, 서울을 남쪽과 동쪽에서 양익포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3월 7일 공세작전(Operation Ripper)⁵³⁾을 명령하였다. 적을 추격한 유엔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적이 이미 38도선 북쪽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정비 중에 있어 3월 말까지 서울을 재수복하고 임진강-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연하는 선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군사적으로는 전쟁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수립은 그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새로운 전략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도 중부전선의 전략전술적 요충인 철원-김화-평강을 연결하

52)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382.

53)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394.



는 철의 삼각지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적의 공세에 대비한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때 유엔군이 선정한 방어선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형으로서 임진강 남쪽 제방을 연하여 동쪽으로 뻗어 화천저수지로 연결된 후 동해안의 양양으로 이어지는 선이었고, 이를 캔자스(Kansas)선으로 명명하였다.⁵⁴⁾ 그리고 유엔군은 4월 3일 캔자스선 진출을 목적으로 공세작전(Operation Rugged)⁵⁵⁾을 개시하였고, 대부분의 부대들이 15일을 전후하여 경미한 적의 저항을 일축하고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구-양양을 연하는 캔자스선을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단계적 공세작전으로 한반도에서 유엔군을 축출하려는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두 번째로 전쟁전의 현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5. 휴전전략의 모색

미국은 1951년 1월 하순부터 유엔군이 재반격작전을 개시하여 38도선으로 접근하자 지난해 10월 38도선을 돌파하기 직전처럼 다시 38도선에 관한 전쟁지도 전략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 행정부와 합참은 3월 15일 “한국문제를 정치와 군사 두 가지 노선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정치적으로는 통일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군사적으로 전쟁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 수립은

54)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428.

55)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428.

그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⁵⁶⁾

이때 미국은 전쟁전의 현상도 거의 회복함으로써 유엔군도 공산군과 어느 정도 동등한 힘의 토대 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들도 군사력으로 38도선을 넘기 전에 평화적인 호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호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미 합참은 3월 20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대통령이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면 안 된다는 유엔의 일반적인 견해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해결에 있어 외교적 수단보다 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맥아더 장군은 3월 24일 중공군의 전쟁승리 불가, 중공의 군사력 경시, 중공에 대한 공격 등을 내포한 위협성의 성명을 발표하였다.⁵⁷⁾ 이에 당황한 미 행정부는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진실성 문제로 국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계획되었던 선언을 유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엔군은 3월 말 38도선을 회복한 데 이어 4월 초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연결한 이른바 캔자스(Kansas)선까지 점령하였다. 그후에도 중부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할 목적하에 철의 삼각지의 저변을 연결하는 와이오밍(Wyoming)선으로 진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이에 고무된 미국은 대한(對韓)정책을 수정하여 ‘적절한 휴전장치하에 전쟁을 종결하고 전쟁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새 정책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임무는 적에게 충분한 피해를

56)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p. 365~366.

57)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415.

가하여 적들로 하여금 미국의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⁵⁸⁾

이 같은 전쟁수행의 정책결정은 한국의 통일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한미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와중에 미국은 4월 11일 그간 전쟁지도상의 문제로 행정부와 잦은 불화를 초래해 왔고, 휴전협상 제안에 마찰을 빚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 주일연합군사령관, 극동미군사령관, 극동미육군사령관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제8군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을 임명하였다.⁵⁹⁾

이를 계기로 미국은 대통령, 국무 및 국방장관, 그리고 미 합참본부 등 전쟁지도부와 야전군사령부가 전쟁을 제한하려는 정책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6. 유엔군의 새로운 작전지침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후 유엔군의 작전방침에 관한 정책결정 논의는 더욱 발전되었고, 마침내 미국은 5월 17일 대한정책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은 목표를 둘로 규정하였다. 최종목표로서 한반도에 통일독립민주국가의 수립문제는 군사적 수단과 별도로 정치적 수단에 의거 계속 추구한다. 그리고 당면목표로서 한국전쟁의 해결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추구하되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은 그 북쪽에 설정하며, 이러한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새로운 정책에 기초하여 1951년

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90.

59)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470.

6월 1일에 리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아래와 같이 재규정하여 하달하였다.⁶⁰⁾

귀하는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휘하의 부대안전과 더불어 최소한 아래와 같은 한국전쟁의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지리적 경계선과 그 인접해역 내에서 작전하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인원 및 물자에 최대한의 손실을 가한다.

- ①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 ② 행정이나 군사적 방위를 둘 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38도선 이남이 아닌 곳에 위치한 북방 경계선 남쪽의 전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 ③ 한국에서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한다.
- ④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충분한 전력 증강을 허용한다.

이 임무를 추구함에 있어서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의 영토와 그 인접해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공군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해·공군의 국경선 부근에서 작전제한은 19.2km까지 허용되었고, 지상군의 작전한계는 대체로 화천저수지를 지나는 38도선 북쪽 약 10km의 일반적인 선이었다.⁶¹⁾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군사작전의 중점을 적대행위를 협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데 둔다는 것이다.

6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92.

61)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593.

제 4 절 전선의 교착과 휴전협상기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선에서 1년간이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결정적으로 승세를 굳히기가 어려웠다. 이에 유엔군은 이미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휴전협상을 통하여 적대행위를 종식시킨다’는 정책을 결정하였고, 공산측도 전쟁을 휴전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에 합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쟁은 교착된 전선에서의 열전과 휴전협상에서의 설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후 휴전협상은 쌍방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중단과 속개를 반복하였다. 특히 의제 중 포로송환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으나, 이마저 협상당사자의 일방인 중공과 북한이 거절함으로써 또다시 무산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은 1953년 초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협상에 대한 관심, 미국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후보의 당선,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의 사망 등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휴전협상은 재개되고 급기야는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1. 휴전회담의 개막

1951년 7월 8일 쌍방은 예비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10일 휴전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본회담을 개성 봉래장에서 열었다. 이때 회담에 임하는 유엔군측의 기본지침은 첫째, 이 휴전에서 우리의 주



휴전천막

된 군사적 관심은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확보에 있다. 둘째, 우리는 소련과 중공이 합리적이며 수락할 수 있는 휴전장치의 결정에 진지한지, 혹은 그들이 한국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휴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유엔군사령관과 적의 사령관과의 협상은 군사적 문제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유엔군사령관은 특히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관한 토의나 대만이나 중국의 유엔의석과 같이 한국문제와 관련 없는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⁶²⁾

6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35.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게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은 대단히 어려므로 인내가 필요하고,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마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담을 파기해서는 안 되며, 유엔군사령부의 신의를 의문시하게 되는 국제적 여론을 유발할 어떤 속임수를 쓰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유엔군은 본회담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의제 채택에 합의하였다.⁶³⁾ 이때 합의된 의제 5개 항은 ① 회의의제의 채택 ②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정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설정 ③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정전과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정 ④ 포로에 관한 협정 ⑤ 양측의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이를 두고 25개월 동안 협상테이블에서 설전을 벌이게 되었다.

2. 제한목표 공격전략

휴전회담이 시작될 무렵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 제8군은 7월 초에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여건이 조정되면 9월 1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평양-원산 선까지 점령할 '제압작전 계획(Plan Overwhelming)'이라고 명명된 대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이 작전은 휴전협상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공산측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63)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59.

는 이유 때문에 취소되었다.⁶⁴⁾

이로 말미암아 적군은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 전력을 증강하여 수세에서 공세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군은 무관심 속에 정찰활동을 계속하였으나 포로획득에 실패하였다. 또한 훈련도군의 전의 고양과 활력을 불어넣기엔 한계가 있어 전투효율도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적에게는 혼란을 주는 반면 아군의 전선침단을 강화하고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한목표공격작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⁵⁾

당시 군의 방어개선을 위한 기본전략은 유엔군의 방어선 중 남쪽으로 치진 만곡부를 밀어 올려 기복이 없도록 정리하고 아군 병참선과 캔자스선 방어에 위협을 주는 지형지물을 탈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즉, 우선 제8군의 방어선 중 가장 취약한 중동부지역의 미 제10군단전선의 중앙, 해안분지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만곡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와 협조된 작전으로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한다. 다음으로 미 제9군단 정면의 금성분지를 점령하여 철의 삼각지를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함은 물론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확보한다. 끝으로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방어선을 10km 정도 추진하여 연천-철원 철로를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철원-김화 철로와 연결시켜 서울-김화 도로는 물론 이 철로를 군병참선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⁶⁶⁾

그리고 군은 방어선 개선목표를 구체화함과 더불어 방어개념,

6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1988, p. 80.

6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p. 98~99.

66)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100.

특히 와이오밍선에 대한 방어개념을 재정립하고 캔자스선과 같은 강도로 축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방어선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령관의 새로운 방침과 강조사항에 따라 중부전선의 군단은 와이오밍선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방어시설을 강화하였으며, 캔자스선에도 예비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중으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제8군사령관은 제한목표공격에 국군부대를 투입하여 실전을 통해 전력을 향상하도록 지침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향상방안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의 이러한 관심은 전장의 소강상태를 맞아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학교 및 훈련소의 복원과 확장을 추진중인 한국 정부의 방침, 그리고 이를 적극 뒷받침한 리지웨이 사령관의 노력과 어우러져 국군의 전력향상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⁶⁷⁾

3. 적극방어전략

유엔군은 휴전협상을 개시한 지 4개월 반 동안의 설전(舌戰) 끝에 1951년 11월 27일에 이르러 공산측으로 하여금 38도선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고 또 쌍방이 대치중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쌍방은 임진강 하구-판문점 서방-삭녕 북방-철원 서북방-김화 북방-금성 남방-어운리-문둥리-고성 동남방을 연하는 전장 237km에 달하는 전선에서 대치하여 휴전회담의 추이를 주시하게 되었다.⁶⁸⁾

6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02.

68)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26.

잠정군사분계선의 결정은 그 이전까지 국부적이면서도 격렬하던 진지쟁탈전을 일시 중지시켰으며 전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측은 공산측이 계속하여 회담에 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작전은 협상이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난항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이나, 적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전개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⁶⁹⁾

이 방침에 따라 유엔군은 이른바 적극방어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제한목표 공격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적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면서 공격기도를 분쇄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공격이란 제8군사령부로부터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적의 공격으로 피탈된 주요 지형지물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국한한다는 것이었으며 불필요한 희생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적을 격멸하기 위한 전면공세는 이득에 비하여 매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⁷⁰⁾

이러한 내용이 예하부대에 전달되자 일부 예하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의 병력사용으로 선뜻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마저 있었다. 이를 우려한 제8군사령관은 예하부대에 잠정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어도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적극방어전략 개념에 따라 교착된 전선에서 전투보다는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주력하였으며, 전초와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

69)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p. 576.

7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229.

지 전투를 통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게 되었다.

4. 후방차단작전의 강화

유엔군은 지상작전이 교착상태에 빠져 휴전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자 특히 공군에 현상 타개의 기대를 걸게 되었다. 공산군은 휴전회담의 개최로 전선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매일 800톤의 보급품을 전선 후방에 비축하고 있었다.⁷¹⁾ 이러한 적의 보급품 비축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군력 뿐이었다. 이에 유엔공군은 적의 보급로를 파괴하여 앞으로 있을 아군의 결정적인 공세를 적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적으로 하여금 공세작전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요 병참선 차단을 목적으로 철도차단작전(Operation Strangle)을 계획하였다.

당시 제5공군은 그들의 8개 비행단만으로는 최단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극동해군과 극동공군폭격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때 극동해군은 삼덕리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평원선과 길주에서 평강까지의 철도를 차단하게 되었고, 극동공군폭격사령부는 평양, 선천, 신안주의 철도시설을 파괴하게 되었다.⁷²⁾

유엔공군기들은 1951년 8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산군 항공기의 요격과 대공화기가 작렬하는 가운데 공산측의 비행장과 철도를 비롯한 보급로와 기동로에 대한 차단폭격으로써 항공기들은 작전기간 중 월 평균 9,000회 이상 출격하여 후방

71)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324.

72) 공군본부(역), 위의 책, p. 337.

전력을 완전히 교란시켰다.⁷³⁾ 이 작전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파괴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산측의 복구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북한군의 대공화력이 강화됨에 따라 유엔공군은 새로운 전술을 모색하게 되었다.

유엔공군은 1952년 3월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전술적 변경을 시도하여 해군전술에 기초한 새추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으로 전환하였다. 이 작전은 일정한 철도구간을 24시간 동안 계속 공군의 파괴력을 집중시켜 적의 철도보급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공군은 1952년 전반기 동안 주간에는 전폭기들이 동일 지점을 8시간 동안 폭격하고 야간에는 폭격기들이 폭격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 역시 제5공군이 24시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탓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유엔공군이 작전에서 손실되는 전투기의 수가 보충되는 수를 상회하게 되자 이 작전을 중지하였다.⁷⁴⁾

한편 유엔해군 함정들도 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지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해군은 악천후로 항공작전이 불가능한 틈을 이용하여 적의 연안 철로에 5인치 함포로 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함포사격으로 적의 철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으나 지속적인 요란사격으로 적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듯 후방차단작전은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없었으나 휴전회담의 재개로 인하여 지상군 작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적의 병참지원 능력을 파괴하고 전선의 전력증강을 차단하여 대규모 공세작전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7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273.

74) 공군본부(역), 앞의 책, p. 350.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⁷⁵⁾

5. 유엔의 휴전협상 지원

휴전협상은 개막된 지 15개월 만에 포로송환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952년 10월 8일 무기휴회에 들어갔다. 따라서 유엔군측으로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때 유엔군측의 군사적 압력도 회담에서 공산군측 양보를 얻어내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당초 자유진영측은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할 경우 공산측이 이를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 무렵 마지막 의제인 포로문제에 있어 공산측에 정치적인 압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52년 10월 14일에 개최되는 제7차 유엔총회에서 그 타결을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휴전을 위한 노력은 유엔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⁷⁶⁾

이 결과 미국은 자유송환 원칙에 기초한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소련은 이에 반하여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시하여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때 인도가 소련과 중공측의 의사까지 타진하여 절충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이 자국안을 철회하고 인도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12월 3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인도와 소련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인도안이 54 : 5로 가결되고 총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⁷⁷⁾

7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281.

76)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60.

77)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63.

이 결의안은 휴전협정 초안 제37항에 해당하는 4개국, 즉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포로송환위원회단을 설치한다는 등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어슨(Lester B. Peason) 의장은 메시지와 함께 북한과 중국에 이 결의안을 수락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중공외상 주은래(周恩來)는 12월 14일, 북한외상 박헌영(朴憲永)이 12월 17일 “포로의 자원송환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엔은 교전당사국의 일방이므로 유엔의 결의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외사를 밝힘으로써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였다.⁷⁸⁾ 이리하여 인도안에 걸었던 모든 희망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반대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휴전협상과 유엔에서 포로송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에 국제사회에서도 휴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었다. 첫 조치로써 12월 13일 국제적십자 집행위원회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과 제네바협약에 따른 상병(傷兵)포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5 : 2로 가결시켰으며, 이 결의안을 1953년 2월 유엔에 상정할 예정이었다.⁷⁹⁾ 따라서 양측은 우선 제네바협약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상병포로 교환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차기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후보는 유화정책을 추구하던 트루먼 정부와는 달리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 한국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또한 소련도 1953년 3월 5일 소련 수상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함으로써 휴전협상은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⁸⁰⁾

7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하), p. 322.

79)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357.

8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440.

6. 휴전협정 조인

1953년 6월 말과 7월 초 한·미 양국 간에는 휴전과 전쟁재발억제 전략의 수립을 두고 회담이 진행중이었으며, 판문점 회담은 6·18반공포로 석방문제로 휴회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중공군의 최종공세로 말미암아 열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때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휴전조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공산군사령관에게 본회담의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공산군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7월 10일 정전회담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 관한 건, 송환불원포로들의 인도지역에 관한 건, 휴전협정에 의거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개시에 관한 건, 그리고 휴전문서의 실제적인 조인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등을 차례 차례 해결하였다.

이때 공산측 대표단은 회담 시작부터 그러하였듯이 형식에 관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양측 최고사령관이 판문점에서 서명할 경우 한국과 대만 신문 특파원들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인식은 휴전회담 수석대표들 간에서 거행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쌍방의 군사지휘관들의 서명은 그후에 받기로 결정되었다. 조인시각은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하되 발효는 22:00로 결정되었다.⁸¹⁾

그리고 조인식이 있는 지 몇 시간 후 유엔군사령관은 문산에서 한국대표와 제8군사령관, 극동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조인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전투를 중지하려는 군사협

8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583.

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영구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유엔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으며 또 제반 경제태세를 조금도 완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지상작전은 이미 중단되어 있었지만 포격전만은 계속되었고, 유엔공군기들은 휴전감시단이 임무수행에 착수할 때까지 공산군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비행장, 철로, 도로 등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해상에서도 전함들이 고성포와 원산항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활동들도 22:00가 되자 한국 전역에서 일제히 멎었고, 마침내 열전은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⁸²⁾

한편 유엔참전 회원국들은 7월 27일 워싱턴에서 새로운 전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소위 ‘대제재(greater sanctions)’ 성명에 합의하였다. 이때 공산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명칭을 ‘공동정책선언’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미국의 유엔대표는 8월 7일 휴전조약을 요약하고 협상내력을 총괄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에 첨부된 공동정책선언에서는 새로운 전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산측에 휴전협정 이행을 강력히 경고하였다.⁸³⁾

82)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44.

8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585.

제 3 장 전투부대 지원국의 활동

제 1 절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참전경위

미국은 1948년 4월 “한국의 방위나 안보에 관한 일체의 공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교전당사국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한국사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한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¹⁾

이 결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한반도로 진출하였던 미국은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 수립 후 군정의 종식과 더불어 1949년 1월 15일 주한미군인 제24군단을 해체하고 7,5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과 임시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킨 채 철수하였다. 그리고 이 연대전투단마저도 6개월 뒤인 6월 30일에 철수시킴으로써 한국에는 국군의 편성과 훈련을 자문할 5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만 남게 되었다.²⁾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전력증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치안 유지와 38도선 북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군의 군사력을 발전시킨다는 방침하에 대한군사원조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1950년 1월 12일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극동에서의 미국의 관심은 알류산 열도

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264.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3.

(Aleution Islands)를 따라 일본으로, 거기에서 류큐(琉球)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방위선”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³⁾ 이때 한국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포괄적인 ‘태평양상의 다른 지역’에 관한 언급에서 “누구도 무력공격에 대하여 이들 지역을 보증할 수가 없다. ... 만일 그러한 공격이 일어난다면 ... 우선 그 공격을 받은 국민들의 저항에 달려 있고, 다음은 유엔헌장하의 모든 문명세계의 공약에 의존해야 한다.”⁴⁾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최초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와 힘의 작용을 과민하게 의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극동에서의 대소(對蘇)충돌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한국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받아 한국의 군사력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한 후 소련의 사주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자행하게 되자 극동의 정세와 한국사태를 세계적 차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계기로 아시아의 공산세력도 유럽의 공산세력과 같이 자유세계에 대한 호전적인 침략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과 태평양방위권에 파급적 영향을 미칠 중요지역으로 재평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종래의 극동전략에 수정을 가하여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되었던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새로운 태평양방위선을 설정하였다.

종래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한국으로 전환한 미국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해·공군의 38도선 이남지역 작전참가,

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43.

4) 전사편찬위원회(역), 위의 책, p. 42.

해·공군의 38도선 이북지역으로 작전확대, 지상군의 참전 순으로 단계별로 참전부대와 작전지역을 확대하면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미국은 유엔참전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이며, 또한 가장 큰 규모의 지상군·해군·공군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사령부의 창설을 결의하자 미국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고 이 사령부를 통하여 모든 유엔군의 지휘 및 통제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시종 일관 주도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오산 부근 전투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를 주축으로 편성된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는 “가능한 부산에서 먼 북쪽으로 진출하여 주도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1일 11:00에 부산수영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대전을 경유 2일 밤 수원-평택-천안 도로와 금량장-안성-천안 도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평택-안성 선으로 진출하였고, 5일 03:00에 대대장 스미스 중령이 사전정찰한 죽미령(竹美嶺)으로 이동하였다. 대대가 배치된 죽미령은 오산 북쪽 무명고지, 117고지, 92고지가 횡으로 연결된 능선상의 고개로서 경부국도와 철도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⁵⁾

대대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진지작업이 미처 끝나기도 전인 07:00경 북한군 제4사단이 전차 8대를 앞세우고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제1탄은

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08.

08:16이 지날 무렵 적 전차를 향해 발사되었고, 이후 제52포병대대(-)는 관측장교가 유도하는 대로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는 화망을 뚫고 유유히 남하하였다.⁶⁾ 적 전차가 600여 m까지 접근하자 이번에는 75mm 무반동총으로 사격하였으나 오히려 적 전차는 주포와 기관총을 쏘면서 진지돌파를 기도하였다. 적 전차가 진내로 진입하자 2.36"로켓포조가 10여 m의 거리에서 전차의 취약한 궤도와 후미를 사격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보병진지를 돌파한 적 전차는 죽미령 정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때 직접조준사격을 목적으로 도로변에 추진 배치된 1문의 105mm 곡사포가 6발밖에 휴대하지 않은 대전차고폭탄을 사격하여 선두전차 2대를 차례로 공격하였다. 이때 T-34전차 2대가 포격에 의해서인지 2.36"로켓의 공격을 받아 그러한 것인지 죽미령 고개에서 파괴되어 기동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후속전차제대는 파괴된 전차를 길 옆으로 밀어내고 신속히 후방진출을 기도하였다.

전차제대가 통과한 직후 소강상태가 유지되자 스미스 중령은 보병제대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등 전선을 재정비하였다.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수원에서 남하한 북한군 주력부대의 긴 대열이 목격되었고, 순간 세계 최강국의 전투원이라고 자부하던 장병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⁷⁾ 대대장은 적의 접근을 기다렸다가 차량대형이 900m까지 접근해 오자 사격명령을 내렸고, 대대는 정오 직전에 박격포, 기관총 및 소화기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기습사격에 적진은 일시 혼란상황에 빠졌으나 잠시 후 재정비를 완료한 듯 전차제대를 선두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어정면은 축소되고 탄약마저 소진되었을

6)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 1993, p. 35.

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10.

뿐만 아니라 통신두절로 포병의 화력지원은 물론 기상마저 악화되어 항공지원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대대장은 14:30경 철수를 명령하였다. 스미스특수임무부대는 철수과정에서도 적의 추격으로 병력은 분산되고, 모든 공용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입고, 안성을 경유 7월 6일 천안으로 철수하였다.⁸⁾

오산전투는 미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로서 북한군은 미 지상군의 참전을 확인하게 되었고, 반면 미군은 비로소 북한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였음을 인식하고 적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2) 대전전투

제24사단장은 대전이 전략적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력에 평택, 천안, 전의, 조치원 일대에서 지연전을 벌이면서 입은 손실로 말미암아 급격히 약화되어 북한군 주력(제2, 제3, 제4사단)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17일 대전 북서쪽 갑천(甲川) 남쪽에 저지진지를 구축한 제34연대로 지연전을 펼친 후 19일 저녁에 옥천으로 철수할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8군사령군의 지시에 의거 제24사단장은 대전철수를 하루 연장시켜 20일 저녁으로 결정하고, 대전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영동에서 재편성한 제19연대 제2대대와 사단 수색중대, 제11포병대대를 제외한 잔여 포병부대를 통합하여 제34연대에 배속시켰다.⁹⁾ 그리고 제21연대는 대전의 동측방 엄호와 후방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옥천 도로의 요지인 마도령(馬道嶺) 일대에 배치하고, 금강방어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제19연대는 부대를 재정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형 대전차화기인 3.5" 로켓포가 최초로 연대에 지급되

8)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 p. 46.

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8.

어 적의 주접근로로 예상되는 유성-대전 도로변에 배치되었다.¹⁰⁾

북한군은 7월 19일 아침 YAK기 6대로 영동철교와 대전비행장을 폭격한 데 이어 제19연대 제2대대가 배치될 예정인 논산가도의 가수원리(佳水院里)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적 포병은 연대지휘소와 지원포병이 위치한 대전비행장 일대를 집중포격하였고, 이 포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화되었다. 이 포격을 견디지 못한 연대지휘소와 포병진지는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증원부대인 제19연대 제2대대가 도착하여 가수원리를 역습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고 논산가도를 확보함으로써 돌파위기는 모면하였다.

그러나 20일 03:00에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4사단 주력은 주저항선을 돌파하였고, 제34연대는 3.5"로켓포를 쏘며 총력전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06:30경에는 적이 대전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대전 시가지에서는 북한군의 전차와 미군의 3.5"로켓포 간에 치열한 시가전이 전개되었고, 이 교전은 14:00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군의 근접항공지원은 피아를 식별할 수 없어 주로 적 전차와 포병진지를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 이날 새벽에 맥없이 방어진지에서 물러난 제34연대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는 연대지휘부와 교신이 두절되자 13:00경 대전 남쪽의 보문산 지역으로 철수하였다.¹¹⁾

이때 사단장 딘(William F. Dean) 장군은 전방 대대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야간철수를 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옥천-영동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제34연대가 철수할 무렵에는 이미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연대는 적 차단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영동으로 철수

1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250.

11) Roy E. Appleman, op. cit., pp. 158~159.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 소장이 적진에 낙오되어 포로가 되었다.¹²⁾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당시 전투병력의 30%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지만 3.5" 로켓포를 최초로 사용하여 이때까지 파괴하지 못한 북한군의 전차(T-34) 10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¹³⁾

(3) 영산전투

미 제24사단이 점령한 낙동강 하류지역은 강폭이 300~400m이 나 수심은 2~4m 정도였다. 그중 영산(靈山) 맞은편에서는 반원형의 고리 모양으로 흘러 돌출지역을 형성하였고, 미군들은 이 지역을 낙동강 돌출부지역이라고 불렀다.¹⁴⁾

당시 제24사단의 전투력은 계속된 지연전으로 극도로 소진되어 40%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돌출부를 담당한 제34연대 제3대대는 미군 사단의 통상적인 방어정면과 비슷한 10km를 방어하게 되었다.

8월 5일 자정이 지날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제21연대와 제34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부곡리(釜谷里)와 제34연대의 오항(烏項)지역으로 도하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낙동강 돌출부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쌍방은 10일 동안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유지에 분수령이 되는 클로바잇고지¹⁵⁾와 어봉리(魚鳳里) 능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

12)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 p. 253.

13)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86.

14)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148.

15) 클로바잇고지: 이 고지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줄기가 북으로 향한 네잎클로바와 같은 모양을 한 165고지이다.

몇 차례의 역습에 실패하자 제24사단장은 10일 증원부대인 제2사단 제9연대, 제34연대, 제19연대, 제21연대 제1대대 등으로 힐특수임무부대(Task Force Hill)를 편성하고 지휘권도 제9연대장에게 부여하였다.¹⁶⁾ 사단이 총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군 제4사단도 오향, 박진나루터에 수중교를 가설하고, 야음을 이용 대규모 병력과 전차, 박격포, 야포를 도하시켰다. 11일 아침 힐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 북한군이 선제기습공격을 함으로써 오히려 공격개시선에 대기하고 있던 힐특수임무부대가 혼란상황에 빠져 아군의 공격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주저항선을 돌파한 북한군 2개 대대규모가 영산-밀양 도로를 따라 사단지휘소가 있는 밀양(密陽)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때 아군은 전 전선에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예비대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제8군사령관은 낙동강 돌출부지역에 예비대 투입의 우선권을 두어 예비인 제27연대에 이어 제2사단 제23연대를 영산 일대에 투입하여 이 적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제27연대와 제23연대가 내륙 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격멸하고 영산지역의 위기를 타개하자 14일 힐특수임무부대도 돌출부지역으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오히려 근접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돌출부지역에서 제24사단의 공격작전이 거둬 실패하자 이 지역의 위기가 낙동강방어선 유지의 최대 고비라고 판단하고 최강전력인 미 해병여단의 투입을 결정하고 공격을 독려하였다.¹⁷⁾ 이에 제24사단장은 어봉리 능선과 클로바있고지 일대를 집중 포격한 후 해병여단은 어봉리 능선을, 그리고 제9연대는 클

16)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148.

17)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161.

로바있고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북한군도 이 지역으로 전차 4대를 증원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제9연대는 17일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에 힘입어 클로바있고지를 점령하였으나 해병여단은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18일 저녁 무렵에 제9연대의 측방지원과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이 적을 구축하고 저녁 무렵 어봉리능선을 탈환하였다.

아군의 강력한 공격과 항공폭격 및 포병화력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북한군 제4사단이 18일 저녁 야음을 이용하여 10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낙동강을 건너 철수함으로써 낙동강 돌출부지역 전투는 일단락되었다.¹⁸⁾

이 전투에서 아군은 축차적인 부대투입과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지역을 탈환함으로써 낙동강방어선의 중요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반면 북한군도 제4사단이 다시는 낙동강전선에 투입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낙동강방어선 돌파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¹⁹⁾

(4) 마산 서부 반격작전

북한군 제6사단은 미 제8군의 좌측방을 돌파한 후 진주-마산-부산 축선으로 진출하여 부산을 점령할 목적으로 마산 방면에 공격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때 낙동강 돌출부의 남쪽 남지(南旨)에서 마산에 이르는 낙동강방어선을 담당한 제25사단은 8월 4일까지 제35연대를 중암리에, 제24연대를 함안 부근에, 제27연대를 진동리(鎭東里)에 배치하고

1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25.

1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166.

있었다. 그러나 적의 선두부대들은 이미 사단의 후방지역인 함안 남서쪽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다.

제8군사령관은 역공격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집중되는 적의 위협을 제거함은 물론 적의 예비대를 이 지역으로 유도하여 대구전선에 대한 압력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목적으로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한 이후 최초로 사단급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²⁰⁾ 그리고 제25사단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제27연대와 제5연대전투단을 교대시킨 데 이어 제1해병여단, 제89중전차(M4A3)대대, 해병제1전차대대를 배속시켜 제25사단장의 이름을 따서 킨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를 편성하였다.²¹⁾

킨특수임무부대는 진주를 탈환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진주에 이르는 3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8월 7일 06:3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쪽의 제35연대는 이날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부계리 부근에서 적 1개 대대규모를 격퇴하고 계획대로 무촌리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남쪽의 제5연대전투단과 제5해병연대는 진동 부근의 야반산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로가 차단되어 처음부터 공격이頓挫되었다.²²⁾

제5연대전투단, 제5해병연대, 제24연대의 공격부대들은 악전고투 끝에 공격개시 3일째인 9일 정오 무렵에 진동 부근의 적을 격퇴하고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공격을 재개한 제5해병연대는 11일 고성 부근에서 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83모터사이클 연대를 격멸하는 등 진출이 순조로워 12일 사천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제5연대전투단은 11일 제3대대만 진주고개에서 제35

2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26.

21)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2.

22)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139.

연대와 합류하였고, 주력은 10일 봉암리(鳳岩里) 일대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야간기습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지휘의 혼선을 빚어 제5연대전투단의 주력은 후방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11일 저녁 야간 이동중에 다시 공격을 받았고, 특히 포병은 미 제555야포대대는 2개 고사포대와 8문의 105mm 곡사포를 상실하였고, 제90야포대대는 155mm 곡사포 6문을 잃어 봉암리 계곡을 ‘피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으로 일컬어질 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제8군 명령에 의거 12일 저녁 반격작전을 중지하고 서북산 일대로 철수함으로써 진주탈환작전은 일단락되었다.²³⁾

킨특수임무부대는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공격작전에서 병력 4,000~5,000명과 전차 13대를 파괴시켜 북한군 제6사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나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 정면에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²⁴⁾ 그러나 미 제25사단은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차후 공격작전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5) 대구 북방 전투

북한군이 지난 8월공세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재정비에 주력하자 8월 10일 북한군 제3사단과 왜관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여 북한군을 격퇴시킨 제1기병사단도 유엔군의 전선조정에 따라 제5기병연대를 왜관 남쪽에, 제7기병연대를 유학산(遊鶴山) 일대에,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에 각각 배치하여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북한군이 8월 31일 낙동강 돌출부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자, 제

23)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145.

2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31.

8군사령관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기병사단장에게 북서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유인하도록 명령하였다.²⁵⁾ 이에 사단장은 다부동-대구 도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집결지로 알려진 제7기병연대 전방의 수암산(水岩山)을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제7기병연대는 9월 2일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수암산을 공격하였으나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공격에 실패하였다.

이날 저녁 이번에는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다부동 지역의 제8기병연대를 공격함으로써 사단의 우진방이 돌파되었고, 전술적 요충인 가산(架山)마저 피탈되었다. 또한 중앙의 제7기병연대도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464고지를 장악한 북한군에게 포위되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5일 제1기병사단에 야간을 이용하여 칠곡 부근의 신방어진지로 철수하도록 하였고, 사단은 다부동의 제8기병연대, 수암산의 제7기병연대, 그리고 303고지의 제5기병연대 순으로 진지를 이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유엔군은 적에게 왜관-대구의 진출로를 열어 주어 대구의 위기는 심각하게 고조되었고, 낙동강방어선의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락하였다.²⁶⁾

이 철수과정에서 제7기병연대는 신방어진지의 일부인 465고지를 적이 장악하고 있어 악전고투 끝에 이 지역을 돌파하였으나 사단명령에 의거 7일 제1대대는 제5기병연대에 배속되고 연대주력은 대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그리고 제5기병연대도 7일 왜관 북쪽의 303고지²⁷⁾에서 신방어진지로 철수하였으나 신방어진지상의 345고지를 피탈하고 왜관 남동쪽 창평동(昌平洞)

25)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219.

26)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220.

27) 303고지: 이 고지는 왜관 일대에서는 최고봉으로 그 남쪽 사면은 왜관 시내로 뻗어 있으며 철도, 도로, 하천 등을 감제하는 주요고지이다.

일대의 203고지-174고지 부근만 확보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13일 자정 무렵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이 고지마저 피탈하였으나 14일 역습을 개시하여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뒤바뀌는 쟁탈전을 벌여 174고지만 재탈환하였다.²⁸⁾

이 무렵 우전방 제8기병연대가 다부동 남쪽 570고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11일 북한군의 일부가 대구가 내려다보이는 칠곡 북동쪽의 31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고립될 위기에 직면하였다.²⁹⁾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12일 역습을 개시하여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역습과정에서 많은 인적 피해를 입었고, 이때 적도 700여 명의 손실을 입었다.³⁰⁾

9월 12일 제7기병연대가 314고지를 탈환한 것을 계기로 유엔군은 낙동강방어선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대구를 점령한 후 포항, 경주, 축선을 통하여 부산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무산시켰다.

(6)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장군은 개전초기에 구상한 인천상륙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선상황이 악화될수록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천상륙계획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 결과 합동전략기획단은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이름 아래 인천상륙계획, 군산상륙계획, 주문진상륙계획 등 3개의 계획을 작성하였다.³¹⁾

2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56.

29)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228.

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57.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 35.

인천상륙계획을 발전시키는 동안에도 상륙지역 선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군측은 인천지역의 조수, 수로, 해안조건이 상륙작전에 많은 제한요소가 되고 있음을 들어 반대하였고,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장군은 대안으로 군산을 상륙지역으로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시종 일관 서울의 조기탈환이라는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인천상륙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결과 미 합참은 8월 28일 인천상륙을 최종 결정하였고, 상륙작전 개시일도 9월 15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 제7사단, 제2특수공병여단과 국군 제1해병연대, 제17연대를 주축으로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이 편성되었다.

미 극동해군도 미 해군 함정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함정을 포함 총 260여 척으로 7개 기동부대로 구성된 제7합동기동부대를 편성하고, 상륙작전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³²⁾

이 무렵 북한군은 거의 모든 전투역량을 부산교두보 확보를 위해 낙동강전선에 집중하고 있었다.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 경비부대와 병참선 경비부대, 그리고 일부 신편부대들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제918해안포연대의 예하부대가 해안을 방어하고 있었고,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된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인천을 방어하고 있었다.³³⁾

9월 초 상륙기동부대는 부산과 일본 요코하마(橫濱), 고베(神戸)에서 상륙군을 탑재하고 10일 인천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 107.

3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02.

극동공군은 상륙지역을 엄폐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군산에 이르는 해안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격하였고, 12일 밤에는 한·미·영 혼성부대가 군산에 상륙양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3일에는 미 해병항공기와 항공모함 탑재기들은 물론 4척의 항공모함, 6척의 구축함, 5척의 순양함이 참가하여 인천과 월미도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였다. 또한 동해안에서도 14일과 15일 양일 동안 삼척 일대를 포격하였다.

제7기동함대는 해상 이동중 두 차례나 태풍을 만났으나 이를 극복하고 인천 외해에 집결하였고, 15일 새벽 인천상륙은 계획대로 시작되었다. 상륙군 선봉에 나선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가 녹색해안으로 상륙하여 08:00에 월미도를 점령한 데 이어 오후 만조 시간에 제5해병연대 주력과 국군 제1해병연대가 북쪽 적색해안으로, 미 제1해병연대가 남쪽 청색해안으로 상륙하였다. 이후 상륙돌격부대들은 시가전을 벌여 북한군을 소탕한 후 16일 저녁 무렵 인천 외곽을 연결하는 해안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은 성공리에 종료되었다.³⁴⁾

인천상륙작전은 완전한 기습작전으로서 남침한 북한군의 전력을 일시에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전 이후 그때까지 수세 일변도였던 유엔군의 입장을 공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7) 평양탈환작전

제8군의 주공 군단으로 평양탈환을 맡은 미 제1군단(배속:미 제1기병사단, 제24사단, 영 제27여단, 국군 제1사단)은 14일 금천 일대

34)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268.

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금천을 확보함으로써 평양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³⁵⁾

금천이 피탈되자 김일성은 대노하여 “앞로는 일보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 물러설 땅이 없다.”고 강조하고 각 부대장에게 독전대를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³⁶⁾ 그러나 북한군은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미 제1군단은 전차와 포병의 화력엄호하에 북한군을 추격하여 17일 사리원, 황주로 진출하였다. 이때 미 제24사단과 제1기병사단(배속: 영 제27여단)이 평양 입성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이라도 하듯 사리원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의국도로 진출한 기병사단이 먼저 사리원에 도착함으로써 평양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제24사단은 진남포를 공격하게 되었다.

미 제1군단이 10월 17일 평양 외곽선인 황주-울리 선까지 진출함으로써 평양까지 불과 40km를 남겨 두게 되자 제8군은 18일 포위공격으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하여 기병사단은 남쪽에서, 국군 제1사단은 동남쪽에서, 그리고 국군 제2군단은 북동쪽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³⁷⁾ 이 무렵 북한군은 평양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멸약산맥 일대의 평양외곽방어선에서 유엔군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황주-울리 선이 붕괴되자 대동강 및 동평양 일대에서 저항을 기도하고 있었다.³⁸⁾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 제7기병연대가 18일 새벽에 황주에서 전차 20대를 앞세우고 진격을 개시하여 흑교리(黑橋里)로 접근하

35)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36.

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23.

37)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45.

3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32.

자 전차와 120mm 박격포로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화력을 집중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연대의 공격이 돈좌되었다. 이에 기병사단장은 이날 밤 제5기병연대에 제7기병연대를 초월하여 평양을 탈환하도록 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19일 새벽에 흑교리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무진천(茂辰川)변에서 대전차포로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정오 직전에 동평양으로 진출하였다. 이어서 제5기병연대는 선교리(船橋里) 일대에서 사단의 우인점에서 동평양으로 진출한 국군 제12연대와 연결하였고, 20일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부대들이 평양 중심부로 진출함으로써 평양탈환작전은 제8군이 복진을 개시한 지 12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때 20명의 미군포로가 탈출하여 구출되었으나 많은 포로는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하기 며칠 전에 북으로 후송되었다.³⁹⁾ 그리고 21일 평양비행장에서는 맥아더 장군과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탈환 기념식을 가졌다.

(8) 숙천-순천 공수작전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 주력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 적 병참선의 붕괴, 북한관리의 포획, 그리고 후송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백명의 미군포로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 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는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평양 북방에 투하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⁰⁾

작전개시일은 유엔군이 평양을 완전히 탈환하는 날로 결정하였으며, 투하지역은 평양 북쪽 약 56km 지점의 숙천(주투하지역)과 그 동쪽으로 17km 떨어진 순천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들은 평

39)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49.

4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43.

양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과 평양에서 만포진을 연결 만포선 철도와 도로상의 중요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이 무렵 제 187공정연대전투단은 김포비행장에서 작전준비를 마치고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한 다음날인 10월 20일 02:30에 기상하여 투하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새벽부터 폭우가 내려 공수작전은 지연되었다. 다행히 정오 무렵부터 날씨가 호전되자 전폭기들이 먼저 낙하지역을 맹폭격하였고, 이어서 C-119 수송기와 C-47 등 113대에 분승한 공정연대가 서해안을 따라 목표지역으로 이동 14:00부터 낙하하기 시작하였다.⁴¹⁾ 이때 적의 대공사격은 없었고 산발적인 사격으로 저항함으로써 공수투하작전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병력의 투하에 이어 105mm 곡사포, 90mm 대전차포, 각종 탄약 등 74톤의 장비와 물자도 투하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중장비가 전투투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 C-119 수송기가 공수투하작전에 사용된 것도 처음이었다.⁴²⁾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저녁 무렵 잔적을 소탕하고 숙천과 순천을 장악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21일 숙천에 투하된 제3대대는 어파리(漁波里)와 영유를 방어중인 북한군 제 239연대의 후방을 공격하였고, 이때 평양에서 북진을 개시한 영제27여단도 남쪽에서 이 적을 공격하였다. 이 포위공격에서 제3대대는 다수 북한군을 생포하고 22일 11:00에 제27여단과 연결작전에 성공하였다. 또한 순천에 투하된 제2대대도 순천 북쪽 9km에 위치한 터널을 수색하여 미군 23명을 구출하고 전사체 66구를 회수하였고, 21일 09:00 미 제1기병사단 선두부대와 연결하였다.

4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51.

42)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351.

이 작전에서 당초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잔존병력 약 30,000명 중 25,000명이 공수작전의 뒷에 걸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187공정연대는 공정작전에서 기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2,000명, 포로 3,818명만 획득하였다.⁴³⁾ 반면 연대도 공수낙하시 46명, 지상작전에서 65명의 전사상자를 내었다.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엔군이 평양으로 진출하기 이전인 10월 12일경 북한 정부관리들과 북한군 주력은 이미 빠져 나갔으며, 이때 유엔군 포로들도 후송되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숙천-순천지역 공수작전 결과는 북한군 주력의 퇴로차단 및 미군 포로의 구출이라는 최초의 작전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⁴⁴⁾

(9) 운산전투

북한군을 추격한 유엔군이 10월 24일 한만국경선을 목표로 추수감사절 공세를 개시하자 한국전쟁은 종료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25일 국군 제1사단이 운산 북쪽에서 강력한 적의 저항으로 공격이 돈좌되었다. 이때 국군 제1사단은 최초로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였으나,⁴⁵⁾ 이를 심문한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참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제8군사령관은 오히려 공격기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27일 군예비로 평양에 집결중인 제1기병사단에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여 수풍호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고, 사단 주력이 30일 운산에 집결하자 운산-삭주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31일 국군 제12연대가 미 제8기병연대에 진지 인계를 시작하자

43)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55.

4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45.

45)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559.

중공군은 아군의 항공공격을 우려한 듯 주변고지 여러 곳에 산불을 놓아 연기로 공중관측을 차장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지교대는 11월 1일 오후에 완료되었고, 운산을 두고 좌전방에는 제8기병연대, 우전방에는 국군 제15연대가 등을 맞대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⁴⁶⁾ 이때 전방상황을 파악한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에 긴밀히 협조하여 청천강교두보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방어명령은 군단이 부산교두보선을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지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자정 무렵에 중공군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국군 제15연대를 기습하였고, 이 여파는 좌인접의 제8기병연대로 확산되었다. 중공군은 아군의 철수로인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한 후 대대지휘소를 기습하여 수류탄으로 차량들을 파괴시키는 등 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제8기병연대는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쳤고, 제1기병사단장도 제8기병연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제5기병연대를 투입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2일 적의 도로 차단점인 거북머리(하초동)를 공격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제8기병연대의 주력은 철수할 수 있었으나 제3대대는 적중에 낙오되었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미 제1군단장은 제1기병사단장에게 11월 2일 15:00를 기하여 구출작전을 포기하고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⁴⁷⁾ 이때부터 제8기병연대 제3대대는 4일까지 적과 치열한 혈전을 펼쳐 일부는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대대 주력은 전사하거나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당시 미 언론들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8기병연대가 전멸하였다

4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106.

47)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80.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청천강을 연한 우군 진지로 복귀하였다. 이후 지역민들의 극진한 치료를 받고 있던 부상병들도 점차 경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⁴⁸⁾

(10) 군우리 전투

유엔군은 11월 24일 이번 공세로 한국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당시 미 제2사단은 미 제9군단의 주력부대로 희천을 목표로 군우리-구장동-희천 도로를 따라 진출중에 있었으나, 11월 26일 02:00경 중공 제40군의 기습으로 구장동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방연대들이 28일 01:00경 또 한 차례 기습공격을 받아 분산 철수함으로써 제2사단은 군우리(軍隅里) 북쪽 원리-비호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때 제9군단장은 적 주공을 맞아 격전을 치르고 있는 제2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국군 제3연대와 터키 여단을 사단에 배속하였다.⁴⁹⁾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전선은 29일 정오 무렵 중공군이 공격을 재개함으로써 제2사단은 화력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공격에 덕천-군우리 도로를 방어중인 터키 여단과 제38연대 진지가 돌파됨으로써 구장동-군우리를 방어중인 제23연대와 비호산을 방어중인 국군 제3연대의 퇴로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이때 제9군단장은 제2사단장에게 군우리에서 순천 일대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고, 예하연대들은 제23연대의 엄호하에 군우리 남쪽의 조통강(槽桶江)변으로 집결하였다.

이때 중공 제38군의 일부가 군우리를 우회기동하여 제2사단의

48)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83.

4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195.

철수로인 군우리-순천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사단의 철수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날(29일) 제2사단은 전방연대들이 조통강 부근으로 집결하는 동안 사단의 안전한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차로 증강된 정찰대를 파견하였으나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차단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복귀하였다. 이에 제9군단장은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중공군을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압박하기 위하여 예비인 영 제27여단에 갈현리로 진출하여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⁵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깔리자 적의 박격포탄이 사단 집결지 부근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단장은 이를 적의 포위망이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돌파를 결심하였다.

30일 08:00에 선봉에 나선 제9연대는 적 차단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9연대는 감제고지를 선점하여 계곡 통로에 강력한 화망을 구성한 적의 저지공격이 돈좌되었고, 이번에는 국군 제3연대가 투입되었다. 제3연대는 09:00부터 2차에 걸쳐 돌파작전을 시도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미군 전차의 오인사격으로 실패하였다.⁵¹⁾

이 무렵 항공폭격의 지원하에 사단 후방을 엄호중인 제23연대도 중공군의 추격으로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로써 진퇴양난에 봉착한 제2사단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의 포위망이 압축되자 제38연대를 선두로 사단사령부, 각종 포병부대, 공병부대, 제9연대, 국군 제3연대, 터키 여단 순으로 철수체대를 편성한 후 강력돌파를 명령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가용한 차량을 이용하여 최대한 탑승하도록 하였

5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52.

5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23.

고, 특히 전 부대는 가능한 정지하지 말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강조하였다. 정오가 조금 지나 전차를 앞세운 철수작전은 시작되었고, 중공군은 30~40정의 기관총과 10여 문의 박격포를 동원하여 집중적인 사격을 개시하였다.⁵²⁾ 이 사격에 철수제대는 일단 정지-대기-출발을 반복하였고, 지원 나온 항공기의 포격이 진행되는 틈을 이용, 철수제대는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제2사단은 강력한 적의 차단거점인 갈고개를 넘어 용원리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강력돌파 과정에서 포병부대들이 곡사포를 유기하고 철수하는 등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확실한 적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강력돌파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3,000여 명의 사상자와 포로 및 실종자도 3,000여 명이나 발생하였고, 또한 각종 화포와 기동장비를 유기하는 참극을 빚고 말았다. 이때부터 미군들은 이 철수로를 태형의 계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⁵³⁾

(11) 장진호 전투

당시 해병사단은 적정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장진호(長津湖) 일대의 작전지역이 산간 오지로 기동공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제7해병연대가 유담리를 확보하면 제5연대가 초월공격으로 무평리(武坪里)를 공격하도록 하였고, 예비인 제1해병연대는 사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장진호-함흥 간 계곡통로를 경비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7해병연대는 25일 접적 없이 무평리 공격의 발판이 되는 유담리(柳潭里)를 점령하였고, 공격선봉에 나선 제5해병연대는 27일 08: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공격은 얼

52)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15.

5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326.



미 제1해병사단 유담리에서 철수

마 되지 않아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돈좌되었고, 제5, 제7해병연대는 방어로 전환하였다.⁵⁴⁾ 이날 밤 해병연대들을 포위한 중공군은 공격을 개시하였고, 연대들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악전고투하였다. 중공군의 포위망이 압축되고 있을 무렵 군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자 해병사단장은 30일 유담리로 진출한 제5, 제7해병연대와 사단에 배속되어 풍류리강으로 진출중인 미 제7사단 페이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Faith)에 하갈우리(下碇隅里)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중공 제9병단은 제26군(4개 사단)을 장진호 북쪽에 예비로 확보한 가운데 제27군(4개 사단)은 하갈우리 일대의 해병사단 주력을 포위공격하도록 하고, 제20군(4개 사단)은 우회기동하여 제27군보다 남쪽으로 진출하여 하갈우리-함흥 간 도로를 분할 차단하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p. 89.

고 일부는 함흥을 공격하도록 하였다.⁵⁵⁾ 따라서 적의 강력한 포위망을 돌파하고 함흥으로 철수해야 하는 해병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은 처음부터 고전이 예상되었다.

12월 1일 유담리에서 철수를 개시한 제5, 제7해병연대는 중공군의 교량파괴와 매복공격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4일 하갈우리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풍류리에서 철수한 페이스특수임무부대는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다수의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겨우 뽕뽕 얼어붙은 장진호를 경유하여 3일 하갈우리로 철수하였다.⁵⁶⁾ 이때 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해병사단장은 철수작전에 장애요소인 부상자들을 후송시키기 위하여 서둘러 간이활주로 공사를 완료하고 4,300명의 부상자를 후송시켰다. 그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이번 철수작전은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격멸하는 새로운 공격작전이다.”라고 강조하였다.⁵⁷⁾

사단 주력부대가 12월 6일 철수작전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계곡통로의 좌우 감계고지를 점령하고 사단의 철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화력을 집중하였다. 사단도 이에 맞서 강력한 항공지원과 포병화력으로 중공군을 격퇴하고 7일 중간목표인 고토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공군의 수중에 있는 철수로상의 요충인 황초령 통과와 그 남쪽 중공군이 파괴시킨 수문교의 복구가 이번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예비인 제1연대에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황초령을 확보하도록 하고, 군단으로부터 교량자재를 공수지원받아 조립교 6개를 만들었다.⁵⁸⁾

5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31.

56)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32.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p. 207.

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33.

먼저 황초령을 확보할 제1연대 제1대대가 남쪽에서 8일 02:00에 출발한 데 이어 08:00에는 사단주력이 북쪽에서 진흥리를 목표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제1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과 영하 34도의 혹한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9일 아침에 항공포격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힘입어 주력부대가 통과하기 수분 전에 간신히 황초령 일대를 점령하였다. 첫 관문을 통과한 해병사단은 제7해병연대를 공격선봉에 내세워 수문교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사단의 강력한 화력과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전의를 상실하고 있어 제7해병연대는 쉽게 최대 난관인 수문교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어서 공병대대가 작업개시 3시간 만에 임시가교를 설치하였고, 통로가 연결되자 주력부대들은 밤새도록 이 교량을 통과하여 진흥리(眞興里)로 이동하였다. 11일 13:00 최종 후미에서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던 제1연대 제1대대가 진흥리로 복귀함으로써 장진호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해병사단은 중공군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강력한 화력지원과 장병들의 강인한 공격정신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사상자 2,621명 중 1,534명의 동상환자가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입었다. 반면 중공 제9병단도 결정적인 피해를 입어 4개월 동안 함흥 일대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에야 다시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다.⁵⁹⁾

(12) 흥남철수작전

1950년 10월 말 동부전선으로 진출하였던 미 제10군단(국군 제1군단 배속)은 중공군이 11월공세를 개시하자 최초에는 함흥-원산

5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35.

일대에 해안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월 8일 유엔군 사령관이 흥남철수를 명령하자 철수준비에 주력하였다.⁶⁰⁾

이때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제10군단 본부와 국군 제1군단, 미 제7사단, 미 제3사단 순으로 철수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대의 안전한 철수를 위하여 3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대의 철수 및 배치공간을 엄호하기 위하여 흥남 부근 해상에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7척, 로켓포함 3척을 배치하여 최대한의 화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10군단이 철수시켜야 할 물동량은 먼저 원산과 성진에서 철수한 인원과 장비를 포함하여 병력 105,000명, 차량 18,422대, 그리고 각종 전투물자 35,000톤이었다.⁶¹⁾ 이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미 해군은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였고, 미 극동공군의 전투 화물사령부도 연포비행장을 통하여 수송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흥남철수작전은 12월 11일 맥아더 장군의 연포비행장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성진에서 해상으로 철수한 국군 제3사단은 서호진에 상륙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바로 부산으로 향하였고, 이어서 15일 탑재가 완료된 미 제1해병사단도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이때 해안교두보선(광포호-오로리-마전리 외곽)을 방어중이던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은 제1통제선(여위천-함흥 남쪽-마전리)을 점령함으로써 철수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의 강력한 도로통제에도 불구하고 함흥-흥남 도로에 장사진을 친 피난민의 철수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최초 제10군단은 군·경가족과 일부 피난민의 수송만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60)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47.

61)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70.



유엔군의 수송선을 타기 위하여 어선으로 흥남 외항에 집결한 피난민

육군본부가 피난민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제10군단장은 피난민들을 서호진항에 집결시켜 가용한 선박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후송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⁶²⁾

그리고 17일 자정 무렵 미 제10군단 본부와 국군 제1군단이 철수를 개시하자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은 제2통제선(성천강-흥남 북쪽-마전리)을 점령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아군을 추격하였으나 이는 공격이라기보다도 아군의 철수상황을 정찰하고 있어 통제선에서의 피해는 없었다. 그리고 21~22일에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마지막 철수제대인 미 제3사단은 23일 제3통제선(흥남부두-서호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도 24일 아침부터 승선을 개

6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49.

시하였고, 마지막 수송선박이 14:30에 홍남항을 빠져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미 제10전투공병대대와 해군의 수중폭파대가 홍남항을 폭파하였다.⁶³⁾

당초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철수가 12월 27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송부대의 조직적인 활동과 적의 경미한 저항으로 철수작전은 24일 종료되었다. 이때 200톤의 탄약과 이와 비슷한 양의 얼어붙은 폭약, 500발의 포탄, 그리고 200드럼의 유류는 후송하지 못하고 파괴하였다. 또한 홍남항에는 안타깝게도 수송능력의 부족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불타는 부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⁶⁴⁾

(13) 원주전투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37도선(평택-장호원-제천-삼척)으로 철수하고 있을 무렵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에 중부전선의 요충인 원주 확보를 강력히 지시하였다.

이에 미 제2사단은 원주와 남쪽의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 외곽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5군단이 1951년 1월 7일 주력부대의 공격에 앞서 05:30경 400명 가량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횡성-원주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피난민 대열에 침투시켜 선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사단의 전초진지와 주진지를 통과한 후 후방에 있는 2개 대대의 본부를 기습하였고, 이때 비로소 사단이 적의 침투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원주 결전이 시작되었다.⁶⁵⁾

6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51.

64)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52.

65)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327.

설상가상으로 사단의 좌인접 문막 일대에 배치된 국군 제8사단마저 북한군의 공격에 돌파됨으로써 미 제2사단의 방어진지가 돌출되었다. 제2사단은 방어진지 유지가 어렵게 되자 군단의 지시에 의거 원주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군단장은 사단이 시가지와 비행장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의 발판이 되는 시가지 남쪽의 고지군으로 철수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사단은 7일 밤에 이보다 훨씬 남쪽의 원주-목계동 도로변의 미촌(薇村)으로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원주를 포기하였다.⁶⁶⁾ 이때 미 제10군단장은 원주의 점령여부가 중부지역을 장악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8일 아침까지 4개 대대규모 이상을 시가지 남쪽의 고지군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제23연대 제2대대는 8일 아침에 근접항공지원의 엄호하에 원주 진출의 발판이 되는 247고지를 기습공격하여 적 200여 명을 사살하였으나 연대규모의 역습을 받아 물러나고 말았다.

이때부터 쌍방은 증원부대를 교대로 투입하여 전술적 요충인 247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⁶⁷⁾ 당시 제2사단의 공격은 눈보라가 휘몰아쳐 부대기동의 제한은 물론 공중지원마저 받지 못하여 공격이 돈좌되기 일쑤였다. 제23연대는 10일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만 북한군 2,000여 명을 사살하였으나 연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혈전을 벌였다. 제23연대는 11일 프랑스 대대와 네덜란드 대대를 증원받아 공격을 재개하였고, 다행히 이날 오후가 되면서 며칠 만에 기상이 호전되어 항공지원이 가능하여 공격개시 4일 만에 북한군 1,100여 명을 사살하고 전술적 요충인 247고지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⁶⁸⁾

66)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228.

6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328.

68)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230.

이때 북한군 제5군단도 전 부대를 원주에 투입하여 최후의 일전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아군의 항공 및 포병화력에 많은 인명손실은 물론 탄약마저 바닥나 원주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북한 제5군단은 이 작전에 투입된 사단들이 재편성이 요구될 정도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17일 제27사단을 전방에 배치하여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고 군단 주력을 횡성으로 철수함으로써 원주전투는 미 제2사단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북한군의 중부전선 돌파를 저지한 미 제2사단은 중동부전선에서 철수중인 국군을 좌측방에서 엄호함은 물론 차기 반격을 위한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전투에서 거둔 성과는 지난해 11월 말 군우리전투에서 입은 오명을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영광된 결전이었다.⁶⁹⁾

(14) 지평리 전투

미 제2사단 제23연대(배속: 프랑스 대대)는 2월 초 좌인점에서 한강으로 진출중인 미 제9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지평리(砥平里) 일대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의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되자 미 제2사단장은 남한강에서 원주에 이르는 배치공간에 위치한 제23연대의 고립을 우려하여 철수를 계획하였으나, 제8군사령관은 이 지역으로 진출한 적이 서부전선에서 한강선으로 진출중인 미 제1, 제9군단의 측후방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지고수를 지시하였다.⁷⁰⁾ 따라서 제23연대장은 전략·전술적 요충인 지평리 일대에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공간지대에는 지뢰와 철조망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433.

7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308.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

2월 11일 야간에 2월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황성 일대에서 국군 제5, 제8사단을 공격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전과확대를 목적으로 13일 지평리를 공격함으로써 혈전의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연대는 낮 동안 진지로 접근하는 적을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으로 이들의 접근을 저지함으로써 전투는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이 틈을 이용 연대를 포위한 후 22:00부터 전정면에서 과상공격을 개시하였다.⁷¹⁾ 연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포병, 전차, 대공포의 집중사격과 백병전까지 벌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병들의 눈물겨운 악전고투는 물론 부상을 입은 연대장도 후송을 거부하고 계속 부대를 지휘하였다.

제23연대가 적중에 고립되자 제8군은 14일 좌인접 미 제9군단 제5기병연대를 증원부대로 투입하였고, 남한강을 도하한 제5기병연대는 곡수리-지평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⁷²⁾ 이때 제23연대도 낮 동안 증원부대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주력부대들은 진지보강에 주력하고 수색대는 주변 일대를 정찰하였다. 중공군은 22:00경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포위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3시간 동안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쪽의 G중대 지역이 돌파되었으나 날이 밝자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다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연대는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면서 G중대 지역에 대한 역습을 준비하였다.

한편 14일 자정 무렵 곡수리(曲水里)로 진출한 제5기병연대는 15일 아침에 제23연대와 연결하기 위하여 근접항공지원하에 공격

71)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308.

72)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312.

을 개시하였으나 적이 진출로상의 교량을 파괴시킨 후 완강하게 저항하여 공격이頓挫되었다.⁷³⁾ 제5기병연대는 금일중으로 제23연대와 연결하기 위하여 15:00에 전차 23대와 L중대로 강력한 보전조를 편성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보전조는 적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7:00경 지평리 부근으로 진출하여 때마침 지평리 남쪽 망미산을 역습중인 제23연대 전차부대와 연결하였다. 이때부터 망미산에 배치된 중공군은 제5기병연대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된 듯 철수하였고, 이 무렵 항공정찰에서 중공군이 지평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관측하였다. 또한 16일 새벽 제23연대의 정찰대도 중공군의 퇴각을 확인함으로써 지평리 전투는 일단락되었다.⁷⁴⁾

이 전투에서 제23연대는 강력한 진지고수 의지와 철저한 야간 사격통제, 적절한 예비대의 운용과 역습, 긴밀한 공지합동작전으로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격퇴함으로써 중공군의 2월공세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⁷⁵⁾

(15) 벵커고지 전투

공산군은 1951년 4월 말경 유엔군의 전선 중 국군이 담당하던 중동부전선이 돌출되자 대규모의 국군을 섬멸하여 4월공세 참패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수습함은 물론 미군을 고립시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5월 16일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현리 일대에 형성된 공산군의 돌파구는 흥천 북쪽을 방어중인 미 제2사단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중공 제45사단은 제2사단의 강력한 포병사격에도 불구하고 전

7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80.

74)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409.

75)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p. 536.

초진지를 점령한 후 17일 02:00경 총공세를 개시하였고, 09:00경에는 지역내 중요 감제고지인 가리산마저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사단은 가리산을 탈환하기 위하여 배속된 프랑스 대대와 네덜란드 대대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였다. 이때부터 사단은 일일가용탄약보급률의 5배인 3만여 발의 각종 포탄을 사격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⁷⁶⁾

반면 중공군도 돌파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어둠이 깔리자 야간공격을 개시하였고, 적의 선두는 21:30경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가 방어중인 벙커(Bunker)고지로 명명된 800고지 정상으로 돌진해왔다. 당시 이 고지는 제8군 방어계획상의 예상돌파구 좌견부에 해당하는 중요지형이었다. 따라서 제2사단은 지난 2주 동안 벙커고지 일대에 2만 개의 사낭(砂囊)으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고, 이 진지는 야포의 직격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지 전방에는 철조망, 대인지뢰 및 조명지뢰 등 강력한 장애물지대도 구축해 두고 있었다.⁷⁷⁾

아군의 집중포격으로 1차 공격에 실패하고 물러난 중공군은 대규모 부대를 증원받아 2차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K중대는 중공군과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적을 주진지로 유인한 후 진내사격을 요청하였고, 포병부대는 진지 25m 상공에서 자동 폭발하는 가변시한포탄을 집중사격하였다. 중대는 이 포격에도 불구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에 밀려 부득이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대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예비소대로 역습을 개시하였고, 소대는 포복으로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들어가 백병전을 펼쳐 고지를 재탈환하였다.⁷⁸⁾

7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68.

77)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535.

7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69.

증원군을 보충받아 재정비한 중공군은 18일 자정 무렵 재공격을 개시하였고, 중대는 준비된 사냥으로 출구를 막아 버렸다. 이때 중공군은 지상을 점령한 반면 지하는 중대가 확보하고 있는 형세가 되었다. 중대의 요청에 의거 대기하고 있던 5개 포병대대가 가변시한폭탄을 사격하자 고지는 굉음의 포성과 중공군의 신음소리만이 한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러한 사격은 19일 04:00까지 수차례 걸쳐 반복되었고, 5개 포병대대는 이날 야간에만 1만여 발의 가변신관탄을 사격하였다. 날이 밝자 중공군은 병커고지 공격을 단념한 듯 800여 구의 사체를 유기한 채 철수함으로써 혈전의 병커고지 전투는 일단락되었다.⁷⁹⁾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 K중대가 현리, 대관령 일대까지 중심 깊게 형성된 돌파구의 좌견부에 해당하는 병커고지를 고수함으로써 중공군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함은 물론 유엔군이 전선 붕괴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⁸⁰⁾

(16) 피의 능선 전투

미 제2사단은 1951년 8월 중순부터 피의 능선⁸¹⁾으로 널리 알려진 양구 북방 문동리와 사태리 계곡을 빗장처럼 가로지르는 731-983-940-773고지로 연결된 8km의 거대한 횡격실 능선에서 북한군과 피로 얼룩진 치열한 고지쟁탈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쌍방간에 설전만 계속되고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제8군은 휴전회담을 지원함과 아울러 펀치볼 일대를

79)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506.

8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70.

81) 피의 능선(Bloody Ridge Line): ‘피로 얼룩진 능선’이란 뜻에서 미국의 일간지인 성조지(The Starsand Strapes)의 기자들이 이름을 붙였다.

담당한 미 제10군단의 처져 있는 방어선을 밀어 올리기 위하여 하계공세를 개시하도록 하였다.⁸²⁾ 이 작전의 일환으로 제2사단은 국군 제36연대를 증원받아 사단의 후방지역까지 감제관측할 수 있는 피의 능선을 점령중인 북한군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군도 피의 능선 일대가 중요지형임을 감안하여 제12사단 제1연대와 제27사단 제14연대를 배치하였고, 또한 이들은 휴전협상 기간 동안 이 일대의 진지와 교통호의 유개화는 물론 진전에는 4,000~5,000개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다.⁸³⁾

이런 상황에서 미 제2사단은 8월 15~16일 양일간 항공폭격으로 적진을 강타한 후 18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공격 선봉에 나선 국군 제36연대는 18일부터 6일간 악전고투의 우여곡절 끝에 22일 자정 무렵 피의 능선을 점령하였다.⁸⁴⁾ 그러나 23일 북한군이 역습을 개시함으로써 피의 능선에서는 다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재연되었다. 계속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제36연대의 방어선이 축소되자 사단장은 미 제9연대를 증원부대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한미연합부대도 26일 적의 강력한 역습을 받아 철수함으로써 피의 능선은 다시 북한군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제2사단은 그간의 전투경과를 분석하고 부대를 재정비한 후 제9연대로 30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방어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피해자만 속출될 뿐 공격은 부진하였다. 이 무렵 때마침 미 제10군단 공격계획에 의거 31일 사단의 좌인접 국군 제7사단과 우인접 제38연대가 병진공격을 개시하면서부터 제9연대의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공격의 활로를 찾은 제9연대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p. 19.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574.

8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25.

는 9월 3일 773고지를 탈환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940고지를, 그리고 5일에는 983고지를 재탈취함으로써 피의 능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 피의 능선의 주봉인 940고지와 983고지는 측방이 노출되자 포위를 우려한 북한군이 북쪽 단장의 능선으로 철수함으로써 무혈 점령하였다.⁸⁵⁾

이로써 18일간의 피의 능선 공방전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고지 전투에서의 손실은 고지의 명칭이 표방하듯 엄청났다. 아군의 손실은 전사상자를 포함하여 2,722명으로 1개 연대규모였고, 이 중 미군의 손실이 국군의 손실보다 더 컸다. 반면 적의 손실은 15,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⁸⁶⁾

피의 능선 전투는 전선이 교착된 3개월 동안 북한군이 준비한 강력한 방어진지에 대한 공격인 데다 적도 한치의 땅도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인명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항함으로써 피아 전의(戰意)의 대결장이 되어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17) 단장의 능선 전투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를 종료한 지 열흘도 채 못 되어 군단의 ‘밀어 올리기 작전’ 방침에 따라 피의 능선 바로 북쪽 894-931-850-851고지가 종으로 연결되는 단장의 능선⁸⁷⁾을 공격하게 되었다. 단장의 능선은 피의 능선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북한군에 예비사단을 투입하여 피의 능선 못지않게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p. 126.

8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29.

87)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 연합통신 특파원이었던 스탠카터(Stan Carter)가 전방대대의 구호소를 방문하였을 때 한 부상병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라고 부르짖자, 이 전투를 단장의 능선이라고 이름지었다.

하였으며, 주봉인 931고지를 포함하는 문동리 계곡에는 제6사단을, 북쪽 851고지와 사대리 계곡에는 제13사단을 배치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은 처음부터 고전이 예상되었다.⁸⁸⁾ 이에 사단은 먼저 측방공격으로 단장의 능선 중간에 위치한 850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남북으로 분리시킨 후 목표를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방침에 의거 미 제23연대(배속: 프랑스 대대, 제38연대 제3대대)는 9월 13일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06: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첫날 공격에서 L중대는 중대장 이하 30여 명이 850고지에서 백병전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등 공격이 부진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 작전 역시 피의 능선 전투의 재판이라고 판단하고 제9연대를 남쪽의 894고지로 투입하였다. 이후 제23연대는 예하대대를 교대로 투입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매번 공격이 좌절되었다. 2주간의 일진일퇴를 거듭한 전투에서 9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단장은 제23연대장의 건의에 따라 9월 27일부로 일단 작전을 중지하고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방책을 수립하는 데 착수하였다.⁸⁹⁾

사단장은 이번 작전의 패인을 축차적인 부대 투입과 화력부대 운용의 미숙으로 결론짓고, 10월 2일 단장의 능선 공격계획을 하달하였다.⁹⁰⁾ 즉 10월 5일 제23연대가 남쪽의 931고지를 탈환하면 제2전투공병대대는 이번 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고방산리-이목정-새건배 간의 도로를 전차의 기동이 용이하도록 확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 제72전차대대가 문동리로 진출하여 적 후방을 공격함과 동시에 제23연대가 북쪽의 851고지를

8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57.

89)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164.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p. 197.

점령하면 제38연대는 제23연대를 초월하여 전과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제23연대는 5일 1차 공격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군이 상용전술로 사용하는 야간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21:30에 사단 및 군단포병 300여 명이 적진을 강타하는 동안 접적이동을 완료한 제2, 제3대는 남쪽에서, 그리고 배속된 프랑스 대대는 북쪽에서 931고지를 포위공격하였다. 이 기습적인 야간공격이 주효하여 연대는 6일 정오 무렵 북한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이 고지를 탈취하였다.⁹¹⁾ 이때 연대의 좌인접으로 진출한 제38연대도 문동리 계곡통로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군을 확보하였고, 사단공병대대는 7일부터 건설리-새건배 간 도로확장에 착수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적도 피의 능선 전투와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미 제2사단과 혈전을 벌인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중공 제68군 제204사단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제72전차대대가 문동리 일대로 진출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자 제23연대 주력과 프랑스 대대가 최종목표인 851고지 공격을 재개하여 10월 13일 동이 틀 무렵 851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단장의 능선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피의 능선 전투와 함께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유엔군의 1951년도 하계 및 추계공세 전투 중 가장 격렬하게 치러진 전투로 기록되었다. 이 전투에서 사단은 3,700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적의 피해는 북한군 제6, 제12, 제13사단과 중공군 204사단의 피해는 21,000명으로 추정되었다.⁹²⁾

9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66.

92)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168.

(18) 불모고지 전투

1951년 말부터 유엔군이 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종결지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전선에서는 쌍방이 소규모의 정찰 및 수색활동만 반복할 뿐 상대를 크게 자극할 만한 대규모 작전은 피하는 듯하였다. 이러한 전선의 소강상태는 1952년 5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 미 제1군단에 배속된 미 제45사단은 철원 서쪽의 역곡천변의 주저항선인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을 방어하고 있으나 사단의 방어정면이 중공군에 감제당하고 있어 방어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에 사단은 주저항선 전방에 전초진지를 설치하여 방어력을 보강한다는 방침하에 백마고지, 화살머리(Arrowhead)고지, 티본(T-Bone)고지, 에리(Eerie)고지, 포크찜(Porkchop)고지, 불모(Old Baldy)고지 등으로 이름 붙여진 11개 전초고지를 선정하였다.⁹³⁾ 6월 6일 낮 동안 11개 목표지역에 대한 항공폭격을 실시한 후 공격부대들은 야간 기습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포크찜고지와 불모고지를 제외한 지역은 점적 없이 점령하였으나 양 고지에서는 적과 치열한 격전 끝에 자정 무렵 점령하였다. 미 제180연대는 적의 역습과 아군의 시한신관사격에 대비 신속한 야간작업으로 유개호도 구축하고 예상접근로상에는 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하였다.

이후 중공군이 피탈한 불모고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포병과 박격포 사격의 엄호하에 중대급 이하 규모로 수차에 걸쳐 공격을 기도함으로써 전초진지쟁탈전이 시작되었다.⁹⁴⁾ 이에 맞선 제180연대도 전차와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격퇴한 후 16일 제179연대와 교대하였다. 이때부터 중공군은 10일 동안 소대~대대

93)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05.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8권), p. 589.



불모고지에 철조망 설치

규모로 공격을 반복하였고, 반면 제45사단도 전초지역을 중공군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총력전을 펼쳤다.

이때 중공군은 종전과 달리 불모고지 전방 1km에 그들의 전초를 구축하여 연대를 위협하였고, 연대는 이번 기회에 적의 방어거점을 완전 파괴시켜 적을 역곡천 북쪽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연대는 26일 아침에 적을 유인함과 동시에 항공기, 포병, 박격포로 적진지에 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중인 제179연대 C중대를 불모고지에서 잠시 철수시켰다.⁹⁵⁾ 그리고 항공포격과 포병사격이 끝나자 제179연대 C중대는 증원된 제180연대 F중대와 함께 전차의 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이 틈을 이용, 불모고지에 2개 중대

95)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07.

규모를 배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격중대들의 공격은 매우 부진하였다. 그런데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이번에는 완강하게 저항하던 중공군이 갑자기 철수하였고, 잠시 후 적의 포병 및 박격포사격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포격이 끝나자 다시 중공군이 나타나 집중사격을 개시함으로써 연대의 공격이 일시 둔화되었다.

이에 연대는 A중대를 증원시켜 이날 저녁 무렵 불모고지를 탈환하였고, 또 적의 역습에 대비, 전차를 고지에 배치하는 등 방어태세를 보강하였다.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이 27일 22:00에 대대 규모로 역습을 개시함으로써 불모고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연대는 치절한 백병전 끝에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막대한 인명손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28일 아침까지 파상공격을 계속하였다. 29일 01:00경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아군의 완강한 저항과 강력한 화력지원에 700여 명의 인명손실을 입고 철수함으로써 불모고지 전투는 일단락되었다.⁹⁶⁾

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관목이 울창하던 이 고지는 쌍방의 치열한 포격으로 대머리처럼 벗겨져 불모고지란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고지쟁탈전투의 대명사가 된 불모고지 쟁탈전은 이후에도 이곳에 배치된 유엔군에 의해 1953년 3월까지 뺏고 빼앗기는 혈전으로 점철되었다.

(19) 삼각고지 전투

휴전협상이 개시된 이후 줄곧 전력증강에 주력해 온 중공군은 1952년 여름부터 공격작전을 펴기 시작하였고, 가을에 접어들어서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엔군 전초진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96)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08.

감행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적을 수세로 몰아넣고 다시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아군이 공격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에서 ‘쇼다운(Showdown)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⁹⁷⁾

이 계획에 의거 미 제7사단은 오성산에 거점을 둔 중공 제45사단의 전초진지인 삼각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사단의 목표인 삼각고지는 오성산에서 김화로 뻗어 내린 능선상에 위치한 역삼각형 형태의 고지군이다. 남쪽의 제1봉인 598고지를 중심으로 동북쪽 800m에 제2봉(Jane Russell Hill), 서북쪽 900m에 제3봉(Pike's Peak) 등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었다.⁹⁸⁾

삼각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31연대장은 최초에는 1개 대대만 투입하도록 되었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고 2개 대대로 병진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52년 10월 14일 새벽 연대의 공격에 앞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근접항공지원사격을 실시하였고, 이때 삼각고지(Triangle Hill) 일대는 1톤 가량의 포탄이 떨어져 섬광과 포성으로 지각이 무너지는 듯하였다.⁹⁹⁾

지원사격이 끝나자 제1대대는 제인러셀고지를, 제3대대는 598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무수한 수류탄을 투척하고 폭뢰를 터뜨리면서 저항함은 물론 아군의 지원화력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저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적 진지선까지 진출하였던 공격제대들은 원위치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에 사단은 15일 제32연대 제1대대를 제31연대에 배속시켜 제31연대 제2대대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고, 공격제대들은 악전고투

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396.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 전투」, pp. 116~119.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8권), p. 379.

끝에 598고지만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¹⁰⁰⁾ 이날 늦게 그 동안 공격에서 제31연대가 큰 피해를 입어 제32연대가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때 제32연대는 공격부대의 화력지원은 물론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598고지 부근에 중포병과 박격포를 추진 배치하였다. 16일 제32연대는 배속받은 제17연대 제2대대와 제32연대 제2대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피크봉과 제인러셀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날 중공군이 야간 역습을 기도하였으나 연대가 이들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재편성을 한 후 18일 피크봉으로 역습을 개시함으로써 이때부터 쌍방은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고, 이 전투는 19일 저녁까지 계속되었으나 연대가 중공군의 역습을 격퇴하고 삼각고지를 장악하였다. 20일 이후 전투는 다소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3일 저녁 무렵 중공군이 삼각고지에서 제32연대를 축출하려는 듯 1시간 동안 집중포격을 실시한 후 피크봉과 제인러셀고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연대가 악전고투 끝에 이들을 물리친 후 미 제7사단은 25일 군단명령에 의거 작전지역을 국군 제2사단에 인계함으로써 사단의 삼각고지 전투는 일 단락되었다.¹⁰¹⁾

이때 제7사단은 12일간의 전투에서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전투를 통하여 유사한 지형에서의 예행연습, 목표탈취 후의 행동, 공격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부대교대 등 많은 전훈을 얻었다.¹⁰²⁾

100)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25.

10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399.

102)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26.

3. 해군의 활동

(1) 1950년도 작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일본 해역에서 활동중인 미 해군세력은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96기동부대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 및 화물수송선 각 1척을 보유한 제90기동부대가 있었다.¹⁰³⁾ 그리고 미 해군의 핵심세력인 제7함대는 필리핀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26일 구축함 2척을 인천에 파견하여 미국인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 무렵 유엔이 북한군의 철수를 결의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7일 지상군의 파견에 앞서 극동 해·공군에 한국군의 엄호와 지원을 명령함으로써 극동해군은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 명령에 의거 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으로 한국지원전대(TG96.5)가 편성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통영으로부터 울진에 이르는 해안과 인근 도서를 방호하고, 삼척-강릉 사이의 해역을 경비하게 되었다.¹⁰⁴⁾ 6월 28일 한국으로 출동한 주니유(Juneau)호는 거제도 일대를 정찰한 데 이어 29일 동해로 이동하였다. 해상을 초계중이던 주니유호는 23:00경 묵호 해안에 집결중인 적을 발견하고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400여 발을 포격하였다. 그리고 7월 2일 주문진 해상에서 북상중인 북한군의 어뢰정 4척과 포함 2척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을 벌여 어뢰정 3척과 포함 2척을 격침시켰다. 이는 미 해군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함정과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해상교전으로 기록되었다.¹⁰⁵⁾

103)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p. 58~59.

104) 해군본부(역), 위의 책, p. 68.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p. 905.

7월 중순 해상수송지원대(MSTS: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의 병력 및 물자 수송으로 부산항의 하역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극동군사령부는 추가로 증원되는 미 제1기병사단을 포항에 상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90기동부대는 ‘블루하트(Blue hearts)’라는 암호명의 상륙작전을 준비하여 18일 제1기병사단을 포항에 상륙시킴으로써 지상군의 낙동강방어선 구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7월 25일 그 동안 해상작전을 지휘해 온 한국기동전대(TG96.5)는 해군 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호송단대, 서해지원단대와 2개의 동해지원단대로 개편되었다.¹⁰⁶⁾

한편 한국전쟁 초기부터 인천상륙을 구상한 맥아더 장군의 상륙계획이 8월 23일 도쿄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크로마이트(Chromite)’라고 명명된 인천상륙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하여 특별히 편성된 제7함동기동부대는 예하에 공격부대, 초계 및 수색부대, 봉쇄 및 엄호부대, 고속항모부대, 군수지원부대, 선발전대, 기함전대, 상륙군을 두었고, 총 함정수는 260여 척이었다. 이 중 180여 척이 공격부대인 제90기동부대에 할당되었다.¹⁰⁷⁾

상륙작전계획에 의거 9월 초에 부산, 일본의 사세보(佐世保), 고베(神戸), 요코하마(横濱)에서 상륙군과 물자를 탑재한 후 10일부터 참가 함정들은 인천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3일 인천상륙의 서막을 알리는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이 시작되었고, 15일 새벽 2차로 월미도에 대한 함포 및 항공 포격이 끝나자 상륙군이 상륙돌격을 개시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6)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p. 161~162.

1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685~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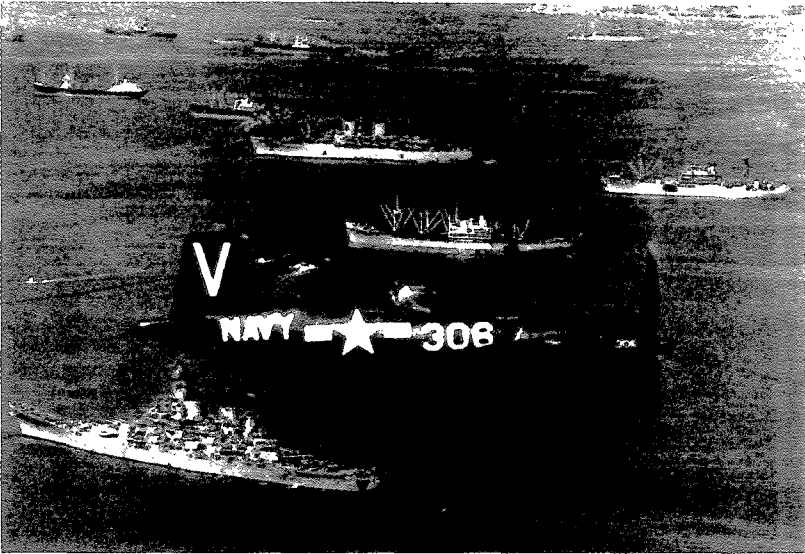
16일 미 해병사단이 해안두보를 확보하자 후속부대의 상륙에 이어 각종 보급품의 양륙도 개시되었다. 상륙군이 경인가도로 진출하자 인천 외해에 정박중인 함정들은 함포사격으로 상륙의 공격군을 지원하였고, 21일 상륙군사령관 미 제10군단장이 지휘권을 인수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38도선으로 재진출한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하자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시함으로써 10월 4일 원산상륙을 위한 탐재가 인천과 부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테일보드(Tailbord)’로 명명된 이 작전은 원산항 일대에 부설된 기뢰제거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부각되었다.¹⁰⁸⁾ 이를 위해 제7합동기동부대는 10일부터 미 소해정 10척, 일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총 21척의 소해정을 동원하여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약 3,000개가 넘는 많은 기뢰가 광범위하게 부설되어 있어 상륙예정일인 20일까지도 소해작업은 계속되었다. 이 기뢰제거작전에서 소해정 4척이 작전 도중 침몰되었고, 상륙군은 원산 외항에 도착하여 1주일이나 해상에서 체류하다가 25일 접적 없이 원산에 상륙하였다.¹⁰⁹⁾

이 작전에 이어 유엔해군은 평양을 탈환한 지상군이 청천강변으로 진출하자 이들의 군수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남포 기뢰제거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고, 소해전대가 10일간의 소해작전을 실시하여 212발의 기뢰를 소해함으로써 11월 7일부터 보급품을 탐재한 상륙함정들이 진남포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08)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278.

109)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273.



해군 항공기의 엄호하에 상륙전단이 인천으로 집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였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제90기동부대사령관은 모든 수송함정들을 두 시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2월 초 미 제8군이 평양에서 철수를 결정하자 미 해군도 구축함 4척과 가용한 선박을 총동원하여 진남포에서 12월 5일까지 부상병, 포로, 군수물자, 피난민 3만여 명을 38도선 남쪽으로 철수시켰다.¹¹⁰⁾

한편 동부전선에서도 12월 3일부터 원산항을 통한 해상철수에 이어 10일부터는 흥남에서 미 제10군단 주력부대의 본격적인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미 해군은 적의 추격을 차단하고, 해상 철수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2척

11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44.

과 구축함 7척, 로켓포함 3척으로 화력지원부대를 편성하여 외해에 대기시켰다.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한 이 철수작전은 15일 미 해병사단을 탑재한 선박의 철수를 시작으로 24일 오전 마지막 제대가 흥남항을 빠져 나가자 14:30에 폭파제대가 흥남항을 폭파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때 병력 105,000명, 피난민 91,000명, 화물 35,000톤, 차량장비 17,500대 등 대형선박 193척의 선적량이 해상철수되었다.¹¹¹⁾

이와 같이 미 해군은 1950년 12월 한 달 동안 흑한과 불량한 해상조건에서도 한국전쟁에서 해군의 3대 철수작전이라고 알려진 진남포, 원산, 인천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2) 1951년도 작전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평택-제천-삼척 선으로 밀려났던 지상군이 1월 말 재반격작전을 개시하면서부터 해상작전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봉쇄 및 호송작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해함들은 일조시간이 짧아 작전이 제한되고 설상가상으로 강풍과 추위를 동반한 날씨도 소형함의 활동에 장애요소가 되었다.¹¹²⁾

제95기동부대는 적의 전력을 분산시켜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제90기동부대에서 상륙작전용 함정을 지원받아 간성-고성 일대를 집중 포격하는 등 위장상륙작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작전으로 적의 병력분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¹¹³⁾

그리고 2월에는 적 후방지역에서 선박통제와 기뢰부설 감시는 물론 차후작전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는 38도선 북쪽의 전략 도서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693.

112)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394.

113) 해군본부(역), 위의 책, p. 400.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 방침에 진남포 수로에 있는 초도, 웅진반도 근해의 백령도서군, 영흥만 내의 도서군을 점령하였다. 미 해군은 2월 16일 원산항을 봉쇄하였고, 3월 8일에는 항구봉쇄작전이 성진까지 확대되었다.¹¹⁴⁾

아울러 적의 후방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원산-회령 간 철도와 도로, 교량 등을 포격하였고, 이때 전함 미주리호는 16"함포로 단천강의 철교를 파괴시켰다. 3월에 접어들어서도 소해함들은 함포사격 항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함포의 엄호하에 소해작업을 계속하였고, 4월 초에는 적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영국 해병특수부대를 단천 부근에 침투시키기도 하였다.¹¹⁵⁾

적이 춘계공세를 개시하게 되자 제90기동부대와 제95기동부대는 서둘러 모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작전은 4월 24일 고성지역에서, 두 번째 작전은 29~30일에 고저지역에서, 그리고 세 번째 5월 6~7일에 간성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상륙양동작전은 너무 단기에 실시되어 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¹¹⁶⁾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시되자 해군은 개성시 및 서해안 부근 일대가 공산군 지배하에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하여 강력한 함재기의 폭격 및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후일 군사분계선 획정문제가 대두될 때 유엔군측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7월 말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한 해주만 일대에서의 봉쇄작전은 임시휴전선 획정시 타협되지 않던 도서 등 일부지역을 유엔군 관할하에 두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미 해군은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 정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04.

115)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p. 417~418.

116) 해군본부(역), 위의 책, pp. 432~434.

면에 집중된 적의 전력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8월 31일 동해안의 장전(長箭) 일대에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¹¹⁷⁾ 이런 와중에서도 9월중에는 미 공군의 후방차단작전과 협조하여 철도수송망 파괴작전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해군의 해안봉쇄, 기습상륙지원, 함포사격 등은 연일 계속되었고, 항공기 출격이 어려운 악천후시 구축함의 함포사격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적이 휴전기간을 이용하여 교통호, 유개호 등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아군의 포병, 함포, 항공 폭격이 곤란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 해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0월부터 사정거리가 11~16마일이나 되는 16"포가 장착된 전함, 순양함들을 동원하여 적 병력집결지를 포격하여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1951년 11월 27일 휴전회담에서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면서 지상전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미 해군은 기온의 급강하는 물론 세찬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려운 해상조건에서도 적의 전략도서에 대한 기습공격을 우려하여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3) 1952년도 작전

1952년에 접어들어서도 지상전의 소강국면이 지속되자 미 해군은 지상군에 대한 지원작전에서 전략도서 확보와 적 후방지역 교란작전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극동해군사령부도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도서방어의 책임을 1월 6일부로 미 해군에 38도선 이북의 모든 도서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¹¹⁸⁾

이에 따라 제95기동부대가 각 도서의 경비부대를 지원하면서부

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699.

118)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511.

터 적의 도서공격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새해 초부터 동해봉쇄 전대의 주축인 미 함정들은 간간이 날아오는 적 해안포의 대응사격에도 불구하고 원산-함흥-성진에 이르는 해안지역을 포격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적은 2월 19일 1개 대대규모로 성진 근해의 양도(洋島)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도서를 방어중인 한국 해병대와 출동한 미 해군함정의 합동작전으로 격퇴되었다. 이날 적은 15척의 삼판선을 동원하여 원산 근해의 소도(小島)로 침투를 기도하였으나 미 함정에 의해 10척이 피격되는 피해만 입고 도주함으로써 적의 전략도서 탈환작전은 무산되었다.¹¹⁹⁾

해빙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적 해안포대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유엔해군은 전 함정에 적 해안포대의 위치 파악과 이를 파괴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강조하였다. 미 함정들은 적의 치열한 해안포 사격에 일부 함정이 피격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적 해안포 진지 파괴와 병참선 차단은 물론 야음을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 파괴작전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7월중에 열차 28량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교착된 전선을 타개하기 위하여 1951년 7월 초에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하는 제한목표 공격계획을 시작으로 1952년 4월에는 통천, 고저에 상륙하는 작전계획을 연이어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계획은 매번 휴전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미 함참의 거부로 동해안의 상륙작전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10월 초 전선으로의 적 병력증원을 차단하고 진지 안에 고착된 적을 밖으로 유인하여 격멸시킬 목적으로 고저(庫底)에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상륙군인 제8기병연대는 12일

119) 해군본부(역), 위의 책, p. 512.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강릉으로 이동하였다. 고저 근해에는 기함인 전함 아이오아(Iowa)호를 비롯한 100여 척 이상의 함정이 집결하여 세력을 과시하였다. 제7기동상륙부대는 때마침 찾아온 악천후로 상륙주정 4척이 침몰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륙개시일인 10월 15일 전함 1척, 중순양함 2척 및 수척의 구축함을 동원하여 고저해안을 포격하였고, 14:00에는 해안 5,000야드까지 상륙군이 상륙돌격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¹²⁰⁾ 그러나 적은 해안포로 대응사격으로 일관할 뿐 아군이 기대한 특별한 병력이동이나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쟁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만작전이라 할 수 있는 고저상륙작전은 뚜렷한 성과 없이 16일 종료되었다.¹²¹⁾

미 해군은 1952년 한 해 동안 해상경비, 소해작전,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42척의 함정이 적 해안포 사격에 피해를 입었고, 또 2월 예인함 사르시(Sarsi)호가 흥남에서 기뢰폭발로 침몰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 함정이 기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해봉쇄전대는 연말까지 전략항구의 봉쇄는 물론 원산-단천-청진 일대에서 보급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함포사격을 계속하였다.

(4) 1953년도 작전

1953년 3월까지 지상전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공산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방어력 강화와 공세역량 축적에 집중한 후 해빙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탐색과 정찰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해상에서도 적의 해안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953년 3월중의 해안도서에 대한 낙탄수가 523발, 4월중에는 1,200

1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02.

121)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532.

발이었으며, 이 중 경비함정 주변의 낙탄수도 553발이나 되었다. 이로 인하여 3~5월 사이에 순양함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호 및 브레머톤(Bremerton)호가 구축함 5척과 함께 피격되었고, 전사 상자도 10여 명이나 발생하였다.¹²²⁾

제8군사령관은 적이 지난해 후반기에 있었던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방불케 하는 전초진지 공격을 가해 오자 극동해군에 함대 및 함재기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7함대사령관은 6월 6일 제77기동부대와 제95기동부대에 전선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고, 유엔해군의 전 항공모함과 포함은 동해안의 전선 부근 해역으로 집결하였다. 이때 미 함대는 6월 14~15일 양일 동안 국군의 351고지 탈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함 뉴저지(New Jersey)호와 순양함 세인트파울(Saint Paul)호의 호위하에 4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하였다. 이때 뉴저지호의 함포사격으로 얻은 전과만도 참호 44개소가 완파되고 20개소가 대파되었으며, 2개소의 동굴진지가 폐쇄되었다. 그리고 교통호 600m와 13개소의 포진지가 완파되었다.

351고지 지원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부 함정들은 원산항의 봉쇄작전을 더욱 강화시켰다.

한편 적도 지난 1951년 2월부터 실시된 유엔해군의 봉쇄작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휴전이 가까워지자 1척의 함정이라도 더 격침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다. 적은 호도반도와 갈마반도, 합진리 등 광범위하게 산재한 해안포 진지에서 이제까지 비축하였던 탄약을 쏟아 붓기라도 하듯 포격횟수와 사격량을 증가시켰다. 이에 미 해군은 지난 5월 5일 호도반도를 포격하여 포대, 탄약고, 동굴진지를 파괴시킨 데 이어 7월 11~12일에도 164회에 걸

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04.

쳐 포격을 실시함으로써 호도반도의 적 포진지는 휴전시까지 재기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 이와 같이 원산항의 봉쇄작전은 미 해군이 적의 해안포 및 기뢰의 위협은 물론 해상조건이 합정운동에 매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용기와 인내로써 봉쇄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적의 후방지원활동을 차단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¹²³⁾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제일 먼저 원산항 부근의 각 도서에 배치된 경비병력이 철수를 개시하였고, 특히 여도에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한 경비대는 30일까지 장비의 철수와 구축한 지하시설을 파괴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엄호한 순양함 브레머튼호와 구축함 커닝햄(Cunningham)호가 8월 1일 오후 원산해역을 빠져 나옴으로써 해상작전도 일단락되었다.¹²⁴⁾

결론적으로 참전초기부터 제해권을 장악한 미 해군은 인천상륙작전, 적 후방지역 교란, 원활한 해상수송의 수행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작전에 기여한 전공과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아군이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다면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4. 공군의 활동

(1) 1950년도 작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극동공군 예하에는 일본에 기지를 둔 제5공군, 오키나와와 괌에 기지를 둔 제20공군, 필리핀에 기지를 둔 제13공군, 그리고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군수사령부가 있었다.

123) 해군본부(역), 「해전사」, 1976, pp. 526~527.

1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05.

극동공군은 이들 기지에 총 1,172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전투임무수행을 위해 출격이 가능한 항공기는 350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¹²⁵⁾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극동공군은 정오 직전에 미국인의 철수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다쯔게(板付) 기지에 있는 미 제8전폭비행단에 공중 및 해상수송작전중인 수송기와 선박을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¹²⁶⁾ 26일 정오 무렵 북한의 YAK전투기 5대가 김포공항을 기습하자 수송작전을 엄호하던 극동공군의 F-82 전투기들이 이들을 공격하여 그중 3대를 격추시켰다. 이 첫 교전은 극동공군이 비록 직접적으로 국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전쟁초기부터 적의 제공권 장악을 거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¹²⁷⁾ 이후 극동공군은 미국의 결의에 따라 27일부터 38도선 남쪽으로 진출한 북한군을 공격한 데 이어 29일부터는 작전지역을 38도선 북쪽으로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미 제5공군이 6월 29일 이다쯔게 기지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이 기지가 한국전선으로 출격하는 항공기의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지는 위치상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나 한국에서의 근접지원은 15~20분에 불과하였다. 극동공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 포항, 수영 기지의 보수 및 확장공사를 서두르게 되었다.¹²⁸⁾

이런 상황에서도 참전초기부터 제공권을 장악한 제5공군은 7월

1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07.

126)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28.

12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71.

128)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42.

7~9일 3일 동안 적 후방의 평택—서울 도로상에서 차량 197대와 전차 44대를 파괴한 데 이어 10일 평택 상공에서 적의 차량 및 전차대열을 발견하고 가용한 폭격기, 전투기를 총출격시켜 적 차량 117대, 전차 38대, 자주포 7문 등을 파괴하고 다수의 병력도 살상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2차에 걸친 후방차단작전으로 제5공군은 한국전쟁에서 최대의 전과를 기록함은 물론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¹²⁹⁾

제5공군의 이러한 분전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자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에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에 전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부터 제5공군은 근접항공지원에 최우선권을 두고 일일평균 400회를 출격하여 7월 말까지 총 8,600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 출격 중 50%인 4,300회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이었다.

8월 초 북한군이 왜관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켜 대구 정면의 위기가 고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략폭격사령부는 16일 정오 무렵 B-29 폭격기 98대를 동원하여 왜관 서북쪽 낙동강변 일대 5.6×12km 지역에 960톤의 포탄을 투하하였다.¹³⁰⁾ 한국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이 웅단폭격의 전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9월 초에 실시된 진주—마산 축선에서의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은 낙동강방어선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두고 9월 3일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장군은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사단을 구원하였다.”고 하였고, 워커 장군도 “제5공군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던들 우리는 한국에 머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제5공군의 활동을 높이

12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15.

130)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70.

평가하였다.

이어서 인천상륙계획이 구체화되자 극동공군은 상륙목표지역의 고립화는 물론 미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고 항공수송을 맡게 되었다. 인천상륙이 개시되기 전 공군의 준비작전은 때마침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9월 11일 개전 이래 최대인 683회를 출격하여 낙동강전선의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과 서울-원산, 서울-평양 간의 철도차단작전에 전력하였다. 이때 제8군을 근접지원한 제5공군은 25일까지 약 6,500명을 사살하였는데 9월 28일 이후 전투기들은 38도선 남쪽에서 공격목표를 더 이상 찾지 못하였다.¹³¹⁾ 그리고 전투수송사령부도 20일부터 매일 지상군의 소요량인 226톤의 보급품을 일본기지에서 김포비행장으로 수송하였다. 10월 초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하자 제5공군은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에 주력하였고, 전투수송사령부는 10월 20~23일까지 수송기 182대를 동원하여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숙천-순천 공수투하작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상군이 한만국경선으로 접근할수록 유엔공군의 작전범위는 좁아졌고, 또한 10월 하순에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항공작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개전 이후 이때까지 적의 항공작전은 전쟁초기 1주일 정도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공중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미군 정찰기들도 중공의 안동비행장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관측하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압록강변을 비행중인 유엔기들은 적의 대공포 사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기의 기습공격을 받아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1월과 12월 중 북한지역의 제공권 획득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718~719.

을 위한 공중전은 대부분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한반도 서북부 상공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을 소위 ‘MIG기 회랑(回廊)’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¹³²⁾ 그리고 11월 8일 미 제51전투요격비행단 소속의 F-80기가 신의주로 출격중 MIG-15기와 첫 공중전을 벌였다.¹³³⁾ 이 교전에서 극동공군은 MIG기 1대를 격추하고, 1대에 피해를 주었으나 이를 계기로 유엔군의 제공권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폭격사령부는 중공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의주, 만포진, 혜산진, 회령 등의 국경선상의 교량을 맹렬히 폭격하였다.

그럼에도 지상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물러나기 시작하자 제5공군도 한반도로 진출시켰던 예하부대들을 일본기지로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제5공군은 12월 26일까지 제공권을 유지하면서 지상군의 근접지원과 북한내 적 병참선을 공격함으로써 38도선으로 철수중인 유엔군을 추격하는 적의 진출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미 공군은 12월 초 아군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유엔공군기의 폭격이 금지된 만주기지에서 발진하는 MIG-15기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신예기인 F-84E기와 F-86A기로 편성된 제4, 제27전투요격비행단을 미 제5공군에 파견하였다. F-86A기의 우수성은 12월 17일 공중전에서 MIG기 4대를 격추시킴으로써 최초로 입증되었다.¹³⁴⁾

(2) 1951년도 작전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유엔군이 37도선으로 물러나자 제5공군은

132)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172.

1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24.

1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728~729.

1월 말 제18전폭비행단을 진해기지에, 제35전폭비행단을 수영기지에 잔류시키고 주력부대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전쟁초기와 같이 전투행동반경이 제한되어 항공작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¹³⁵⁾ 이런 상황에서도 제5공군은 1월 중순까지 1일 평균 104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고, 또 1월 23일에는 압록강 부근 상공에서 B-29 폭격기를 호위하던 F-84E기 33대가 MIG-15기 25대와 개전 이후 최대의 조우전을 벌였다.¹³⁶⁾ 이 교전에서 미군기들은 피해 없이 MIG기 3대를 격추하고 3대에 피해를 주는 전과를 올려 미군조종사들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제5공군의 주력이 일본으로 철수한 이후 공산군의 MIG-15 전투기들은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유엔공군의 후방 차단작전을 저지함은 물론 이 지역을 정찰중인 항공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5공군의 항공작전은 크게 위축되었다. 다행히 1월 하순 전력을 재정비한 제8군이 재반격작전을 개시하자 제5공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2월에 3,255회, 3월에 5,901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여 지상군의 재반격작전을 지원하였다. 특히 제314공수비행단은 2월 24일에는 곡수리에 주둔중인 미 제24사단과 제1기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66대분의 보급품을 공수투하하였고, 또한 3월 23일에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문산지역 공수투하작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5공군도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2월 22일 제4전투요격비행단의 전투기 일부를 한국으로 복귀시킨 데 이어 3월에는 2개 요격비행대대를 대구와 수원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MIG기 회랑에서 적기의 기세가

135)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201.

136) 공군본부(역), 위의 책, p. 199.

둔화됨으로써 제5공군이 다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적도 그들이 계획한 춘계공세작전에는 항공기를 적극 운용한다는 방침하에 북한내 비행장 복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폭격사령부는 4월 13일부로 공격목표의 최우선순위로 북한의 비행장을 선정하고, 1일 평균 12대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4월 말까지 안악, 신막, 순안, 사리원, 함흥, 연포, 강동, 온정리, 평양, 선교리, 미림 비행장을 고성능 시한폭탄으로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공산군은 항공지원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나 계획대로 4월과 5월에 최대전력을 투입하여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제5공군은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폭기와 폭격기를 총동원, 주야간 공지합동작전을 실시하여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제5공군은 4월과 5월에 단독으로 적기 26대, 각종 포 387문, 교량 25개소, 전차 32대, 기관차 54량, 화차 1,194량, 차량 3,581대를 파괴하고 21,536명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¹³⁷⁾ 특히 제5공군은 5월 31일 39도선의 적 보급기지와 전선 사이에 있는 적의 수송망을 공격, 마비시킬 목적으로 제1차 스트랭글(Strangle) 작전을 개시하였고,¹³⁸⁾ 이 작전은 7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미 공군은 이 작전의 일환으로 7월 30일 주민들에게 미리 평양폭격을 예고한 연후에 B-26 폭격기 354대를 동원하여 평양 일대의 군사목표를 폭격함으로써 휴전회담의 진척을 촉구하였다.¹³⁹⁾

그리고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항공작전은 제공권 유지와 후방차단, 그리고 근접항공지원 등,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전선의 교착상황이 심화되고, 휴전협상

1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34.

1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34.

1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38.

이 장기화될 조짐이 표출되자 항공작전은 후방차단작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극동공군은 이제껏 근접항공지원과 제공권 유지에 주력한 탓으로 후방차단작전에는 극히 제한된 항공력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대규모의 차단작전으로 적의 철도망을 철저히 파괴, 마비시킬 목적으로 제5공군, 폭격사령부, 그리고 해군 함재기 등 가용한 전 항공력을 동원하여 각각 일정한 목표지역을 분담시켜 폭격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 방침에 의거 제2차 스트랭글작전은 8월 18일부터 시작되어 3개월간 계속되었다.¹⁴⁰⁾

이와는 별도로 극동군사령부는 소련에 근접한 나진항이 적 보급품 집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련 국경선 침범을 우려하여 폭격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폭격하기로 결정하고 8월 25일 함재기의 엄호하에 B-29 폭격기 35대를 동원하여 300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여 97%를 파괴시켰다.

제5공군의 스트랭글작전은 시작 초기인 8월 말까지 신의주-신안주 간 철도의 70%, 신안주-평양 간 철도의 90%, 평양-사리원 간 철도의 40%를 파괴시켜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의 복구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중요지점에 대공화기를 집중배치하여 유엔군의 폭격에 대응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엔공군기의 피해도 속출하고 또한 폭격의 정확성도 떨어지기 시작하자 극동공군은 폭격전대 전력의 20%를 적 대공포 파괴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1년 말 항공작전은 아군기들이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도, 교량, 차량조차장 등을 폭격하면, 적은 기상

1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39.

불량으로 아군기의 출격이 중지된 틈이나 야음을 이용, 이를 복구함으로써 폭격과 복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되었다.

(3) 1952년도 작전

1952년에 접어들어서도 극동공군과 제5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은 아무런 전술적 변화도 없이 계속 수행되었으나 적은 청천강 남방의 철로변에 약 4마일 간격으로 대공화기를 배치하는 등 방어력을 보강하였고, 또한 지표가 단단히 얼어붙어 유엔기가 투하한 포탄의 파편은 오히려 저공폭격중인 항공기에 위협요소로 대두되었다.¹⁴¹⁾ 이로 인하여 전폭기들은 점점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1월 26일~3월 11일까지 40일간 B-29 폭격기 77대와 B-26 폭격기 125대가 출격하였고, 3월 25일 B-29 폭격기 41대가 평양 일대의 교량을, 28일 47대의 폭격기가 신안주의 교량을 폭격하는 등 폭격사령부의 차단임무 출격은 계속되었다.¹⁴²⁾

한편 미 제5공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철도차단작전을 실시하여 여러 지점의 철도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빠르게 복구하자 새로운 전술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특정된 주요철도를 노반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24시간 계속 차단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폭기들은 특정 목표를 주간에는 8시간 간격으로 집중폭격하고 야간에는 B-26 폭격기로 야간 폭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정한 지점의 철도를 집중폭격하려는 ‘새추레이트(Saturate) 작전’은 3월 3일부터 개시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 전폭기들은 적의 주요철도인 군우리-

141)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345.

1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39.

희천, 순천-삼덕리, 신안주-남시동, 평양-사리원-남천점 철도를 목표로 1일 평균 300회 출격에 600개의 폭탄을 목표지역에 투하하였다.¹⁴³⁾

이와 같이 1951년 8월 18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 지속된 철도차단작전에서 극동공군은 87,552회 출격하였다. 이 작전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19,000개소의 철도차단과 34,211대의 차량, 276량의 기관차, 3,820량의 화차를 폭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극동공군은 조종사 451명과 항공기 330대의 손실을 입었다.¹⁴⁴⁾

후반기에 접어들자 유엔군사령부는 지금까지의 공군전술·전략개념을 바꾸어 북한 내에 있는 결정적인 군사전략목표를 반복적으로 폭격하여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산군을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¹⁴⁵⁾ 이에 유엔공군은 항공압박(Air Pressure)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의 특징은 지속적인 공중공격으로 적의 장비, 보급품, 시설 및 병력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과 동일한 목표를 매일 강타하여 적에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의거 1952년 6월 23일에 개시된 북한 발전시설에 대한 공격은 개전 이래 최대의 것이었다. 제5공군과 해군 및 해병대에서 차출된 500대 이상의 항공기로 편성된 합동특수기동부대가 수풍, 부전, 장진, 허천발전소를 동시에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수풍발전소는 대형변압기와 발전기 등이 파괴되었고, 동부지역의 발전소들도 건물과 변압기에 큰 피해를 주었다. 적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유엔공군은 6월 24일, 26일, 27일 동해

1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739~740.

144)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상), p. 355.

145) 공군본부(역), 위의 책, p. 357.

안 지역의 발전소를 폭격한 데 이어 9월 12일 야간에는 수풍발전소를 2차 폭격하였다.

이어서 유엔공군은 7월 초 평양에 있는 적의 보급품집적소, 공장, 병력집결지, 철도시설, 대공포진지 등을 폭격,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평양 폭격을 결정하였다. 7월 11일 미 제5공군 및 해군 함재기 822대가 출격하여 대공습을 감행한 데 이어 8월 4일 제5공군의 전폭기 284대가 평양을 맹폭격하였다. 그리고 29일에는 3차로 제5공군과 함재기 1,080대가 평양을 대대적으로 공습하였다. 이 결과 29개의 목표 중 최소한 3개의 목표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2개 지역을 제외한 전 목표물이 심하게 파괴된 것이 사진정찰 결과 확인되었다.¹⁴⁶⁾

한편 8월부터 적은 아군의 제공권 유지에 도전이라도 하듯 공중전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여 9월 4일 청천강 상공에서 개전 이래 가장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이때 미군 F-86기 39대가 MIG기 73대와 조우하여 17회의 교전으로 적기 13대를 격추시켰다. 그리고 9일에는 유엔공군기가 삭주에 위치한 적 군관학교를 공격중 MIG기 175대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9월중의 잇달은 공중전에서 미 공군은 F-86기 6대와 F-84기 3대를 상실한 반면 MIG-15기 63대를 격추시켜 월간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다.¹⁴⁷⁾

이 밖에 유엔공군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상전투가 점차 치열해지자 유엔공군기들은 지상군의 고지쟁탈전을 근접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평균 2,000여 회 이상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제5공군은 지상군의 쇼다운(Showdown)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이 작전에서 공군기들은 2,217회에 걸쳐

146)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하), p. 151.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48.

미 제7사단과 국군 제2사단에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제5공군은 다양한 목표에 대하여 공중공격과 적의 주요병참선 차단작전에 주력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4) 1953년도 작전

새해에 접어들어서도 전선의 소강국면은 지속되고 있었으나 적 차량이동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자 극동공군은 정찰비행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제5공군이 후방 20마일까지 정찰비행에 주력하였으나 적의 뚜렷한 공세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무렵 극동공군은 휴전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압박작전의 일환으로 수풍발전소의 폭격을 결정하였다. 제5공군의 정찰기들은 지난 1952년 6월과 9월에 수풍발전소를 폭격한 이후 계속 이들의 수리사항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53년 2월 초 새로운 송전선이 세워지고 변압기와 장비들도 새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제5공군은 15일 저녁에 34대의 F-86기를 투입하여 수풍발전소를 폭격하여 발전체제를 완전 파괴시켰다.¹⁴⁸⁾

그리고 제5공군은 해방기를 맞아 적의 공세가 우려되자 3월 18~30일까지 평원선 이남에서 전선으로 연결되는 적 병참선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 이 작전에서 폭격기들은 71개소의 교량을 파괴 또는 파손시켰으며 도로 94개소를 차단시켰다. 그리고 경폭격기들도 35개소의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 40개소를 차단하였다. 이때 폭격사령부의 B-29 폭격기도 4월중에 적의 병참 중심지 132개소를 폭격하였다.¹⁴⁹⁾

한편 극동공군은 적을 압박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수풍발전소를

148)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하), p. 180.

149) 공군본부(역), 위의 책, p. 176.

폭격한 데 이어 북한의 주요 저수지 폭격을 결정하였다. 저수지 폭격은 북한의 농업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유보해 왔으나 이것의 폭파가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의 전의를 저하시켜 휴전조건을 수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후로 선택된 방안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유엔공군은 1953년 5월 15~16일 자산저수지를 폭격하였다. 이때 쏟아진 물은 군우리-순천-평양 간의 철로를 휩쓸어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5월 21일과 29일에는 권가저수지를 폭격하였고, 6월에는 구성, 덕상저수지도 폭격하였다. 그러나 적은 자산저수지 파괴로 심대한 손실을 입은 이후 다른 저수지의 물을 사전에 방류함으로써 미 공군의 저수지 폭파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¹⁵⁰⁾

그리고 3월에 들면서 전선에서도 그 동안 방어력의 강화와 공세 역량의 축적에 주력한 공산군이 소부대규모로 유엔군의 방어태세를 탐색하기라도 하듯 전초진지를 기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 제77기동부대 소속의 함재기들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4~5월에 전선에서 약 10~20마일 떨어진 적 집결지와 보급소를 공격한다는 체로키(Cherokee)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지상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도 2일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 공군의 공격준비 파괴작전에도 불구하고 적은 휴전이 목전에 다가오자 휴전 전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5월부터 하계공세를 개시하였고, 이 공세는 7월까지 계속되었다. 이 공세로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미 공군은 적의 최종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7월중에 가용

150)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하), p. 192.

전력의 43%를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할당하였다. 후일 극동공군은 ‘공군력의 화력장막이 남하하는 적의 기도를 좌절시켰다’고 단정하였다.

아울러 공산군은 전쟁기간중 공군력의 열세를 통감하고 휴전협정 조인 이전에 북한 내에 많은 비행장을 복구하여 북한 공군은 재건을 모색하였다. 이에 폭격사령부는 6월 10~22일까지 의주, 신안주, 평양, 군우리 등의 비행장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¹⁵¹⁾

항공작전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저녁 제4요격비행단의 파(Ralpa S. Parr) 대위가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 압록강 부근을 비행중인 IL-2 수송기 1대를 격추시킴으로써 한국전쟁에서 최후의 적기 격추라는 영예를 차지한 가운데 공군작전도 일단락되었다.¹⁵²⁾

결론적으로 전쟁기간중 미군의 항공작전은 제공, 후방차단, 근접항공지원, 전략폭격, 항공수송 및 항공정찰 등이 그 주임무였다. 미 공군이 유엔군의 작전에 기여한 지배적 역할은 재론을 요하지 않으며, 유엔군의 제공권 장막이 없었던들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151) 공군본부(역), 「유엔공군사」(하), p. 201.

1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748~749.

5.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부 대 명	참 전 기 간	비 고
지 상 군	제 8 군 사 령 부	1950. 7~현재	
	제 1 군 단	1950. 9~현재	
	제 9 군 단	1950. 9~1954. 8	
	제 10 군 단	1950. 9~1954. 4	
	제 1 기 병 사 단	1950. 7~1951. 12	1957.10. 2차 파견
	제 2 사 단	1950. 7~1954. 9	1965. 7. 2차 파견
	제 3 사 단	1950. 11~1954. 1	
	제 7 사 단	1950. 9~1971. 4	
	제 24 사 단	1950. 7~1952. 1	일본으로 이동
		1953. 7~1957. 10	2차 파견
	제 25 사 단	1950. 7~1954. 10	
	제 40 사 단	1952. 1~1954. 3	
	제 45 사 단	1951. 12~1954. 5	
	제 1 해 병 사 단	1950. 9~1955. 3	
해 군	극 동 해 군	1950. 7~1953. 7	
	제 7 함 대	1950. 7~1953. 7	
	제 90 기 동 부 대	1950. 6~1953. 11	
	제 95 기 동 부 대	1950. 6~1953. 7	
공 군	극 동 공 군	1950. 6~1953. 7	
	제 5 공 군	1950. 6~1954. 6	

(2) 피해현황

○ 인 명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523,083	54,246	468,659	739	4,439
육 군	484,762	37,133	442,971	664	3,994
해 군	6,130	4,501	1,576	22	31
공 군	7,725	7,084	368	53	220
해 병	29,466	5,528	23,744	—	194

* 실종자는 715명 귀환

* 포로는 4,418명 귀환

출처: 「한국전쟁피해통계집」(국방군사연구소, 1995), p. 132.

○ 주요장비

구 분	전 차	항 공 기		합 정
		공 군	해군/해병	
수 량	777대	1,838대	564대	5척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6. 26	미 전투기 첫 공중전, YAK기 3대 격추
	6. 27	미국, 한국에 해·공군 지원과 제7함대 대한해협 봉쇄결정
	"	극동군 수원에 전방지휘연락단본부(ADCOM) 설치
	6. 29	해·공군, 38도선 북쪽으로 작전지역 확대
	"	미 해군 Juneau호, 목호에 첫 함포사격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6. 30	미국 지상군, 한국전선 투입 결정
	7. 1	지상군 선발대, 부산 도착
	7. 2	미 해군, 주문진 해상에서 첫 해상 교전
	7. 4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USFIK) 설치
	7. 5	스미스특수임무부대, 죽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
	"	미 제24사단 주력부대, 부산으로 이동
	7. 6	미 제34연대, 평택에서 천안으로 철수
	7. 8	미 제34연대, 천안에서 지연전
	7. 9	공군, 평택-전의 국도에서 적 차량 1,000여 대 파괴
	"	제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7. 10	미 제25사단, 부산 상륙
	"	미 제5공군, 한국으로 이동
	"	미 제21연대, 전의에서 지연전
	7. 12	제21연대, 조치원에서 지연전
	7. 14	제34연대, 공주에서 지연전
	7. 16	제19연대, 태평리에서 지연전
	7. 18	미 제1기병사단, 포항 상륙
	7. 19	미 제24사단, 대전에서 지연전
	7. 20	대전실함, 제24사단장 Dean 소장 실종
	7. 22	제24사단, 영동에서 제1기병사단과 교대
	7. 24	미 제29연대 부산 도착, 하동으로 이동
	7. 26	미 제8군,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명령 하달
	7. 27	제29연대, 하동에서 북한군과 교전
	7. 28	제34연대, 거창에서 북한군과 교전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7. 31	미 제9연대 부산 상륙, 진주로 이동
	"	제19연대, 진주에서 북한군과 교전
	"	미 제5독립연대, 한국 도착
	8. 1	유엔군, 낙동강방어선 구축
	"	제29연대, 노치(Notch) 전투
	8. 2	제25사단, 진동리에서 북한군과 조우전
	8. 3	미 제5해병여단전투단, 부산 상륙, 마산으로 이동
	"	제27연대, 진동리 전투
	8. 7	제24사단, 클로바잇고지와 어봉능선 피탈
	"	킨특수임무부대, 진주 공격
	8. 9	제1기병사단, 성주에서 북한군 격퇴
	8. 10	미 제5연대전투단, 봉암리에서 격전
	8. 14	제1기병사단, 왜관에서 북한군과 격전
	8. 16	미 공군, 왜관에서 용단폭격
	8. 17	Bradly특수임무부대, 포항 공격
	8. 18	제27연대, Bowling Alley전투
	"	제24연대, 전투산에서 전투
	8. 19	제24사단, 낙동강 돌출부지역 탈환
	8. 26	미 제10군단 창설
	9. 1	제2사단, 창녕-영산 전투
	9. 5	제8군사령부, 부산으로 이동
	9. 6	미 제1군단, 한국 도착
	"	제1기병사단, 다부동에서 철수
	9. 11	미 공군, 634회 출격하여 개전 이후 최대출격 기록
	9. 13	미 해군, 월미도 함포사격

연도	월일	사건내용
1950	9. 15	미 제10군단, 인천상륙작전 개시
	9. 16	미 제8군,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
	9. 19	제5연대전투단, 왜관 탈환
	9. 21	제7합동기동사령관, 미 제10군단장에게 지휘권 인계
	9. 22	미 제65연대, 부산 도착
	9. 23	미 제9군단 창설
	9. 26	제8군과 제10군단, 오산에서 연결
	9. 27	제1해병사단, 서울 탈환
	"	미 합참, 9·27훈령 하달
	9. 28	제24사단, 대전 탈환
	10. 9	제8군, 38도선 돌파 북진 개시
	10. 10	미 해군, 소해정 21척으로 원산항 소해작전 개시
	10. 19	제1기병사단, 평양 진출
	10. 20	제187공수연대전투단, 숙천-순천 공수투하
	10. 26	미 제10군단, 원산 상륙
	11. 1	제24사단, 서해안 정거동 진출
	"	제1기병사단, 운산전투
	11. 3	미 제9군단, 서부전선 순천으로 이동
	11. 8	미 공군, 공산측 MIG기와 첫 교전
	"	미 공군, 최초로 압록강 철교 폭격
	11. 21	미 제17연대, 혜산진 진출
	11. 24	미 제8군, 최종공세 개시
	"	제1해병사단, 장진호 남쪽 유담리 진출
	11. 25	제8군, 총공세 돈좌, 청천강 교두보로 철수
	11. 28	유엔군, 평양-함흥 철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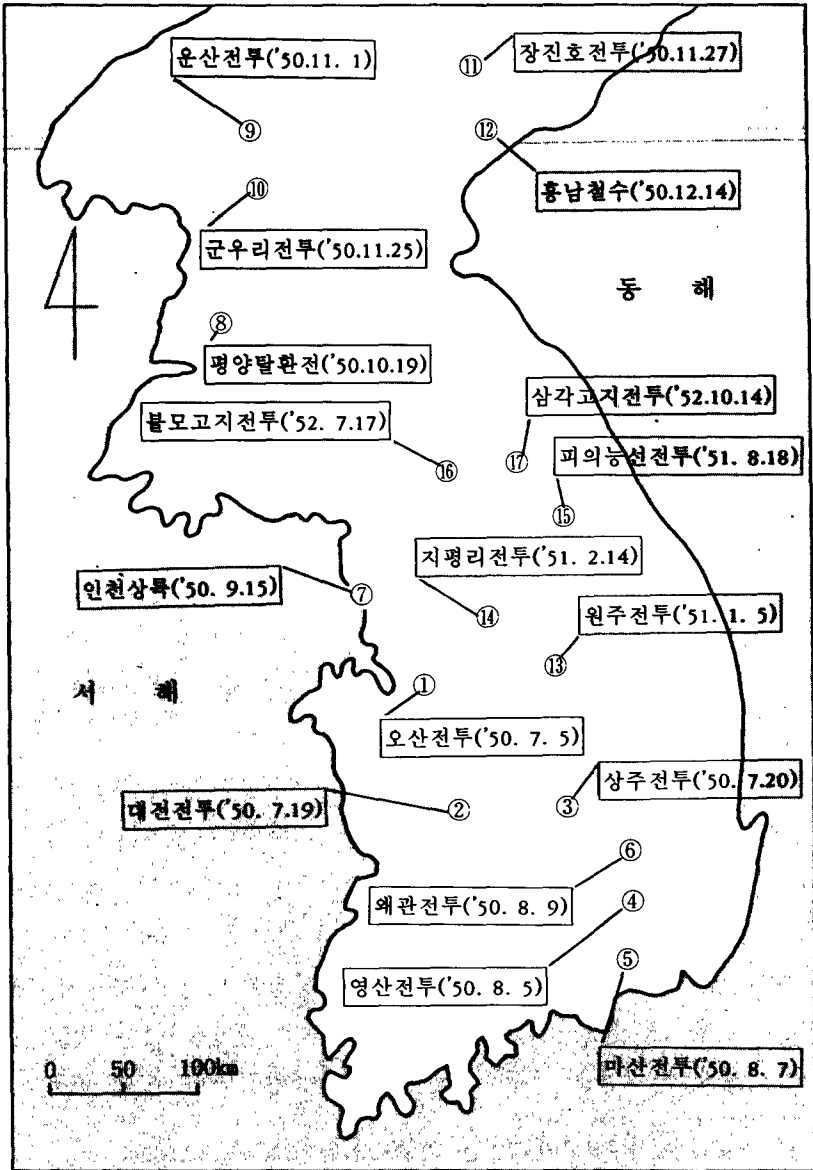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30	제2사단, 군우리에서 포위망 강력 돌파
	12. 1	미 제8군, 숙천-순천-성천 방어선 구축
	12. 3	미 제8군, 순안-성천에 평양방어선 구축
	12. 4	미 제8군, 평양 철수
	12. 5	미 제7사단, 신흥리로 철수
	12. 8	유엔군사령부, 38도선으로 철수 결정, 작전명령 제5호 하달
	12. 11	미 해병사단, 흥남으로 철수 완료
	12. 14	미 제10군단, 원산, 함흥에서 철수 개시
	12. 15	미 제8군, 38도선에 방어선 구축
	12. 23	제8군사령관 Walker 장군 전사
	12. 24	미 제10군단, 흥남에서 철수 완료
	12. 26	신임 미 제8군사령관 Ridgway 장군 부임
	12. 27	제10군단, 미 제8군에 배속
	12. 31	중공군, 신정공세 개시
1951	1. 1	미 제1, 제9군단, 서울교두보선으로 철수
	1. 3	유엔군, 서울 남쪽으로 철수
	1. 6	미 제1, 제9군단, 평택-장호원선 점령
	"	미 제2사단, 원주 쟁탈전
	1. 14	유엔군, 평택-삼척선에 신방어선 구축
	1. 15	미 제25사단 제27연대, 오산-수원에서 Wolfhound 작전 개시
	1. 23	미 공군, 압록강 부근에서 개전 이후 최대공중전 개시
	1. 25	미 제1, 제9군단, 한강 남쪽에서 Thunderbolt 작전 개시

연도	월일	사건내용
1951	2. 5	미 제10군단, Roundup 작전 개시
	2. 10	미 제1군단, 한강 남쪽 진출
	2. 12	미 제21지원부대, 횡성에서 중공군에 피습
	2. 13	미 제23연대전투단, 지평리 고립방어진
	2. 21	미 제9, 제10군단, 양평-횡성-평창을 목표로 Killer 작전 개시
	2. 24	미 제9군단장 무아 장군, 헬기사고로 전사
	3. 7	미 제9, 제10군단, Ripper 작전 개시
	3. 15	미 제1군단, 서울 재탈환
	3. 23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 문산 공수투하
	4. 3	미 제24, 제25사단, Rugged 작전 개시
	4. 11	미 제1, 제9군단, Dauntless 작전 개시
	4. 12	MacArthur 원수 해임, Ridgway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
	4. 14	신임 제8군사령관 Van Fleet 장군 부임
	4. 20	미 제1, 제9군단, Utah선 점령
	4. 22	중공군의 4월공세
	4. 28	미 제1군단, 서울 북방 Golden선 확보
	5. 16	중공군, 5월공세 개시
	5. 17	미 제2사단, Bunker 고지 전투
	5. 19	미 제3사단, 현리돌파구 확대 저지
	5. 20	미 제8군, Topeka선으로 반격 개시
	5. 31	미 공군, 1차 Strangle 작전 개시
	6. 3	미 제1군단, Piledriver 작전 개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6. 13	미 제8군, 임진강 하구-철원-김화-편치불-거진 방어선 형성
	6. 23	Malik, 한국전쟁 휴전 제의
	7. 10	개성에서 휴전회담 개막
	7. 30	미 공군, 평양의 군사목표 폭격
	8. 18	미 제2사단, 피의 능선 전투 개시
	"	미 공군, 2차 Strangle 작전 개시
	8. 31	미 해군, 장전 일대에서 상륙양동작전 개시
	9. 13	미 제2사단, 단장의 능선 전투 개시
	9. 20	미 제1해병사단, 편치불 북쪽 812고지 점령
	9. 26	미 공군, 한국전쟁 기간중 최대공중전
	10. 3	미 제1군단, 서부전선에서 Commando 작전 개시
	10. 19	미 제1기병사단, 연천 서북쪽 Jamestown선 진출
	11. 27	잠정 군사분계선 협정 체결
12. 5	미 제45사단 한국 도착, 미 제1군단 배속, 미 제1기병사단과 교대	
1952	1. 11	미 제40사단 한국 도착, 미 제9군단 배속, 미 제24사단과 교대
	2. 10	미 제8군, Clam up 작전 개시
	2. 19	미 해군, 양도, 소도로 침투중인 북한군 격퇴
	3. 3	제5공군, Saturate 작전 개시
	3. 17	미 제1해병사단, 서부전선 판문점 부근으로 이동
	4. 28	유엔군, 휴전회담에서 일괄타결안 제시
	5. 7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Dodd 장군 피랍
	5. 9	Ridgway 장군 후임으로 Clark 대장 유엔군사령관 부임

연도	월일	사건내용
1952	5. 23	미 공군, 평양, 진남포 군수공업지대 대규모 폭격
	6. 6	미 제45사단, Counter 작전 개시
	6. 23	미 공군, 북한 발전시설 폭격
	7. 17	미 제2사단, 불모고지 전투
	8. 9	미 제1해병사단, 판문점 동쪽 병커고지 전투
	10. 9	제77기동함대, Cherokee 작전 개시
	10. 14	미 제7사단, 저격능선 전투
	10. 15	제7기동상륙부대, 고지에서 상륙양동작전 개시
	12. 2	미 차기 대통령 Eisenhower, 서울 방문
1953	1. 25	미 제7사단 스맥크 작전 개시
	2. 11	Van Fleet 장군 후임으로 Taylor 장군 부임
	2. 15	미 공군, 수풍발전소 폭격
	3. 25	미 제7사단, 불모고지 피탈
	3. 26	미 제1해병사단, 배가스 고지 방어
	4. 20	상병포로 교환 개시
	4. 26	휴전회담, 본회담 6개월 만에 재개
	5. 15	미 공군, 자산저수지 폭격
	5. 28	미 제25사단, 네바다 전초 피탈
	6. 10	중공군, 6월공세 개시
	6. 14	미 해군, 351고지 전투 함포지원
	7. 3	미 제24사단, 일본에서 정비후 재참전
	7. 10	미 제7사단, 포크참 고지 피탈
	7. 13	중공군, 7월공세 개시
7. 27	휴전협정 조인	

미군의 주요전투



제 2절 영국(United Kingdom)

1. 참전경위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6월 26일 ‘공산 침략행위 정지요청’을 결의한 데 이어 28일에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였다. 이때 영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었지만 미국이 제안한 두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영국 수상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는 하원 의회에 출석하여 한국사태와 아울러 유엔 결의사항을 보고한 후 “영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홍콩에 있는 극동함대의 일부 함정을 일본해역으로 출동시켜 미 극동함대사령부에 배속시키고자 한다.”고 정부의 지원방침을 밝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¹⁵³⁾

이 조치에 따라 30일 경 항공모함 1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3척, 호위함 4척으로 편성된 영국함대는 앤드류스(William G. Andrews) 제독의 지휘하에 일본 해역으로 이동하여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었고, 이들 함정들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작전하게 되었다.¹⁵⁴⁾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는 ‘6·28 대한군사원조 결의’에 의거 영국에 지상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때 영국 정

1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391~392.

154)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72.

부는 극동해군의 파병은 전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상군의 파병에 있어서는 병력의 여유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파병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다. 영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는 동안 영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비난하였고, 또한 미국도 영국에 하루속히 지상군부대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⁵⁵⁾

이러한 여론과 압력에 더 이상 시일을 끌 수 없었던 영국 정부는 마침내 7월 26일 예비로 있던 제29보병여단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고, 육군도 제29여단의 출병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가 수만 리 떨어진 한국으로 이동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경부축선에서 지연전을 벌이던 국군과 미군이 낙동강선으로 밀려나 이 선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군과 미군은 방어정면에 비해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선의 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영국은 이러한 전황을 고려하여 8월 20일 긴급조치로써 홍콩에 주둔중인 부대 중 2개 보병대대를 선발하여 제29여단의 파병에 앞서 선발대로 한국전쟁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홍콩에 주둔중인 영국 제40보병사단은 제27여단본부와 그 예하의 아질대대¹⁵⁶⁾와 미들섹스대대¹⁵⁷⁾를 선발하여 8월 25일 항공모함 유니콘(Unicorn)호와 순양함 세일론(Ceylon)호에 승선시켜 한국에 파견하였다.

1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92.

156) 아질대대: 1st Battalions of the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 Regiment.

157) 미들섹스대대: 1st Battalions of the Middlesex Regiment.



영국군의 부산 도착

제27여단은 코드(B. A. Coad) 장군의 지휘하에 북한군의 최종공세인 9월공세가 개시되기 수일 전인 1950년 8월 28일 유엔군 장성들과 한국 국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 부산(釜山)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가 되었다.

이들 부대 외에도 영국은 9월 초 본국에 대기하고 있던 제41해병독립특공대¹⁵⁸⁾에서 장교 14명과 사병 211명을 선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한 후 일본으로 공수하여 미 극동해군에 배속시킴으로써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해병대도 파견하였다.

158) 제41해병독립특공대: The 41st Marine Independent Commando.

한편 제27여단의 파견으로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제29여단도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할 무렵인 10월 초에 편성이 완료되어 여단장 브로디(T. Brodie) 장군의 지휘하에 제대별로 영국을 출발하였다. 제29여단은 약 1개월간에 걸친 항해 끝에 그 선발대는 11월 3일에, 마지막 제대는 18일에 각각 부산에 상륙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도착될 무렵 전선상황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수세에 몰린 시기임을 감안하면 당시 여단의 증원은 유엔군에 있어서 실로 백만 대군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듯, 영국은 육·해군에 이어 해병대를 파견함으로써 전쟁초기부터 명실공히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함과 아울러 미국과 한국전쟁을 공동으로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영연방 계열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등의 한국전쟁 참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낙동강방어선 전투

영 제27여단(2개 대대)이 8월 28일 부산에 도착할 무렵 대구정면을 방어중인 미 제1기병사단은 왜관(倭館)에서 현풍(玄風)에 이르는 48km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어 이들의 증원이 시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단은 부대정비도 할 겨를도 없이 9월 4일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현풍 북쪽 신당동(新塘洞) 일대의 제23연대 제3대대 지역을 인수함으로써 낙동강방어선에 투입되었다. 이때 여단은 화력지원부대가 없어 미군으로부터 105mm 곡사포 1개 포대, 155mm 곡사포 1개 포대, 그리고 전차 1개 소대를 지원받았다.¹⁵⁹⁾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96.

아질대대는 9월 6일 정면에서 대대를 감제관측하고 있는 228고지에 대한 적정을 수집할 목적으로 전투정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정찰대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적중에 포위되어 물 대신에 얼음을 공수받았고, 또 중대장 부채난(Buchanan) 대위가 부상을 입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¹⁶⁰⁾ 정찰대는 중대장의 엄호하에 무사히 원대복귀하였으나 중대장이 적진에 낙오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되었다. 이날 전투는 영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경험한 전투로 기록되었다.¹⁶¹⁾

이후 제27여단은 북한군의 9월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이 총반격 작전을 개시하자 경부국도로 진출하는 미 제24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21일 왜관 남쪽의 하산동(霞山洞)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소학동(巢鶴洞)에 집결하였다.

이때 낙동강 전선에서 와해된 북한군 제10사단은 성주 부근에서 재편성을 하면서 일부는 대구-성주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다.¹⁶²⁾

공격선봉에 나선 미들섹스대대가 22일 공격을 개시하여 성주 동쪽의 325고지를 확보하자 아질대대도 23일 성주 공격에 나섰다. 대대의 B·C중대는 성주를 감제관측할 수 있는 282고지를 목표로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여 경계가 소홀한 북한군을 구축하고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순간 남서쪽 389고지를 방어중이던 북한군이 역습을 개시함으로써 282고지에서는 혼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대대는 이 고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원화력도 없이 분전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불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정오 무렵 389고지를 폭격차 출동한 유엔군 전폭기(F-51) 3대가 목표고지를 오인하여 대대가 방어중인 282고지 일대에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160)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246.

1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97.

1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98.

기총소사를 펴부어 고지 정상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이 오폭으로 60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대대는 고지 하쪽으로 철수하고 말았다.¹⁶³⁾

그러나 대대는 즉시 재편성을 완료한 후 부상병을 후송할 단가와 탄약을 가지고 전방중대를 방문한 부대대장 무어(Muir) 소령의 지휘하에 역습을 개시 282고지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의 역습에 진두지휘하던 무어 소령이 총상을 입어 후송되었고, 또 탄약마저 바닥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다. 공격중대들은 대대장(G. L. Neilson 중령)의 명령에 따라 혈전장인 282고지를 다시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철수함으로써 장장 9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과 오폭으로 얼룩진 282고지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후일 영국 정부는 이 전투에서 전사한 부대대장 무어 소령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최고훈장인 ‘The Victoria Cross’를 추서하였다.¹⁶⁴⁾ 이때 여단은 9월 30일부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스트레일리아 대대¹⁶⁵⁾를 배속받아 전투력이 한층 보강됨은 물론 부대 명칭도 영연방 제27여단¹⁶⁶⁾으로 개칭되었다.

(2) 정주·박천전투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으로 진출한 유엔군이 맥아더 장군의 북진명령에 의거 북진을 개시하자 제27여단도 10월 8일 김포비행장을 경유 개성(開城)으로 이동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북진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¹⁶⁷⁾

제27여단은 10월 17일 사리원을 점령한 데 이어 23일에는 미

163)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83.

164) Barclay,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p. 20.

165) 오스트레일리아 대대: 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

166) 영연방 제27여단: 27th British Commonwealth Infantry Brigade.

1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07.

제24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청천강을 도하 박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전쟁종결의 기회를 포착한 유엔군사령관이 전군에 한만국경선 진출을 명령함으로써 여단은 정주(定州)－선천(宣川)－신의주(新義州)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따라 공격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군이 구진(舊津)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여단의 대령강(大寧江) 도하를 강력하게 저지함으로써 여단의 공격은 이틀 간이나 지연되어 27일부터 추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제27여단은 10여 km를 전진하였을 때 12:00경 효성령(曉星嶺)에서 갑작스런 적의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 일시頓挫되었다. 이때 여단은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보전협동작전으로 T-34 전차 10대와 자주포 2문을 격파하였다.¹⁶⁸⁾ 적을 추격한 여단은 28일 노소리(路小里) 부근에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일축하고 30일 정주로 진출하였다. 이때 여단장은 미 제24사단장 처치(John B. Church) 장군에게 여단이 20여 일 동안 계속된 북진작전으로 몹시 지쳐 있으므로 공격제대의 교대를 요청하였고, 사단장은 제24사단 제31연대에 정주에 집결중인 영연방 제27여단을 초월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¹⁶⁹⁾

그러나 11월 2일 미 제8군사령관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공격제대들을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한만국경선 진출을 목전에 두었던 여단도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제27여단은 차후공격의 발판이 되는 청천강 북쪽의 교두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박천 일대에 배치되었다.¹⁷⁰⁾

여단은 구진 일대의 도하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령강 서쪽에 아질대대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북쪽의 박천에는 미들섹스대

16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60.

169)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66.

17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119.

대를 배치하여 반원형의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제1기 병사단의 제61포병대대는 구진 부근에서 여단을 화력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때 여단의 우인접에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구룡강(九龍江) 일대에 배치되었다.

4일 저녁 무렵 우인접 미 제19연대를 공격한 중공군의 일부가 5일 아침 제19연대와 여단 사이에 생긴 8km의 배치공간으로 침투하여 제61포병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박천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여단 후방지역인 추도리(楸島里)에 있는 교량을 점령하여 여단의 철수를 차단하고자 하였다.¹⁷¹⁾

제61포병대대는 즉시 보병전투로 전환하여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단은 아질대대의 A중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투입하여 중공군을 구축하였다.

이 무렵 여단장은 항공관측자로부터 “사단규모의 중공군이 박천을 우회하여 여단을 포위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 미 제1군단장에게 여단의 철수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날 오스트레일리아 대대가 근접항공지원의 엄호하에 하루종일 중공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여단 주력은 칭천강 북쪽의 맹중리(孟中里) 부근으로 철수하였고, 저녁 무렵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도 합류하였다.¹⁷²⁾

이날 밤 여단을 추격한 중공군이 공격을 재개함으로써 여단은 이들을 맞아 4시간 동안 예측을 불허하는 혈전을 펼쳐 적의 파상공격을 저지하였고, 동이 트자(6일) 중공군이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함으로써 박천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영연방 제27여

17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86.

17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126.

단이 선전분투하여 청천강 북쪽의 교두보 지역을 고수함으로써 유엔군은 차기공세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신둔리 전투

영국의 두 번째 지상군부대로 11월 18일 부산에 도착한 영 제 29여단은 개성으로 진출하여 패잔병 소탕작전과 유엔군의 철수를 엄호한 후 12월 중순 신둔리(新屯里)로 철수하여 미 제1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1950년 마지막 날(31일) 저녁 무렵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기습적인 신정공세를 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38도선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서부전선의 제1군단과 제9군단에 행주(幸州)의 정부-퇴계원(退溪院)을 연하는 서울교두보선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제29여단도 전방에서 철수하는 국군 제1사단을 엄호하기 위하여 좌로부터 얼스터대대¹⁷³⁾, 글로스터대대¹⁷⁴⁾, 푸실리아대대¹⁷⁵⁾를 배치하였고, 배속된 타이대대는 예비로 신둔리에서 여단본부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여단이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날(3일) 새벽에 국군을 추격한 중공군이 좌전방 얼스터대대로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영 제29여단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고양(高陽) 부근에서 대규모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얼스터대대는 중공군의 과상공격을 맞아 화력을 집중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진지 일부가 돌파되고, 또 후방으로 진출한 중

173) 얼스터대대: 1st BN The Royal Ulster Rifles.

174) 글로스터대대: 1st BN The Gloucestershire Regiment.

175) 푸실리아대대: 1st BN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

공군이 예비중대를 공격함으로써 대대는 일시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신속한 역습을 개시하여 정오 무렵에 이들을 격퇴시켰다. 그리고 얼스터대대가 악전고투하고 있을 무렵인 09:00경 중공군의 일부가 우전방 장흥(長興)을 방어중인 푸실리아대대도 공격하였으나 대대는 제7전차대대 C중대¹⁷⁶⁾의 지원을 받아 14:00경 이들을 격퇴하였다.

한편 제8군사령관은 서울 점령을 기도하는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3일 오전 서울교두보선에서 철수를 명령하였다.¹⁷⁷⁾ 이 조치에 의거, 미 제1군단 주력부대들이 철수를 완료하였고, 저녁 무렵에는 마지막으로 영 제29여단이 철수하게 되었다. 여단장의 철수지시에 따라 글로스터대대와 푸실리아대대는 접적 없이 신둔리로 철수하였으나 얼스터대대가 철수를 개시하자 은밀히 우회침투하여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대대를 기습하여 일대 혼전이 벌어졌다. 대대의 상황이 악화되자 여단장은 제8전차대대로 증강된 본부중대를 증원부대로 투입하였고, 얼스터대대는 치열한 백병전 끝에 자정 무렵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여단은 다음날 신둔리에서 차량 편으로 서울을 경유 수원으로 철수하여 군단예비가 되었다.¹⁷⁸⁾

이 전투에서 영 제29여단은 300여 명의 인원과 전차 10대를 포함한 다수의 장비를 손실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고양 일대에서 중공군을 장시간 지연시킴으로써 군단 주력부대들이 안전하게 한강 남쪽으로 철수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¹⁷⁹⁾

176) 제7전차대대 C중대: C Squadron 7th Royal Tank Regiment.

177)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205.

1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445~446.

179)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206.

(4) 설마리(雪馬里) 전투

4월공세를 개시한 중공 제19병단은 22일 22:00경 임진강을 도하 영 제29여단을 공격하였다. 좌전방 글로스터대대는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성산에서 결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23일 오전 중공군에게 임진강 남쪽의 교두보를 허용하고 말았다.¹⁸⁰⁾

낮 동안 아군의 항공폭격을 피해 은신하고 있던 중공군이 어둠이 깔리자 증원부대를 투입한 후 자정 무렵 공격을 재개하였다. 여단은 중공군을 맞아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들의 과상공격에 밀려 철수함으로써 방어거점인 감악산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말았고, 이 와중에 좌전방 글로스터대대가 설마리 고지에서 고립되었다.

여단은 24일 아침부터 적중에 고립되어 고군분투하는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전차로 증강된 필리핀 대대를 투입하여 연결작전을 기도하였으나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글로스터대대는 여단의 구출작전을 기대하고 설마리 고지에 사주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수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¹⁸¹⁾

미 제3사단장은 제8군사령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25일 미 제65연대를 투입하여 구출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사단마저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구출계획은 취소되었다. 이 무렵 여단 주력도 감악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포위될 상황에 직면하자 여단장은 전방대대에 여단본부가 있는 봉암리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글로스터 대대장에게는 증원부대의 투입이 불가함을 통보함과 동시에 대대가 적중을 돌파하고 철수하든지, 아니면 중공군에

18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12.

1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pp. 72~78.



휴식 중인 영국 제29여단 장병들

투항하든지 양자택일권을 위임하였다.¹⁸²⁾

이때 글로스터 대대장 칸(J. P. Carne) 중령은 막연히 남쪽의 계곡만 통과하면 좌인접의 국군 제1사단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25일 10:00 대대장, 군목, 군의관, 의무요원 등은 50여 명의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한 가운데 D중대의 엄호하에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의 주력과 설마리고지에 잔류한 요원들은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고, 대대의 철수를 엄호 후 북쪽으로 철수한 D중대만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¹⁸³⁾

한편 여단 주력부대도 황방리(篁芳里) 일대에서 200여 명의 부상자를 전차에 분승한 채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봉암리로

1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56.

183) Billy C. Mossman, op. cit., pp. 426~427.

철수하였지만, 이 철수과정에서 전차의 포탑을 회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상자를 탑승시켜 전차는 화력지원은 물론 기동성도 발휘할 수 없어 다수의 부상자들이 희생되었다.

여단이 정오 무렵 군단 명령에 의거 벨기에 대대의 엄호하에 덕정(德亭)으로 철수를 개시하자 전과확대를 노린 중공군의 추격전도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단은 다수의 인명 및 장비의 피해를 입고 덕정과 의정부(議政府)로 분산 철수하였다. 제29여단은 의정부에 재집결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말미암아 부대정비가 시급하여 영등포로 이동하였다.¹⁸⁴⁾

결과적으로 여단은 이 전투에서 글로스터대대 D중대를 제외한 전 대대가 포로가 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희생으로 적성-설마리-동두천으로 돌파하려는 중공군을 3일간이나 저지시켜 군단 주력부대들의 안전한 철수는 물론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 같은 글로스터대대의 설마리전투는 한국전쟁사에서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례로서 기록되고 있고, 영국 정부도 이들의 투혼을 기리기 위하여 설마리에 전적비를 건립하였다.¹⁸⁵⁾

(5) 가평전투

중공군의 4월공세의 조공인 제9병단은 4월 22일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기인 산악기동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사창리(史倉里) 지역의 국군 제6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공격의 여파는 영연방 제27여단에도 미치게 되었다.

1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pp. 149~152.

18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p. 149~152.

미 제9군단장은 23일 저녁 군단예비로 가평에 집결중인 영연방 제27여단에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는 계속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단 주력은 제6사단 후방의 가평천 계곡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춘천-가평 도로를 목표로 진출중인 중공군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¹⁸⁶⁾

이에 여단장은 캐나다 대대를 좌전방 내촌(內村) 부근의 677고지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우전방 죽둔리의 504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북동쪽에서 계곡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 파견근무가 만료된 아질대대는 예비로 가평 부근에 집결 보유하였다. 이때 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배속된 미 전차 제72대대 1개 소대는 적의 접근이 용이한 계곡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죽둔리(竹屯里)에, 제2박격포대대 제B중대는 504고지 후방에, 제74공병대대 B·C중대는 가평 북쪽에 배치하였다. 이어서 사창리 부근에서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철수한 제16포병연대¹⁸⁷⁾와 미들섹스대대¹⁸⁸⁾도 가평 북쪽 가평천변에 배치하였다.¹⁸⁹⁾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 제118사단의 선두 연대는 이날(23일) 22:00경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배치상황을 모른 채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중대대형을 유지하고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이를 포착한 우전방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대대의 화력은 물론 지원된 전차 및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¹⁹⁰⁾

중공군은 24일 01:00경 전방에 배치되었던 전차소대가 재보급

18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24.

187) 제16포병연대는 16th Field Regiment Royal New Zealand Artillery의 약칭.

188) 미들섹스대대는 1st Bn The Middlesex Regiment의 약칭.

189) Billy C. Mossman, op. cit., p. 391.

1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25.

을 위해 철수하자 즉시 2개 제대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이때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최악의 상황에서 근접전투를 펼치게 되었으나 새벽까지 504고지 일대의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날이 밝아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이 집중되자 적은 공격을 중지하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여단장(B. A. Burke 준장)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우전방 감제고지인 504고지와 후방의 미들섹스대대 지역이 적의 포격권에 들어 있어 부상자 후송과 채보급도 문제가 되므로 이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면 오히려 피해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미들섹스대대 후방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¹⁹¹⁾ 이에 대대는 저녁 무렵 미 전차소대와 제16포병연대의 엄호하에 철수하였다.

중공 제354연대는 병력을 증원받아 22:00경 박격포와 자동화기를 동원하여 2개 공격제대로 좌전방 677고지의 캐나다 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6포병연대가 가평천을 도하하는 적을 집중포격하고 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자 자정 무렵 적은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중공군은 재정비를 완료하고 25일 02:00경 캐나다 대대를 재공격하였으나 D중대의 유인작전에 말려 아군의 탄막사격으로 격멸되었다. 중공군이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여단의 강력한 저지작전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자 25일 새벽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함으로써 가평전투는 제27여단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¹⁹²⁾

이 전투 결과 중공군은 유엔군 전선 분할 기도가 좌절됨으로써 그들의 4월공세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반면 아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191) Billy C. Mossman, op. cit., p. 405.

19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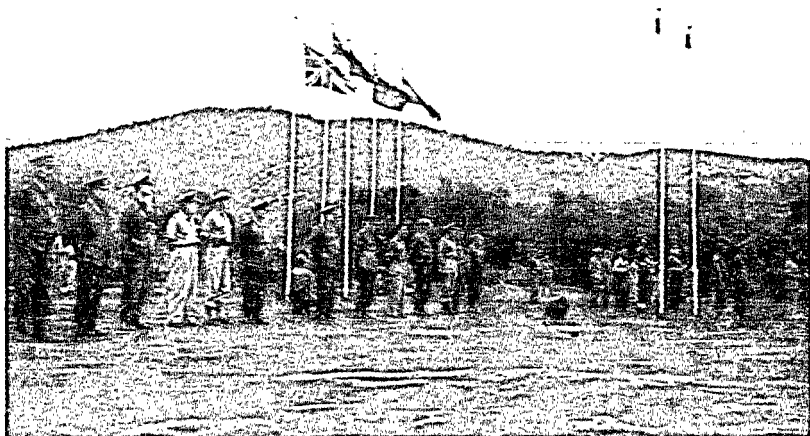
(6) 영연방 제1사단의 창설

영국은 개전초부터 한국전쟁에 참가한 영연방국가의 부대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실 영연방국의 부대들은 그들 특유한 군사작전상의 절차는 물론 지휘체계와 장비, 탄약 등의 보급문제까지도 영국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한 조치로써 미 제8군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 동안 영연방군의 통합문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일단 주춤하였으나 1951년 5월 초 캐나다 제25여단 주력이 도착하면서부터 통합의 준비작업은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¹⁹³⁾

제8군은 영연방군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공군의 춘계공세시 임진강 부근에서 격전을 벌인 후 김포반도에서 재정비를 마친 영 제29여단을 5월 말에 다시 적성 일대에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가평전투 이후 영연방 제27여단에서 개칭된 영연방 제28여단도 미 제1군단으로 배속전환시켜 전곡 남쪽에 재배치하였고, 마지막으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어 철원(鐵原)으로 진출한 캐나다 제25여단도 임진강 남쪽에 재배치하였다. 이로써 임진강 남쪽의 적성-도감포를 연하여 영연방군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951년 7월 28일 제8군사령관과 주일 영연방군 총사령관이 임석한 가운데 덕정에서 성대한 창설식을 갖고 영연방 제1사단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이때 초대 사단장에는 영국의 차셀스(A. J. H. Cassels) 장군이 임명되었고, 사단은 영연방 제28, 영 제29여단(배속: 벨기에 대대), 캐나다 제25여단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캐나다 제2포병대대,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 영 제45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61.



영연방 제1사단의 창설식

포병대대, 영 제170경포중대, 오스트레일리아 제11대공포중대, 영 제8전차대대, 캐나다 전차대대, 영 제28야전공병대대, 캐나다 제57야전공병중대, 영 제64건설공병중대가 주력부대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미군사단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없는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을 비롯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모두 6개국의 군대로 구성된 사단인데, 한 단위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 나라 부대가 참여한 것은 세계전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¹⁹⁴⁾ 또한 영연방 사단의 창설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그들이 중히 여기는 체면과 위신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1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62.

(7) 제임스타운선 진출전

미 제1군단에 배속된 영연방 제1사단은 좌전방 적성 일대에 영 제29여단을, 우전방 도감포 일대에 영 제28여단을 배치하여 임진강 남쪽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고, 캐나다 제25여단은 사단에비로 양지말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정면에는 중공 제64군 제192사단이 고왕산(高旺山) 일대에 배치됨으로써 임진강 북쪽에 7km의 폭으로 무인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사단이 중공군과 접적을 유지하고 적정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찰대가 장애물인 임진강을 도하해야 하고, 그때마다 이들에 대한 화력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사단장은 이번 기회에 사단의 전선을 임진강 북쪽으로 북상시켜 방어의 단점을 보강함과 아울러 우인접에서 연천 일대의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한 미 제1기병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한된 공격작전(Minden)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¹⁹⁵⁾

사단은 9월 8일 공격을 개시하여 임진강을 도하한 후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12일 좌전방 제29여단이 원당리(元堂里)－두일리(斗日里) 선에, 우전방 캐나다 제25여단이 백학저수지－강서리(江西里) 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임진강 북쪽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8군사령관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의 전선을 10km 북상시켜 적의 관측과 포격으로부터 연천－철원 간 도로 방호와 서울－철원－김화 간 철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임진강 북쪽－연천 서쪽－역곡천 남쪽－철원 북동쪽을 연하는 제임스타운(Jamestown) 선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¹⁹⁶⁾

1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67.

19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83.

공격준비를 완료한 사단은 10월 3일 군단의 특공(Commando)작전계획에 의거 좌전방 캐나다 제25여단은 제임스타운선상의 포스터(Foster)를, 우전방 영 제28여단은 무어(Moore)를 각각 공격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장은 군단의 대구경 화포의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28여단, 캐나다 여단순으로 축차적인 공격을 지시하였다.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8여단은 3일 새벽에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좌전방 KSLI대대¹⁹⁷⁾는 227고지를, 중앙의 KOSB대대¹⁹⁸⁾는 고왕산을, 우전방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마량산(馬良山)을 각각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저녁 무렵 공격이頓挫되었다. 4일 11:00에 좌인접의 캐나다 제25여단이 공격을 개시하자 영 제29여단의 푸실리아대대를 증원받은 영 제28여단도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8여단은 공격개시 3시간이 경과할 무렵 적의 저항이 경미한 227고지와 고왕산을 탈취하고 계속 공격하였으나 217고지를 공격한 푸실리아대대(RNF)와 마량산을 공격한 오스트레일리아 대대(RCR)는 적의 저항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손실을 입어 공격이頓挫되었다.¹⁹⁹⁾ 그러나 좌인접의 제25여단은 의외로 적정이 경미하여 갈현리-청룡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은 5일 최종 목표선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총공세를 개시하여 제25여단은 나부리-기곡리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28여단은 중공군과 치열한 일진일퇴의 고지쟁탈전투를 펼쳐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마량산은 확보하였으나 푸실리아대대는 217고지에서 적의 역습에 밀려 실패하였다. 제28여단이 8일 공격을 재개하여 마지막

197) KSLI대대는 1st Bn The King's Shropshire Light Infantry의 약칭임.

198) KOSB대대는 1st Bn King's Own Scottish Borderers의 약칭임.

1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469~470.

남은 217고지마저 확보함으로써 사단의 제임스타운선 진출작전은 일단락되었다.²⁰⁰⁾

사단은 6일간의 전투에서 전사 58명, 부상 262명의 인명손실을 입고 피로 얼룩진 제임스타운선상의 고지들을 확보하였으나 한 달도 채 못 된 11월 6일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중요거점인 217고지와 마량산을 피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연방 제1사단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사미천과 임진강 서쪽의 제임스타운선에서 대소의 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8) 후크고지 전투

영연방 제1사단은 군단의 전선조정에 따라 1952년 10월 27일 좌인점의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그 동안 피아간에 충돌이 빈번한 후크(Hook) 고지를 인수하면서부터 격전이 예견되었다. 후크고지는 사미천과 평행하게 형성된 긴 고리 모양으로 된 능선의 끝부분에 있는 고지로 주변 일대를 감제관측할 수 있어 피아간에 중요한 전술적 감제고지였다.²⁰¹⁾

사미천 서쪽지역을 인수한 제29여단은 지난 6월에 파견되어 현지적응 훈련을 마친 블랙워치대대²⁰²⁾를 배치하였고, 대대정찰대는 11월 4일 후크고지 전방을 정찰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중공군이 16일부터 후크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8일 야간에 아군의 집중 포격에도 불구하고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밤새도록 중원부대를 투입하여

2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71.

2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89.

202) 블랙워치대대: 1st Bn The Black Watch.

뺏고 빼앗기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고, 새벽 무렵 중공군이 100구의 시체를 버리고 철수함으로써 후크고지 전투는 일단락되었다.²⁰³⁾

이후 사단은 군단명령에 의거 1953년 1월 말 사단 창설 이후 18개월 만에 작전지역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한 4월 7일 이후에도 소강상태는 지속되었으나 5월 중순부터 사단이 지난해 11월에 중공군과 한바탕 격전을 벌인 후크고지 전방에 병력과 장비를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도 웰링턴대대²⁰⁴⁾를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25일 중공군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초거점인 157고지를 기습공격하였다.

이에 맞선 중공군은 28일 저녁 후크고지 일대에 사단이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최대의 포격을 집중한 후 후크고지를 공격하였다. 이에 사단도 VT신관으로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후크고지 일대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왔다.²⁰⁵⁾ 중공군은 제2, 제3제대를 연이어 투입하여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그때마다 사단 포병의 집중화력과 전방대대들의 분전으로 격퇴되었다.

중공군이 물러난 29일 아침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아군의 진지와 교통호는 지난밤 중공군의 포격에 완전 붕괴되었고, 주변에는 시체 170여 구만 흩어져 있었다. 이날 전투에서 사단도 23명이 전사하고 10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03)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67.

204) 웰링턴대대: 1st Bn The Duke of Wellington's Regiment.

2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97.

이 전투를 끝으로 사단정면에서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고, 사단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9) 해병특공대의 활동

영국은 1950년 8월 초 제41해병독립특공대(The 41st Marine Independent Commando)에서 장교 14명, 사병 211명을 선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한 후 9월 초 일본에 파견하였다. 해병특공대는 인천상륙부대의 일원이 되어 9월 초에 한국으로 이동하여 유엔군의 인천상륙에 앞서 실시된 군산지역 양동작전에 미군과 혼성부대를 이루어 연합작전에 참가하였다.²⁰⁶⁾

해병특공대는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기 직전인 10월 1일 미 구축함의 엄호하에 동해안의 웅기 부근에 기습상륙하여 철도 터널 폭파임무를 수행하였으며, 6일 청진에 이어 다음날에는 성진 부근의 철도, 교량, 터널을 폭파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장진호(長津湖)를 공격중인 미 제1해병사단이 수색부대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영국 해병부대의 배속을 요청함으로써 해병특공대는 해상작전을 일시 중지하고 11월 20일 홍남에 상륙하여 28일 고토리(古土里)로 이동하였다. 이때 하갈우리(下礪隅里)로 진출한 미 제1해병사단 주력부대들은 하갈우리-고토리 도로를 차단한 중공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해병특공대는 하갈우리에 고립된 미 해병사단 주력과 연결하기 위하여 이날 저녁 미 제1해병연대 G중대와 미 제31연대 B중대를 증원받아 드래스텔특수임무부대(Drysdale TF)를 편성하였다.²⁰⁷⁾ 특수임무부대는 29일 아침 미 포병의 엄호하에 산간통로를 따라 이

2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39.

2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p. 143.

동을 개시하였고, 13:00경에는 미 해병전차대대의 주력도 증원되었다.

드래스텔부대가 고토리-하갈우리의 중간지점을 통과할 무렵 주변고지에서 이들의 활동을 감제관측하고 있던 중공군이 포격을 시작하자 행군대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특수임무부대는 보전조를 편성하여 즉시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16:00경에는 협소한 산간통로마저 중공군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과 포격에 매몰 또는 파괴되어 부대는 다시 정지되었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는 때마침 근접항공지원차 출격한 폭격기들이 중공군 진지를 폭격하는 동안 전차의 급유는 물론 행군대형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특수임무부대가 다시 전진을 시작하자 유리한 지형을 점령한 중공군도 이들의 전진을 극력 저지하기 위하여 집중사격을 가해 왔다. 불운하게도 이 사격에 진두지휘하던 드러스텔 중령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드러스텔 중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 해병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중공군의 차단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진격을 독려했다.

이때 특수임무부대의 행군제대는 중공군에 의하여 선발대, 본대, 후발대로 분할되었으며, 통신마저 두절되어 후미제대는 고토리로 철수하기도 하였다.²⁰⁸⁾ 선두에서 전진을 주도한 해병특공대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하갈우리 남쪽 2km까지 진출함으로써 하갈우리(下礪隅里)를 목전에 두었다.

그러나 중공군도 이들의 하갈우리 진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후의 일전을 각오한 듯 집중사격을 퍼부었고, 이 사격에 부상중인 드러스텔 중령이 다시 총상을 입어 미 제1연대 G중대장이 부대를

2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47~148.

지휘하게 되었다.²⁰⁹⁾ 그러나 특수임무부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화력을 집중하여 증공군의 차단진지를 돌파하고 밤늦게 하갈우리로 진출하였다. 당시 해병특공대는 기지방어를 위한 병력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미 해병사단 지휘부를 증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해병특공대는 흥남철수시 미 극동해군으로 복귀하여 1년여 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동해안을 연하여 부설된 철도를 파괴하여 적의 병참선을 교란시켰다. 이들은 1951년 12월 23일 원산항에 정박중인 적 선박을 기습공격할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해병특공대의 작전도 일단락되었다.²¹⁰⁾

3. 해군의 활동

(1) 초기작전

영국 극동함대사령관은 유엔에서 대한군사원조안이 의결되자 6월 29일 4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1만 3천톤급의 경항공모함 (Triumph) 1척과 6"포를 장비한 순양함 2척(Jamaica, Belfast), 그리고 구축함 3척(Cossack, Consort, Bataan), 프리깃함 4척(Black Swan, Alacrity, Hart, Shoalhaven)으로 구성된 전대를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으로 파견하였다.²¹¹⁾ 영국 함정들은 도착과 동시에 벨파스트(Belfast)호 전단은 미 제77기동타격대에, 자마이카(Jamaica)호 전단은 동해지원전대에 각각 배속되었다.

자마이카 전대는 7월 2일 4척의 어뢰정과 2척의 소형 포함이

2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p. 151.

2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43.

211)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73.

주문진(注文津)에서 대규모 어선단을 호위하여 부상중인 것이 목격되자 미 함정과 함정으로 이 적을 포격하여 어뢰정 3척과 포함 2척을 격침시키고 2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가 영국 해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북한군 해군과 첫 충돌이자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²¹²⁾ 이때 경항공모함에서 발진한 21대의 함재기들은 해주비행장, 열차, 교량 등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3일 미 극동해군사령부 작전명령 8-50호에 의거 서해안의 북위 37도선에서 39도 30분까지 해안을 봉쇄하게 되었으나 동해안 지역의 상황이 급박하여 대부분의 함정들은 미 해군이 담당한 동해안으로 파견되었다.²¹³⁾ 영국 함정들은 7월 18일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 상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38도선 인근해역에서 경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였고, 경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은 원산, 함흥, 홍남 등의 주요도시의 비행장과 철도시설 등을 포격하였다.

7월 하순 유엔군의 해군력이 증강되자 영국 함대는 종래의 한국 지원전대에서 기동단대(TG-96.53)로 변경되었다. 기동단대 예하에는 항공모함 트리엄프(Triumf)호를 주축으로 한 제1기동분대, 순양함 자마이카호를 주축으로 한 제2기동분대, 그리고 순양함 켄아(Kenya)를 주축으로 한 제3기동분대가 편성되었다. 이때 기동단대 사령관 앤드류스(Andrewes) 소장은 미 해군을 제외한 한국 해군을 포함한 모든 유엔해군을 지휘·통제하게 되었다.²¹⁴⁾

지상군의 전선이 낙동강방어선에 고착되자 서해안을 담당한 기동단대는 8월 초 목포, 인천, 해주 지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실시한

2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03.

213)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76.

2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07.

데 이어 하순에는 군산을 봉쇄하였다. 이어서 작전지역을 남해안까지 확대하여 여수항마저 봉쇄하여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을 개시할 무렵 서해안 기동단대는 해상경계와 공격기동부대의 엄호를 맡게 되었다. 기동단대는 상륙작전에 앞서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원산, 삼척, 울진에 대한 함포사격과 군산상륙을 지원하였고, 인천상륙시에는 상륙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함포사격도 실시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종료되자 미 극동해군사령부는 유엔해군을 다시 재편성하여 영국 함대를 중심으로 서해지원전대(TG-95.1)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라 서해지원전대도 본부, 항공모함분대, 해상초계 및 봉쇄분대, 프리깃분대로 재편성하였다.²¹⁵⁾

이 무렵 지상군이 북진을 개시하자 지원전대 소속 함정들은 함포지원은 물론 도서지방의 피난민 구호에도 주력하게 되었다.²¹⁶⁾ 이때 북한군이 인천-진남포 해상에 표류기뢰를 부설함으로써 함정들은 활동에 장애를 받았고, 또한 이 기뢰를 소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지상군이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자 지원전대 사령관 앤드류스 소장은 상황을 낙관하고 대부분의 함정들을 수리 및 휴식차 홍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지상군이 철수를 개시하자 12월 4일 서해안에 잔류중인 6척의 함정으로 긴급히 전대를 구성하여 진남포(鎭南浦)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진남포 일대의 수로조건이 열악하여 2척이 좌초되고 4척만이 진남포로 진입하여 유엔군의 철수작전을 엄호하였다. 수송전대가 항만을 빠져 나가자 구축함들은 일제히 함포사격으로 항만을 파괴하였다.²¹⁷⁾ 그리고 1951년 1월 초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215)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267.

2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13.

2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15.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철수하자 미 극동해군은 제8군의 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안에 배치되었던 다수 함정은 물론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영·미 합동작전으로 인천항 철수작전 및 지상군에 대한 함포사격을 지원하였다.

·37도선으로 철수한 유엔군이 1951년 1월 하순 재반격을 개시하자 서해지원전대는 월미도(月尾島)에 강력한 포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는 북한군을 함포사격과 함재기로 포격하여 지상군의 인천 재탈환을 지원하였다.

이후 해상작전은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까지 유엔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유엔군이 확보한 서해안의 대소 전략도서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다.²¹⁸⁾

(2) 후기작전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지상군의 전투는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해군의 작전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해군은 38도선 이북의 도서지역을 점령하고 활동중인 유엔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안초계, 전략도서 경비, 적 해안포대 포격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²¹⁹⁾

이 무렵 해군은 이들 통상적인 작전 외에도 적의 주력 기종인 MIG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7월 20일 압록강 하구까지 북상하여 해상에 추락한 MIG기 회수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하순에는 휴전협상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수심이 얇고, 간만의 차가 심한 해주항 봉쇄작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1월 접어들어서도 지상전은 여전히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19.

2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23.

해상작전은 적의 공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엔군이 유격전과 첩보 활동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38도선 북쪽의 전략도서를 확보할 목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원전대는 11월 초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압록강 하구의 신미도, 가도, 탄도 등을 피탈당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대화도마저 피탈함으로써 서해지원전대의 활동범위가 대동강 하구 남쪽의 석도, 초도로 축소되었다. 이에 미 극동해군 사령관은 전략도서의 확보는 휴전협상에 임하는 유엔군측 대표의 입지와 관련되므로 도서방어작전에 최우선을 두고 해상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²²⁰⁾

1952년에 접어들면서 서해안의 해상활동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지원전대의 대부분 함정들은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원산, 성진, 청진 등에서 함포사격으로 ‘열차부수기 작전’에 참가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²²¹⁾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서해지원전대의 해상봉쇄 및 해안포격 작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이 해안포를 설치하고 사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전대는 9월 23일 서해안 도서방어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대의 편성과 임무를 조정하였다. 지원전대는 항공모함분대와 순양함분대로 양분하였고, 순양함분대는 도서지상방어단대, 초도·석도단대, 백령도·대청도단대, 해주만단대 등 4개 단대로 세분화하여 각각 도서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²²²⁾

이 편성에 따라 1953년도 초에는 주로 함재기에 의한 적 해안포 진지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었고, 4월부터는 해상조건이 호전되

2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29.

2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32.

2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34.

어 함정들도 이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무렵 7월 27일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서해안 도서방어의 지휘부로 이용해 왔던 초도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자 지원전대는 지휘부를 그 남쪽의 백령도로 이동함으로써 활동범위도 축소되었다.

영국 함정을 중심으로 편성된 서해지원전대는 휴전협정 이후에도 서해의 전략요충인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방어에 주력하였고, 이들은 1954년 초에 도서방어 임무를 미해군에 인계하고 3월에 귀국함으로써 해상작전도 일단락되었다.

4. 참전결과

(1) 참전현황

○ 지 상 군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영연방 제1사단	1953. 7~	덕정에서 창설
영 제27보병여단	1950. 8~1951. 4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
영연방 제28보병여단	1951. 4~1953. 3	
영 제29보병여단	1950.11~	
Middlesex연대 제1대대	1950. 8~1951. 5	제27여단 배속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연대 제1대대	1950. 8~1951. 4	제27여단 배속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	1950.11~	제29여단 배속
Gloucester연대 제1대대	1950.11~	"
Royal Ulster Rifles연대 제1대대	1950.11~	"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King's Own Scottish Borderers 연대 제1대대	1951. 4~	제28여단 배속
King's Shropshire Light Infantry 연대 제1대대	1951. 5~1952. 9	"
Royal Norfolk연대 제1대대	1951.10~1952.11	"
Leicestershire연대 제1대대	1951.10~1952. 6	"
Welch연대 제1대대	1951.11~1952.11	제29여단 배속
Black Watch연대 제1대대	1952. 6~1953. 7	"
Royal Fusiliers연대 제1대대	1952. 8~1953. 8	
Duham Light Infantry연대 제1대대	1952. 9~1953. 9	제28여단배속
King's Liverpool연대 제1대대	1952. 9~1953.10	제29여단 배속
Duke of Wellington연대 제1대대	1952.10~1953.11	"
Royal Scots연대 제1대대	1953. 7~미상	
Essex연대 제1대대	1953. 8~ "	
Royal Warwickshire연대 제1대대	1953. 9~ "	
King's Own Royal연대 제1대대	1953.10~ "	
North Staffordshire연대 제1대대	1953.11~ "	

○ 주요함정

구 분	함 정 명
항 공 모 함	Triumph, Ocean, Theseus, Glory, Unicorn
순 양 함	Belfast, Jamaica, Ceylon, Kenya, Newcastle, Birmingham
구 축 함	Cossack, Consort, Comus, Concord, Constance, Cockade, Charty

○ 기타함정

구 분	함 정 명
프 리 깃 함	Mounts Bay, Morecambe, Black Swan, Whitesand Bay, Cardigan Bay, St. Brides Bay, Alarcrity, Modeste, Hart, Opossum, Sparrow, Crane, Amethyst
기 타	Maine(병원선), Tyne(보급선), Ladybird(본부선), 18척의 보조근무선

(2) 피해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부 상	포 로
총 계	4,731	1,078	2,674	979
육 군	4,521	977	2,589	955
해 군	67	44	19	4
해 병	115	30	66	19
공군(함재기)	28	27	-	1

* 포로는 81명의 사망자를 제외한 통계임.

출처: 「한국전쟁피해통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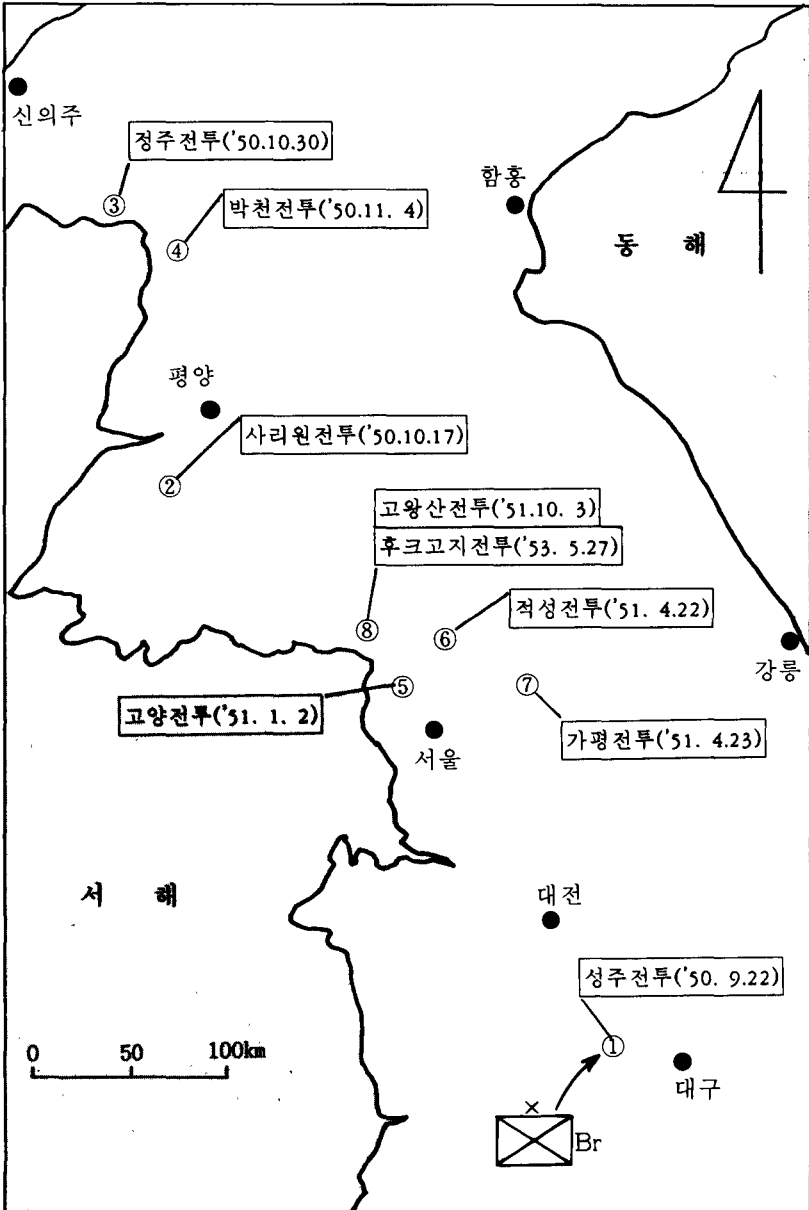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6. 29	영국 극동함대소속 Triumph호 외 7척, 미 극동함대에 배속
	7. 2	영국 함정, 주문진에서 북한군 해군과 첫 교전
	7. 21	서해안지원분대 편성, 영 해군 미 함정 제외 전 유엔해군 지휘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8. 28	영국 제27여단, 부산 상륙
	9. 4	영 제27여단, 낙동강전선 투입
	9. 30	오스트레일리아 대대 배속, 영국 제27여단, 영연방 제27여단으로 개칭
	10. 17	제27여단, 사리원 점령
	10. 30	제27여단, 정주 진출
	11. 3	영 제29여단 선발대, 부산 상륙
	11. 5	제27여단, 박천에서 중공군 격퇴
	11. 18	제29여단, 부산 상륙
	11. 28	영 해병특공대, 고토리-하갈우리에서 미 해병사단 증원
	12. 11	제27여단, 평양에서 의정부로 철수
	12. 13	제29여단, 신둔리 집결
1951	1. 2	제29여단, 고양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
	1. 22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 제27여단 배속
	2. 14	제27여단, 여주에서 남한강 도하, 재반격작전 개시
	2. 18	캐나다 PPCLI 제2대대 제27여단 배속
	4. 22	제29여단, 설마리에서 중공군과 격전
	4. 23	제27여단, 가평에서 중공군과 격전
	4. 26	영연방 제27여단,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
	7. 28	영연방 제1사단, 덕정에서 창설
	8. 4	제28, 제29여단, 고왕산 공격
	9. 8	영연방 제1사단, 와이오밍선 진출
	10. 8	영연방 제1사단, 코만도작전으로 제임스타운선 진출
	11. 6	제28여단, 217고지 및 마량산 피탈
	12. 4	영국 특공중대 귀국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2. 10	제1사단, 올가미작전(Operation Snare) 개시
	4. 14	Westminster작전 개시
	5. 25	2개 중대, 거제도 포로수용소 경비 지원
	6. 15	영국 국방장관 Alexander of Tunis 원수, 전선 방문
	7. 13	국군 제1사단 Betty고지 전투 지원
	7. 27	영국 함재기, 최초로 MIG기 공격받음
	9. 7	A-R-West소장, Cassels소장 후임으로 제1사단장 취임
	10. 23	안부지역(227고지와 고왕산 중간) 전투
	10. 27	제1사단, 미 해병사단으로부터 후크고지 인수
1953	1. 31	제1사단, 동두천 부근에서 군단예비
	4. 8	제1사단, 제임스타운선 복귀
	5. 28	제29여단, 후크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영국군의 주요전투



제 3절 오스트레일리아(Austrailia)

1. 참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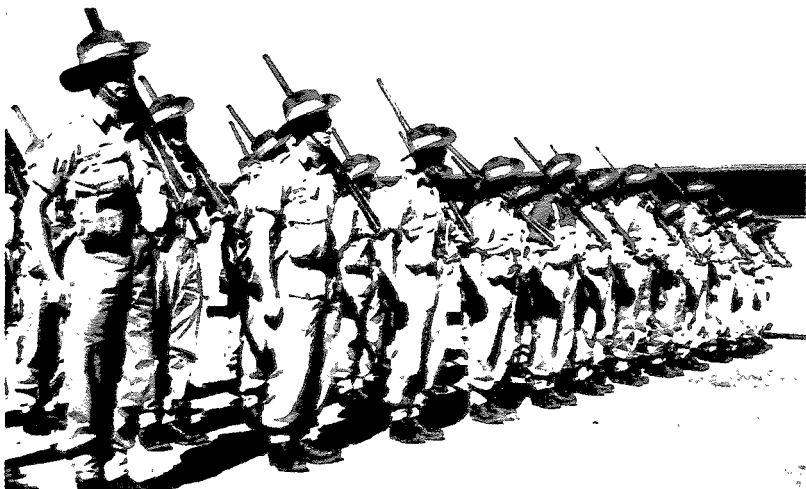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8일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30일 참전을 제의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미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를 통해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중인 2척의 함정과 일본에 주둔중인 1개 비행대대의 파견을 통보하였다.²²³⁾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함정들은 6월 30일 미 극동해군과 합류하기 위하여 홍콩을 출발하여 오키나와(沖繩) 기지로 향하였고, 제77전투비행대대는 주둔중인 이와쿠니(岩國) 기지에서 미 제5공군에 배속되었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군사원조 조치는 7월 7일 긴급 소집된 상하 양원의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무렵 극동군사령부의 추가병력 소요판단을 제출하자 미 합참은 10일 영연방 국가 중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유엔사무총장도 13일 유엔회원국에 지상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8월 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지원병들로 구성된 1개 여단 규모의 파견을 계획하고 모병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전황이 유엔군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병력증원이 급선무로 대두되자 오스트레일리아는 6주 내에

22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16.



한국으로 파견에 앞서 일본에서 훈련중인 오스트레일리아군

900명 규모로 편성된 보병 1개 대대를 1차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지원장병의 신체검사 및 등록업무를 개시하였다.²²⁴⁾

그러나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이 위태롭게 되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중인 오스트레일리아 제76보병대대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지원한 병력과 일부 병력을 본국에서 보충시켜 제3대대를 편성하여 조기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9월 17일 선발대가 부산에 도착한 데 이어 27일 그 동안 일본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바 있는 제3대대가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 제1진으로 부산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는 해·공군의 참전에 이어 또다시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그 규모는 작지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육·해·공군을 파견한 국가가 되었다.

2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2.

2. 지상군의 활동

(1) 사리원 전투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²²⁵⁾ 960명은 대대장 그린(C. H. Green) 중령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한 직후인 9월 27일 부산에 상륙하였다. 대대는 이날 부산 시민들과 유엔군 장성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열차 편으로 대구 유엔군 수용소로 이동하였고, 전투준비를 완료한 대대는 30일 성주로 이동하여 영 제27여단 주력과 합류하였다. 이때부터 대대는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영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영 제27여단은 병력이 부족하여 미들섹스대대와 아질대대의 2개 보병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투경험이 풍부한 대대가 배속됨으로써 전투력의 강화는 물론 영국군의 사기도 한층 고양시키게 되었다. 또한 부대명칭도 대대의 합류로 영국 제27여단에서 영연방 제27여단²²⁶⁾으로 개칭되었다.²²⁷⁾

유엔군의 북진작전이 개시되자 대대는 10월 5일 여단과 함께 대구(大邱)로 이동하여 수송기 편으로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한 후 8일 개성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제27여단은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었고, 여단은 사단의 우전방 부대로 금천(金川) 포위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격의 선봉에 나선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는 9일 아침 배속된 전차소대를 앞세우고 공격을 개시하여 참전 이후 처음으로 10일 개성 북동쪽 화장산(華藏山)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

225)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 The 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 (약칭: 3RAR)

226) 연연방 제27여단: 27th British Commonwealth Brigade.

2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33~34.

를 벌여 포로 3명을 획득하였다.

이후 대대는 금천, 남천점(南川店)을 경유 17일 저녁 무렵 유엔군의 항공폭격으로 폐허가 된 사리원으로 진출한 후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이동하여 황주-사리원 도로에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밤 사리원에서는 영국군과 재령 방면에서 철수하던 북한군 사이에 옷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영국군은 북한군을 좌인점 미 제24사단 소속의 한국군으로 오인하고, 북한군은 영국군을 소련군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다. 잠시 후 이들은 쌍방이 적임을 알게 되자 북한군의 일부는 저항하였고, 다른 일부는 분산된 채 도주하였다.

이때 사리원-황주 도로를 차단중인 대대는 남쪽에서 긴급히 부상하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다. 대대는 철수하는 북한군을 진지 전방까지 유인한 후 전차의 굉음으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킨 뒤 투항을 권고하는 심리전을 펼쳐 무혈로 1,982명을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다.²²⁸⁾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18일 주력부대들이 평양탈환작전을 벌이는 동안 황주(黃州)로 진출하여 여단예비가 되었다.

(2) 영유(永柔)전투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북한군은 청천강 남쪽의 안주-개천-덕천 선에서 지연전을 기도하려는 듯 서둘러 철수하였고, 일부는 그들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영유리-어파리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때 미 제187공수단은 적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평양에서 북으로 압송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 포로를 구출하기 위

228)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43.

하여 10월 20일 숙천, 순천 일대에 공수투하되었다.

이에 안주 방면으로의 북진준비를 하고 있던 영연방 제27여단은 이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21일 서둘러 대동강을 도하한 후 22일 새벽에 영유에 도착하였다. 이때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는 영유 북서쪽의 숙천-평양 도로변에 배치되었고, 북한군 제239연대는 북쪽 163고지 부근 과수원에 진지를 구축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다.²²⁹⁾

대대가 배치되자 북한군은 박격포 및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대는 남하중인 공수부대가 적과 거리가 근접하여 박격포나 포병의 대응사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지켜 있는 공수부대가 북한군의 강력한 차단진지를 돌파하고 철수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제3대대장은 대대가 이 적을 격멸하고 공수부대와 연결작전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배속된 미 전차소대의 엄호하에 C중대로 하여금 적의 거점인 과수원을 기습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C중대는 빗발치는 적의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으로 접근한 후 전차포 사격이 종료되자 적 진지로 돌입하여 백병전을 벌이게 되었고,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장병들의 용맹한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하였다.²³⁰⁾ 잠시 후 북한군은 진지를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적이 공수부대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대 사이에 끼여 완전 포위된 상황에서 협공을 받게 되었다. 이때 대부분의 북한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고, 대대가 즉시 1개 소대 규모를 차출하여 북진시켜 남하중인 공수부대와 연결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영유전투는 일단락

22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44.

230) Roy E. Appleman, *op. cit.*, p. 660.

되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살 150명, 포로 239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리고 이날 밤 숙천으로 진출하여 본격적인 북진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3) 정주 진격전

대대는 10월 23일 새벽에 숙천을 출발하여 정오 무렵 신안주에서 청천강을 도하한 후 북진하여 박천 남쪽의 구진으로 진출하였다. 대대 주력이 대령강 도하를 준비하는 동안 1개 소대규모의 정찰대는 적정을 정찰하기 위하여 파괴된 교량을 이용하여 대령강 서안에 도착하였다. 이때 투항자세를 취한 50명의 적이 능선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고, 정찰대는 영문도 모르고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다. 이들이 정찰대와 근접해지자 북한군의 사격이 집중되었고, 쌍방간에는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적의 사격에 압도된 정찰대는 투항한 적 10명과 함께 철수하였다.²³¹⁾

이때 대대는 작전지역 상공에서 적정을 정찰한 항공기로부터 대대 정면에 최소 2개 중대규모의 적이 매복하고 있고, 이들의 후방에는 전차로 증강된 대부대가 집결중임을 통보받았다.

적이 배치되면 여단의 공격작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제3대대장은 야음을 이용하여 대안을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23:00에 A·B중대를 엄밀히 도하시켜 여명공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24일 새벽에 대대장이 예상한 대로 전차로 증원된 북한군이 남하하여 대대가 매복하고 있는 도로까지 진출하였다. 이때부터 쌍방간에는 치열한 화력전이 전개되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은 하루

2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42~43.

종일 계속되었고, 적의 산발적이면서도 완강한 저항은 26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7일 아침에 대대 주력이 도하하여 교두보를 구축하면서부터 상황이 호전되었고, 여단 주력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엄호하에 대령강 도하에 성공하였다.

영연방 제27여단은 28일 아질대대를 공격의 선봉에 내세워 정주(定州)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29일 아침부터는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아질대대를 초월하여 정주 동쪽의 노소리(路小里)를 공격하게 되었다.²³²⁾ 이때 항공관측자로부터 여단이 진출중인 정면의 고지 능선에 전차 4대로 증강된 대규모 부대가 집결하고 있음을 통보받은 여단장은 진격을 멈추고 도로를 중심으로 전투배치한 후 제3대대에 이 적을 격멸하도록 명령하였다.

잠시 후 근접항공지원차 출격한 폭격기들이 이 일대에 폭격을 실시하였고, 항공폭격이 끝나자 제3대대가 정면과 우측방에서 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2시간여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두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일몰이 되어 방어로 전환하였다.

21:00경 자주포와 전차로 증원된 북한군이 다시 공격을 개시, 치열한 총격전은 재개되었고, 이 전투는 29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날이 밝자 적이 전차와 다수의 장비를 유기하고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으나 대대도 9명이 전사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²³³⁾ 격전을 치른 대대는 여단의 후위부대가 되었고, 여단 주력부대는 아군의 항공폭격에 폐허가 된 정주에 10월 30일 무혈 입성하였다.

이때 제27여단은 미 제24사단의 예비가 됨으로써 모처럼 휴식

23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560.

2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7.

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참전 이래 다시 없는 불행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날이 저물자 대대장은 야간경계근무 상황을 순찰하고 정주 근교에 위치한 대대본부에 복귀하여 모처럼 천막 속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때 적의 포탄 6발이 대대본부 지역에 떨어졌고 그중 한 발이 대대장 천막 부근에 떨어져 대대장은 복부에 파편상을 입어 즉시 안주에 있는 미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²³⁴⁾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대장 그린 중령은 참전한 지 1개월 만에 전사하고 말았다. 이후 대대는 부대대장 퍼거슨(Ferguson)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후임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4) 박천전투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려던 유엔군의 총공세 작전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유엔군은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도 철수중인 미 제1군단 주력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11월 1일 정주에서 박천(博川)으로 철수하여 정주-박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옥녀봉(玉女峰)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때 운산에서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을 추격한 중공 제39군의 일부가 대령강과 박천 일대를 방어중인 제27여단과 우인점 구룡강(九龍江) 일대를 방어중인 미 제24사단 제19연대 사이에 생긴 배치공간으로 침투를 기도함으로써 청천강교두보를 놓고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중공군은 11월 4일 야간에 여단을 화력지원중인 미 포병대대를 격멸함과 동시에 여단의 철수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박천 후방의

234) Roy E. Appleman, op. cit., p. 682.

추도리(楸島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미 포병포대는 즉시 보병전투로 전환하여 방어전을 벌이었으나 진지의 일부가 피탈되었다. 이에 제27여단장은 5일 포대를 증원하고 여단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질대대의 C중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기도하였으나 이 중대마저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투입하였다.²³⁵⁾

대대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사격이 끝나자 2개 중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여 1시간여 동안 격전 끝에 이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항공관측에 의하여 사단 규모의 적이 여단을 포위공격할 목적으로 박천 동측방으로 우회기동중임이 포착되었다. 이에 여단 주력은 미 제1군단 지시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엄호하에 남쪽의 맹중리(孟中里) 부근으로 철수하였고, 저녁 무렵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도 여단 주력과 합류하였다.²³⁶⁾

여단을 추격한 중공군은 야간이 되자 공격을 재개하였고, 여단은 4시간 동안 격전을 벌여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날이 밝으면서 중공군이 다수의 시체를 유기한 채 접촉을 끊고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박천지구 전투는 일단락되었고, 대대는 적의 재공격에 대비 방어진지 보강과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12명이 전사하고 6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청천강 북쪽의 교두보를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유엔군이 공세이전의 발판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²³⁷⁾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는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를 개시하자 12월 2일 열파리로 이동하여 유엔군의 대동강 도하를 엄호

2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49~50.

2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126.

237)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86.

한 후 신계, 시변리를 경유 12월 11일 의정부에 도착하여 미 제9 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5) 죽둔리 전투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에 따라 캔자스선까지 진출하였다가 1951년 4월 19일 군단예비가 되어 가평에 집결하였다. 대대가 모처럼의 휴식과 재정비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도 잠시일 뿐 4월 22일 중공군이 4월공세를 개시함으로써 대대는 다시 이들과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사창리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을 돌파한 중공군이 23일 야간에 가평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죽둔리(竹屯里)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대가 배치된 상황을 모르고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종대대형으로 내려왔고, 대대는 23:00 지원된 전차 및 포병화력을 집중함으로써 혈전으로 점철된 죽둔리 전투가 시작되었다.²³⁸⁾

대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물러난 중공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24일 01:00에 지원된 미 전차소대가 재보급을 위해 철수하자 2개 제대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고, 일부는 대대 후방지역으로 진출하여 대대의 철수를 차단함으로써 대대는 적중에 고립되었다. 당시 대대는 통신시설의 미비로 전방중대와 연락이 두절됨은 물론 지원 포병마저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²³⁹⁾ 이때부터 쌍방은 역습을 주고받는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작전지역내 중요 감제고지인 504고지를 방어중인 D중대는 10시간 동안 수차에 걸친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였다.

날이 밝자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으나 여단

23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25.

239)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441.

장은 대대지역이 적의 포격권에 들어 있어 재보급 및 후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시간 체류하면 피해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철수하도록 하였다.²⁴⁰⁾ 그러나 24일 적의 일부가 철수로상의 도섭장 부근을 점령하고 철수로를 차단하였다. 대대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철수로 확보에 실패하였고, 부득이 일몰을 이용 산악지역으로 우회기동하여 가평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중공군은 좌인점의 캐나다 대대를 공격하였으나 대대의 분전과 여단의 지원화력에 큰 피해만 입고 철수함으로써 가평천 계곡에서 벌어진 혈전은 종료되었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전사 31명, 부상 58명, 실종 3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적의 가평 진출을 저지한 공로로 후일 미 대통령 부대표장을 받았다.²⁴¹⁾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이들 용전분투한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죽둔리에 대대의 참전기념비를 건립하였다.

(6) 마량산 전투

임진강 북쪽의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한 영연방 사단은 10월 초 미 제1군단 계획에 의거 이 선 북쪽 10km를 연하는 제임스타운(Jamestown)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작전(Operation Commando)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영연방 제28여단 좌전방 KSLI대대²⁴²⁾는 227고지를, 중앙의 KOSB대대²⁴³⁾는 고왕산을, 그리고 우전방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마량산(馬良山)을 각각 공격하게 되었다.

240) Billy C. Mossman, op. cit., p. 405.

2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82.

242) KSLI대대는 1st Bn The King's Shropshire Light Infantry의 약칭임.

243) KOSB대대는 1st Bn King's Own Scottish Borderers의 약칭임.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공격할 마랑산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우뚝 솟은 고지로 대대가 공격할 동남방향은 가파른 단애지역인 반면, 적진으로 연결되는 서쪽 능선은 완만하여 적의 증원과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그리고 이 고지의 8부능선에는 무수한 유개호와 교통호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²⁴⁴⁾

이러한 지형과 적정을 고려한 대대장은 A중대는 동남쪽에서 양공으로 적을 유인하고, B중대는 주공으로 동쪽 능선을 따라 공격하며, D중대는 B중대를 후속하다가 5부능선에서 B중대를 초월하여 마랑산을 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10월 3일 새벽에 포병의 엄호하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중공군의 저항이 경미하여 마랑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중간목표인 199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좌인접부대들의 공격이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둔좌됨에 따라 대대의 목표공격은 지체되었다.

대대는 10월 5일 03:30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날 따라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공격체대는 수시로 이동을 멈추고 공격방향을 확인해야 하므로 진출속도는 완만하였다. 얼마 후 A중대는 예정대로 적을 유인하는 양공을 개시하였으나, 주공으로 선두에 나선 B중대가 짙은 안개와 험준한 지형으로 말미암아 공격로를 이탈하였다. 이에 D중대마저 진격을 멈춤으로써 대대의 공격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²⁴⁵⁾

이때 적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사격을 가해 왔으나 대대는 D중대의 항방을 몰라 지원사격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10:30이 지나면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고, 이때 B

2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87.

2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87~88.



마량산 공격을 지원하는 경기관총

중대가 북동쪽에서 마량산으로 진출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11:00가 경과할 무렵 안개가 걷히면서 대대의 공격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14:00에 전차의 엄호하에 첫 번째 중간목표인 갈색고지(Brown Knoll)을 점령한 데 이어 16:00에 두 번째 중간목표인 대머리(Baldy)고지마저 점령하였다. 최종목표인 마량산을 목전에 두고 대대도 몹시 지쳐 있어 마량산 탈취가 불투명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목표고지에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한 후에 비로 후속하던 C중대를 투입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18:00에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적 주력은 중간목표(Brown Knoll과 Baldy고지)가 피탈되자 포위를 우려하여 C중대의 돌격에 앞서 철수하였다.²⁴⁶⁾

2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90~91.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20명, 부상 89명의 인명손실을 입고 마량산을 탈취하였다. 대대가 확보한 마량산은 이 일대에서 주변 저지대를 감제관측할 수 있는 고지일 뿐만 아니라 중공군에게는 눈앞의 흑과 같은 존재이었다.²⁴⁷⁾

그러나 제28여단은 마량산을 확보한 지 한 달도 채 못 된 11월 6일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마량산을 피탈하였고, 이후 이 고지는 휴전이 될 때 중공군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

3. 해군의 활동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리깃함 솔해븐(Shoalhaven)호와 구축함 바탄(Bataan)호는 한국전쟁이 개시되기 직전 홍콩에 주둔중인 영국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중공 해안과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²⁴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함정들의 한국 파견을 결정하였고, 2척의 함정은 7월 1일 오키나와(沖繩)로 이동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함정들은 개전초기에는 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인 철수선과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과 부산 간을 왕래하는 수송선단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²⁴⁹⁾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시에는 구축함 2척(Warramunga, Bataan)으로 항공모함 엄호임무를 수행한 후 9월 하순부터는 군산, 인천 해안에서 함포

2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92.

2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09.

2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11.

지원사격과 해상초계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민국경선으로 진출하였던 유엔군이 12월 초 철수를 개시하자 오스트레일리아 구축함 2척은 영국 기동전단에 배속되어 진남포에서 유엔군의 부상병과 피난민들의 철수를 엄호하게 되었다. 이때 와라문가(Warramunga)호는 수심이 얕은 진남포로 입항하다가 좌초되기도 하였다.²⁵⁰⁾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함정들은 1951년 1월 9일 정기 정비를 위해 잠시 일본으로 철수하였다가 2월 말에 다시 서해안으로 복귀하여 인천 일대에서 함포지원사격으로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을 지원하였고, 7월 초에는 압록강 입구에서 진남포에 이르는 해안을 초계 및 포격임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적 전차와 수송차량을 파괴시키기도 하였다.

8월 말에는 3개의 항공대대를 탑재한 경항공모함(Sydney)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에 입항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는 경항공모함 시드니(Sydney), 구축함 안작(Anzac), 프리깃함 무치슨(Murchison)을 투입함으로써 해상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²⁵¹⁾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10월 초부터 폭격작전에 동원되어 11일 성진 외곽에서 진지작업중인 1,000명을 폭격한 데 이어 21일에는 압록강 하구의 대화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집결중인 대규모 적을 폭격하였다. 그러나 25일 서부전선의 영연방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격한 함재기들은 적의 대공포에 맞아 3대가 격추당하는 불운을 맞기도 하였다.²⁵²⁾

1952년에 접어들면서 지상전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그 동안

250)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341.

2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120.

2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21.

동서해안을 넘나들며 맹활약한 항공모함이 귀국함으로써 구축함 2척(Warramunga, Bataan)이 서해지원전대에 배속되었다. 이때부터 1952년 전반기 동안 와라문가호는 주로 동해안의 성진-청진 사이의 해안에서 미 함정들과 해상초계 및 주변 도서 경비를 수행하였고, 바탄호는 서해안에서 영연방에 배속된 함정들과 합동으로 해안봉쇄, 해안포격, 그리고 서해도서에서 활동중인 유엔군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2년 후반기에 들어서도 소강국면이 지속되자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은 함정교대를 실시하여 9월에는 구축함 2척(Bataan, Anzac)과 프리깃함(Condamine)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 콘다마인(Condamine)호는 8월 말 오스트레일리아 프리깃함으로서 처음으로 19일 동안 동해안에서 해상초계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²⁵³⁾

1953년에 접어들어서도 서해지원전대에 배속된 오스트레일리아 함정들은 서해의 해주만-석도-초도 근해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며 해상초계, 해안포격, 유엔군 유격대의 상륙작전 등을 지원하면서 휴전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2~3척의 전투함들을 교대로 파견하여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유엔군 유격대의 상륙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유엔 해군작전에 기여하였다.

2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130~131.

4. 공군의 활동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오스트레일리아 제77전투대대(No.77 RAAF Squadron)는 미 제5공군에 배속되어 일본 이와쿠니(岩國) 기지에서 주둔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77전투대대는 오랜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준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항공기는 해상수송을 위해 전부 격납고에 입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해군의 참전에 이어 공군의 참전도 결정함으로써 제77대대는 7월 1일부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제77대대는 이날 05:00에 연포비행장을 폭격하는 B-26 폭격기를 엄호하는 임무를 시작으로 전쟁초기에는 주로 근접항공지원으로 지상군의 지원전을 지원하였다. 대대는 7월 3일 평택역에서 국군에게 지원될 탄약화차 9량을 오폭하여 기차와 정거장, 그리고 평택읍의 일부를 파괴시켰으나²⁵⁴⁾ 아군이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면서부터는 적의 집결지 등에 네이팜(napalm)탄 공격을 퍼부어 유엔군의 낙동강선 방어를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9월 9일 무스탕기 편대를 지휘하여 적의 대부대가 집결중인 안강(安康)을 폭격하던 중 대대장 스펜스(Spence) 중령이 전사하는 불운을 맞기도 하였다.

그리고 38도선 이남의 작전기지들의 긴급복구가 완료되자 제77대대는 10월 13일 포항기지로 이동하여 유엔군의 북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정주를 공격할 무렵에는 제77대대가 이들의 지상작전을 지원해 줌으로써 제3대대의 사기를 고양시키기도 하였다.²⁵⁵⁾

254)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1.

2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139.

제77대대는 복진한 유엔군이 한민국경선 부근으로 진출하자 이들을 근접지원하기 위하여 11월 17일 연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유엔군이 다시 38도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자 대대도 12월 3일 수영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개전초기에는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1951년 접어들면서 아군 항공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MIG기의 출현은 물론 적의 대공화력마저 강화되어 제77대대의 항공작전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때 대대가 보유한 무스탕기(F-51)는 엔진과 냉각장치가 적의 공격에 취약하여 다른 항공기에 비해 훨씬 손실률이 높아지자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영국제 Meteor 제트기(Meteor-8 Jet)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대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4월부터 신기종에 관한 조종훈련과 항공기를 교체한 후 7월에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²⁵⁶⁾

대대가 기종을 전환한 이후 8월 29일 정주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중 MIG기와 첫 교전을 시작으로 9월 중순에는 청천강 지구에서 12대의 Meteor기와 15대의 MIG기가 대규모의 공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1년 말부터는 MIG기가 종종 서울 상공에까지 진출하자 대대는 수도권 방위임무를 맡게 되었다. 1952년에 접어들어서도 MIG기들의 남하활동이 잦아지고 유엔 전투기들과의 공중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게 되었다. 제77대대도 5월 초순 사리원 상공에서 적기와 교전하여 MIG기 2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1952년 6월부터 유엔공군은 후방지역 차단작전에서 북한 내의 수력발전시설, 산업시설, 보급시설 등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표적공

2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146.

격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77대대의 출격횟수도 늘어났고, 또 이로 인한 적의 대공포화에 의한 조종사의 손실도 누적됨으로써 대대는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하여 부득이 영국 공군으로부터 조종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²⁵⁷⁾

1953년에 접어들어서도 대대의 폭격임무는 계속되었다. 특히 3월 16일 원산으로 출격한 대대는 150여 대의 보급차량이 남하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6월 말에는 청천강 북쪽을 초계비행중에 적의 대공포사격에 Meteor기 2대가 심한 손상을 입어 추락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77대대의 조종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상된 기체를 몰고 우군 기지에 불시착함으로써 그들의 책임감과 용맹성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얼마 후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이 임무가 제77전투대대의 마지막 작전이 되었다.

5. 참전결과

(1) 참전현황

○ 지 상 군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제 3	대 대	1950. 9~1953. 2	영연방 제28여단 배속
제 1	대 대	1952. 3~1953. 3	"
제 2	대 대	1953. 3. 17~27	"

2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51.

○ 합 정

구 분	합 정 명	참 전 기 간
경 항 공 모 합	Sydney	1951. 8~1952. 6
구 축 합	Bataan	1차 : 1950. 7~1951. 5 2차 : 1952. 2~1952. 8
	Warramunga	1차 : 1950. 8~1951. 8 2차 : 1952. 2~1952. 7
	Anzac	1차 : 1951. 8~1951. 9 2차 : 1952. 9~1953. 6
	Tobruk	1차 : 1951. 8~1952. 6 2차 : 1953. 6~1954. 2
	Culgoa	1953. 4~1953. 6
프 리 깃 합	Shoalhaven	1950. 7~1951. 5
	Murchison	1951. 5~1952. 2
	Condamine	1952. 8~1953. 4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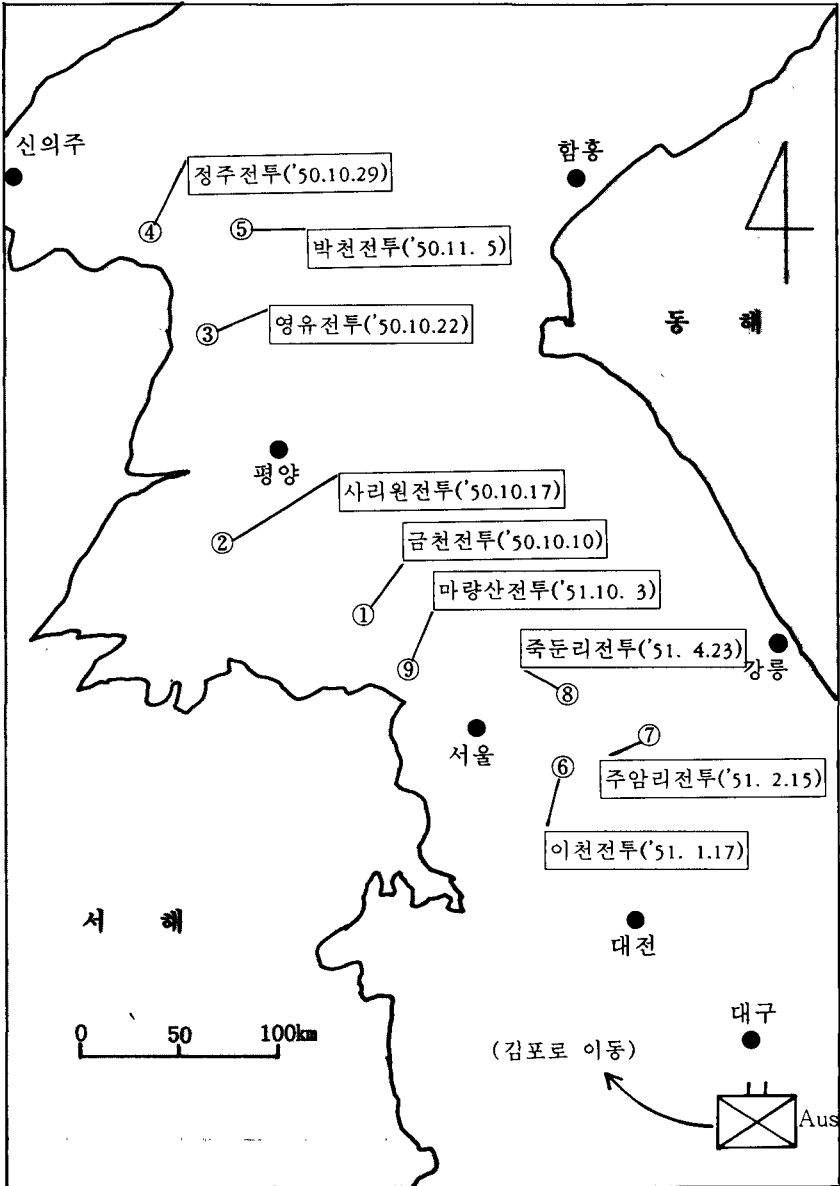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총 계	1,584	1,526	11	47	
사 망	합 계	339	293	5	41
	전사(후송후사망포함)	306	276	2	28
	포로·억류·중사	1	1	—	—
	사고, 기타	32	16	3	13
부 상	1,216	1,210	6	—	
포 로	29	23	—	6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6. 30	오스트레일리아, 함정 2척, 미 극동해군에 배속
	7. 1	제77비행대대, 미 극동공군에 배속
	7. 7	제77비행대대, 삼척 상공에서 첫 손실
	7. 13	구축함 Bataan호, 포항전투 참가
	9. 27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 부산 상륙
	9. 30	제3대대, 제27여단에 배속
	10. 12	제77비행대대, 포항기지로 이동
	10. 21	제3대대, 영유 부근에서 북한군과 격전
	10. 29	정주에서 대대장 C. H. Green 중령 전사
	11. 5	제3대대, 박천에서 중공군과 전투
	12. 3	제77비행대대, 연포에서 수영으로 이동
	12. 5	구축함 2척, 진남포 철수작전 지원
1951	1. 6	제3대대 장호원에 집결
	1. 16	정찰소대, 이천 외곽 정찰
	2. 4	이천 집결, 여주-이천 도로 정찰
	2. 27	제3대대, 614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3. 7	갈운리 북쪽 410고지 공격
	4. 23	제3대대, 죽둔리에서 중공군과 격전
	6. 26	제3대대, 임진강 지역으로 이동
	8. 4	Slam작전으로 임진강 도하
	8.하순	제77비행대대, 김포비행장으로 이동
	8. 31	항공모함 Sydney호, 한국해역에 출동
	10. 3	제3대대, 코만도작전 개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1. 26	227고지 위력수색
	4. 9	제1대대, 한국에 도착, 이후 2개 대대 참전
	7. 2	제1대대, Blaze작전에 참가
	8. 3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참모총장 부대 방문
	11. 26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한국 공군에 무스탕기 2대 이양
	12. 10	제3대대, Fauna작전 실시
1953	1. 31	동두천으로 이동, 부대 정비
	3. 16	전투기 편대, 적 차량 24대 파괴
	3. 21	오스트레일리아 제2대대, 한국에 도착
	3. 27	평양 서남에서 MIG기와 공중전
	5. 4	제2대대 159고지 배치
	7. 24	제2대대, 후크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주요전투



제 4 절 네덜란드(Netherlands)

1. 참전경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네덜란드 정부도 참전에 동의하였으나 자국의 군사상황은 파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약간의 지상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들은 1951년 5월이나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7월 16일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중인 구축함 1척(Evertsen)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²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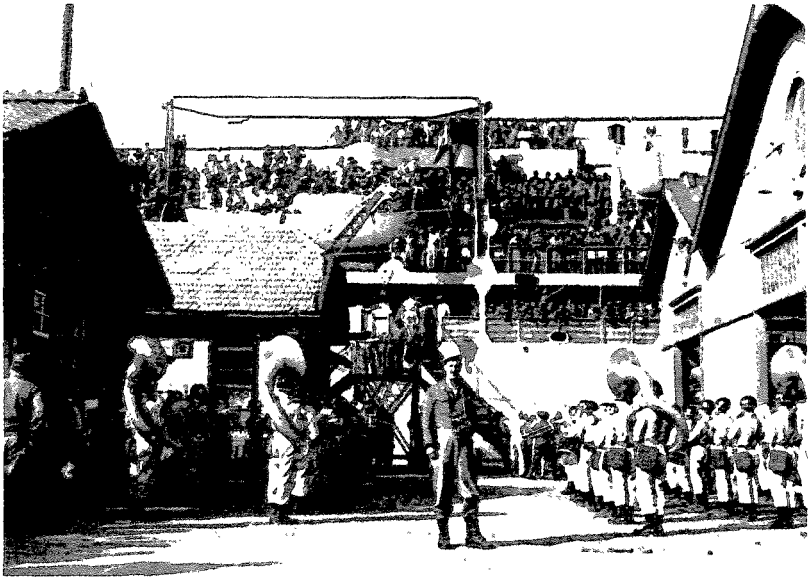
이 무렵 유엔사무총장은 네덜란드에 지상군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형편상 파병의 어려움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참전지원자와 언론은 참전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8월 10일 이들은 ‘한국참전 지원병 임시위원회’를 결성하고 네덜란드의 참전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육군 1개 중대와 해병대 1개 중대를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11일 공식적으로 지원병 모집을 발표하였다. 이 결과 1,217명이 지원하였으나 노령자, 군경력이 없는 자, 신체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799명을 엄선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8월 28일 이들로 보병 1개 대대를 편성하여 늦어도 10월까지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²⁵⁹⁾

네덜란드 대대(1개 중대 결)는 9월 9일 최종적으로 선발된 646

2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09.

2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09.



부산에 도착한 네덜란드 대대

명으로 정식 창설되고, 지휘관에는 오우덴(M.P.A. den Ouden) 중령이 임명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대대가 훈련에 주력하는 동안 대대의 편성과 장비, 그리고 보급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연락장교를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하였다. 연락단은 10월 7일 유엔군사령부와 작전교육 및 군수행정의 제반 문제점을 협의한 결과 대대의 편성은 미국식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은 미군측이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파병준비를 완료한 네덜란드 대대는 10월 23일 환송식에 이어 26일 수송선(Zuiderkruis)을 타고 출항하였고, 대대는 항해중에도 사격술, 정찰, 통신, 구급법, 독도법 그리고 한국의 지형과 민속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수송선은 네덜란드를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인 11월 23일 한·미 고위장성과 환영 나온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부산에 상륙하였다.

대대는 다음날 아침 부산을 출발하여 장비 수령과 10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받기 위하여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수용소에 입소하였다.²⁶⁰⁾ 이 무렵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한 유엔군이 중공군에 밀려 38도선으로 철수하자 대대는 개인화기 수령과 영점조준사격만 마친 상황에서 출동을 서두르게 되었다. 12월 3일 차량과 기차 편으로 이동을 개시한 대대는 5일 수원에 도착하여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었다가 12월 11일 청천강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고 정비중인 미 제2사단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²⁶¹⁾

2. 지상군의 활동

(1) 횡성전투

네덜란드 대대는 1951년 1월 3일 미 제2사단 제38연대에 배속되어 횡성 동쪽의 초현리 일대에서 북한군과 최초의 전투를 치렀다.²⁶²⁾

이후 대대는 원주-매지리-목계동 도로에서 북한군과 원주 공방전을 펼치는 미 제2사단을 지원한 후 유엔군이 재반격작전을 개시하자 1월 31일 원주로 진출하였다. 대대는 2월 2일 원주 북서쪽 섬강 부근의 송호리(松湖里), 상장포(上長浦) 일대로 진출하여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 사단으로부터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 Up) 참가 명령을 받고 급히 4일 횡성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제5, 제8사단이 5일 홍천을 탈환할 목적으로 공격을 개시

26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62.

2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13.

2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21.

하자 미 제2사단은 이들을 화력지원하였고, 사단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대도 이들의 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횡성 북쪽의 후천(後川)에 배치되었다. 국군사단들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11일 밤 중공군이 2월공세를 개시하면서부터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12일 새벽에는 횡성-홍성 도로를 따라 진출한 국군은 물론 그 후방에서 화력지원하던 미 제7지원부대²⁶³⁾들도 후방으로 침투하여 도로를 차단한 중공군의 저지를 돌파하고 무질서하게 횡성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철수제대는 12일 오전 후천전방 대곡(大谷) 부근에 설치된 중공군의 최후저지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이때부터 국군과 미군은 분산철수하여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15:30을 전후하여서는 중공군의 포격이 대대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횡성교 부근을 방어중인 A중대는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해가 지면서부터 미군과 국군이 혼합되어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어 이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방어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²⁶⁴⁾

그러나 대대가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은 전방지역이 아니라 후방지역이었다. 19:10경 조명탄 1발을 신호로 국군을 위장하여 후방으로 침투한 중공군 30명이 화기중대를 기습한 데 이어 대대본부를 공격하였다. 이 교전에서 대대장 오우텐 중령이 전사하는 등 대대는 일시 혼란에 빠졌고, 이때까지도 전방중대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²⁶⁵⁾ 대대본부의 혼란

263) 제7지원부대: 유엔군의 Roundup작전시 홍천을 공격 중인 국군 제5사단을 화력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7사단에서 차출된 포병과 전차로 편성된 임시부대임.

264) 국방군사연구소, 「횡성전투」, p. 150.

265) Billy C. Mossman, op. cit., p. 277.

은 21:30분경 수습되고 화기중대장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대의 A중대는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가 일단락되자 혼란스런 도로를 따라 철수하여 22:00경 횡성 후방의 전천변에 도착하였고, B중대도 중공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13일 01:00에 전천(前川) 남쪽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사단지시에 따라 대낮같이 불타는 횡성을 뒤로 하고 미 제2사단의 최종 후미제대로서 04:00에 원주비행장에 도착함으로써 횡성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대대장, 군목, 인사장교 등 17명이 전사하고 37명이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15대, 다수의 공용화기를 손실하였지만 대대의 분전으로 국군과 미군의 철수는 물론 많은 인명과 장비를 구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 325고지 전투

횡성에서 철수한 네덜란드 대대는 최초 원주 서쪽의 만종리(萬鐘里) 부근에 배치될 계획이었으나 원주를 우회하는 적을 저지함은 물론 중앙선 철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종역 북쪽의 325고지를 방어하게 되었다. 이때 부대대장 엑커트(Eekhout) 소령은 미 제 38연대장에게 대대가 횡성전투에서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중요 보직장교 등 병력손실을 이유로 전선투입의 재고를 건의하였으나, 미군 역시 최악의 상황임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대신 4.2"박격포 1개 소대와 장갑차 1개 분대를 배속시켜 서울-원주 간 중앙선 철도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⁶⁶⁾

이날(13일) 정오부터 이동한 대대는 부대대장에서 대대장으로 승진한 엑커트 소령의 지휘하에 18:00경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하

2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38.

였다. 그러나 우전방 A중대가 운동(雲洞) 뒷산을 시계가 양호한 325고지로 착각함으로써 좌전방 B중대의 방어진지가 돌출되고 남하중인 중공군의 진출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14일 아침 1개 연대규모로 추정되는 중공군이 대대와 좌인접 미 제38연대 2대대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B중대가 포병의 화력지원도 받지 못한 채 20분간 분전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325고지에서 남서로 뺀 능선으로 분산 철수하였다.²⁶⁷⁾

제38연대장은 미 제2대대와 네덜란드 대대가 협조된 공격을 펼쳐 지역내 감제고지인 325고지를 탈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A중대는 16:00에 325고지 우측방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불행하게도 우군을 지원차 출격한 전폭기가 우군진지를 오폭하기 시작하였고, 중대는 대공표시판은 물론 백색 내의까지 흔들었으나 항공기의 사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를 보다못한 미 전차가 아군기를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였지만 그래도 항공폭격이 계속되자 중대는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이때 중대는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5명은 심한 공포증으로 후송되었다. 다행히 좌인접에서 공격한 미 제2대대가 격전 끝에 325고지를 탈환하여 전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²⁶⁸⁾

이때 대대장은 전방중대들이 계속된 전투로 상당히 지쳐 있어 화기중대, 대대본부 행정요원, B중대 1개 소대로 감정중대를 신편하여 325고지 우측방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아음을 이용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325고지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 보고를 접한 대대장은 325고지를 적이 장악하면 중대의 방어진지 유지

2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740~741.

2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42.

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역습으로 고지를 탈환하도록 조치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중대는 14일 21:00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고, 다음날 03:00 미군과의 합동작전마저 적의 박격포 탄막에 막혀 돈좌되었다. 대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06:00 박격포사격의 엄호하에 잠정편성된 중대장이 진두에서 직접 중대를 지휘하여 우박같이 쏟아지는 적의 중화기 사격과 수류탄 공격을 뚫고 들어가 특공조를 편성하여 공격개시 1시간여 만에 325고지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고무된 미 제2대대가 고지로 진출하여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대를 초월하여 적을 추격하였다. 이후 대대는 작전지역을 미 제2대대에 인계하고 원주로 복귀하여 연대예비가 되었다.²⁶⁹⁾

대대는 황성전투의 악몽을 채 잊기도 전에 325고지 전투에 투입되었으나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중공군의 후방진출을 좌절시킴으로써 서울-원주 간의 병참선 확보는 물론 중공군의 2월공세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3) 가리산 전투

중공군의 4월공세를 저지한 유엔군이 노네임(No Name)선²⁷⁰⁾을 점령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4월 30일 홍천 북쪽의 사랑촌(寺郎村)으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중공군의 5월공세가 임박해지자 대대는 미 제2사단 제38연대의 예비가 되어 5월 14일 가리산(加里山) 남쪽 수동(水洞)으로 이동하여 710고지와 975고지를

2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46.

270) 노네임선: 미 제8군이 중공군의 4월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중·동부전선에 설정한 작전통제선으로 용문산-홍천-한계령-속초를 연결한 방어선.

점령하였다. 그리고 A중대 1개 소대규모의 정찰대는 16일 아침 판항-781고지-사동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이미 중공군이 781고지까지 진출하고 있어 정찰대는 가리산(1051고지)으로 복귀하여 미군 소대와 함께 배치되었다.

5월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16일 18:00부터 2차에 걸친 가리산 공격이 실패하자 20:30 전방의 지뢰지대를 포격한 후 아군의 주 저항선으로 사격을 연신하였다. 그리고 자정을 전후하여 가리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미 제38연대 A중대와 네덜란드 대대 정찰대는 합동작전을 벌여 이들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그러나 이 틈을 이용, 일부 중공군이 후방으로 진출함으로써 포위를 우려한 네덜란드 소대는 철수하였다.

가리산 정상이 피탈되자 미 제38연대장은 17일 새벽 무렵에 네덜란드 대대에 가리산을 공격하여 이곳에서 분전중인 제38연대 A중대를 증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대대가 975고지에 집결하여 공격을 개시할 무렵에는 이미 중공군이 가리산 일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부는 가리산-975고지 능선의 좌우측 계곡으로 진출하고 있어 대대장은 가리산 공격을 포기하고 화력으로 적의 진출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²⁷¹⁾

이후 대대는 975고지에서 우인점으로 진출한 프랑스 대대와 합동으로 인제-홍천 도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가리산 남동쪽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중공군을 저지하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대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강되는 중공군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적에게 포위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제38연대장은 이날 오후에 야시대리(也是垓里) 북쪽의 금광으로 철수하도

271) Billy C. Mossman, op. cit., p. 451.

록 하였다.

중공군의 추격과 험준한 지형을 돌파하고 금광(金鑛)으로 철수한 대대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인 22:00경 적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전방지역으로부터 미군과 전차들이 인제-홍천 도로로 밀려 내려왔고, 이때 지난 중공군의 2월공세시 황성 철수작전을 경험한 대대의 일부도 동요되어 계곡을 따라 성산리로 철수하였다. 당시 네덜란드군의 철수 광경이 마치 마라톤 경기와 흡사하여 장병들은 이 계곡을 ‘마라톤계곡’이라고 불렀다.²⁷²⁾ 중공군의 추격을 피해 분산 철수한 대대가 18일 03:00경 인원을 점검한 결과 전사 1명, 부상 10명, 이때 실종자는 무려 125명에 달하였으나 다행히 실종자의 대부분은 얼마 후 복귀하였다. 이후 대대는 서둘러 재편성을 완료하고 15:00 금광 북쪽 535고지를 재탈환하여 돌파구 확장을 기도하는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4) 인제전투

중공군의 5월공세를 저지한 유엔군이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자 미 제2사단은 한계-인제-간성 도로 동쪽에서 인제(麟蹄)를 목표로 적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때 제2사단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대도 27일 현리를 공격하게 되었다. 11:00경 대대가 현리로 진입하자 철수에 전념하던 적이 돌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적은 중공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북한군을 현리(縣里) 일대에 투입하였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대는 현리 외곽에서 6시간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여 적을 격퇴하였다.²⁷³⁾

이후 대대는 5월 29일 정오 무렵 참전 이후 처음으로 38도선을

2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761~762.

2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67.

돌파하고 인제로 진출하여 미 제23연대에 배속되었다. 대대가 한석산(寒石山)에서 인제로 통하는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30일 인제 동쪽의 548고지로 진출하자 한석산 일대에 거점을 둔 적이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여 방어진지 구축을 방해하였으나 대대는 20:00에 진지편성을 완료하였다.

이 무렵 중동부전선에서 공산군의 5월공세를 저지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은 물론 철수로상의 중요 거점인 인제마저 장악하자 당황한 공산군은 주력부대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군 제2사단을 투입하여 31일 04:00에 기습공격을 개시함으로써 548고지 전투가 시작되었다.²⁷⁴⁾ 이때 적은 기동이 용이한 한석산-548고지의 능선 접근로를 피하고, 대대가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절벽으로 된 안부지역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 의표를 찔린 대대는 548고지마저 적에게 넘겨주고 후사면으로 철수하여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인 A중대를 증원하여 B중대와 협조된 공격으로 548고지를 탈환하도록 조치하였다. 공격체대가 05:00에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역습을 개시하였으나 정면으로 공격한 B중대는 고지 정상에서 뿔어대는 적의 기관총사격에 일부 소대의 공격이 둔좌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악전고투한 B중대는 적의 최후저지사격을 뚫고 고지 정상으로 진출하여 백병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고지 정상 부근에 수발의 아군 포탄이 떨어져 굉음과 동시에 도처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왔고, 이 포격에 중대장의 다수 장병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반면 적도 이 포격을 계기로 저항의지가 현격히 감소되었다. 다행히 적 후방으로 우회기동한 A중대가 고지 후사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적이 서둘러

2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71.

철수함으로써 548고지를 탈환하게 되었다.

고지에서 물러난 북한군은 동측방에서 인제를 감제관측할 수 있는 548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6월 1일과 2일 새벽에 연속적인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대대의 집중사격과 포병화력에 격퇴되었다. 이 공격에 대대도 아군 포병의 오폭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대대는 3일간의 전투에서 다수의 적을 사살하였지만 대대도 전사 20명, 부상 31명, 실종 1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²⁷⁵⁾

이로써 대대는 중동부전선의 전술적 요충인 인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이후 전투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대대는 5일 작전지역을 국군제5사단에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홍천 북동쪽 구성포리(九成浦里)로 이동하였다.

(5) 대우산 전투

네덜란드 대대는 구성포리에서 1개월 동안 부대를 재정비한 후 미 제38연대에 배속되어 7월 15일 양구 북쪽 도솔산(兜率山)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국군 제1해병연대의 도솔산 지역을 인수하였다.²⁷⁶⁾ 대대가 인수한 작전지역은 정면 1122고지와 대우산(大愚山)으로부터 감제관측되고 있어 방어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고, 진지 전방에는 무수한 지뢰와 부비트랩(booby trap)이 매설되어 있었다.

대대는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대우산에 강력한 정찰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찰활동에도 주력하였다. 그러나 진지 전방에 매설된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정찰대들이 종종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어 정찰활동은 위축되었다. 이때 대대는 미 공병소대를 지원받아 지뢰매설도를 재작성하기도 하였다.²⁷⁷⁾ 이런 상황에서도 정

2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75.

276) 국방군사연구소, 「도솔산전투」, p. 212.

2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78.

찰대들은 3일 동안 적진을 정찰하여 대우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1122고지는 적의 전초진지로서 1개 중대규모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지뢰는 물론 교통호, 유개호도 구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무렵 미 제38연대장은 네덜란드군 1개 중대와 제38연대 1개 대대의 협조된 공격으로 1122고지를 점령한 후 대우산을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 7월 26일 대대의 공격체대로 나선 C중대는 주저항선 전방 만정곡(晩亭谷)으로 이동하였고,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07:3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중대는 질게 깔린 안개와 우거진 산림을 헤집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 돌격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중대가 돌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10:30경 갑자기 불어닥친 계곡풍에 안개가 걷히어 중대가 적에게 노출되었고, 동시에 적의 기관총 사격이 집중되었다. 이에 맞선 중대도 화력전으로 맞서 보았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상자가 증가하고 오히려 적에게 포위될 상황에 직면하여 중대는 고지 중간지점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좌전방에서 우회공격한 소대는 노병들의 불같은 투혼으로 1122고지로 진출하여 적 진지 일부를 탈취하였으나 적의 역습에 밀려 철수하고 말았다.

중대는 전사자와 부상자, 그리고 일부 장비를 후송한 후 재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아군의 항공폭격이 개시되지만 기다렸다. 그러나 항공폭격은 취소되고 오히려 중대를 발견한 적이 강력한 화력의 엄호하에 역습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총력전으로 역습을 격퇴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사자가 증가하고 탄약마저 부족하여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하기도 어렵게 되었다.²⁷⁸⁾

한편 중대의 우인접에서 공격한 미군대대도 1122고지 전방에 설치된 적의 지뢰지대에 걸려 공격이頓挫되었다. 대대가 증원병

2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781~782.

력을 투입하여 중대의 철수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제38연대장은 공격제대에 연락차장과 야음을 이용하여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11명, 부상 31명, 실종 1명, 정신질환 8명의 인명손실을 입었고, 이들 중에는 귀국을 2주 앞둔 장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대우산 공격은 미군 1개 대대가 공격을 주도하고 대대는 현위치에서 이들에 대한 화력지원을 맡게 되었다. 미군대대는 엄청난 양의 포격을 집중한 후 공격개시 4일 만인 29일 대우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고, 대대는 대우산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경기관총으로 증강된 1개 소대규모를 1122고지로 파견하였다.

전선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대대는 1차 참전자의 귀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8월 6일 사단예비가 되어 소양강변의 관대리(冠堡里)로 이동하였다.²⁷⁹⁾

(6) 별고지 전투

1952년 초 혹한기 동안 은성고지, 바꽃고지 일대에서 정찰작전에 주력한 대대는 2월 5일 미 제38연대의 예비로 전환되어 철원 동쪽 하리동(下里洞)에 집결하였다.

2월 중순에 실시된 유엔군의 포로획득작전²⁸⁰⁾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미 제2사단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적이 전초진지를 보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네덜란드 대대에 은성고지와 바꽃고지 좌측에 위치한 중공군의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Star Hill)를 기습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 대대가 공격할 별고지에는 2개 소대규모의 중공

2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83.

280) Clamup작전: 유엔군은 1952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적 포로를 잡기 위하여 정찰대의 파견 및 포병 및 항공폭격을 중지하여 적들로 하여금 아군이 철수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때 아군은 적이 아군상황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찰대를 파견하면 생포하도록 하였다.

군이 배치되어 있고, 또 고지 후방에는 1개 중대규모의 증원병력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후방 학당리(鶴堂里) 부근의 472고지 일대에 구축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대대도 이번 작전에 대비하여 3개 포병대대, 4.2"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70명의 노무자(부상자 및 탄약운반요원) 그리고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²⁸¹⁾ 그리고 대대장은 직접 적진을 항공정찰한 후 기동계획과 화력지원계획도 수립하여 공격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간부들에게 이번 작전의 승패는 접적이동시 노출된 경사지를 신속히 이동하는 데 좌우됨을 강조하였다.

공격중대로 선발된 B중대는 18일 04:00에 하리동을 출발하여 미록리(米鹿里)를 경유 공격대기지점을 점령하였고, 대대관측소도 381고지에 설치되었다. 06:45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되었고, 별고지 정상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사격이 종료된 07:00에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때 우군 포병의 오폭으로 다수의 전상자가 발생하여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다. 이때 우전방 중대 주력은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좌전방에서 무명고지를 공격한 소대는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자 중박격포와 무반동총이 이들을 지원하였다. 공격개시 30여 분 만에 적이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를 개시하자 포병과 전차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포격을 실시하여 다수를 사살하였다.²⁸²⁾

적의 역습을 우려한 대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형병커 3개와 저장된 다량의 포탄과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의 엄호하에

2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799.

2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02.

09:00경 주저항선으로 복귀함으로써 100만 달러의 탄약을 소모한 별고지 기습공격은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5명이 전사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부상자의 대부분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어 경상이었다.

(7) 묵곡리 전투

대대는 1953년 4월 말 덕정으로 이동하여 10주간의 야전교육을 이수한 후 중공군의 7월공세가 개시되자 미 제2사단과 함께 지난해 격전을 치른 바 있는 서방산 남쪽 하진리(下珍里)에 집결하여 제38연대의 예비가 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전선의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7월 18일 새벽에 528고지 남쪽 묵곡리(墨谷里)로 투입되어 제38연대의 중앙대대가 되었다.²⁸³⁾

대대가 미 공병소대의 지원을 받아 진지보강 공사를 완료할 무렵인 19일 20:00경 중공군은 박격포와 야포로 연대 전 지역을 포격하였고, 이 포격에 평강-정연리 도로 우측에 배치된 A중대의 유선이 두절되었다. 적의 방어거점인 528고지에서 출발한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22:30에 돌출된 340고지에 배치된 소대를 포위공격하였다. 이때부터 소대는 간간이 떨어지는 조명탄 조명하에 유개호와 교통호상에서 백병전을 벌이게 되었고 자정 무렵에는 중대가 포위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포병은 조명탄이 바닥나 항공조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포병의 무선망을 통해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대대장은 즉시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포병대대들은 15분 동안 VT신관을 사격하였고, 이 포격에 노출된 중공군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²⁸⁴⁾

2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826.

2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28.

이때 대대장은 대대본부 행정요원들로 구성된 1개 분대를 인솔하고 서둘러 A중대 지휘소로 나가 상황을 보고받았다. 역습을 결심한 대대장은 C중대를 출발한 증원소대가 중공군의 포병사격에 막혀 지원이 지연되자 대대본부, 중대본부 요원들로 잠정소대를 편성하였다. 잠정소대는 대대장의 지휘하에 05:00를 전후하여 포위된 340고지를 역습하였다. 중공군은 대대의 역습과 날이 밝자 아군의 관측사격을 우려하여 도처에 사체를 유기하고 철수함으로써 A중대는 피탈된 고지를 재탈환한 후 지뢰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대대는 휴전을 불과 며칠 앞둔 이 전투에서 전사 4명, 부상 6명의 인명손실을 입은 반면 부상을 당한 다수는 철수하였지만 19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획득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이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대대는 비무장지대가 된 현진지를 떠나 남쪽의 지경동(地境洞)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3. 해군의 활동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인도네시아에 정박중이던 구축함 에베르트센(Evertsen)호는 지상군의 파견에 앞서 7월 16일 사세보를 경유 19일 영국함정이 주축이 된 서해지원전대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에베르트센호는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서해로 진출하여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적 병력과 물자를 차단함과 동시에 함재기들의 공격목표를 유도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될 무렵에는 인천 외항에서 상륙전대를 엄호하기도 하였다. 1951년 4월 18일 에베르트센호와 교대한 반가렌(Van Galen)호는 한강 하구와

해주만 폭격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중 11월 18일 영국함대와 함께 동해안의 흥남으로 진출, 흥남항 봉쇄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대공포진지를 포격하였다.

이후 서해안으로 복귀한 반가렌호는 1952년 1월 10일 한국 해군의 구잠함 PC 702호가 창린도(昌麟島) 근해에서 아군 유격대와 지역주민들의 철수를 엄호중 적의 해안포사격을 받고 물러나자 즉시 이곳으로 이동하여 함포사격으로 웅진반도 남단의 읍저리(邑底里) 부근 해안포진지를 침묵시켜 창린도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²⁸⁵⁾

반가렌호에 이어 네덜란드 해군의 세 번째 참전함인 피에트헤인(Piet Hein)호가 3월 2일 서해지원전대에 배속되어 항공모함 엄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에트헤인호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구축함과 교대로 서해의 주요 봉쇄지역 거점인 동시에 아군 유격대의 활동기지인 초도, 백령도, 한강 및 예성강 입구, 연평도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유엔해군은 그 동안 함재기와 함포의 사격이 무관측하에 실시되어 적의 병력과 물자의 이동을 방해 또는 교란하는 데 그쳐 보다 효과적인 사격을 위해 지상 및 공중관측자의 통제하에 사격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피에트헤인호도 1952년 말까지 항공관측자의 지시에 따라 개성-평양 간의 해역을 오가며 적의 해안포 진지와 보급품 저장시설을 포격하였다.²⁸⁶⁾

피에트헤인호의 참전임무가 만료되자 네덜란드 해군은 1953년 1월 18일 이번에는 프리깃함인 조한마우리츠반낫소우(Johan Maurits van Nassau)호를 파견하였다. 낫소우(Nassau)호는 구축함보다 소형함이지만 구축함이 수행하던 해안포격, 도서방어, 항공모함 엄호임

2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837.

2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38.

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낫소우호는 6월 6일 함재기들이 월사리(月沙里) 해안을 포격하는 동안 진남포 근해로 이동하여 아군의 소해 활동을 방해하는 적 해안포 진지를 포격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해군은 전쟁기간중 비록 1척의 함정을 운번제로 파견 하였지만 이들은 미 해군 또는 영 해군에 배속되어 해상초계, 해안봉쇄, 항공모함 엄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휴전이 된 이후에도 서해의 전략도서 엄호작전은 계속되었다. 다섯 번째 참전함인 두보이스(Dubois)호가 12월 2일에 참전한 데 이어 1954년 9월 2일 마지막 참전함으로 파견된 반지질(Van Zijl)호가 1955년 1월 24일에 지원임무를 마치고 귀국함으로써 해군작전은 일단락 되었다.

4.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육군	네덜란드 대대	1950. 11~1954. 12	미 제2사단 배속
해군	Evertsen	1950. 7~1951. 4	서해지원전대 배속
	Van Galen	1951. 4~1952. 3	"
	Piet Hein	1952. 3~1953. 1	"
	Van Nassau	1953. 1~1953. 11	"
	Dubois	1953. 11~1954. 9	"
	Van Zijl	1954. 9~1955. 1	"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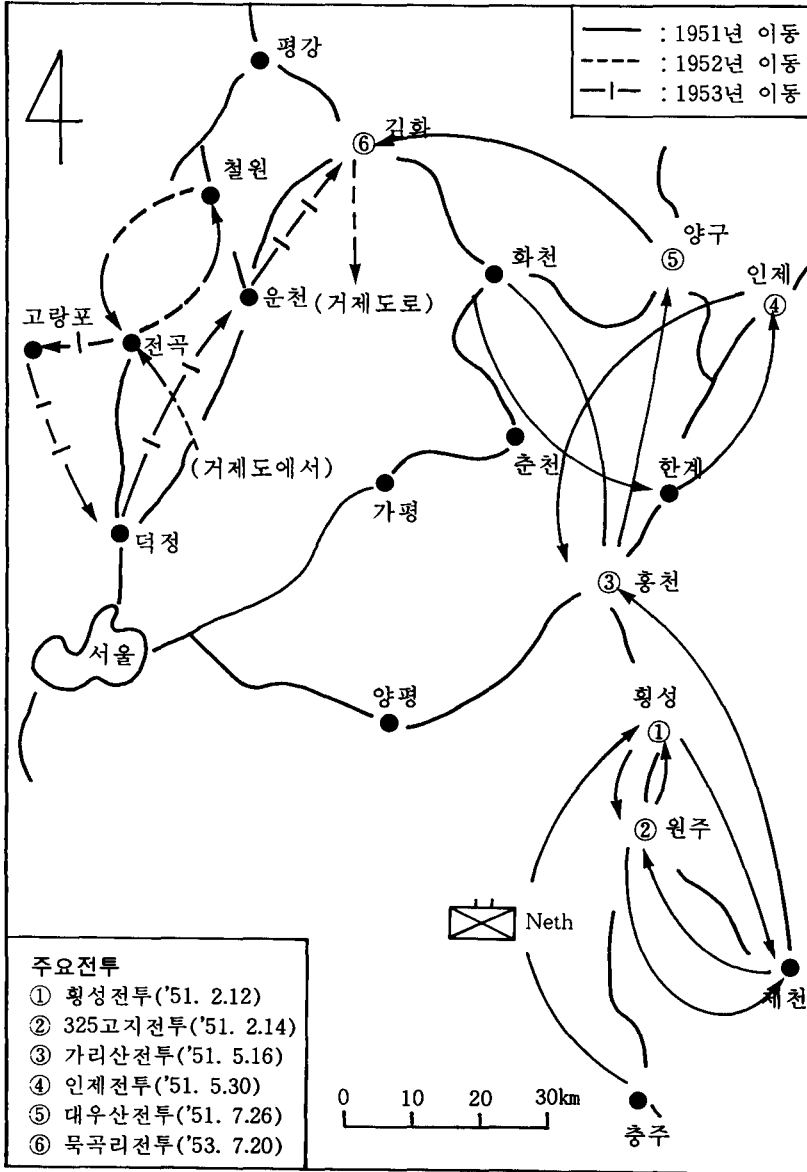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586	119	463	3	1
육 군	584	117	463	3	1
해 군	2	2	—	—	—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7. 19	구축함 에베르트센호, 서해지원전대 배속
	9. 15	구축함 에베르트센호, 인천외항에서 상륙부대 엄호
	11. 23	네덜란드 대대, 부산 상륙
	12. 11	수원으로 미 제2사단 배속
	12. 15	문경으로 이동, 충주-함창 도로 경비
	1951	1. 2
1. 3		초현리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
1. 10		매지리에서 미 제2사단, 원주전투 지원
2. 12		횡성에서 국군 및 미군 철수 엄호, 대대장 전사
2. 14		만중역 북쪽 325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2. 22		주포리로 이동, 미 제9군단 예비로 부대정비
4. 9		홍천 동북 성산리로 이동, 전선부대로 복귀
4. 18		두 번째 구축함 반가렌호 참전
4. 23		오음리-유촌리로 진출, 중공군의 4월공세 저지
4. 30		마라톤 계곡을 경유 사랑촌으로 이동, 노네임선 방어
5. 14		가리산 남쪽 수동으로 이동
5. 17		가리산 부근 975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5. 25		2차로 파병된 C중대, 본대와 합류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5. 27	현리에서 북한군과 격전
	5. 31	인제 동쪽 548고지에서 북한군과 격전
	6. 5	구성포리로 이동 부대정비
	7. 15	양구 북쪽 도솔산으로 이동, 전선복귀
	7. 26	대우산 공격
	9. 2	파병 1진 귀국으로 충주에서 부대 재편성
	9. 23	양구 북쪽 후곡리로 이동 전선복귀
	10. 5	문등리를 공격하는 미 제38연대 화력지원
	12. 20	철의 삼각지대 내 서방산 남쪽으로 이동
	12. 22	은성고지 기습공격
1952	1. 4	은성고지 및 바꽃고지 기습공격
	1. 10	구축함, 창린도 철수작전 지원
	2. 18	별고지 기습공격
	3. 2	세 번째 구축함 Piet Hein호 참전
	3. 27	528고지 정찰전
	4. 22	거제도 상륙 포로수용소 경비
	8. 20	신현리로 진출, 제임스타운선 방어
	9. 18	티본능선 방어
	11. 25	천덕산 지구 방어
1953	1. 18	네 번째 프리깃함 낫소우호 참전
	1. 28	사미천 동쪽 갈현리 방어
	3. 27	누대지역에서 중공군과 격전
	4. 7	덕정으로 이동, 미 제1군단 예비
	7. 18	철의 삼각지대 내 하진리로 진출
	7. 19	340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네덜란드 대대의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5절 뉴질랜드(New Zealand)

1. 참전경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군사원조안이 통과되자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정부도 미국이 요청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함정을 파견하겠다고 참전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출동준비를 완료한 프리깃함 2척(Pukaki, Tutira)이 7월 3일 뉴질랜드를 출발하여 30일 한국해역에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후 뉴질랜드 해군은 휴전이 조인될 때까지 8척의 함정을 교대로 투입하면서 유엔군의 해상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2척의 함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을 무렵인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지상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 받게 되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제한된 정규군만 보유하고 있어 지상군의 파병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쉽게 파병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월 말 1,000명 규모의 포병부대를 신편하여 파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 육군은 한국에 파견할 부대를 Korean Force(약칭: Kayforce)라 명명하고 1,000명을 모병한 후 포병교육을 실시하였다.²⁸⁷⁾ 11월 26일 소정의 교육이 종료되자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장교 38명과 사병 640명으로 편성된 제16포병연대를 창설하였고, 이들의 주장비는 영국제 25파운드 포 24문이었다. 당시 뉴질랜드가 파견한 제16포병연대는 명칭만 연대이지 실제병

287)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7.

력은 대대규모였고, 그들이 장비한 25파운드 포는 미군의 105mm 곡사포와 유사하였다.

출전준비에 주력한 제16포병연대는 11월 말에 선발대와 그들의 주력 화포인 25파운드 포와 중장비가 출발한 데 이어 12월 10일 본대가 뉴질랜드를 출발하였다. 이들은 21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31일 한·미 군장성들과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한국에 첫발을 딛게 되었다.

이후 연대는 부산에서 장비 수령과 부대정비를 마친 후 1951년 1월 13일 포구수정과 야외적응훈련을 받기 위하여 밀양(密陽)으로 이동하였다.²⁸⁸⁾ 이 과정에서 후속하던 차량 1대가 낙오되었고, 이들을 수색하러 나간 지프 1대는 삼랑진(三浪津) 부근의 밀양-부산간 국도에서 길을 잘못 찾아 들어 북한군 패잔병의 기습을 받아 2명이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16포병연대는 처음부터 본국의 기후조건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혹한기에 적응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고 있던 중인 1월 18일 미 제8군으로부터 장호원으로 이동,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된다는 준비명령을 받고 출동을 서두르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가평전투

연대는 1월 20일 장호원(長湖院)으로 이동하여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당시 제27여단은 자체 포병부대가 없어 미군 포병부대의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작전간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

2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7.

이때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가 배속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받게 되었다.

미 제9군단의 예비로 장호원에 집결하고 있던 영연방 제27여단은 2월 14일 중공군의 2월공세를 지평리에서 포위된 미 제23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여주 부근에서 남한강을 도하함으로써 연대도 남한강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연대는 A포대는 미들섹스대대를, B포대는 아질대대를 그리고 C포대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연대는 2월 21일부터 시작한 킬러작전(Operation Killer)과 이어서 3월 7일부터 재개한 리퍼작전(Operation Ripper)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작전지역의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악하여 장병들은 장비와 탄약을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중공군을 추격한 제27여단이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자 4월 16일 작전지역을 국군 제6사단에 인계하고 미 제9군단예비가 되어 가평(加平)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제16포병연대는 사창리(史倉里) 부근에서 계속 국군 제6사단을 화력지원하게 되었다.²⁸⁹⁾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의 공격은 하루 만에 돈좌되고 오히려 4월 22일 저녁 무렵부터 중공군이 4월공세를 개시함으로써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고, 사창리 일대는 혼란스런 상황에 빠져 들었다. 이날 자정 무렵 연대는 제27여단으로부터 연대를 엄호차 출발한 미들섹스대대가 도착하면 동 대대의 엄호하에 가평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미들섹스대대가 사창리로 진출하여 제16포병연대를 엄호할 준비도 갖추기 전에 중공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있어 오히려 포병연대가 미들섹스대대를 지원해야 할

28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24.

상황이 전개되었다.

연대의 화력이 집중되는 틈을 타 미들섹스대대 장병들은 포진지 부근으로 집결하였고, 연대도 축차적인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도로는 보병과 화포, 각종 수송차량으로 혼잡을 이루었으나 연대는 열악한 도로환경과 중공군으로부터 추격당하는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도 미들섹스 대원들을 탑승시킨 채 철수하여 23일 저녁에는 가평 북동쪽의 가평천 부근에 재전개하였다.²⁹⁰⁾

23일 22:00경부터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군이 여단의 우전방으로 목동리(沐洞里) 일대에 배치된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는 포신이 돌아올라 페인트칠이 벗겨질 정도로 제3대대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포격은 제3대대가 철수하던 24일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우전방 제3대대가 철수하자 중공군이 이번에는 좌전방 캐나다 제2대대를 공격하였고, 이 전투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연대는 지원된 미 포병부대와 협조하여 탄막사격과 진내사격 등 최대한의 화력을 지원하여 캐나다 대대가 진지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²⁹¹⁾

이 전투에서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중공군의 추격과 험난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등화관제를 유지한 채 장비의 손실 없이 철수작전을 성공리에 마쳤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10,000여 발의 25파운드 탄을 사격하여 중공군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힌 공로로 이승만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받았다.

(2) 마량산 전투

포병 제16연대는 가평전투 이후 양평에서 부대를 재정비한 후

29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383.

2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43~44.

5월 중순 대보리(大報里) 일대에서 제28여단의 캔자스선 진출을 지원한 후 미 제8군의 전선조정 방침에 따라 5월 말 임진강 남쪽의 간파리(干坡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정찰활동이 강화되자 연대의 일부 포병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진강 북쪽까지 이동하여 화력으로 이들을 엄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28일 정식으로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되자 제16포병연대도 동 사단에 배속되었다. 그럼에도 연대의 임무는 변동 없이 영연방 제28여단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찰활동으로 적과 접촉을 유지하던 영연방 사단이 9월 8일 임진강 북쪽의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격작전(Operation Minden)을 개시하자 제16포병연대도 임진강 북쪽으로 이동하여 좌전방 공격제대로 나선 영 제29여단을 지원함으로써 사단의 와이오밍선 진출에 기여하였다.

임진강 북쪽으로 진출한 영연방 제1사단은 10월 초 와이오밍선의 방어중심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선 전방 6~8km에 위치한 주요고지들을 연결하는 제임스타운(Jamestown)선을 목표로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16포병연대도 고왕산(高旺山), 217고지, 마량산(馬良山)을 공격하는 영연방 제28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2일 망운리(望雲里) 일대에 전진배치하여 지원사격 준비를 완료하였다. 3일 연대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공격제대들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의외로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공격이 둔좌되었고, 연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지원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연대는 6일간의 코만도작전에서 무려 72,000발의 포탄을 사격하여 참전 이래 최대로 포탄소모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

었다.²⁹²⁾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전선은 11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4일 중공군은 제28여단이 방어중인 마량산과 217고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도 마량산과 217고지 일대가 포연과 화염으로 뒤덮일 정도로 집중적인 화력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화력지원에도 불구하고 제28여단의 KOSB대대는 마량산과 217고지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제16포병연대는 이 전투에서 24시간 동안 10,000여 발을 사격하여 적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주었다.

(3) 제임스타운선 방어작전

마량산 전투를 고비로 전선상황은 휴전협상의 영향을 받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이때부터 연대의 활동도 제28여단의 임무에 따라 전방제대가 되면 여단을 직접 지원하였고, 예비대가 되면 연대도 후방진지로 이동하여 사단을 일반지원하게 되었다.

제16포병연대는 1952년 초 영연방 제28여단과 함께 다시 전방으로 진출하였으나 소강상태가 계속되자 2월에는 본래 사격임무보다는 심리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뼈라, 만화 등이 들어 있는 선전탄을 사격하기도 하였다.²⁹³⁾ 그러나 4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피아간의 대포병사격이 날로 가열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사격술, 위장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9월 중순에는 적의 대포병사격에 진지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손실도 입는 불운을 맞기도 하였으나 연대는 이를 극복하고 10월에는 캐나다 제25여단의 고왕산 전투를 지원하였으며, 12월에

2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p. 158.

2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2.

는 좌인접 국군 제1사단의 노리(Nori)·베티고지(Betty) 전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제16포병대대는 망운리(望雲里) 일대의 전방진지에서 1953년 새해를 맞았으나 전선은 소강상태로 지속되었다. 이때 장병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면의 중공군이 아니라 강추위였고, 장병들은 장비의 동파예방과 월동준비에 주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월 말 영연방 제1사단이 군단예비가 되어 창설 이후 줄곧 지켜온 제임스타운선을 떠나게 되었으나 포병 제16연대는 미 제2사단으로 배속변경되어 현위치에서 제2사단 제9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²⁹⁴⁾

그 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해 온 전선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3월 17일 새벽에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투는 고왕산을 두고 10시간 동안 혼전을 펼쳤다. 이때 연대는 고왕산 일대에 4,600여 발을 사격하여 제9연대가 고왕산을 고수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후에도 연대는 수차에 걸쳐 대포병사격으로 적의 화력지원을 방해하였다.

이후 연대는 4월 9일 영연방 제1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하자 미 제2사단에서 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종래와 같이 우전방으로 투입된 영연방 제28여단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중공군은 고왕산에 대한 수차에 걸친 기습이 실패로 끝나자 공격을 포기하는 대신 사미천(沙尾川) 서쪽의 후크(Hook)고지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5월 2일 2개 중대규모로 캐나다 여단을 공격한 데 이어 28일에는 2개 대대규모로 영 제29여단을 공격하였다. 이때마다 제16포병연대는 포구를 북서쪽으로 돌려 측방 지원사격과 대응사

2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4~55.



오스트레일리아군을 지원하는 뉴질랜드 포병

격으로 좌인접 부대의 후크고지 전투를 지원하였다.²⁹⁵⁾

이후 사단정면에서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좌인접 국군 제1사단이 6월 25일 박고지, 179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2개 연대규모와 격전을 벌이게 되자 제16포병연대는 포구를 돌려 국군 제1사단을 화력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는 제16포병연대가 한국전쟁에서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전투로 기록되었다.

3. 해군의 활동

(1) 초기작전

뉴질랜드 해군의 프리깃함 2척(Pukaki, Tutira)은 7월 3일 뉴질

295)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89.

랜드를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하여 약 2주간에 걸쳐 유엔해군과의 합동작전에 필요한 훈련을 마치고 27일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에 도착,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었다.

8월 1일 호위기동분대에 배속된 프리깃함은 주로 사세보-부산을 왕래하면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단의 엄호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낙동강방어선이 구축되면서 병력과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프리깃함들은 매일 저녁이면 수송선단을 부산까지 엄호한 후 다음날 아침에는 사세보로 복귀하여 차기 임무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엄호작전은 9월 초까지 계속되었다.²⁹⁶⁾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시에는 제7기동함대에 편성되어 해상초계 및 엄호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15일을 전후하여서는 인천내외를 이동하면서 상륙작전에 투입된 대형함정들을 엄호하였다.

그리고 유엔군 복진이 시작되자 프리깃함들은 영연방 해군과 합류하여 진남포 근해로 이동하였다. 당시 서해안의 중요한 보급기지인 진남포항과 이에 접근하는 해역의 도처에 부설된 적의 기뢰는 이곳을 통행하는 유엔해군 함정들에게는 최대의 장애물이었다. 이때 프리깃함들은 유엔해군 함정들의 통행에 앞서 해상상태의 확인은 물론 소형선박을 이용한 적의 추가적인 기뢰 부설작업을 감시하였다.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철수를 하자 12월 초 뉴질랜드 함정들도 철수하였다.

지상전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서해지원전대도 적의 기뢰부설과 연안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해상초계작전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심이 얕은 내륙해안까지의 접근이 가능한 프리깃함들은 소해작업 엄호임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 이때 뉴질

2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59.

랜드 함정들은 1951년 3월 초 백령도(白翎島) 근해에서 소해작업 중인 한국 소해정 2척을 엄호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3주 동안 한국 뉴질랜드 함정들은 심한 간만의 차이, 일기 불순 등 악조건하에서도 합동작전을 펼쳐 3주 만에 소해작업을 완료하기도 하였다.²⁹⁷⁾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해상작전은 수송선단 엄호작전에서 해안초계, 적 밀집부대에 대한 함포사격, 유엔군의 적 해안기습공격 엄호 등 적극적인 공세작전으로 전환되었다. 뉴질랜드 함정은 5월 18일 초도-석도 간을 초계중 해안포 진지 1개소를 발견하고 4인치 포탄 29발을 사격하여 이 진지를 완전 파괴하였다. 이 사격이 뉴질랜드 해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의 함포사격이었다.

특히 8월 25일 초도 남쪽 서곶리(西串里) 해안포대 기습공격에는 영국 해병대 11명과 함께 로토이티(Rotoiti)호 승무원 7명도 참가하였다. 로토이티호에서 하선한 특공조는 보트로 목표해안으로 접근하였으나 해안 경계병에 발각되어 집중사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불운하게도 이 과정에서 로토이티호 승무원 1명이 전사하였다. 이것이 한국전쟁기간 동안 뉴질랜드 해군의 유일한 인명손실로 기록되었다.²⁹⁸⁾

(2) 후기작전

뉴질랜드 프리깃함은 1952년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서해안에서 해안포적 사격과 전략도서에 대한 해상초계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중 2월 중순에 타포(Taupo)호가 동해안 ‘열차부수기 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해안의 양도(洋島) 부근 해역으로 파견되었다. 타포 우호는 19일 해상초계활동중 터널 속에 은폐중인 열차를 발견하고

2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61.

2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2.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긴급 복귀명령을 받고 양도로 철수중 15척의 범선에 분승한 적이 양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전투태세로 돌입하여 순식간에 함포사격으로 10여 척의 범선을 격침시켰다.²⁹⁹⁾

그러나 타포호는 불운하게도 도주하는 범선을 추격중 적 해안포의 집중사격을 받아 기관실 일부가 파손되어 일시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지만 미 전함의 엄호를 받아 철수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타포호는 의료진의 양도 상륙과 중상자들의 후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의 양도작전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프리깃함들은 1952년 중반부터 다시 서해안에 집결하여 초계활동과 적 해안포진지 파괴, 그리고 초도와 백령도에서 활동중인 유엔군 유격부대의 지원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로토이티호는 5월 3일 기린도(麒麟島) 부근을 초계중 적 해안포대를 발견하고 집중포격으로 이 포대를 무력화시켜 유엔 함정들의 안전한 통로 확보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1953년도에 접어들어서 해상작전은 다소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1월 7일 윌래도 부근을 초계중인 하배아(Hawea)호가 적의 집중적인 해안포 사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쌍방은 밤새도록 해안포와 함포사격의 공방전을 펼쳤지만 하배아호가 적의 해안포진지를 파괴시켰다.

이후 하배아호는 2월 말에 다시 동해안으로 파견되어 열차부수기 작전에 투입되었고, 3월 4일 150여 명의 적이 양도에 상륙하자 즉시 이 지역으로 출동하여 근접지원차 출동한 유엔공군기의 표적을 유도해 주기도 하였다.

299)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510.

그리고 서해안의 카니레(Kaniere)호는 소해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 소해정을 엄호하게 되었다. 4월 25일 적이 미 소해정을 목표로 박격포와 해안포 사격을 집중하자 즉시 대응사격을 개시하여 적 해안포진지를 완전 제압함으로써 뉴질랜드 해군의 우수한 사격술을 과시하였다. 이어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카니레호와 하배아호는 초도에서 철수하는 유엔군 유격대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휴전선 일대에서 초계활동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 해군은 한국전쟁 기간중 총 8척의 프리깃함을 2척씩 교대로 한국해역에 투입하였고, 이들 프리깃 함정들은 동서해안에서 주로 초계임무를 비롯하여 함포사격, 보급선단 호위, 주요 전략도서 방어 등 소형함이 수행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여 유엔군의 해상작전에 기여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뉴질랜드 프리깃함들은 휴전선 부근에서 초계활동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1차로 하배아호가 8월 27일 한국을 떠난 데 이어 카니레호가 1954년 3월 한국해역을 떠남으로써 해상작전은 일단락되었다.

4. 참전결과

(1) 참전현황

○ 지 상 군

부 대 명	참 전 기 간	비 고
포병 제16연대	1950. 12~1954. 11	영연방 제28여단 직접 지원

250 UN軍支援史

○ 함 정

구 분	함 정 명	참 전 기 간
프 리 깃 함	Pukaki	1950. 7~1950. 12
	Tutira	1950. 7~1951. 5
	Rotoiti	1차 : 1950. 10~1951. 11 2차 : 1952. 1~1953. 3
	Hawea	1차 : 1951. 3~1952. 3 2차 : 1952. 8~1953. 8
	Taupo	1951. 8~1952. 10
	Kaniere	1953. 3~1954. 3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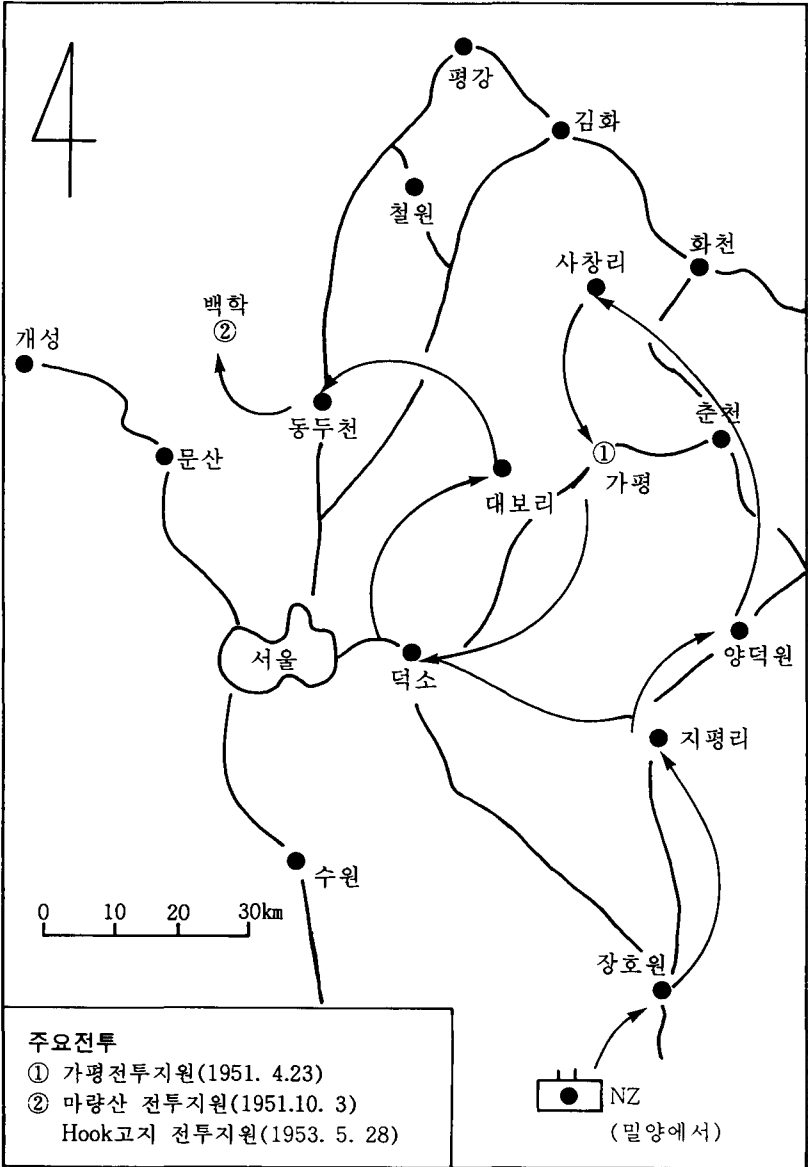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103	23	79	1	-
육 군	102	22	79	1	-
해 군	1	1	-	-	-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7. 30	프리깃함 2척, 한국해역에 도착
	12. 31	제16포병연대, 부산에 상륙
1951	1. 13	제16포병연대, 밀양으로 이동 현지적응훈련
	1. 20	제16포병연대, 장호원에서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
	1. 29	제16포병연대, 최초 지원사격
	4. 16	포병연대, 사창리 도착. 국군 제6사단 지원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4. 23	영연방 제27여단의 가평전투 지원
	5. 18	뉴질랜드 함정, 초도근해에서 최초 함포사격
	5. 30	천양내로 이동,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
	7. 28	영연방 제1사단 배속
	8. 25	영국 해병대, 서곶리 기습상륙 지원
	10. 3	코만도작전에서 영연방 제28여단 직접 지원
	10. 10	로타이티호, 타포호와 교대
	11. 4	마량산 전투 지원사격
1952	2. 19	양도 근해에서 적 범선 10척 격침
	4. 13	백학저수지 진지에서 영연방 제1사단 일반지원
	10. 23	제28여단의 고왕산 전투 지원
	12.	국군 제1사단 노리·베티고지 전투 지원
1953	1. 7	월래도 부근에서 적 해안포와 교전
	1. 31	미 제2사단으로 배속 변경
	2. 28	2차 참전을 마친 로타이티호, 카니레호와 교대
	3. 4	양도에서 한국 해병대의 양도방어작전 지원
	3. 17	미 제9연대의 고왕산 전투 지원
	4. 9	영연방 제1사단으로 복귀
	4. 13	양도에서 한국 해병대의 기습상륙 지원
	4. 25	서해안에서 미 소해정 엄호
	5. 2	제16포병연대, 캐나다 제25여단의 후크고지 전투 지원
	5. 3	뉴질랜드 함정, 기린도 적 해안포대 파괴
	5. 28	제16포병연대, 영 제29여단의 후크고지 전투 지원
	6. 25	국군 제1사단의 박고지 전투 지원

뉴질랜드 포병대대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6절 캐나다(Canada)

1. 참전경위

캐나다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에는 대표부조차도 두지 않은 국가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미국과 유엔이 북한군의 남침을 응징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자 유엔회원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다.

당시 라우렌트(Louis St. Laurent) 수상은 6월 30일 의회에서 “캐나다가 유엔의 지원결의를 이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안보 활동의 일부를 캐나다가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설함으로써 파병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방위환경을 고려하여 구축함 3척의 파견을 결정하자 해군은 7월 4일 때마침 유럽 순방을 준비중인 함대에서 구축함 3척(Cayuga, Sioux, Athabaskan)을 선발하여 극동으로 파견하였다. 이 함정들은 진주만을 경유 긴 항해 끝에 7월 30일 한국해역으로 진입하여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3척의 구축함이 한국으로 향진하고 있을 무렵인 7월 중순경 유엔사무총장의 추가 지원요청을 받게 되자 장거리 항공수송대대의 파견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이에 캐나다 공군은 7월 21일 제426항공수송대대를 미국과 일본 사이를 왕래하면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공중전에 경험이 있는 조종사 22명을 선발하여 미 공군에 파견하였다.



참전에 앞서 국방장관의 격려사를 듣고 있는 캐나다군

그러나 7월 20일 미국으로부터 1개 여단규모의 지상군 파병을 요청받게 되자 캐나다 정부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당시 캐나다는 3개의 보병연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각 연대의 병력은 1개 대대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8월 7일 지상군의 파병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한국에 파견할 지원병을 모병하였다. 그 결과 11월 초순에 각 연대에 1개 대대씩 차출하여 3개 대대로 편성되었고, 이들은 집결지인 미국의 포트루이스(Fort Lewis) 기지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11월 21일 정식으로 캐나다 제25여단이 창설되어 참전준비에 주력하였다.³⁰⁰⁾

300)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85.

이 무렵 캐나다 정부는 북진한 유엔군이 한만국경선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시 참전을 재검토하였으나 다시 전황이 악화되자 11월 25일 제1차로 캐나다 PPCLI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제2대대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제2대대는 25일 시애틀(Seattle)항을 출발하여 2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950년 12월 18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이때부터 캐나다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육·해·공군을 한국전쟁에 파견한 국가가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흥천 진출전

유엔군이 재반격을 개시하자 PPCLI 제2대대도 2월 19일 여주 북동쪽 주암리(注岩里)로 이동하여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됨과 동시에 공격의 선봉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킬러작전(Operation Killer)³⁰¹⁾이 개시되자 제2대대는 2월 21일 10:00에 석곡리(石谷里)에서 눈과 얼어붙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소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고, 22일 아침에는 중간 목표인 444고지를 공격하여 40여 분 만에 목표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이 전투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4명 전사, 1명 부상이라는 인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³⁰²⁾

301) 킬러작전(Operation Killer): 유엔군은 1951년 2월 21일, 제천 북쪽에서 철수 중인 공산군을 양평-횡성-평창을 연하는 선 이남에서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이 작전을 실시하였다.

3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57.

대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중공군이 협로를 강제할 수 있는 좌측 526고지와 우측 621고지 일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대대의 공격은 둔화되었다. 이때 대대가 공격한 526고지와 621고지는 여단의 최종목표인 횡성-용두리 도로로 진출하는 데 발판이 되는 중요 지형이었다.

대대는 이 거점을 돌파하기 위하여 3일 동안 강력한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매번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다수의 사상자만 발생한 채 공격은 둔화되었다. 이에 제27여단장은 캐나다 제2대대의 공격이 3일간이나 지체되자 오스트레일리아 대대가 먼저 614고지를 점령하면 제2대대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엄호하에 526고지를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27일 오스트레일리아 대대가 614고지를 점령하자 대대도 28일 공격을 재개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526고지를 탈취함으로써 여단공격의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어서 유엔군이 춘천(春川) 일대에 대돌과구를 형성하여 전과를 확대할 목적으로 리퍼작전(Operation Ripper)³⁰³⁾을 계획하자 캐나다 제2대대는 3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와 함께 홍천(洪川)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캐나다 제2대대는 7일 아침에 갈기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532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D중대는 정면에서, B중대는 좌측방으로 우회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들은 의외로 강력한 중공군의 저항에 밀려 목표 전방에서 공격이 둔화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고지 도처에 산재한 각종 화기진지를 파괴시킨 후 공격을 재개

303) 리퍼작전(Operation Ripper): 유엔군은 1951년 3월 7일 춘천일대에 대돌과구를 형성하여 중공군과 북한군을 분리시킨 다음 서울을 양익포위하기 위하여 이 작전을 실시하였다.

하기로 결심하고 목표고지에 대대의 중화기는 물론 뉴질랜드 제16 포병연대,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목표고지 일대를 포격하였다.

포격이 끝나자 공격제대들은 기필코 목표를 탈취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파괴된 것으로 믿었던 적의 중화기 사격이 집중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대대의 공격은 다시 둔화되었다. 대대장은 B중대장에게 D중대 지역을 인수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D중대를 철수시켰다.³⁰⁴⁾

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고 8일 05:00에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이 온데간데없고 적진에는 47구의 시체와 부상병 2명, 그리고 다량의 탄약과 장비만이 덩굴고 있어 쉽게 532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적은 지난밤 교전을 끝으로 아군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하였던 것이다.

이후 대대는 진격을 계속하여 10일 갈기산을 점령한 데 이어 11일 최종목표인 양덕원리(陽德院里) 동쪽의 삭봉(削峰)을 점령함으로써 작전은 일단락되었다.

(2) 가평전투

캐나다 제2대대는 3월 25일 캔자스선 진출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기도 현리로 이동하였다. 대대는 29일 여단의 우전방부대가 되어 일련의 산악능선으로 연결된 910고지-929고지-1056고지-1250고지를 공격한 데 이어 4월 11일에는 캔자스선상의 도마치(道馬峙)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19일 영연방 제27여단 주력과 함께 가평(加平)으로 이동하여 예비가 되었다.

3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59.

미 제9군단의 주력부대들이 4월 21일 철원-김화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공격이 둔화되고 오히려 적의 공세정후가 뚜렷해지자 캐나다 제2대대는 제27여단의 명령에 의거 가평천 서쪽 677고지에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군단 주력부대들은 22일 중공군의 춘계공세(4월공세)에 밀리기 시작하였고, 23일 저녁 무렵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가평으로 철수중인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군이 이곳으로 진출을 기도함으로써 대대는 우인점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와 함께 이들 중공군과 가평을 두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전투는 23일 자정을 전후하여 먼저 가평천 동쪽 죽둔리 일대를 방어중인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제3대대는 중공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친 후 24일 저녁 무렵 가평으로 철수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에 일격을 당한 중공군은 공격체대를 재정비한 후 24일 20:00부터 캐나다 제2대대를 본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쌍방간에 치열한 격전이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대대진지에 박격포 사격과 중화기 사격을 집중한 후 1개 중대규모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우전방 B중대의 기습사격에 격퇴되었다. 고지에서 물러나 전열을 재정비한 중공군은 23:00에 B중대 지역에 박격포 사격을 집중한 후 2차 공격을 재개하였고, 이 공격에 B중대 지역 일부가 피탈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역습을 개시하여 백병전 끝에 피탈한 고지를 재탈환하였다.³⁰⁵⁾

이때 중공군은 캐나다 대대에 의해 진출이 저지되자 주력부대를 가평천으로 우회시켜 대대의 후방에 배치된 영연방 제27여단의 미들섹스대대를 돌파하고 가평 진출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가평천

3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266~267.

(加平川)변에 노출된 적은 대대의 화력집중과 여단의 지원화력에 큰 피해만 입고 북으로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2차에 걸친 공격이 실패하자 25일 새벽에는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677고지 정상을 방어중인 좌전방 D중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수적으로 열세한 D중대는 일부 고지가 피탈되자 적을 주진지로 유인한 후 여단에 VT신관으로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이 적을 격퇴하였다.³⁰⁶⁾ 이날 아침 대대가 진내정찰을 실시한 결과 그들이 미처 후송하지 못한 71구의 사체가 도처에 덩굴고 있었다. 반면 대대도 이 전투에서 전사 10명, 부상 23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가평 진출을 기도하는 중공군을 차단함으로써 중공군의 4월공세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후일 캐나다 제2대대는 이 전투의 공로로 미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고, 우리 정부도 이들의 용전분투를 높이 평가하여 677고지 하륙에 캐나다 대대의 참전비를 건립하였다.

(3) 자일리 전투

캐나다 정부는 최초 지상군 1개 여단규모의 파견을 결정하고 준비하였으나 유엔군이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여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1개 대대(PPCLI 제2대대)만 파견하였다. 그러나 초기 예상과는 달리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캐나다 정부는 1951년 2월 여단 주력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캐나다 제25여단 주력은 4월 19일 시애틀을 출발하여 5월 6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나,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여단은 계획된 현지적응훈련을 취소하고 미 제8군 명령에 의거

3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26.

15일 급히 미 제1군단 지역인 금양장(金良場)으로 이동하였다.³⁰⁷⁾

여단이 18일 금양장에 도착할 무렵 중공군의 5월공세를 맞아 전선의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자 미 제1군단의 예비로 있던 캐나다 제25여단은 24일 터키 여단과 교대하기 위하여 비석거리(碑石巨里)로 이동하여 필리핀 제10대대를 배속받아 제1군단의 우전방 사단인 미 제25사단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때 여단이 군단의 우전방 공격제대가 되어 포천-영평-운천 축선을 따라 중공군을 공격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여단은 5월 25일 09:00에 좌전방 Royal Canadian Regiment (RCR) 제2대대와 우전방 Royal 22e Regiment(R22eR) 제2대대를 공격제대로 하는 2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28일 38도선을 넘어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였다. 여단은 하루 동안 부대정비와 전선을 조정한 후 29일 좌전방에 필리핀 제10대대, 우전방 R22eR대대를 내세워 자일리(自逸里)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는 저녁 무렵 운천(雲川)을 감제관측할 수 있는 각홀봉(角屹峰: 467고지) 일대 강력한 거점을 구축한 중공군에 의해 공격이頓挫되었다. 여단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공격이 저지되자 여단장은 후속중인 RCR대대에 이 고지를 먼저 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³⁰⁸⁾

RCR 대대장은 A·B·C중대 3개 중대는 각홀봉을 우회기동하여 양호한 도로를 따라 운천과 자일리를 공격하도록 하고 D중대는 각홀봉을 공격한다는 복안을 수립하였다. 각 중대는 5월 30일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공격을 개시하여 B중대가 운천 북쪽의 162고지를, C중대는 자일리 남쪽의 269고지를 점령하여 A중

30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442.

3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72.

대의 자일리 공격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틈에 A중대는 별 저항 없이 자일리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각홀봉을 공격한 D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자동화기 사격을 받아 처음부터 공격이 저지되었다. 그리고 정오 무렵부터는 적의 공격이 대대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적은 자일리로 진출한 A중대를 포위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A중대를 엄호할 B·C중대는 내리는 비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어 지원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규모의 적이 각홀봉을 증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14:30에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도록 하였다.

여단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첫 전투인 자일리 전투에서 전사 6명, 부상 25명의 인명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는 각홀봉이 철원·김화로 진입하는 통로 입구에 위치한 중요한 감제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적정도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격작전을 펼친 결과이었다.³⁰⁹⁾

이후 여단은 작전지역을 미 제3사단에 인계하고 6월 2일 덕정 북서쪽 양지말로 이동하여 다시 미 제1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4) 특공작전

캐나다 제25여단이 미 제1군단예비로 덕정(德亭) 서쪽의 양지말 부근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을 무렵인 6월 11일 여단의 선발대로 지난 12월에 한국에 도착하여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어 분전한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PPCLI) 제2대대가 북귀함으로써 여단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여단은 잠시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대광리-철원 간의 와이오밍선 방어와 정찰활동을 실시한 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되자 다시 양지말로 북귀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3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75.



밤 동안 3,000발을 사격한 박격포 진지

여단은 8월 한 달 동안 적정 수집과 포로를 획득하기 위하여 임진강 북쪽의 187고지와 고왕산 남쪽 210고지 일대에서 디커작전(Operation Dirk)과 클레모아작전(Operation Claymore)을 실시하여 적의 방어거점 확인은 물론 다수의 적 문서를 노획하고 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단은 9월 4일 영연방 제1사단의 우전방 여단으로 복귀한 데 이어 8일에는 접적 없이 임진강 북쪽 석장리(石牆里) 일대의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였다. 10월 초 영연방 제1사단은 미 제1군단의 계획에 의거 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임스타운선을 확보할 목적으로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캐나다 여단은 갈현리-청정리-나부리-

기곡리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 작전은 우전방 제28여단이 10월 3일 먼저 공격을 개시하고, 제25여단은 4일부터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제25여단의 공격은 4일 11:00에 제29여단에서 배속된 좌전방 얼스터대대가 갈현리(葛峴里)를, 중앙의 RCR대대가 나부리(羅浮里)를, 우전방 PPCLI대대가 기곡리(基谷里)를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때 여단정면의 적정이 격렬한 우인접 제28여단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경미하여 공격제대들은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다.³¹⁰⁾

우전방 PPCLI대대는 공격개시 2시간 만에 기곡리 남쪽의 159고지로, 중앙의 RCR대대도 오후 늦게 나부리 남쪽으로, RCR대대의 공격을 엄호하면서 진출한 좌전방 얼스터대대도 밤늦게 갈현리로 각각 진출하였다. 그리고 5일 여단이 공격작전을 펼치는 동안 임진강변 돌출부인 강서리 일대에서 제28여단의 후방을 엄호하던 R22eR대대가 이동하여 좌전방 얼스터대대의 갈현리 일대의 진지를 인수함으로써 여단의 제임스타운 진출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여단은 이 작전에서 전사 4명, 부상 2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나 차후 작전에 발판이 되는 유리한 감제고지들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이를 계기로 영연방 제1사단의 예하부대들은 휴전이 될 때까지 이 일대에서 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5) 고왕산 부근 전투

캐나다 제25여단은 10월 하순 방어정면 감제고지인 166고지, 156고지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설치하고, 여단을 위협하는 중

31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87.

공군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춧가루단지 작전(Operation Pepperpot)’을 실시하였다.³¹¹⁾ 이때부터 중공군의 포격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 또한 중공군은 11월 4일 마량산을 재탈취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듯 그 남쪽의 전술적 요충인 고왕산(高旺山) 일대를 넘보기 시작하였다.

이때 미 제1군단은 고왕산을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영 제1사단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단간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하여 고왕산을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에 따라 캐나다 제25여단은 22일 R22eR대대를 고왕산과 인접한 227고지 중간에 배치하여 미 제3사단과 연결하였다.

R22eR대대 D중대가 구축한 방어진지는 227고지에서 고왕산으로 연결되는 안부지역으로서 지형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3일 전에 피탈한 좌인접 227고지에서 감제되고 있어 방어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날 초저녁부터 적의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우인접 미 제3사단이 방어중인 고왕산 일대에 집중되었고, 23일 새벽에는 적 화력이 D중대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날이 밝으면서 적의 화력은 둔화되었으나 간헐적인 포격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고왕산을 집중 포격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 공격에 미 제7연대는 총력전을 펼쳤으나 고왕산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D중대는 좌우측에서 중공군의 협공을 받게 되어 진지고수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나 여단장은 D중대에 끝까지 안부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³¹²⁾

고왕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은 대대가 우려했던 대로 19:30 여단의 탄막사격을 뚫고 D중대를 공격하였으나 중대의 최후저지사격

31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86.

3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94.

에 걸려 다수의 시체만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이번에는 227고지에서 2개 중대규모로 2차 공격을 개시하였고, 24일 02:00경에는 D중대의 좌측 소대진지가 붕괴되어 적의 일부가 진내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대장이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이 적을 격퇴하였다.

날이 밝으면서 적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중공군의 증원병력들이 227고지로 속속 집결하고 있어 머지않아 적의 대규모 공세가 예상되었다. 이 무렵 우인접 미 제7연대는 역습을 개시하여 고전 끝에 고왕산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24일 어둠이 깃들자 중공군 1개 대대규모는 3개 방향에서 D중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적은 여단의 포병 화력지원에도 불구하고 진내로 접근하였고, 중대는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응수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측방 진지 일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D중대는 자정 무렵 특공대를 조직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이 중대의 역습에 앞서 경기관총 1정만 남기고 주력이 철수함으로써 특공대는 쌍방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진지를 재탈환하였다.³¹³⁾

대대는 4일 동안 중공군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사 11명, 부상 13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4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에서 D중대가 끝까지 227고지를 사수함으로써 유엔군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맹은 영연방 사단의 귀감이 되어 최우수 중대로 선정되었다.

3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296~297.

(6) 나부리 전투

제25여단은 지상전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1952년부터 1953년 3월까지 이렇다 할 접전 없이 제임스타운선 방어와 예비대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였다.

1953년 4월 하순에 접어들자 중공군은 여단의 좌인접에 배치된 영 제29여단의 후크고지와 우인접에 배치된 영연방 제28여단의 고왕산 일대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말부터는 여단정면의 나부리(羅浮里) 일대로 확산되었다.

영연방 제1사단이 지난 1951년 10월 제임스타운선으로 진출한 이후 중공군은 사단의 주요거점인 사미천 서쪽의 후크고지와 임진강 서쪽의 고왕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캐나다 제25여단이 방어중인 나부리 일대를 포격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지역은 중공군의 전초진지에서 감제관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개활지로 이루어져 있어 적이 공격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5월 2일 해가 넘어가자 대대의 정찰대와 매복대는 예정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A중대 정찰대도 전투지경선 부근에 설치된 철조망지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인접 PPCLI 제3대대와 전투지경선인 계곡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중대는 사전에 침투한 중공군의 기습사격을 받아 퇴로가 차단되는 등 적중예 고립되었다. 이를 증원하기 위하여 출발한 C중대 정찰대마저 이동 도중에 기습공격을 받아 분산됨으로써 대대는 혼란상황에 직면하였다.³¹⁴⁾

이때 중공군은 주도면밀한 공격계획하에 침투부대를 사전에 여단의 탄막지대와 주진지 사이로 침투시켜 지원화력의 무력화는 물

3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16.

론 정찰대를 기습공격할 수 있었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중공군은 이날 자정을 전후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쌍방간에는 치열한 진내전투가 시작되었다.

상황이 불리해진 C중대의 요청으로 진내사격이 개시되자 중공군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고, 이때 여단은 적의 증원과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미천 북쪽 적의 전초진지인 166고지 일대를 무차별 포격하였다. 그러나 C중대 지역에서는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근접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투는 3일 오전까지 계속되었으나 13:00 대대가 역습을 준비하자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나부리 전투는 일단락되었다.³¹⁵⁾

캐나다 여단이 나부리 일대의 진지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2시간 동안 적의 기습공격에 휘말려 전사 30명, 부상 41명, 실종 11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날 중공군은 평시와는 달리 5개 제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는 새로운 공격전술을 구사하였고, 여단은 휴전을 목전에 둔 이 전투에서 악전고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³¹⁶⁾

이후 캐나다 제25여단은 휴전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제임스타운선에서 임진강변의 캔자스선으로 철수한 후 12월 초에 일부 부대만 잔류시키고 주력은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3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318~319.

3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p. 156.

3. 해군의 활동

(1) 초기작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캐나다 정부는 지상군에 앞서 구축함 3척 (Cayuga, Athabaskan, Sioux)의 파견을 결정하였고, 이에 구축함 전대는 7월 5일 캐나다를 출발하여 30일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에 도착, 미 극동함대사령부에 배속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캐나다 함정들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분산되어 시옥스(Sioux), 아다바스칸(Athabaskan)호는 주로 부산-일본 간의 수송선단을 엄호하는 호위임무를, 그리고 캐유가(Cayuga)호는 서해안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시에는 3척의 구축함이 상륙부대를 군수지원하는 수송선단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³¹⁷⁾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할 무렵 서해안전대의 주력함정들은 정비 또는 휴식차 홍콩으로 이동함으로써 서해안에는 구축함 6척만이 해상봉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급전락하여 유엔군이 철수를 개시하자 봉쇄전대는 진남포 철수작전 엄호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때 서해안에서 활동중이던 캐나다 구축함 3척과 오스트레일리아 구축함 2척, 그리고 미국 구축함 1척으로 구성된 혼성함대는 상륙전단의 진남포 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캐나다 캐유가호 함장의 지휘하에 12월 4일 야음을 이용하여 진남포항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수로가 협소하고 도처에 암초가 산재해 있어 2척 (Sioux, Warramunga)의 구축함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고 4척만이 5일

3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25.

새벽 진남포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³¹⁸⁾

날이 밝자 상륙전대는 구축함의 엄호하에 부상자와 보급물자를 탑재하였고, 상당수의 민간선박에는 피난민이 탑승하였다. 17:00 탑재를 완료한 상륙전대와 민간선박들은 진남포 외항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하자 구축함들도 40분간 진남포 항만시설과 주변 군사시설을 포격하여 완전 파괴시킨 후 외항에서 대기중인 상륙전대와 합류 후 6일 남하함으로써 진남포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캐나다 구축함들은 1951년 3월까지 일본에서 수리 및 정비를 완료하고 재투입되었으나 4인치 주포를 장착하고 있어 함포지원보다는 주로 해안초계임무나 항공모함 엄호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51년 9월 진남포 외항의 석도-초도를 순찰중이던 캐유가호는 당시 초도에서 활약중인 미 첩보부대로부터 이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사격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자 4일부터 파괴작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캐유가호는 제공받은 해안포대와 적 막사를 찾아 이동한 후 사격에 앞서 유격대원들을 침투시켜 탄착을 관측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사격으로 이들을 파괴시킬 수 있었다.

이 무렵 휴전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는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는 전략도서에 대한 적의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 적이 결사코 탈취하려는 도서의 대부분이 서해안에 있었고, 특히 주요 전략도서인 초도(椒島)와 석도(席島)의 방어는 캐나다 함정들이 맡게 되었다.³¹⁹⁾

이러한 방침에 따라 캐나다 함정들은 전략도서에서 가까운 적 해안포대와 공격기지를 조기에 파괴하여 적의 기습공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결정하고, 11월 6일부터 석도 맞은편 암각(岩角)

318)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341.

3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32.

일대에서 해·공 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 해안포는 교묘히 위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노출시키기 위한 아군의 유인작전에도 침묵을 지켜 진지파괴에는 실패하고 다수의 어선만 파괴하였다.

(2) 후기작전

1952년에 접어들면서 지상작전은 교착상태를 지속하였으나 해상작전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캐나다 함정들이 소속된 서해지원전대는 적의 빈번한 도서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또한 이들 도서에서 활동중인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초계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캐나다 구축함들은 1월 7일 초계활동 지역이 연평도-해주만으로 확대되자 연평단대를 편성하고 해주만과 주변의 대소 섬들을 방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8월 말까지 초도, 백령도, 연평도 등 전략도서 근해에서 해상초계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때 누트카(Nootka)호는 9월 22일 초계작전 중 진강포(津江浦) 부근에서 북상중인 의아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여 나포하였다. 이 선박은 북한의 기뢰부설정으로 한국전쟁 기간 중 해상에서 나포된 단 1척의 적 군함이었다.³²⁰⁾

서해안의 해상활동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캐나다 해군은 9월 28일 구축함 1척을 동해안의 철도파괴작전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의거 이로꾸아(Iroquois)호는 10월 2일 성진항 부근으로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복귀하려는 순간 적의 해안포 공격을 받아 2명이 전사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인명손실은 캐나다

320) 해군본부(역), 「해전사」, pp. 239~240.

해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³²¹⁾

그리고 14일에는 크루세더(Crusader)호가 추가로 파괴되어 성진 일대에서 열차파괴작전에 참가하였고, 25일 야간작전에서는 북상 중인 열차를 포격하여 화차 2량을 파괴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서 12월 3일 성진 외해에 도착한 헤이다(Haida)호는 2주 동안 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 18일 청진 부근에서 북상되는 열차를 발견하고 집중 포격을 실시하여 화차 10량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캐나다 해군은 1952년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1953년을 맞았어도 캐나다 해군은 변동 없이 해안순찰에 주력하였고, 크루세더호는 4월 11일 동해안 성진분대에 파괴되어 양도로 이동하였다. 이때 크루세더호는 주간에는 청진-성진을 해상순찰하고, 야간에는 양도에서 첩보수집을 목적으로 육지로 상륙하는 한국 해병대의 엄호임무를 맡게 되었다. 3일 동안 소형 고무 보트로 기습상륙하는 한국 해병대를 엄호한 후 다시 열차파괴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14일 단천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크루세더호는 이날 청진 남쪽에서 열차를 파괴시킨 데 이어 15일에도 단천 북쪽에서 3대의 열차를 파괴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두 번째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열차파괴작전에 투입된 후론(Huron)호는 휴전이 임박한 7월 13일 양도 일대에서 짙은 안개로 좌초되는 불운을 맞아 구조함정에 예인되기도 하였다.³²²⁾

이와 같이 캐나다 해군은 한국전쟁 기간 내내 3척의 구축함으로 동·서해안을 넘나들며 해안초계, 항공모함 엄호, 열차부수기 작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유엔해군의 해상작전을 지원하였으며,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도 백령도 근해에 투묘하여 공산측

3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335~336.

3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39.

의 휴전협정 위반을 감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55년 3월 작전 해역을 한국군에 인계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시옥스호가 9월 7일 마지막으로 귀국함으로써 해군작전은 일단락되었다.

4. 공군의 활동

1950년 7월 초 캐나다 정부는 해군의 파전에 이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병력과 물자의 공수임무를 담당할 수송대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미 공군과 워싱턴 근교의 매코드(McChord) 기지를 작전기지로 사용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6대의 수송기로 편성된 제426수송대대가 7월 26일 매코드 기지로 이동하여 미 항공수단에 배속되었고, 이때부터 매(Hawk)라고 명명된 매코드 기지-하네다(羽田) 기지 간의 공수작전이 시작되었다.³²³⁾

열악한 미 공군기지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제426수송대대는 8월 중순까지 산적한 군수품과 병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12명의 조종사와 6대의 수송기로 월 3,000시간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항속거리만도 1일 평균 1만 마일을 상회하였다. 이때 대대가 비행한 항로는 매코드 기지-앵커리지-알류산 열도-하네다 기지로서 장거리 노선일 뿐만 아니라 기상변화도 심한 위험한 항로였다. 그럼에도 제426수송대대는 무사고 비행임무를 달성함으로써 그들의 우수한 비행능력을 인정받았다.

9월로 접어들면서 전황이 유엔군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대대의 매작전도 월평균 15회로 축소되었고, 대대의 작전기지도 매코드 기지에서 캐나다의 도발(Dorval)공항으로 변경되었다.

3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41.

도발공항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제426수송대대의 매작전은 계속 되었으나 이후부터 물동량이 점점 감소하였고, 1952년 중반 이후에는 월평균 8회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제426수송대대의 매작전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까지도 계속되었으나 1954년 6월 9일 비행을 끝으로 일단락되었다. 대대는 기간중 599회를 왕복 비행하면서 1만 3천명의 병력과 7백만 파운드의 화물을 손실 없이 수송하는 대기록을 수립하였다.³²⁴⁾

한편 캐나다 정부는 한국전쟁 기간중에 자국의 전투조종사의 실전경험을 쌓기 위하여 한국에서 작전중인 미 공군의 전투요격기 여단에 1~2명씩 윤번제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50회를 출격하거나, 6개월을 근무하면 교대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조종사들이 두려워하는 MIG기 회랑지역에서 MIG기와 공중전을 펼쳐 적기를 격추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공군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총 22명의 전투조종사를 파견하여 유엔군의 공군작전을 지원하였다.

5. 참전결과

(1) 참전현황

○ 지 상 군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제 25 여 단	1951. 5~1954. 12	
Prince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제2대대	1950. 12~1951. 11	

3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43.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제 1 대 대	1951. 10~1952. 11	
제 3 대 대	1952. 10~1953. 10	
The Royal Canadian Regiment 제2대대	1951. 5~1952. 4	
제 1 대 대	1952. 4~1953. 3	
제 3 대 대	1953. 3~1954. 3	
Royal 22e Regiment 제2대대	1951. 5~1952. 4	
제 1 대 대	1952. 4~1953. 4	
제 3 대 대	1953. 4~1954. 4	

○ 합 정

구 분	합 정 명	참 전 기 간
구 축 합	Cayuga	1차 : 1950. 7~1951. 3
		2차 : 1951. 7~1952. 6
		3차 : 1954. 1~1954. 11
	Athabaskan	1차 : 1950. 7~1951. 5
		2차 : 1951. 9~1952. 6
		3차 : 1952. 11~1953. 11
	Sioux	1차 : 1950. 7~1951. 1
		2차 : 1951. 4~1952. 2
		3차 : 1954. 12~1955. 9
	Crusader	1차 : 1952. 6~1953. 6
2차 : 1953. 11~1954. 8		
Haida	1차 : 1952. 11~1953. 6	
	2차 : 1954. 2~1954. 9	

구 분	함 정 명	참 전 기 간
구 축 합	Huron	1차 : 1951. 3~1951. 8
		2차 : 1953. 6~1954. 2
		3차 : 1954. 10~1954. 12
	Iroquois	1차 : 1952. 6~1952. 11
		2차 : 1953. 6~1954. 1
		3차 : 1954. 8~1954. 12
Nootka	1차 : 1951. 1~1951. 7	
	2차 : 1952. 2~1952. 11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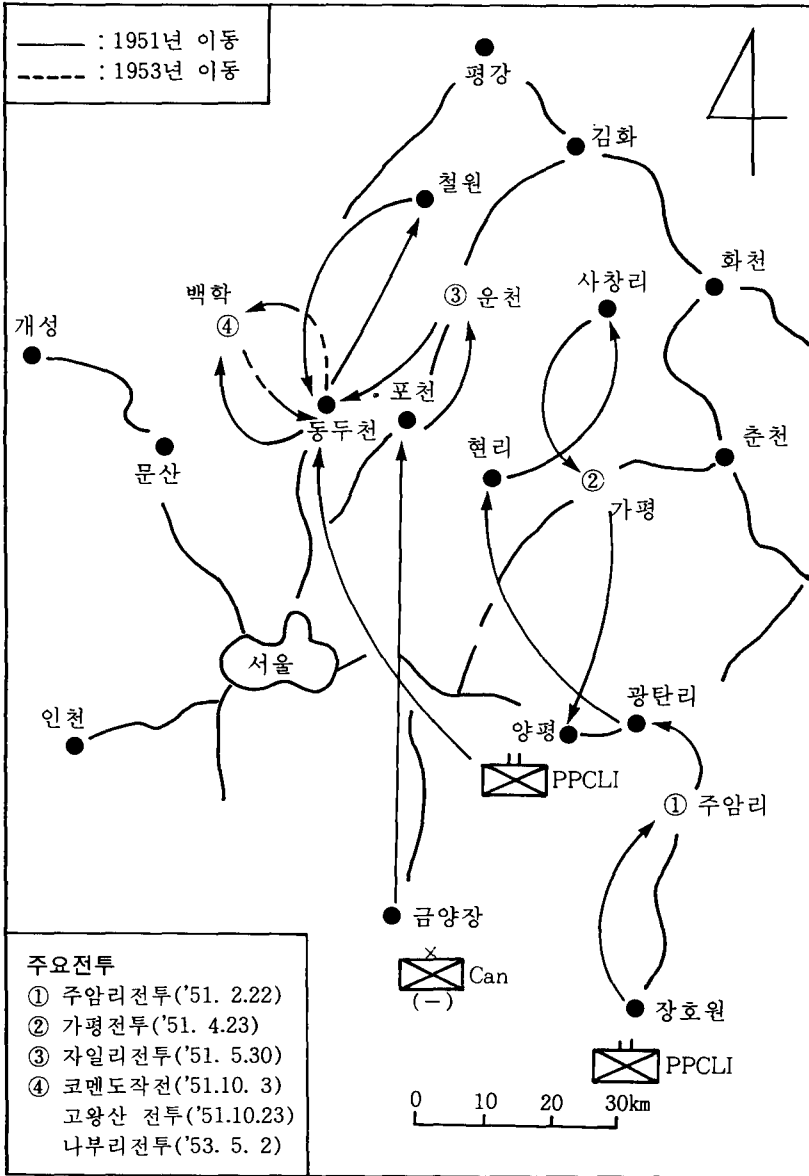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1,557	312	1,212	32	1	
육군	합계	1,543	309	1,202	32	—
	장교	72	11	59	2	—
	사병	1,471	298	1,143	30	—
해 군	13	3	10	—	—	
공 군	1	—	—	—	1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7. 26	제426항공수송대대, Hawk작전 개시
	7. 31	아다바스칸호 미 병력수송선, 엄호임무 개시
	8. 15	캐유가호, 여수항에서 최초 함포사격 실시
	12. 18	PPCLI 제2대대, 부산에 상륙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2. 17	PPCLI 제2대대, 장호원에서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
	2. 21	제2대대, 444고지에서 중공군과 첫 전투
	4. 25	PPCLI 제2대대, 677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5. 6	캐나다 제25여단 주력, 부산 상륙
	5. 24	제25여단, 비석거리에서 미 제25사단 배속
	5. 30	제25여단, 각홀봉 공격
	6. 11	제2대대 제25여단, 주력과 합류
	7. 28	제25여단, 영연방 제1사단 배속
	8. 13	임진강 북쪽에서 Dirk작전 개시
	8. 22	임진강 북쪽에서 Claymore작전 개시
	10. 3	제25여단, 코만도작전 개시
	10. 14	PPCLI 제2대대가 제1대대와 교대
10. 23	제25여단, 고춧가루단지 작전 개시	
1952	4. 25	R22eR 제2대대가 제1대대와 교대
	5. 23	RCR 제1대대 B중대, 거제도 포로수용소 이동
	10. 2	RCR 제1대대, 고왕산에서 중공군에 피습
	10. 23	이로꾸아호, 동해안에서 적 해안포에 피격
	11. 3	PPCLI 제1대대가 제3대대와 교대
	11. 23	제25여단, 227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1953	4. 13	크루세더호, 양도에서 한국 해병대 기습상륙 지원
	4. 21	R22eR 제1대대가 제3대대와 교대
	5. 2	PPCLI 제3대대, 나부리 전투 개시

캐나다 여단의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7절 프랑스(France)

1. 참전경위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우방국이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에서는 벗어나고 있었으나 인도지나 반도에서 전개되는 전쟁이 나날이 격화됨에 따라 국방예산은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사무총장의 지원요청을 접하게 되자 7월 22일 자국 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극동함대에서 활동중인 구축함 1척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³²⁵⁾

이후 자국의 군사상황을 빌미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온 프랑스 정부는 국내에서 한국전쟁의 참전을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의 심각성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집단안보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상군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8월 25일 순수 지원군으로 구성된 1개 보병대대가 유엔군사령부 예하에서 다른 유엔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조치에 의거 9월 18일 현역과 예비역에서 지원된 인원으로 보병 1개 대대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대를 편성하였다. 이

3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1.

때 프랑스 지상군 대대는 3개 소총중대와 본부중대, 지원중대로 편성되었는데 제1중대는 주로 해병대 출신이었으며, 제2중대는 수도방위 보병부대 출신이었고, 제3중대는 공수병과 외인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본부중대는 기술병과 포병부대 출신으로, 지원중대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병과 요원들로 편성되었다. 특히 한국으로 파병될 부대를 편성한 몽끌라르(Ralph Monclar) 중령은 노련한 외인부대 출신의 중장이었으나 강등을 자청하여 임시 중령의 계급을 부여받아 파견되는 프랑스군을 총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총괄적인 정책 및 행정부문만 담당하고 실병지휘는 대대장 르미르(Lemire) 소령이 맡게 되었다.³²⁶⁾

프랑스 대대는 특수훈련이 완료되자 10월 25일 수송선(Athos II)편으로 프랑스의 마르세유(Marseille)항을 출발하여 1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11월 29일 부산에 상륙하였고, 환영식이 끝나자 열차 편으로 대구에 설치된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하여 참전을 준비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청천강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 제2사단의 재편성이 시급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10여 일 만에 현지적응훈련과 병기, 장비 등의 손질을 완료하고 12월 13일 수원으로 이동하여 미 제2사단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싸터널 전투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1월 10일 원주쟁탈전에 첫 참전

3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495~496.

한 이후 줄곧 원주 일대에서 정찰작전을 실시하고 있던 대대는 30일 지평리 동쪽 쌍터널 부근에서 북한군에게 고립된 미 제23연대 F중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함께 쌍터널 부근 초왕리(草旺里)로 이동하였다.³²⁷⁾

이때 적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대대는 쌍터널을 통제할 수 있는 북쪽의 279고지와 남쪽의 459고지를 점령하여 미 제3대대와 함께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하루 종일 행군한 프랑스 장병들은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언 땅을 밟으나, 야전삽의 자루가 부러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³²⁸⁾ 대대가 진지구축과 정찰활동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2월 1일 새벽 2개 연대규모의 중공군이 포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쌍터널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때 279고지를 방어중인 제3중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곧 이어 그 남쪽의 제2중대, 453고지를 방어중인 제1중대지역으로 확산되었다.³²⁹⁾ 이런 와중에서도 대대는 우인접 미군 중대가 탄약부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이들에게 긴급히 보급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얼마 후 이런 상황을 감지한 사단은 수송기를 동원하여 탄약과 보급품을 공중투하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07:00경에는 대대의 일부 진지는 돌파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고지에서는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대대가 정오 무렵 역습으로 피탈한 진지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쌍방간의 전투는 더욱 가열되었다.

프랑스 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포병화력과 전차의 엄호하에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고, 18:00을 전후하여 적의 공격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 무렵 대대를 지원할 제23연대

3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05.

328) 김병일·이해방(역), 「프랑스대대」, p. 114.

329) 김병일·이해방(역), 위의 책, pp. 115~118.

제1대대가 적이 매설한 도로장애물을 제거하고 도착한 데 이어 19:00에는 연대의 제2대대의 일부도 쌍터널에 도착함으로써 전력이 급격히 증강되었다. 연대 주력이 방어진지를 강화하자 적은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연대는 정찰대를 파견하여 이들을 추격함으로써 쌍터널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1,300명을 사살하여 중공군 제373연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나 대대도 전사 27명, 부상 103명, 실종 3명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프랑스 대대는 중공군에게 많은 인명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반격작전중인 유엔군의 전의를 고양시켰다. 대대는 후일 이 전투의 공로로 미 대통령 부대표창과 프랑스 육군 부대표창을 받았다.³³⁰⁾

(2) 지평리 전투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오산-장호원 선으로 철수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1월 25일 한강선을 목표로 재반격작전을 개시하자 미 제10군단은 2월 3일 이들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쌍터널 전투에서 승리한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를 지평리로 진출시켰다.

당시 제23연대가 점령한 지평리(砥平里)는 분지로서 남한강변을 따라 후방으로 진출하여 재반격중인 아군의 측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요지이었으나 전선이 돌출되고 미 제2사단 주력이 배치된 원주와 20km의 배치공간이 있어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연대장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서쪽에 프랑스 대대, 북쪽에 제1대대, 동쪽에 제3대대 그리고 남쪽에 제2대

3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07.

대를 배치하여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프랑스 대대가 점령한 지역은 북서쪽 갈지산과 서쪽의 248고지로부터 감제되고 있었다.³³¹⁾

이때 쌍터널 전투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프랑스 대대는 시가지 서쪽 철로변에 3개 중대를 배치하고 방어진지 구축과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2월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의 일부가 13일 낮 동안 지평리로 접근하자 미 제23연대는 포병화력과 근접항공지원으로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후 전선은 소강상태로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22:00를 전후하여 적이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연대 전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평리 전투가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박격포 사격의 엄호하에 진지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후 전투는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14일 02:00경 중공군이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재개하였고, 이에 맞선 대대는 수동식 사이렌을 울리면서 대응하였다. 전투는 순식간에 피아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류탄전과 육박전으로 전개되었고, 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격퇴시켰다. 이후에도 중공군은 수차에 걸쳐 정면돌파를 기도하였고, 이때마다 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³³²⁾

날이 밝아 중공군이 철수하자 대대는 공수투하로 탄약과 보급품을 지원받고 헬리콥터로 부상병도 후송하면서 진지도 재편성하였다. 날이 저물자 적은 박격포 사격의 엄호하에 공격을 재개하였고, 22:00경에는 전투가 절정에 달하였다. 이때부터 지평리 상공에는

331) 김병일·이해방(역), 「프랑스대대」, p. 137.

33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408.



쌍터널 부근의 프랑스 대대 지휘소

3시간 동안 쌍방이 쏘아 올린 조명탄, 예광탄, 신호탄으로 불야성을 이룬 채 혈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프랑스 대대도 박격포 사격과 포병의 조명지원하에 총력전을 펼쳐 이들을 격퇴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당시 적의 공격거점인 248고지는 아군 집중포격을 받아 마치 불도저로 밀어붙인 것처럼 깎여 있었고, 눈도 모두 녹아버렸다. 그리고 수많은 총탄자국이 받고랑처럼 패어 있었다.³³³⁾

15일 저녁 무렵 미 제5기병연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돌파하고 지평리를 증원하면서부터 상황은 역전되었고, 중공군이 16일

333) 김병일·이해방(역), 「프랑스대대」, p. 154.

새벽에 철수함으로써 지평리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중공군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반격작전중인 서부전선 부대의 우측방 공격을 기도하는 중공군의 2월공세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대대는 2월 22일 사단예비가 되어 제천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에 주력하게 되었다.

(3) 단장의 능선 전투

1951년 8월 중순부터 양구 북쪽 피의 능선에서 미 제2사단 제9연대와 피의 공방전을 벌인 북한군이 바로 북쪽 894고지-931고지-885고지로 연결된 단장의 능선으로 철수하자 미 제2사단장은 전과를 확대할 목적으로 예비로 대기하고 있던 제23연대를 투입함으로써 단장의 능선에서 또 한 차례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9월 13일 제23연대 주력부대가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사태리(沙汰里) 계곡으로 물러나자 연대장은 주력부대의 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프랑스 대대에 계곡 동쪽의 841고지와 1052고지를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³³⁴⁾ 이에 월운리(月雲里)에서 연대예비로 대기하고 있던 대대는 13일 야간에 841고지 남쪽 868고지로 이동하여 연대에 배속중인 제38연대 제3대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대대는 15일 포병의 화력지원하에 2차에 걸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매번 고지 정상 부근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아 30여 명의 전상자만 낸 채 실패하였다.

이후 제23연대 주력이 공격중인 단장의 능선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나 프랑스 대대 정면은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3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p. 150.



931고지밀 협곡 속의 진군

이에 대대는 연대 주력부대들의 공격을 화력지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력부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이번에는 대대도 이 공격에 투입되었다. 9월 25일 대대는 처음으로 단장의 능선 중간에 위치한 931고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능선으로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의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을 받아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³³⁵⁾ 대대는 26일 14:00 북한군이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931고지를 목표로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 제23연대 제1대대도 894고지에서 북쪽의 93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날 적의 격렬한 사격에도 불구하고 고지 정상으로 접근한 C중대는 3차례나 돌격을 시도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사상자가 속출하여 17:00경에는 대대의 전사상자가 10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연대장은 18:30에 프랑스 대대를 능선

3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88~189.

하루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³³⁶⁾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 못지않게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새로운 공격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전투는 일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대를 재정비한 미 제23연대는 10월 5일 저녁부터 교란사격을 실시한 후 6일 03:00에 제2대대와 프랑스 대대가 931고지를 포위공격하여 이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3일에는 프랑스 제2중대가 미 제1대대 B중대와 협조된 공격을 펼쳐 단장의 능선 맨 북쪽 적의 거점인 851고지를 탈환함으로써 단장의 전투는 일단락되었다.³³⁷⁾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다수의 인명손실을 입었지만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아군의 전술적 요충인 단장의 능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프랑스 대대는 22일 가평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정비하게 되었다.

(4) T-Bone고지 전투

프랑스 대대는 1952년 7월 17일 철원 서쪽 선벽(仙壁)으로 이동, 미 제23연대의 우전방이 되어 제임스타운(Jamestown)선으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적은 아군 정찰대에 선제공격을 하거나 전초진지를 기습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교란사격의 빈도는 물론 사격량도 날로 증가시켰다. 18일 자정 무렵 중공군은 대대가 이곳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1개 중대규모로 티본(T-Bone) 능선 남쪽 191고지에 설치된 전초진지를 기습공격하였다. 대대는 증원병력을 투입하여 19일 03:00에 중공

3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527~528.

3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pp. 245~246.

군을 격퇴하였다.³³⁸⁾ 이후 좌전방 제23연대 제2대대가 불모고지에서 치열한 전투전초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으나 대대 정면에서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5일 중공군이 대대의 전초진지인 에리(Erie)와 요크(Yoke) 전초진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전투는 재개되었다. 적의 공격목표가 된 에리 전초진지는 티본 능선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고지이며, 요크 전초는 천덕산에서 북서쪽으로 뺀 능선의 끝단에 위치한 감제고지였다. 이들 전초들은 적 진지에서 감제되는 불리한 점은 있으나 티본고지와 주변 개활지를 통하여 접근하는 적을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형이었다.

티본 능선을 따라 진출한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은 자정을 전후하여 박격포 사격을 집중한 후 에리 전초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대대는 계획된 탄막사격으로 이들의 진출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탄막지대를 우회한 중공군의 일부가 수차에 걸쳐 돌파를 기도하여 전초들은 3시간 동안 기관총사격과 백병전으로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아군의 포격에 밀려 장비는 물론 부상병의 후송마저 포기하고 철수하였다.³³⁹⁾

한편 중공군은 에리 전초진지 공격이 부진하자 26일 새벽에 1개 중대규모를 투입하여 요크 전초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전초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내로 접근한 중공군과 백병전을 펼치며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어정면이 축소되어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다행히 날이 밝자 중공군이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물러난 중공군은 28일 야간에도 1개 중대규모로 박격포와 야포의 지원하에 에리 전초진지를 기습공격하였으

3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37.

3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37.

나 전초가 또 한 차례의 백병전을 벌이어 이들을 격퇴하였다.³⁴⁰⁾

이 전투에서 프랑스 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초진지 쟁탈전을 벌여 중공군을 격퇴함으로써 그들의 용맹성을 과시하였다. 이후 전투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대대는 8월 중순 연천 동남쪽 무수동(無愁洞)으로 이동하여 연대에비가 되었다.

(5) 화살머리고지 전투

프랑스 대대는 이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인 10월 3일 지형이 화살촉의 머리와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화살머리고지(281고지) 일대의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 연대장으로부터 여하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지를 사수하라는 특명을 받은 대대장은 좌전방 화살머리(Arrowhead)고지에 제1중대, 중앙 개활지에 제3중대, 그리고 우전방 방석동(方席洞) 일대에 제2중대를 배치하여 우인접에서 백마고지를 방어중인 국군 제9사단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적의 접근이 용이한 화살머리고지 북쪽에는 공병소대로 전초를 설치하였다.

이 무렵 귀순한 중공군 군관이 조만간에 특수훈련을 받은 2개 연대규모의 중공군이 10월 6일 화살머리고지와 우인접 백마고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진술함은 물론 다른 첩보에 의해서도 중공군의 공격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대대는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³⁴¹⁾ 6일 낮 동안 계속된 요란사격으로 전초진지와 화살머리고지의 방어시설이 다소 파괴되고, 17:20경에는 고지 북쪽 2km 지점에서 적 전차 15대가 관측되자 전선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되었다.

대대가 예상한 대로 중공군은 18:45에 공격의 서막을 알리는

340)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3.

341) 김병일·이해방(역), 「프랑스대대」, p. 333.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되었고, 대대도 이에 대응사격으로 실시하였으나 중공군의 포격에 대대가 구축한 야전축성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19:00가 조금 지날 무렵 전초소대가 수 미상의 강력한 적과 접전증임을 보고함으로써 예측을 불허하는 화살머리고지 전투는 시작되었다.

전초인 공병소대는 4개 중대규모의 적을 맞아 포병과 중박격포 사격을 유도하여 적을 저지하였으나, 중공군의 일부는 이 포격을 뚫고 진내로 접근하였다. 이때부터 소대는 우군기에서 투하되는 조명탄의 지원하에 처절한 백병전을 전개한 후 전사상자가 증가하고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화살머리고지로 철수하였다. 잠시 후 중공군이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자 대대는 4개 포병대대, 전차, 박격포, 무반동총 등 엄청난 화력을 화살머리고지에 쏟아 부었다. 이 집중적인 포격으로 적의 파상공격은 23:00경 저지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대대도 병력과 중화기를 증원하여 화살머리고지에 배치된 제1중대의 방어력을 보강시켰다.³⁴²⁾

이후 적은 7일 01:40과 03:00에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대대의 반격으로 격퇴되었고, 날이 밝자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날 야간에도 우인점 백마고지에서 국군 제9사단이 격전을 벌였으나 대대 정면에서는 적의 공격이 없어 전투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결판을 내려는 듯 8일 저녁 다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이번에는 대대의 우측방으로 국군 제9사단과 전투지경선 부근에 배치된 제2중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중대가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치열한 격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물러난 중공군은 재편성을 한 후

3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44.

자정이 지날 무렵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중앙의 제3중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대는 총력전으로 맞서 이 공격마저 격퇴함으로써 화살머리고지 전투는 대대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적이 물러난 후 정찰대가 진전을 정찰한 결과 600여 구의 시체가 도처에 널려 있었고, 소화기 112정, 중화기 67정, 다수의 개인장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대도 전사 48명, 부상 130명의 손실을 입었다.³⁴³⁾ 이 전투에서 프랑스 대대는 많은 인명 손실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전의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인접 국군 제9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여 사단이 백마고지를 방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6) 중가산 전투

대대는 1953년 4월 27일 중부전선 지포리(芝浦里)로 이동 미 제9군단으로 복귀하여 군단에비가 되었다. 이때부터 대대는 적의 새로운 공세에 대비하여 와이오밍(Wyoming)선³⁴⁴⁾과 캔자스(Kansas)선³⁴⁵⁾을 오가며 저지진지 보수공사와 교육훈련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공산측은 휴전이 성립되기 이전에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전선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대대도 6월 20일 서방산 서남쪽의 중가산(中佳山)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때 대대는 478고지

3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544~545.

344) 와이오밍선(Wyoming)선: 중부전선에서 캔자스선의 방어중심을 강화하고 철원-김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연하여 설정된 유엔군의 작전통제선.

345) 캔자스(Kansas)선: 유엔군이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임진강 하구-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여 설정한 작전통제선.

에 전초(Dick)를 운용하였고, 그 전방에는 무수한 철조망, 부비추랩, 지뢰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대대의 정찰활동은 전초 부근으로 한정되었다.³⁴⁶⁾

대대정면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지대를 사이에 두고 쌍방이 정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어 7월 초까지 소강국면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선제공격에 나선 중공군은 8일 정찰대간의 조우전을 벌인 데 이어 10일 전초진지(Dick)에 500여 발의 박격포 사격을 집중한 후 진내로 접근하였다. 수 미상의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대대는 사전 계획된 탄막사격을 실시하였고, 전초부대들은 기관총사격으로 대응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7월 중순 휴전을 목전에 두었으나 의외로 대대정면에서는 중공군의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대대는 이들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휴전이 임박한 18일 밤에 중공군은 20분 동안 200여 발을 포격한 후 전초(Dick)로 포위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전이 재연되었다. 이 기습공격에 의표를 찌린 대대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여 이들을 격퇴하였으나, 이날의 전투에서 5명을 사살한 반면 전사 5명, 부상 44명의 손실을 입었다.³⁴⁷⁾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증가산 전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대대의 마지막 전투로 기록되었고, 대대는 휴전협정에 따라 5km 남쪽의 한탄강변의 양지리(陽地里)로 이동하여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후 대대는 월남의 상황이 악화되자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53년 10월 23일부터 제대별로 인천항을 통해 월남으로 이동하였다.

3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53.

3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55.

3.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육 군	프랑스 대대	1950. 11~1953. 10	미 제2사단 배속
해 군	La Grandire함	미 상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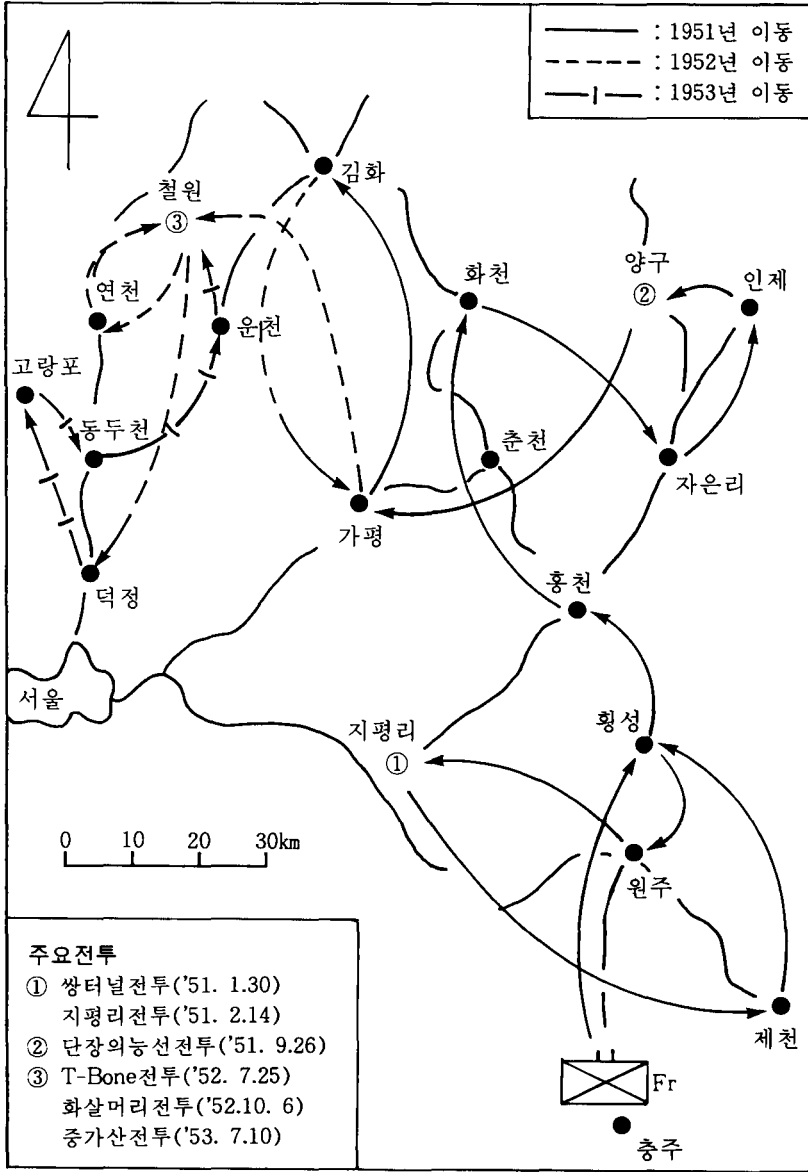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1,289	262	1,008	7	12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29	프랑스 대대, 부산 상륙
	12. 13	수원으로 이동 미 제2사단 배속
	12. 21	충주로 이동
	12. 24	무속동 부근 저지진지 점령
1951	1. 4	원주를 경유 횡성 진출
	1. 10	원주 남쪽 247고지에서 북한군과 격전
	2. 1	쌍터널에서 중공군과 격전
	2. 13	지평리에서 중공군과 격전
	2. 22	미 제2사단예비, 제천으로 이동 부대정비
	3. 5	제천 북쪽 1126고지에서 북한군과 격전
	4. 8	38도선 돌파 오음리 진출
5. 1	자은리로 진출 홍천-인제 도로 방어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5. 17	가리산 남쪽에서 중공군과 격전
	5. 28	중공군을 추격 인제 진출
	7. 15	인제에서 부대정비 후 후덕리 진출
	9. 15	사태리 계곡 동쪽 841고지 공격
	9. 26	단장의 능선 931고지 공격
	10. 22	가평으로 이동 부대정비
	12. 18	김화 남쪽 와수리 진출
1952	3. 7	정찰대, 사동 부근에서 중공군과 교전
	4. 28	가평으로 부대정비 및 제9군단 지휘소 경비
	7. 18	T-Bone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10. 6	화살머리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1953	1. 4	미 제23연대에서 제38연대로 배속 전환
	1. 25	임진강 북쪽의 송곡리 진출
	2. 22	프랑스 Juin 원수 전선 시찰
	2. 24	송곡리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
	4. 27	지포리로 이동 중부전선 복귀
	6. 20	철원 북쪽 중가산 진출
	7. 1	Dick 전초진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프랑스 대대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8절 필리핀(Philipp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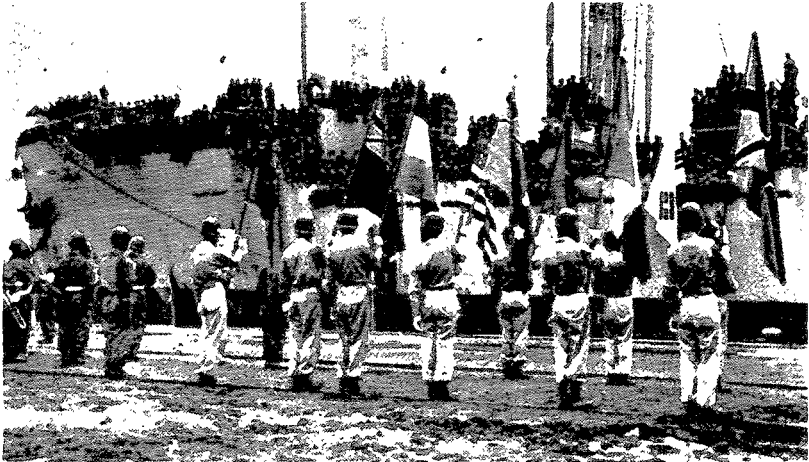
1. 참전경위

필리핀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4년 전에 독립하였으나 줄곧 공산반란군(Hukbalahaps)과 교전상태에 있어 국내정세가 매우 불안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유엔이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먼저 전차 17대의 지원 제의에 이어 8월에는 5,0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 파견을 발표하였다.³⁴⁸⁾ 이 제의는 필리핀의 어려운 국내상황을 감안하면 실행 여부는 의문시되었다. 그럼에도 미 합참은 당시 필리핀 주재 미 군사고문단장 홉스(Leland S. Hobbs) 소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필리핀을 참전시킴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아시아에서 백인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을 들어 필리핀군의 파병을 승인하였다.

이 무렵 국군과 미군이 낙동강방어선으로 밀려나고, 병력소요가 급증하자 미국과 필리핀은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의 파병에 합의하였고, 이에 공산반란군 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 중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제10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³⁴⁹⁾ 제10대대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1,367명으로 3개 소총중대, 수색중대, 그리고 경전차,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등 제 병과를 망라한 지원중대를 편성함으로써 독립전투능력을 갖춘 대대전투단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리고 최초 8주로 예정한 교육훈련이 2주로 단축되자 대대는 교육훈련에 더욱 매진하였다.

34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0.

3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1.



부산에 도착한 필리핀 제10대대

출동준비를 완료한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이하 ‘필리핀 대대’로 약칭함)은 1950년 9월 2일 6만 시민이 운집한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Rizal Memorial Stadium)에서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파 병장병 환송식에 참가한 후 유엔군이 인천상륙을 개시하던 9월 15일 미 수송선(Stg. Sylvester Antolak)에 승선하여 마닐라(Manila)항을 출발하였다. 수송선은 필리핀 구축함과 전투기 편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한국으로 이동하였다.

필리핀 대대는 항해 4일째인 9월 19일 해질 무렵 부산에 도착하였고, 한국 정부 대표와 주한유엔 대표 및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선상에서 1박을 한 대대는 20일 아침에 부대를 앞세우고 상륙함으로써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지상군 참전국이 되었다.³⁵⁰⁾ 필리핀 대대는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어 상륙 즉시 열차 편으로 밀양으로 이동하여 현지적응훈련에 들

3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2.

입하였고, 이때 대대는 대유격전훈련, 총검술, 소부대전술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10일 만에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대대는 9월 28일 낙동강선에서 진주-남원-군산으로 진격중인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10월 1일 진주 남쪽의 사천(泗川)으로 이동하여 비행장 경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신계 부근 전투

북한군을 추격하여 청천강 부근으로 진출한 유엔군이 최종공세를 준비하자 미 제9군단에 배속된 대대도 이 공세작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때 퇴로가 차단되어 철수하지 못한 패잔병들이 유엔군의 주보급로인 서울-평양-안주 도로를 교란 및 차단을 기도하자 11월 1일 평양으로 이동한 필리핀 대대는 공세작전 참가를 잠시 보류하고 미 187공수연대에 배속되어 개성-평양 간 도로를 경비하게 되었다.³⁵¹⁾ 3일 황주로 이동한 대대는 주요거점인 중화에 C중대, 남천점에 B중대, 한포리(汗浦里)에 수색중대, 해주에 특수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패잔병 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³⁵²⁾

5일 지역치안대로부터 기관총으로 무장한 게릴라들이 황주 외곽에 잠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대대는 A중대를 증강시켜 정찰대로 파견하여 이들의 은신처인 민가를 기습공격하였다. 정찰대가 피해 없이 다수의 북한군을 생포하고 기관총, 소총, 탄약 등을 노

35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61.

3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

획함으로써 대대는 참전 이후 처음으로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때 대대는 지방자위대를 적극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도록 민사활동도 강화하였다.³⁵³⁾

그리고 대대는 제187연대로부터 “신계(新溪) 부근 미우리(尾隅里)에서 활동중인 2개 대대규모의 패잔병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11일 아침 남천점에서 B중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선두제대가 미우리로 접근할 무렵 적이 매설한 대전차지뢰의 폭발음을 시작으로 주변 야산에 매복중이던 북한군이 집중사격을 가해왔다. 이에 대대도 즉각 산개하여 105mm 곡사포 사격으로 대응하였고, 이날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특히 대대가 81mm 박격포로 백린탄을 사격하여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자 패잔병들이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길목에 매복하고 있던 A중대의 집중사격에 걸려 격멸되었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적 시체 42구를 확인하고 저녁 무렵 남천점으로 복귀하였다.³⁵⁴⁾

이때 또 다른 북한군의 일부가 은점리(銀店里) 일대를 점령하고 신막과 신계를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81mm 박격포로 증강된 중대규모의 기동타격대로 이 적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동타격대로 선발된 A중대는 12일 이 적을 공격하였다.³⁵⁵⁾ 중대는 이동중에 소수의 북한군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격멸하고 은점리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서 규모 미상의 대규모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자 포위를 우려한 중대는 접적을 끊고 철수하였다. 대대는 유엔군의 총반격이 24일로 결정되자 18일 사리원에 집결하여 A·C중대를 청천강 지역으로

3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8.

3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0.

3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0.

파견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엄호하도록 하고 잔여부대들은 계속하여 평양-예성강 사이의 후보급로를 경계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보름 동안 개성-황주 도로의 차단을 기도하는 북한군 패잔병을 격멸함으로써 유엔군의 병참선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2) 군자산 부근 전투

유엔군이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자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이 선의 방어력을 보강하고 적의 공세준비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타-와이오밍선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이 돈틀리스작전(Operation Dauntless)을 개시하자 미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 대대도 전곡을 경유 구석동(龜石洞)으로 이동하여 공격을 준비하였다. 대대는 11일 07:00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임진강 동쪽 진상리(進祥里) 일대의 고지군에 배치된 적이 자동화기 사격을 집중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여 대대의 공격은 의외로 부진하였다. 정오 무렵 적의 저항 정도가 갑자기 악화되어 공격중대들은 진상리 일대의 고지군으로 돌격을 개시하였고, 아군 포격을 견디지 못한 중공군은 시체 28구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³⁵⁶⁾ 12일 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이 군자산(君子山) 남쪽 고지군에 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공격이 돈좌되었다. 대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 출동한 항공기는 네이팜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적진이 혼란된 틈을 이용, 대대가 공격을 재개하자 이 포격에 큰 손실을 입은 중공군이 54구의 시체를 유기하고 철수함으

3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01.

로써 대대는 최종목표인 257고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였다.

13일 아침에 공격을 재개한 대대는 포도송이 같은 연봉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진출하였다. 그러나 적이 어제보다 훨씬 증강된 야포사격과 소화기 사격을 집중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대의 목표점령은 의외로 지연되었다. 이에 대대는 항공폭격, 우인접에서 전곡-연천 도로를 따라 진출중인 전차포 사격, 대포병사격의 지원을 받아 최종목표인 군자산(君子山) 서쪽의 257고지 일대를 탈환함으로써 대대의 진격작전은 공격개시 3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후 우인접 부대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유탄선의 서쪽 기점을 점령한 대대는 임진강을 감제할 수 있는 선곡리(仙谷里)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이 전투에서 탄우 속을 뚫고 들어가 적의 기관총을 파괴시킨 소총수, 부상당한 채 끝까지 화력지원을 한 경기관총 사수, 그리고 사선(死線)을 넘나들며 부상자를 후송한 위생병은 장병들의 귀감이 되어 필리핀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다.³⁵⁷⁾

(3) 울동전투

대대는 중공군의 춘계가 임박한 4월 22일 새벽에 신부(神父)의 축도가 끝나자 전곡을 출발하여 전운의 긴장이 감도는 연천 북쪽의 울동(栗洞)으로 이동하여 미 제65연대의 주저항선 일부를 인수하였다. 이때 우인접에는 터키 여단이 철원-연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터키 여단에서 포획

3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102~103.

한 중공군 포대장이 이날 밤 중공군이 총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대대는 개인호와 교통호의 보장은 물론 예상접근로에 대한 희망구성도 재점검하는 등 방어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중공군은 20:00을 전후하여 피리, 호각 등 괴성을 울리면서 우인접 터키 여단을 먼저 공격하였다. 아군의 탄막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였고, 23:00경 이들의 공격은 필리핀 대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³⁵⁸⁾ 이때부터 전방중대들은 자정까지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맞아 예측불허의 일전을 벌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었고, 급기야 23일 01:00경 중공군 1개 대대규모가 중대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함으로써 우전방 B중대의 일부 진지가 돌파되었다. 이후 중대는 1시간 동안 수차에 걸쳐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무렵 중앙의 특수중대도 소대장이 전사하는 등 분전하였으나 일부 진지를 피탈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대대지휘소도 후방으로 침투한 중공군을 맞아 행정요원들을 동원하여 이 적과 교전중에 있어 대대는 혼란상황에 빠져 들었다.³⁵⁹⁾

이런 상황에서도 대대는 새벽까지 우전방 B중대 지역만 돌파된 채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대대는 피탈한 우전방 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비로 대기중인 C중대로 역습을 계획하였으나 미 제3사단의 철수명령으로 역습을 포기하고 09:00에 한탄강 부근의 캔자스선으로 철수하였다. 이 철수과정에서 지난밤 중공군의 포격으로 통신이 두절된 중앙의 특수중대는 주력부대의 철수상황을 모른 채 계속 진지를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중대장은 지난밤에 피탈한 진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역습을 준

3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18.

3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09.

비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특수중대와 통신이 연결되자 대대장은 즉각 철수를 종용하였으나 중대장은 전우들의 시체라도 수습한 후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후 특수중대는 피탈된 고지로 진출하여 다수의 전사체를 수습하였으나 이번에는 진두에서 지휘하던 중대장 압(Yap) 대위가 적의 사격에 희생되었다.³⁶⁰⁾ 이후 특수중대는 부상자와 전사자를 수습한 후 철수를 하였지만 이미 적중에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수중대는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진을 돌파하고 일몰 무렵 대대 주력과 합류함으로써 울동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춘계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의 주력부대를 저지시켜 우인점 부대들이 철수할 시간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그들의 책임감과 용맹성은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4) 신산리 전투

혈전으로 점철된 울동전투를 마친 필리핀 대대는 감악산 일대를 방어중인 영 제29여단의 상황이 악화되자 잠시 휴식도 없이 이날(23일) 20:00경 신산리(華山里)로 이동하여 제29여단의 예비가 되었다.³⁶¹⁾

이 무렵 제29여단의 좌전방으로 적성(積城) 일대를 방어한 글로스터대대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설마리(雪馬里)고지에서 고립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29여단장은 필리핀 대대에 전차를 증원시켜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대는 24일 07:30에 우전방 C중대는 경전차를 앞세우고 적성-신산리 도로

3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10~111.

36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396.

우측으로, 좌전방 A중대는 도로 좌측의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공격은 이미 글로스터대대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이 도로를 좌우측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인 366고지와 349고지 일대로 진출하여 이곳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쳐 공격이 돈좌되었다.³⁶²⁾

이에 대대는 오전 내내 적의 양 거점으로 전차 및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하였고, 공격중대들이 이들을 추격하자 전차를 앞세운 대대 주력도 공격을 재개하여 15:00경에는 험준한 사기막 고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글로스터대대의 구출을 목전에 둔 공격제대들은 공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나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선두에서 대대의 공격을 주도하던 M-24 경전차가 애로지역으로 도로폭이 좁아진 협로로 진출할 무렵 적이 매설한 지뢰에 걸려 파괴됨으로써 설마리고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차단되었다. 그리고 중공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지에서 기관총 사격을 난사함으로써 대대는 또 한 차례 혼란상황에 빠져들었다.³⁶³⁾ 이때 제10대대가 고지의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자 제29여단에서 배속된 센추리온전차(Centurion 20-Pound Gun Tank)가 선두로 나서 파괴된 전차를 제거하고 통로를 열었다. 이러한 공격제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공격제대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였다. 중공군의 박격포 및 야포사격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된 센추리온 전차는 차폭이 넓어 좁은 협로를 통과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대대가 단독으로 적의 차단선을 돌파하고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pp. 73~74.

3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113~114.

전방상황을 보고받은 여단장은 공격제대에 구출작전을 중지하고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³⁶⁴⁾ 이 명령에 의거 공격제는 보전협동으로 중공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19:00경 최초 출발지인 신암리(神巖里) 부근으로 철수하여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필리핀 대대는 전사 1명, 부상 10명, 실종 17명의 손실을 입었다. 필리핀 대대는 미 제65연대 주력과 함께 25일 글로스터대대 구출작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미 제3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진강변을 따라 전곡으로 진출중인 중공군을 저지하는 데 투입됨으로써 필리핀 대대의 구출작전은 무산되었다.

(5) 에리(Eerie) 기습공격

1951년 9월 5일 필리핀 제10대대와 임무를 인수한 필리핀 제20대대는 해빙기를 맞아 적의 활동이 빈번할 무렵인 1952년 4월 29일 제임스타운선상의 갈화동(葛花洞)으로 이동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 이때 대대정면에는 중공군의 주저항선에서 반도처럼 뺏어 내린 티본(T-Bone) 능선이 있고, 그 끝자락에는 1개 소대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섬 모양의 에리(Eerie)고지가, 그리고 500m 북쪽에는 아스날(Arsenal)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최초 이 지역은 아군의 전초진지였으나 지난 3월 하순 중공군의 공격으로 무인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대대가 이 지역으로 진출할 무렵 중공군이 이 고지에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에 미 제45사단은 아군의 제임스타운선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이 고지에서 중공군을 몰아내기로 방침을 정하였다.³⁶⁵⁾

이리하여 대대가 5월 18일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

3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p. 78.

3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39.

전투가 시작되었다. 정찰대가 09:00경 에리고지를 기습공격하자의표를 쫓던 중공군이 후방 아스날고지로 철수함으로써 정찰대는 복귀하였다. 그러나 적은 정찰대가 철수하자마자 다시 에리고지로 재진출하였다. 이에 대대는 오후에 1개 소대를 투입하여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여 28명을 사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소대가 철수하자 중공군은 야음을 이용하여 이 일대에 다시 전초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19일에도 2차례나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중공군은 대대가 철수하면 곧바로 병력을 투입하여 전초로 운용하였다.³⁶⁶⁾

이에 대대는 이번 기회에 적을 완전 격퇴시킬 목적으로 21일 항공기, 전차, 포병 등 전 화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날 새벽에 저격조, 척후조, 소총조로 구성된 44명의 특공대는 기도비닉을 유지한 채 전진으로 접근하였고, 계획대로 07:00 항공폭격에 이어 전차, 포병사격이 실시되었다. 이 사격으로 적진이 혼란한 틈을 타 특공대는 에리고지로 진출하였고, 교통호로 연결된 8개의 엄체호에 잠복한 중공군도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때부터 척후조와 소총조는 저격조의 엄호하에 수류탄전으로 얼룩진 혈전을 벌여 적이 구축한 진지와 교통호를 파괴하였다.

이 무렵 기습을 눈치챈 중공군은 07:30경부터 박격포탄을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특공대는 민첩한 행동으로 적진을 이탈하였고, 아군 전차는 적의 관측과 추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에리고지 정상으로 백린탄을 사격하였다. 이 틈을 타 특공대는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³⁶⁷⁾

이 전투에서 대대는 사전에 준비된 기습공격에 따라 신속한 행

3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39.

3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42~143.

동과 강인한 책임감, 감투정신으로 30여 분 만에 7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로써 필리핀 대대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지쟁탈전에서 새로운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6) 에리(Erie)고지 방어전투

필리핀의 세 번째 지상군인 제19대대는 1952년 6월 15일 제20대대가 방어한 바 있는 갈화동 부근의 주저항선과 아스날(Arsenal), 에리(Erie), 안클(Uncle), 요크(Yoke) 전초진지를 인수하였다.³⁶⁸⁾

중공군은 전투경험이 일천한 대대가 진지를 교대한 취약점을 이용하려는 듯 18일 전초진지를 집중포격하였고, 이에 대대도 박격포와 지원포병으로 대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대는 아스날고지에 L중대를, 에리고지에 수색중대를 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19일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대대의 방어상태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아스날고지의 L중대를 공격하였으나 중대가 화력을 집중하여 이 적을 격퇴시켰다. 이 과정에서 적의 포격으로 1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공군이 물러나자 전선은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20일 22:00를 전후하여 적의 대구경 포탄이 아스날, 에리 전초로 집중되었고, 이 포격은 20여 분 간 계속되었다. 이때 전초진지에는 분당 70~80여 발의 포탄이 떨어져 전초중대들은 고개도 들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다행히 전초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사한 조명탄이 터지면서 1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전초를 포위공격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에 대대는 지원화력과 대대 전 화력을 전초진지로 집중하였고, 전초중대들도 이에 가세하였다. 이러한 사격은 1시간

36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8.

이상 계속되었고, 이 포격을 견디지 못한 중공군은 자정 무렵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전초에서 물러난 지 1시간도 채 못 되어 재편성한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공군은 아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듯 이번에는 대대의 아스날, 에리 전초와 좌인접 미군 전초인 포크참(Porkchop) 전초를 동시에 공격하였다. 연대규모로 증강된 중공군은 전차의 엄호하에 아스날, 에리 전초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대는 지원화력과 대대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일부는 탄막사격을 뚫고 진내로 접근하였고, 전초중대들은 이들을 맞아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벌였다. 적의 그칠 줄 모르는 파상공격은 계속되었고, 전초중대는 소대장들이 전사하는 등 역경을 맞기도 하였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혈전을 벌였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공격하다 지친 중공군이 다수의 사상자들을 유기한 채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³⁶⁹⁾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적 전차 2대를 파괴하고 65구의 시체를 확인한 반면 전사 8명, 부상 16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날 4시간여 동안의 격전에서 필리핀 제19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2개 연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전초진지를 고수함으로써 다시 한 번 그들의 강인한 책임감과 용맹성을 과시하게 되었다.

(7)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필리핀의 네 번째 부대로 파견된 제14대대는 1953년 4월 3일 제19대대와 교대하였다. 대대는 휴전이 임박할 무렵인 5월 17일 필리핀 제19대대가 배치된 바 있는 가칠봉(加七峰) 서쪽의 사태리

3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48.

계곡으로 진출하여 미 제45사단 제180연대의 진지를 인수함으로써 참전 이후 처음으로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³⁷⁰⁾ 대대가 단장의 능선에 투입된 지 이틀도 채 못 된 19일 자정 무렵 적은 대대의 방어상태를 탐지할 목적으로 1개 소대규모로 기습공격을 가해 왔으나 대대가 이들을 격퇴시켰고, 이후 전선은 쌍방 정찰대간의 조우전만 있을 뿐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대대는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중공군의 최종공세가 임박할 무렵인 7월 9일 백석산(白石山) 부근으로 이동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³⁷¹⁾ 좌인점 금성 돌출부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인 15일 중공군의 일부가 제45사단 제180연대가 배치된 크리스마스고지를 공격함으로써 이곳에서도 격전이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고지를 방어하던 제180연대 K중대가 5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고지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자 제180연대장은 즉각 I중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개시하도록 하고, 동시에 저지진지에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 대대는 2개 중대를 파견하여 미군을 증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필리핀 대대의 B중대가 크리스마스고지에 도착할 무렵 역습을 개시한 미 I중대의 공격은 고지 정상 부근에서 돈좌된 상황이었으나 B중대가 화력을 지원하자 I중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크리스마스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이전에 한치의 땅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고지 좌측방을 방어중인 미 제180연대의 G중대를 공격하였고, 이 전투는 다음날까지 계속되었으나 G중대는 필리핀 B중대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550여

3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52.

3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54.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하였다.³⁷²⁾

크리스마스고지 전투가 일단락되자 대대는 17일 미 제279연대로 배속이 변경되어 지난 6월 중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M1고지 바로 남쪽의 전초진지로 이동하였다. 18일 21:30 청음초가 적의 접근을 알렸고, 대대는 이들을 철조망 지대로 유인하였다. 잠시 후 지원포병의 조명탄이 터짐과 동시에 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였다. 적도 화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적은 대대의 화력을 견디지 못하여 물러났다. 증강된 중공군은 22:30경 재공격을 기도하였으나 이마저 대대가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³⁷³⁾

그리고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27일 적은 그들의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 대대지역으로만 1,000여 발을 사격하였고, 대대도 즉각 대응하여 2,000여 발을 사격하였다. 그러나 휴전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포격에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장병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제14대대는 휴전을 목전에 둔 이 전투에서 한치의 땅도 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전초진지를 고수함으로써 전술적 요지인 크리스마스고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남게 되었다.

3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55.

3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56.

3.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제 10 전 투 단	1950. 9~1951. 9	미 제3사단 배속
제 20 전 투 단	1951. 9~1952. 6	미 제45사단 배속(1952. 4)
제 19 전 투 단	1952. 6~1953. 4	" (1952. 6)
제 14 전 투 단	1953. 4~1954. 4	" (1953. 4)

(2) 인적피해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468	112	299	1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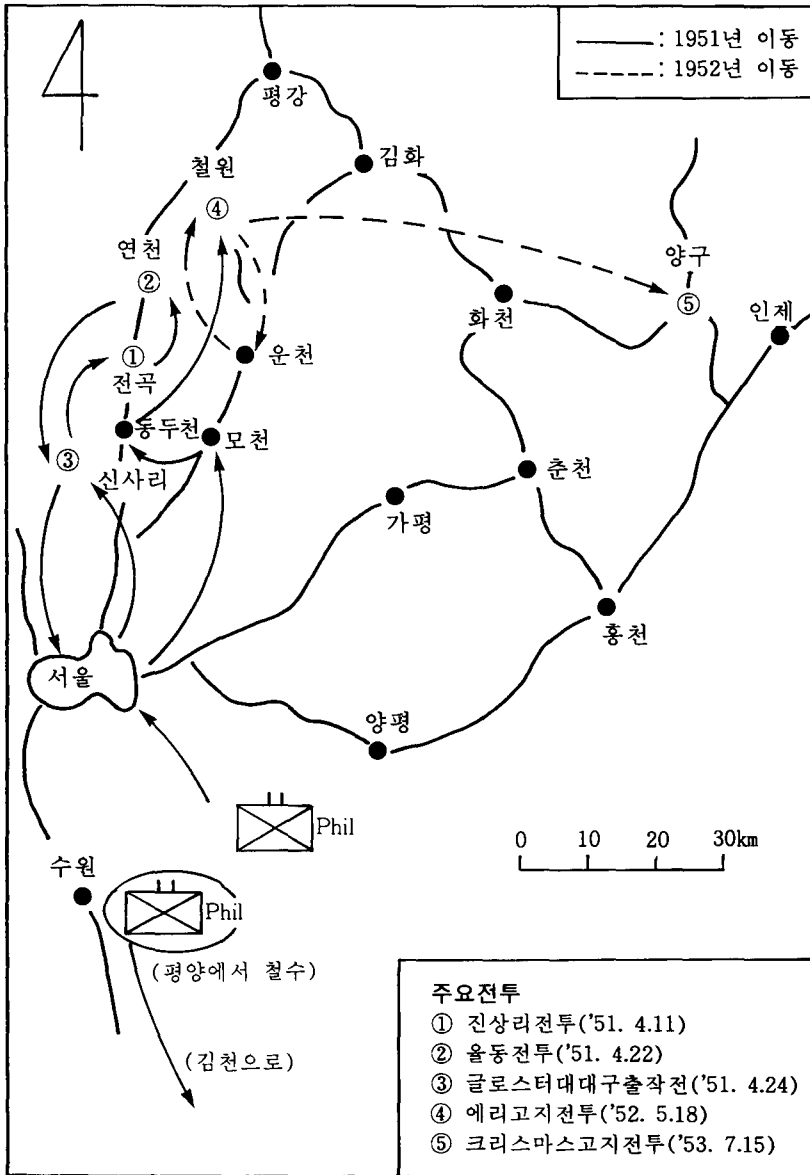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9. 19	제10대대, 부산 도착
	9. 28	밀양에서 미 제25사단 배속
	10. 1	사천으로 이동 비행장 경비
	10. 10	왜관으로 이동 대구-김천 도로 경비
	11. 1	평양으로 이동
	11. 3	황주로 이동 개성-평양 도로 경비
	11. 11	미우리에서 게릴라 소탕작전
	11. 18	사리원 집결, A·C중대 청천강 지역에서 후방지역 경계
	12. 8	대둔산 부근 게릴라 소탕작전
	12. 13	문산 경유 수원으로 철수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1. 14	제8군예비, 대구-김천, 영동-보은 도로 경비
	3. 8	판교리로 이동, 미 제3사단 배속
	3. 20	북한산 경유 송추 진출
	3. 30	임진강 남쪽 적성 진출, 영 제29여단 배속
	4. 4	동두천 남쪽 송내리로 이동, 미 제3사단 예비
	4. 11	임진강 동쪽 진상리 공격
	4. 13	257고지 점령 유탄선 진출
	4. 22	연천 북쪽 울동 진출, 중공군 4월공세 개시
	4. 23	중공군과 결전 후 토교장으로 이동, 영 제29여단 예비
	4. 24	글로스터대대 구출작전
	5. 24	미 제25사단 배속 토페카선 진출전
	5. 30	켄자스선상의 은장산 점령
	6. 12	철원 남쪽 학저수지 진출, 와이오밍선 점령
	6. 27	한탄강변 용호동 일대 방어
	7. 14	사기막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
	9. 5	필리핀 제10대대와 제20대대 교대
	10. 5	필리핀 제20대대 도밀리 부근 제임스타운선 진출
11. 22	임진강 서쪽 고양대 진출	
11. 23	고왕산 공격 지원	
1952	2. 26	임진강 동쪽 계호동 진지 점령
	3. 17	그리스 대대의 165고지 전투화력 지원
	4. 11	한탄강변 신답리로 이동, 미 제45사단 배속
	4. 29	갈화동 부근 주저항선 배치
	5. 18	Eerie 전초 기습공격
	6. 10	필리핀 제20대대, 제19대대와 교대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6. 15	필리핀 제19대대, 갈화동 부근 주저항선 배치
	6. 20	Arsenal, Eerie 전초에서 중공군과 격전
	7. 19	중동부전선 양구로 이동
	9. 21	해안분지 동쪽 서화리 진출, 북한군과 대치
	11. 27	인제로 이동, 사단예비
1953	2. 3	가칠봉 주저항선 진출
	4. 3	필리핀 제19대대와 제14대대 교대
	5. 17	제14대대, 단장의 능선 진출
	7. 6	백석산 저지진지 점령
	7. 15	크리스마스고지 역습
	7. 18	M1고지 남쪽 진출

필리핀 대대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9 절 터키(Turkey)

1. 참전경위

터키는 한때 중립을 표방하기도 하였으나 중동 및 발칸반도가 세계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측에 가담하고 친서방정책으로 선회한 국가로서 유엔의 대한 군사원조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터키 정부는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파병요청을 제의 받자 단시일 내에 4,5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함으로써 유엔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³⁷⁴⁾ 그러나 미 합참본부는 터키군의 파병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였고, 4,500명의 파병이 터키군의 전력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파견을 승인하였다.³⁷⁵⁾

터키군의 파견이 확정되자 터키 육군은 8월 3일 제28사단 예하의 제241연대와 제2기갑의 제2포병대대를 주축으로 전투부대를 편성한 후 터키 제8군단 제4관구에서 공병, 수송, 병기, 통신, 의무부대를 차출하여 지원부대를 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을 보유한 제1여단을 창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9월 10일 제2기갑 여단장인 야지시(Tahsin Yazici) 준장을 초대 여단장에 임명하는 등 지휘부도 구성하였다.

터키 제1여단은 한국전쟁에서 증원병력의 소요가 긴급하자 9월 13일까지 각 병과별로 단기간에 보충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으나,

3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89.

375)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0.



터키군의 부산 도착

탄약부족으로 실탄사격훈련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5,090명으로 편성된 여단은 14일 출병준비를 위한 최종점검을 마치고 20일 지중해의 항구도시인 이스켄데룬(Iskendrun)에 집결하였고, 이들은 간단한 환송식을 마친 다음 3개 제대로 나누어 대기중인 미 수송선에 승선하였다. 이리하여 제1제대는 25일, 제2제대는 26일, 그리고 제3제대는 29일 각각 터키를 출발하였다.

제1여단은 항해 도중에도 파견된 5명의 미군연락장교단으로부터 미식무기의 사용법을 비롯한 사격술, 전술 및 보전포협동작전 등을 교육받았다. 여단은 21일간의 긴 항해 끝에 10월 17일 부산에 도착한 후 20일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하였다.³⁷⁶⁾ 이

3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90.

때 여단은 한강이남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과 주보급로 경비 임무를 수행중인 미 제9군단에 배속되었다.

여단은 미군으로부터 지원된 신장비 및 병기를 수령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반납함으로써 M-1 소총으로부터 105mm 곡사포, 그리고 다수의 차량장비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여단은 대구-대전 간의 주보급로 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실탄사격훈련은 물론 보전 포협동작전까지 완료하고 출동에 대비하였다.

2. 지상군의 활동

(1) 군우리 전투

터키 여단은 11월 13일 장단으로 이동하여 잠시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한 후 20일 군우리(軍隅里)로 이동하여 미 제9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11월 24일 최공공세를 개시한 유엔군의 주력부대는 중공군의 역공에 말려 공격이 둔좌되었고, 우인접 국군 제2군단의 태천(泰川)지역을 돌파한 중공군이 군단의 우측방을 위협하자 터키 여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6일 와원(瓦院)으로 진출하였다.³⁷⁷⁾ 28일 일출 무렵 중공군이 포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여단은 참전 이후 처음으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여단은 하루 종일 적의 과상적인 공격을 저지한 후 일몰 무렵 방어진지 편성이 용이한 신립리(新立里)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무렵 장병들의 사기는 배고픔, 추위 그리고 첫 경험한 중공군의 과상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겹쳐 극도로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단과

37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71.

도 교신이 두절되어 화력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³⁷⁸⁾

자정이 지날 무렵 중공군이 박격포 사격을 집중한 후 돌파를 기도하였다. 이에 전방대대들은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 중공군과 근접전투를 펼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어정면이 축소되고 사상자가 속출되면서 돌파될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29일 11:00경 여단을 지원차 출격한 우군기가 신립리 일대를 폭격하자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였고, 주력부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여단에서 파견된 전차의 엄호하에 봉명리(鳳鳴里)로 철수하여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터키군을 추격한 중공군은 봉명리를 압박하였고, 이때 중공군의 일부는 여단을 우회하여 개천-군우리 도로의 요충인 용복리(龍伏里)를 차단하였다. 중공군의 집중포격이 개시되자 여단장은 시간이 경과하면 퇴로가 차단되어 오히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중대단위 이하의 소부대로 분산하여 군우리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³⁷⁹⁾ 이때부터 여단은 분산된 채 군우리로 철수하였으며, 선발대가 적의 차단선을 통과할 무렵에는 적의 기관총 사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여단의 좌인접을 방어한 미 제38연대마저 이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도로는 미군과 터키군의 병력과 장비들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이런 와중에서 분산 철수한 여단은 30일 새벽 무렵 군우리 부근에 집결하였으나 먼저 철수한 제2대대가 미군 차량 편으로 안주(安州)로 철수하였고, 이어서 여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도 퇴로가 차단당하자 안주로 철수함으로써 여단은 사실상 전력이 와해되었다.³⁸⁰⁾

37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214.

379)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p. 216.

3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320~321.

이후 여단(一)은 28일부로 배속된 미 제2사단과 함께 군우리—순천 도로를 차단한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철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재정비가 없이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여단은 12월 3일 개성으로 이동함으로써 군우리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2) 금양장 전투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37도선에서 재정비를 완료한 유엔군이 재반격작전(Operation Thunderbolt)을 개시하자 미 제25사단의 공격제대가 된 터키 여단도 1951년 1월 24일 안성으로 진출, 공격개시선인 오산—송전리 선을 점령하였다. 이때 여단은 공격정면이 넓어 좌전방 제3대대는 신갈(新葛) 남쪽의 151고지를, 우전방 제2대대는 금양장(金良場)을 공격하게 되었다.³⁸¹⁾ 25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한 제3대대는 접적이 경미하여 순조롭게 진출하는 듯하였으나 고매리(古梅里)를 감제할 수 있는 187고지로 접근하면서부터 중공군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공격이 일시 둔좌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화력을 집중한 후 고지로 돌격하여 백병전 끝에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26일 아침 대대는 고매리 부근에서 미처 피난가지 못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쪽의 151고지로 접근하였다. 이에 맞선 중공군은 아침부터 계속된 아군의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기관총과 수류탄을 난사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대대의 공격은 빈번히 둔좌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군우리 전투에서 명령 없이 철수하여 당한 치욕적인 수모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 위하여 작렬하는 탄막 속을 뚫

3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28.

고 용감하게 전진하였다.³⁸²⁾ 후에 판명되었지만 적은 아군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였고, 사주방어진지 내에는 박격포진지까지 구비한 강력한 방어거점이었다. 대대는 17:30 지원된 미 전차의 화력지원을 받아 총검이 부딪치는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며 151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금양장리를 공격한 제2대대도 첫날(25일)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금양장리를 강제할 수 있는 남쪽 고지로 진출하였으며, 정찰 결과 적은 장호원을 가로지르는 수원-장호원 도로 북쪽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6일 09:00 제2대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시가지로 진출하자 적은 집중사격으로 대대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대는 전 화력은 물론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적진을 강타한 후 공격을 재개하여 일몰 무렵 시가지만 확보하였다.³⁸³⁾ 그러나 중공군의 야간공격을 우려한 대대는 명일 재공격을 개시하기로 하고 금양장에서 물러났다. 대대는 다음날(27일) 08:00에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전날 야간에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당시 터키 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오점을 남겼으나 이 금양장 전투에서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적 시체만 474구를 확인하게 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그들의 용감성은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또 이 전황은 외신기자들에 의해 전세계로 타전됨으로써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게 되었다.³⁸⁴⁾

38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378.

383) Billy C. Mossman, op. cit., p. 243.

3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37.

(3) 장승천 전투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캔자스(Kansas)선으로 진출한 터키 여단은 1951년 4월 5일 유타(Utah)-와이오밍(Wyoming) 선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여 21일 연천-철원 도로 우측 장승천(長承川)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날(22일) 여단 주력이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동안 좌전방 제6중대 정찰대는 중공군 정찰대와 조우하여 15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였다. 이때 포로가 된 중공군 관측장교는 20:00부터 실시될 공격에 앞서 표적선정차 전방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³⁸⁵⁾ 또한 미 제8군사령관도 적의 공세정황이 현저하게 증가되자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중공군의 포격은 예상한 대로 일몰부터 시작되었고, 이 포격은 19:15경 여단정면으로 집중적으로 낙탄되었다. 특히 적의 포격은 예비인 제3대대 지역과 와둔(瓦屯)골에 위치한 포병진지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중공군은 20:00를 전후하여 여단 전 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고, 특히 이들이 여단의 양측방 전투지경선을 따라 2개 연대규모를 투입하여 후방진출을 기도하였다.

제1여단은 수적인 열세는 물론 진지도 미처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공군을 맞아 사력을 다해 이들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좌인접 펠리핀 대대와 전투지경선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일부는 여단의 통신시설을 파괴하였고, 우인접 미 제24사단과 전투지경선으로 공격한 중공군은 후방의 예비대 지역까지 침투하였다. 이때 우전방 제9중대는 1시간 동안 적과 격렬한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포병관측장교가 전사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물러나기 시작하

3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55.

였다.

터키 여단의 상황이 악화되자 미 제25사단장은 자정 직전에 여단장에게 한탄강 남쪽의 캔자스선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³⁸⁶⁾ 그러나 이때 이미 우측방을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철수로상의 요충인 나미현(羅尾峴)을 방어중인 제1중대 경계소대를 포위공격함으로써 여단의 철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³⁸⁷⁾ 그러나 여단은 이에 동요됨이 없이 예비인 제3대대의 엄호하에 포병대대, 전방대대 순으로 한탄강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우전방 제9중대는 불행하게도 중대장을 포함한 상당수가 부상을 입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중대도 분산 철수하여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서 여단은 전사 66명, 부상 35명, 실종 105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여단도 중공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지연시킴으로써 우인접 부대들이 안전하게 축차진지로 철수할 수 있게 되었다.

(4) 모래성(Sandbag Castle) 전투

터키의 두 번째 부대로 참전하여 1951년 11월 16일 제1여단과 교대한 제2여단은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을 완료한 후 1952년 2월 20일 중동부전선의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양구 북쪽 비아리(比雅里)로 이동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³⁸⁸⁾ 이때까지만 하여도 제2여단은 휴전협상의 영향을 받아 지상전이 교착됨으로써 격전을 치른 제1여단과는 달리 이렇다 할 전투를 경험하지 않았다. 제2여단은 사태리-양구에 이르는 사태리(沙汰里) 계곡을 통제하기 위하여

386)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 385.

38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p. 517.

3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70.

계곡 좌우측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여단의 우전방에는 모래성(Sandbag Castle: 1065고지) 전초로 알려진 유명한 전초가 있었다. 이 전초는 적과의 거리가 25m밖에 떨어지지 않아 서로 말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따라서 초병들은 민감한 반응 때문에 신경쇠약 현상이 나타나 전초근무는 1개월로 제한되었다.³⁸⁹⁾

3월로 접어들면서 해빙이 되자 12일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먼저 기습공격을 하였으나 여단이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에 맞선 여단도 눈앞에 걸림돌이 되는 적의 전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4월 18일 전광석화 같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40여 명을 사살 다수의 진지를 파괴하였다. 이때 여단특공대도 19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어 치명상은 입지 않았다. 이후 적은 5월 21일 500여 발의 폭탄을 집중한 후 1개 중대 규모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여단의 대응사격으로 21구의 사체만 유기한 채 격퇴되었다.

적이 물러나자 여단은 6월 5일 모래성 전초 10m 전방에 있는 돌출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더지처럼 파고들어가 이곳에 유개호를 구축함으로써 적과의 거리가 15m로 좁혀져 화젯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상황을 확인하고 하산하던 부여단장 파밀(Nuri Pamir) 대령이 적 포격에 전사하였다.³⁹⁰⁾

이 전초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여단은 7월 27일 월운리(月雲里)로 이동하여 미 제25사단 예비가 되어 제3여단과 교대준비를 하였다.

3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71.

3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73.

(5) 네바다 전초전

터키군의 세 번째 부대로 1952년 8월 20일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제3여단은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5월 2일 차량 편으로 고랑포(高浪浦) 지역으로 이동하였다.³⁹¹⁾ 여단은 4일 동안 미 제7해병연대로부터 서곡리-사내동-판부리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때 여단은 광정면을 방어하게 되자 3개 대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였고, 배속된 미 제14연대 제1대대를 예비대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좌전방 제1대대는 아바(Ava) 전초, 중앙의 제2대대는 카슨(Carson), 엘코(Elco), 베가스(Vegas) 전초, 우전방 제3대대는 베르린(Berlin)과 동베르린(East Berlin) 전초를 각각 운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네바다주의 도시명을 붙인 카슨(Carson), 엘코(Elco), 베가스(Vegas) 전초진지군은 지난 3월에 미 해병사단이 상실한 레노(Reno) 전초(155고지)를 정점으로 하는 ‘人’ 모양의 좌우측 능선 하단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들 전초진지는 군단 후방지역까지 감제관측할 수 있어 명령 없이는 철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³⁹²⁾

대대가 방어진지 보강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5월 16일 01:00경 중공군은 1개 대대규모는 베가스전초를, 다른 1개 대대규모는 우측의 베르린전초를 기습공격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3시간여 동안 치열한 포격전과 백병전을 벌이게 되었고, 새벽 무렵적이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전투가 있는 직후 적 후방지역에서 차량이동이 빈번함이 목격되었고, 또 무선도청으로 적의 재공격이 임박한 첩보도 입수되었다. 그리고 18일

3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76.

3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376~377.

귀순한 귀순병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여단은 적의 공격에 대비 각종 장애물을 보강하고 경계요원도 증강배치하였다.

5월 28일 해가 지면서 시작된 중공군의 포격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치열하였고, 20:00경 2개 대대규모는 베가스 전초를, 또 다른 2개 대대규모는 우인점의 베르린전초를 공격하였다. 이때 우전방 제3대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베르린전초를 고수하였으나 중앙의 제2대대는 베가스 전초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여단은 즉각 예비대를 투입하여 베가스 전초를 회복하였다. 쌍방은 베가스 전초를 두고 자정까지 3차에 걸쳐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3차에 걸친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중공군은 재편성을 한 후 29일 01:00경 베가스와 카슨, 엘코 전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초부대들은 포위된 상황에서도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초진지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말았다.³⁹³⁾ 여단도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역습부대의 투입, 부상자를 후송하고 탄약을 재공급하는 등 역습을 준비하였다. 새벽 무렵 근접항공지원에 이어 군단의 전 포병의 집중폭격이 끝나자 여단은 카슨전초 탈환을 포기하고 엘코와 베가스 전초만 역습하였다. 역습부대들은 적의 완강한 저항을 격퇴하고 11:00경 전초진지를 탈환하였으나, 여단에 배속되어 엘코전초를 공격한 미 제14연대 B중대는 적의 역습을 받아 14:30에 철수함으로써 여단은 베가스 전초만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베가스 전초도 16:00경 중공군의 역습을 받아 전초를 다섯 번째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여단은 이

3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380~381.

전투에서 질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즉각 역습을 개시하여 베가스 전초를 회복하였다. 이 무렵 미 제25사단장은 네바다 전초(Nevada Complex)가 격전만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병력의 손실에 비해 전술적인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21:30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네바다 전초진지 쟁탈 전투는 일단락되었다.³⁹⁴⁾

이 전투에서 터키 제3여단은 네바다 전초진지를 두고 의지의 한 판 대결을 벌여 전사 151명, 부상 239명, 실종 2명의 손실을 입은 반면 중공군 3,000여 명을 사상케 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의 손실이 입증될 해주듯 네바다 전초진지 쟁탈전투는 다른 어느 전투보다도 치열하였다.

3.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터키 제1여단	1950. 9~1951. 8	미 제25사단 배속
터키 제2여단	1951. 8~1952. 8	"
터키 제3여단	1952. 8~1953. 9	"

(2) 인적피해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총 계	3,623	721	2,493	175	234
	장 교	157	37	111	3	6
	하 사 관	138	26	108	1	3
	병	3,328	658	2,274	171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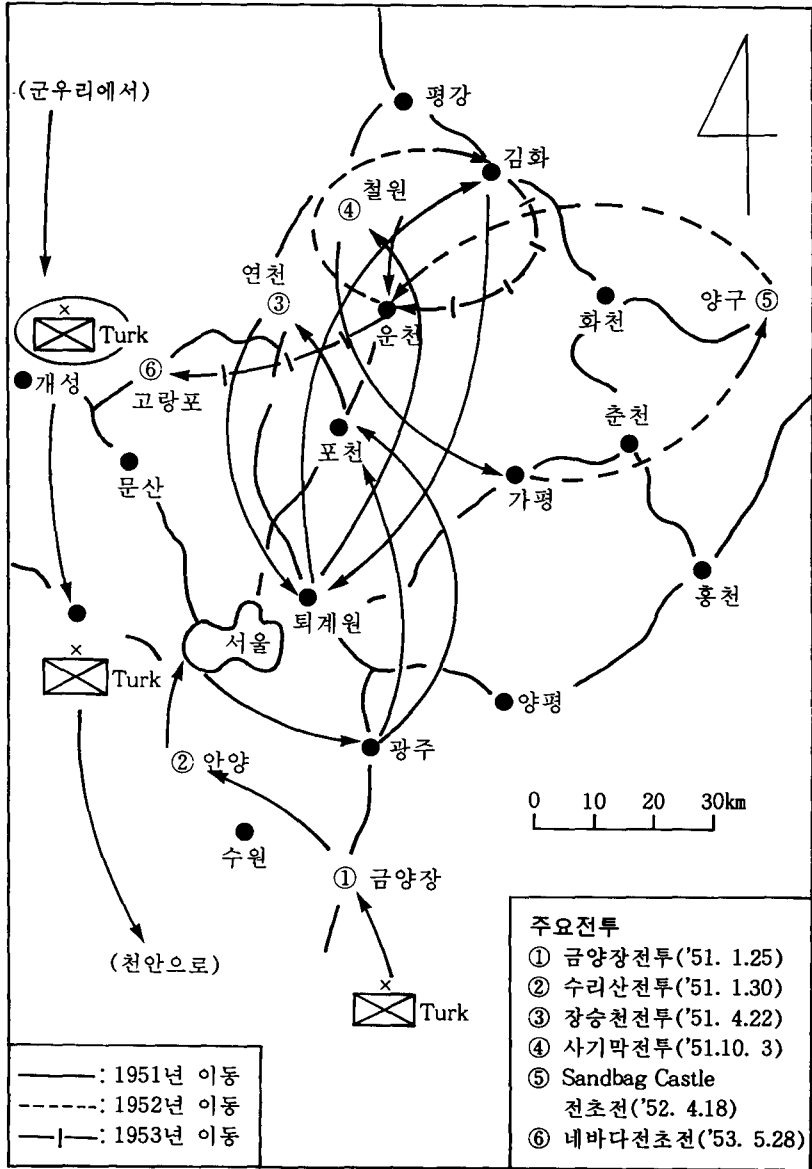
394)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25.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0. 17	터키 제1여단, 부산 도착
	11. 13	장단으로 이동, 패잔병 소탕작전 개시
	11. 20	군우리로 이동, 미 제9군단 예비
	11. 28	와원에서 중공군과 격전
	11. 30	미 제2사단 주력과 태형의 계곡 돌파
	12. 3	개성으로 철수
	12. 14	미 제25사단 배속, 김포반도 진출
1951	1. 5	수원, 오산 경유 천안으로 철수, 미 제1군단 예비
	1. 25	신갈 남쪽 151고지와 금양장 공격
	1. 30	안양 수리산 공격
	2. 10	염창동 부근 한강 진출
	2. 22	팔당호 남쪽 광동리 진출
	3. 7	포격으로 미 제25사단, 양수리 도하 지원
	3. 14	한강 북쪽 문안산 진출
	3. 28	비석거리 진출 카이로선 점령
	4. 11	한탄강 도하 종자산 공격
	4. 22	장승포 일대에서 중공군과 공방전
	4. 30	용마산으로 진출 서울 방어
	5. 13	퇴계원 전초진지 진출
	5. 24	마산리 진출 토페카선 점령
	6. 13	김화 서쪽 507고지 진출
	7. 18	대광리-철원 와이오밍선 진출
	10. 4	서방산 서남쪽 제임스타운선 진출
11. 16	터키 제2여단장 지휘권 인수	
12. 14	터키 제2여단, 별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2. 23	양구 북쪽 월운리 진출
	4. 18	적 Sandbag Castle 전초진지 공격
	6. 5	Sandbag Castle 전초진지 전방 10m까지 진출
	8. 20	터키 제3여단장, 지휘권 인수
	10. 6	문등리 계곡 저지진지 점령
	10. 31	중부전선 지포리로 이동, 미 제9군단 예비
	11. 10	김화 서쪽 하덕리-잣골 진출
1953	1. 29	지포리로 이동, 군단예비
	3. 28	와수리 일대 저지공사 완료
	5. 2	고랑포로 이동, 네바다 전초진지 인수
	5. 16	네바다 전초진지 쟁탈전
	5. 28	2차 네바다 전초진지 쟁탈전
	7. 7	미 해병 제1사단에 인계하고 용현리로 이동

터키 여단의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10 절 타이(Thailand)

1. 참전경위

타이는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으나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회복하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이 정부는 유엔에서 대한군사원조가 결의되자 1950년 6월 30일 자국의 주생산물인 미곡 지원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이에 유엔사무총장은 7월 14일 타이의 지원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회신과 함께 지상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타이 정부는 7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1개 여단규모인 지상군 4,000명의 파견을 결정하여 유엔에 통보하였고, 유엔도 이를 크게 환영하였다.

타이의 지상군 파견제의를 통보받은 미 합참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타이군의 장비와 훈련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참전국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고려하여 파견에 동의하였다.³⁹⁵⁾ 타이 정부는 1개 연대규모의 파견이 확정되자 장차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공군의 파견도 고려하여 황태자(Pisit Dispongsa-Diskul 소장)를 타이 원정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참전을 준비하였다.

타이는 지상군의 파견결정에 이어 해군부대의 파견도 적극 추진하여 10월 1일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으로 구성된 해군분대를 편성하였고, 이 분대에 한국으로 출전하는 지상군 제1제대의 해상수송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타이 정부는 10월 중

395)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0.



타이군의 부산 도착

순 본대의 파견에 앞서 파병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황태자가 인솔하는 연락장교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 협조과정에서 타이 정부는 당초 1개 연대규모의 파병을 계획하였으나, 이 무렵 유엔군의 북진으로 전황이 호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1개 대대규모로 축소 조정하였다.³⁹⁶⁾

해군분대는 1950년 10월 22일 1개 대대규모의 지상군과 추가로 파견될 적십자 의무대를 싣고 1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7일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부산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타이 대대는 환영식이 끝나자 바로 대구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하였고,

3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25.

이들을 수송한 해군분대도 일본의 사세보(佐世保)로 이동하여 미국동해군의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타이 정부는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한 데 이어 1951년 6월 18일 1개 수송기편대(C-43 쌍발수송기: 3대)와 항공의무대(외과의사: 2명, 간호원: 3명)를 일본 다치가와(立川)에 위치한 미 공군 제315비행사단 제374비행단에 배속시킴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전쟁에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최초 식량지원만을 계획하였던 타이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육·해·공군을 파견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공산침략을 응징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울동지역 전투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타이 대대는 휴전회담이 개시된 직후인 7월 16일 미 제1군단예비가 되어 잠시 동두천 북쪽 양원리(兩遠里)에서 부대를 재정비한 후 31일 울동(栗洞) 부근으로 재진출하여 정찰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가 점령한 지역은 말발굽 모양의 임진강 바로 북쪽에 위치한 산악지대로서 지난 6월 9일 상매동(上梅洞) 부근에서 300여 명의 중공군을 격퇴한 데 이어 7월 4일에도 227고지 부근에서 중공군 정찰대와 조우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한 바 있는 익숙한 지형이었다.³⁹⁷⁾

이 무렵 중공군도 그들의 병력 증강과 보급품 비축은 물론 아군의 주저항선을 탐지하기 위하여 역곡천 남쪽으로 정찰대를 침투시

3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39.

킴으로써 쌍방 정찰대간의 조우전도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대대가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있을 무렵인 8월 5일 그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던 대대장 아타난타(Kriengkrai Attananta) 중령이 귀국하였고, 신임대대장으로 부임한 누카칸쿨(Prayauth Nuckakan-kul) 중령은 부대를 재정비한 후 더욱 적극적인 정찰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대대는 8월 18일 미 제8기병연대로부터 “옷나무골(漆木洞) 부근에 위치한 적 집결지를 기습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³⁹⁸⁾ 이에 대대는 제2중대의 2개 소대를 차출하여 이날 오후에 346고지 부근으로 진출시켜 적 집결지를 발견하고 기습하였다. 이 기습에 혼비백산된 중공군이 분산 도주하자 중대장은 미 포병에 지원사격을 요청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제2중대는 이 전투에서 적 70여 명을 사살하고 다량의 보급품을 파괴시킨 후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역곡천변의 양지촌(陽地村)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역곡천변을 따라 북쪽으로 진출한 정찰대는 19일 02:00경 167고지 부근에서 1개 소대규모의 적 집결지를 발견하고 이마저 기습하여 2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적도 정찰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듯 양지촌 남쪽으로 100여 발의 포탄을 집중하였으나 정찰대는 이를 피해 철수하였다.

이 무렵 대대장은 중공군이 아군의 주저항선을 관측하기 위하여 지내 내에서 최고봉인 346고지로 다시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태봉촌(胎峰村)에 1개 소대를 잔류시키고 본대는 울동 진지로 철수시켰다. 대대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중공군은 대대의 기도를 간파한 듯 정찰대를 파견하지 않았고, 잔류 소대는 346고지 일대를 정찰한 후 21:00경 복귀함으로써 기습작전은 일단락되었다.

3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41.

그리고 8월 30일 1개 중대규모의 정찰대가 가이동(佳伊洞) 부근을 수색중 216고지 부근에서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 정찰대와 조우하여 한차례 격전을 벌이며 5명을 사살하고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이후에도 대대는 9월 8일 사단예비가 되어 전곡 서쪽의 장진천(漳津川)변으로 이동할 때까지 울동(栗洞), 제궁동(齊宮洞) 일대의 주진지를 방어하면서 삭녕-대광리 간 도로변에 정찰진지를 설치하여 역곡천(驛谷川) 남쪽에 정찰기지를 확보하려는 중공군의 기도를 저지함은 물론 아군의 주저항선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2) 포크잡고지 전투

1952년 10월 22일 대대는 미 제9연대에 배속되어 호마리(大虎洞)로 이동하여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 이때 전초고지에서는 쌍방간 힘겨루기 양상을 띤 치열한 쟁탈전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었고, 대대도 “여하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크잡(Porkchop)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대는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장애물 설치, 교통호와 엄체호 보강공사, 유선의 지하매설 등에 주력함은 물론 강력한 화력계획과 역습계획도 준비하였다.³⁹⁹⁾

중공군은 11월 1일 어둠이 깔리자 포크잡고지를 집중포격하였고, 이 포격에 대대가 애써 준비한 진지 및 교통호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적은 21:00경 2개 중대규모를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고, 잠시 후 고지 정상에서는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1중대장이 부상을 입는 등 악전고투하였으나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이 전투는 대대가 참전 이후 가장

3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50.

치열한 전투로서 확인된 적 시체만 50여 구나 되었고, 대대도 8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⁴⁰⁰⁾

적이 물러나자 대대는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였고, 적도 재공격을 준비하는 듯 정찰활동을 더욱 강화시켰다. 중공군은 11월 7일 02:00경 월광을 피하기 위하여 연막차장까지 실시한 후 증강된 1개 대대규모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이 공격은 새벽까지 백병전으로 점철된 혈전으로 전개되었으나 동이 틀 무렵 중공군이 분산 철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정찰대는 진전을 정찰하여 78구의 시체를 확인하고 다수의 화기도 노획하였다. 이때 아군은 포크참고지 일대에 105mm 3,098발, 155mm 405발, 4.2" 650발, 81mm 693발을 사격하여 대대를 화력지원하였다.

2차에 걸친 공격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포크참고지 공격을 포기하지 않은 듯 11월 10일 23:00경 포크참고지를 집중포격한 후 2개 중대규모로 북, 동, 남서 방향에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중공군은 대인지뢰와 철조망 등의 장애물에 걸려 다수가 희생되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내로 접근하였다. 이때 지원포병은 물론 대대도 전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포크참고지는 순식간에 포연과 화염에 휩싸였다. 적은 엄청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원부대를 투입하며 돌파를 기도하였고, 대대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대본부의 행정요원까지 동원하여 포크참고지의 제1중대를 증원하였다. 이러한 혈전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나 날이 밝아 아군 항공기의 공격이 시작되자 중공군이 분산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⁴⁰¹⁾ 당시 쌍방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포크참고지를 방문한 미 제1군단장과 미 제2사단장은 수적인 열세에도

4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51.

401)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67.

불구하고 격전을 펼친 대대의 감투정신을 극력 치하하였다. 이 전투에서 타이 대대는 3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격퇴함으로써 제8군으로부터 용맹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s)’란 애칭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유엔군에 심어 주었다.⁴⁰²⁾

(3) 사동전투

휴전협정 조인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적은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고, 이때 대대는 7월 12일 김화 서쪽의 우구동(牛口洞)으로 이동하여 미 제2사단의 전초부대가 되어 한탄강 동쪽 사동(蛇洞)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 지역은 한탄강변의 광활한 저지대를 감제관측할 수 있어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감제고지로서 대대는 지난 1952년 전반기 동안에도 이 일대를 점령한 바 있다.⁴⁰³⁾

지역내 최고 높은 고지인 351고지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한 대대가 진지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14일 밤에 폭우가 쏟아져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호와 엄체호가 붕괴됨은 물론 지뢰 등 각종 장애물도 유실되었다. 대대는 다음날 긴급히 미 제2사단 공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적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방어진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적은 15일 21:30경 야포와 박격포탄 100여 발로 351고지를 방어중인 중앙의 제2중대지역을 집중적으로 포격한 후 2개 소대규모를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을 맞은 대대는 혈전으로 점철된 백병전을 펼쳐 16일 01:30경 적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16일

4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54.

4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62.

오후에는 중공군이 대대의 우인접 미 제9연대 L중대를 기습하자 내촌(內村) 부근에 배치된 우전방 제3중대가 측방에서 화력을 지원하여 미군 중대가 적을 격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7일 오후 대대 방어지역 정면에서 대대를 감제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방어거점인 서방산(西方山) 일대에 2개 사단규모의 중공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대대는 더욱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8:00부터 적의 포탄이 대대지역으로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아군 포병도 적의 예상집결지인 한탄강 서쪽의 250고지 일대를 포격하였다. 22:00경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이 한탄강을 도하하자 대대는 정찰대를 투입하여 이들을 장애물지대로 유인하였고, 동시에 지원포병은 지갑리(地甲里) 일대에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이때부터 쌍방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고, 개활지를 통과한 일부는 좌전방 제1중대와 백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중공군은 밤새도록 파상공격으로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작은 호랑이’들의 용전분투에 굴복하여 새벽 무렵 분산 철수하였다. 18일 오전 대대는 진전을 정찰하여 적이 유기한 시체 30여구를 확인하였다.⁴⁰⁴⁾

이 전투를 끝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적은 산발적인 포격만 실시할 뿐 더 이상 공격은 하지 않았다. 대대가 휴전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끝까지 고군분투하여 평강-김화 축선상의 중요 전술적 고지인 351고지를 고수함으로써 오늘날 이 고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남게 되었다.

4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65.

3. 해군의 활동

(1) 전반기 활동

타이 해군분대는 1950년 11월 7일 한국으로 출전하는 지상군을 부산에 상륙시킨 후 프리깃함인 프라새(Prasae)호와 방파공(Bangpakong)호, 그리고 수송선인 시창(Sichang)호는 곧바로 일본 사세보(佐世保)로 이동하였다. 13일 타이 원정군사령관(Pisit Dispongsa-Diskul 소장)이 미 제95기동부대를 방문, 타이 해군의 지휘권을 이양함으로써 전단은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타이 함정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까지는 함정의 보수 및 정비, 미 해군함정과 통신유지, 장비의 보완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분대는 이러한 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말까지 사세보 미 해군기지의 수로 엄호작전에 투입되었다.

프리깃함 프라새호와 방파공호는 1951년 1월 3일 미 구축함 잉글리쉬호와 함께 북위 38도와 39도 사이에 위치한 동해안의 양양, 장전, 초도리 부근의 해상초계와 해안의 철도역, 교량 등을 파괴하기 위하여 동해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대가 적 해안 포격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상 악화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1월 6일 야간에 함정들이 위치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강풍과 폭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엄습하였고, 이 기상이변에 처녀출동한 프라새호가 7일 07:00에 38도선 16km 북쪽 속초 부근 해안에 좌초되었다.⁴⁰⁵⁾ 타이 장병들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였고, 또 부근에 있던 미 함정들도 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해역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제95기동함대사령관

4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272~273.

은 적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마저 더욱 악화되어 구조가 어렵게 되자 조난함의 보수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타이 장병들을 미 해군함정으로 이동시키고 함정은 격침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 미 구축함 잉글리시(English)호는 18:00에 함포사격으로 파라새호를 격침시켰고, 이 과정에서 타이 해군 2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부터 방파공호는 미 해군의 프리깃함 또는 구축함과 함께 동해로 출동하게 되었다. 특히 4월 30일 방파공호가 원산 부근의 갈마반도를 포격할 때 동승하였던 미 해군함장은 적 해안포 사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안에 근접하여 포격임무를 수행하는 타이 장병들의 활동을 목격하고 극력 칭찬하였다.

6월 중순 유엔해군의 동해안봉쇄전대는 그 동안 계속된 함포사격에도 불구하고 적 해안포의 대응사격이 계속되자 정확한 적의 포대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유인작전을 계획하였고, 이때 봉쇄전대에 배속되어 원산으로 출동한 방파공호도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6월 19일 15:00 봉쇄전대는 원산항 입구에 있는 합진리(蛤津里)와 연동리(淵洞里) 해안 6~6.5km까지 접근한 후 적 해안을 포격하였다. 그리고 적의 포격을 유도하여 정확한 해안포대의 위치를 탐지할 목적으로 타이의 방파공호만 작전해역에 남겨 두고 주력 함정들은 철수하였다.⁴⁰⁶⁾ 유엔군이 예상한 대로 18:30경 적 해안포는 타이 함정을 집중적으로 포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틈을 이용 유엔해군은 물론 방파공호도 합세하여 확인된 해안포진지를 맹포격하였다.

7월 15일 수송선인 시창호가 타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귀국함

4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74.

으로써 타이의 함정은 방파공호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방파공호는 12월 말까지 동해의 청진, 원산, 성진과 일본 사세보항을 오가며 함포사격, 초계활동, 호송임무를 수행하여 유엔해군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2) 후반기 활동

1951년 1월 초 파라새호가 동해안에서 좌초되고, 방파공호가 분전하고 있는 동안 타이 정부는 미 해군에 지원함정의 보충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미 해군이 프리깃함(Glendale, Gallup)을 일본의 요코스카(横須賀)항에서 인도하기로 결정하자 타이 해군은 10월 18일 함정 인수요원들을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10월 29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는 미국과 타이 정부 특사, 해군관계자들의 임석하에 성대한 인수식이 있었고, 두 척의 프리깃함은 제2파라새(HMTS Prasae II)호와 타친(HMTS Tachin)호로 각각 명명되었다. 그리고 타이 해군은 12월 20일까지 요코스카 근해에서 해상훈련에 들어갔다. 이 기간중 타이 장병들은 새로 인수한 함정 운항과 전투태세 완비를 위한 교육훈련에 매진하였다. 특히 이들은 파라새호와 방파공호의 뒤를 이어 유엔해군의 일원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자긍심으로 사기가 높아 교육훈련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⁴⁰⁷⁾

12월 29일 방파공호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파라새 II호와 타친호는 1952년 1월 1일 동해 초계 및 봉쇄단대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으로 1952년 1월 13~23일까지 동해안으로 출동하는 미 유조선의 호송임무를

4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76.

말게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동해의 세찬 파도와 혹독한 추위라는 커다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 해군은 마치 새로운 적과 부딪치기라도 한 듯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여 한파를 극복하고 호송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사세보로 복귀함으로써 다시 한 번 그들의 강인함을 보여 주었다.

2월 중순 파라새 II호는 원산으로 이동하는 미 유조선을 엄호하였고, 타친호는 이와 별도로 성진으로 이동하여 미 구축함들이 재급유를 받는 동안 이들 함정을 엄호하고 복귀하였다. 이를 계기로 타이 장병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월 하순 함정 정비와 재보급을 완료한 타이 함정들은 동해로 출동하여 성진을 비롯한 북위 41°30'에 이르는 해역에 대한 초계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타이 함정들은 영흥만 외해의 미 기동전대 수송단으로부터 재보급을 받아 가며 3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작전하였다.

1952년 전반기 지상작전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해상작전은 오히려 활기를 띠게 되었고, 따라서 대대의 호송임무를 위한 출동도 빈번하였다. 3월 19일 타친호는 38도선 160km 북쪽에서 미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해군수송선 4척을 엄호하였고, 4월 5일에는 적의 해안포사격이 빈번한 울릉도-성진 해역에서 미 유조선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미 수송선단을 호송하여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하였고, 5월 30일에는 2차로 참전할 장병 163명이 도착하여 임무를 인수하였다.

이후 이들은 특별한 상황 없이 휴전협상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주로 수송선단 엄호작전과 함정의 정비 및 보급을 반복하면서 헌신적으로 유엔해군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타이 해군분대는 휴전 후 대한민국 해군이 해상작전을 인수한 이후에도 제95기동함대에 배속되어 수시로 부과되는 호송 및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5년 1월 21일 사세보를 떠나 잠시 부산에 기항하였다가 타이로 귀국하였다.⁴⁰⁸⁾

4. 공군의 활동

타이 정부는 1950년 10월 하순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한 이후 8개월여 만인 1951년 6월 18일 C-47 수송기 3대로 구성된 공군을 일본 다치가와(立川) 미 공군기지로 파견하였다.⁴⁰⁹⁾ 수송기제대는 미 제135비행사단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제21비행대대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타이 공군이 주둔한 도쿄 서쪽 외곽에 위치한 다치가와 기지는 미 제374비행사단이 장기간 주둔하여 제반 항공기지 시설이 완벽한 공군작전기지로서 주변 하네다(羽田), 요코하마(橫濱) 비행장으로 수송되어 온 병력, 병기, 장비, 보급품 등을 우선순위별로 분류하여 전방지역 비행장으로 공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지상군의 상황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긴급 보급품의 공수와 응급환자 후송작전은 끊임 사이가 없었다. 특히 지상전투가 격렬해지면 긴급후송작전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취급되었는데 이 작전에는 26명용의 C-47 수송기와 36명용의 C-54 수송기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미 공군이 보유한 C-47 수송기에는 병상 또는 의료설비가 없고, C-54 수송기는 대형기로서 활주로가 짧은 한국 내 비행장에서는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소형이며 의료설비가 구비된 타이 수송기들이 긴급후송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다.⁴¹⁰⁾ 수송기제대는 이 임무 외에도 한국 내에서 치료

4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78.

4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79.

가 어려운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일본으로 후송하였다. 이때 환자 중 두부나 흉부 증상자들은 도쿄(東京) 지역으로, 동상자와 간장질환자들은 오사카(大阪) 지역으로, 그리고 그 밖의 중환자들은 후쿠오카(福岡) 지역으로 후송시켰다.

그리고 1952년도에 접어들면서 지상군의 작전이 제한된 공격작전으로 국한되자 유엔공군의 공수활동도 점차 감소되었다. 이때 미 극동공군은 제374병력수송비행단의 수송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개 비행중대의 C-54 수송기를 C-124 수송기로 교체시켰다. 그러나 한국에는 C-124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가 4곳밖에 없어 소량이거나 긴급보급품을 수송하는 데는 소형인 C-47 수송기가 적합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하여 타이의 수송기체대의 활동은 오히려 증가하였다.⁴¹¹⁾

1952년 5월 1일 제2진 요원들이 다치가와 기지에 도착하여 제1진의 임무를 인수하였고, 1953년 2월부터는 김포비행장에 주둔중인 그리스 수송체대가 한국 내의 수송임무를 전담함에 따라 타이 대대는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주로 일본내 각 공군기지간 병력 및 보급품 수송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타이 수송기체대는 휴전 이후에도 C-47 수송기 3대를 다치가와 공군기지에 계속 잔류시켜 일본 및 한국 각처에 있는 공군기지의 공수임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64년 11월 6일 귀국하였다.

4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79.

4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80.

5. 참전결과

(1) 참전현황

○ 지 상 군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타 이 대 대	1950. 11~1972. 6	미군사단 배속

○ 해 군

구 분	함 정 명	참 전 기 간
프 리 깃 함	Prasae	1950. 11. 7~1951. 1. 7
	Bangpakong	1950. 11. 7~1952. 2. 16
	Prasae II	1951. 12. 29~1955. 1. 21
	Tachin	"
수 송 선	Sichang	1950. 11. 7~1951. 7. 15

○ 공 군

구 분	기 종	참 전 기 간
수 송 기	C-47	1951. 6. 18~1964. 11. 6

(2) 인적피해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1,273	129	1,139	5	—
육 군	1,269	125	1,139	5	—
해 군	4	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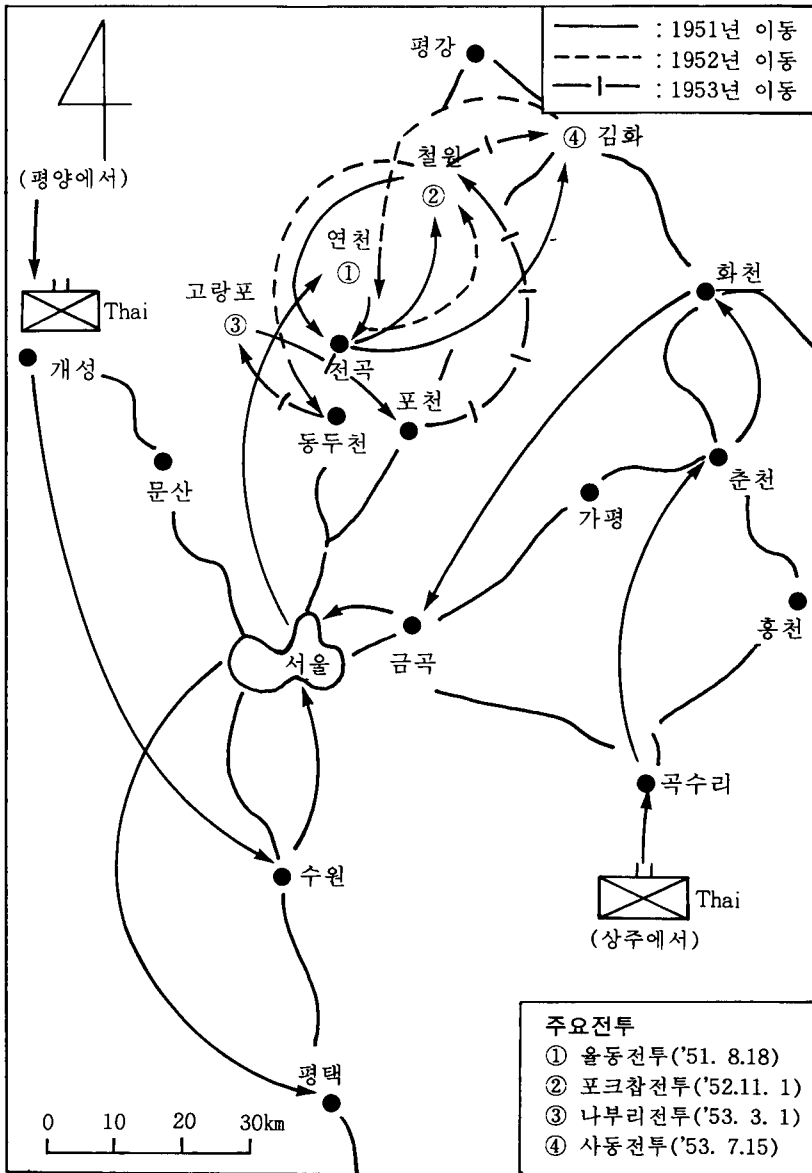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7	부산 도착, 대구 유엔군수용소로 이동
	11. 13	타이 해군분대, 제95기동부대 배속
	11. 28	평양으로 이동, 제187공수연대전투단 배속
	12. 5	개성으로 이동, 후방지역 경계
	12. 13	수원으로 이동, 제8군 예비
1951	1. 2	신둔리로 이동, 영 제29여단 배속
	1. 3	신둔리에서 중공군 격전, 수원으로 철수
	1. 7	평택으로 이동, 서해안 지역 경비
	1. 7	파라새호, 속초 부근에서 좌초
	1. 18	상주로 이동, 미 제1기병사단 배속
	2. 5	문경지역에서 국군과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
	3. 7	지평리 남쪽 남광양으로 이동, 재반격작전 참가
	3. 26	춘천 남쪽 학곡리 이동, 제8기병연대 배속
	4. 9	화천 남쪽 거례리 진출
	4. 12	금곡으로 이동 예비, 미 제1기병사단 휘장 패용
	4. 28	우이동으로 이동, 중공군과 격전
	4. 30	방파공호, 원산항 봉쇄포격작전
	5. 5	방화동, 우이령 부근 정찰
	5. 22	천보산, 탑고개 진출
	5. 27	한탄강 도하, 달원리 진출
	6. 7	율동 북쪽 회옥동에서 적 1개 중대 공격
	6. 18	C-47 수송기 3대, 일본 다치가와 기지 도착
	6. 19	방파공호 합진리 해안에서 적 해안포 유인작전 실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7. 3	삼묘천—도랑리 방어, 정찰전
	7. 15	수송선 Sichang호 귀국
	7. 16	양원리로 이동, 부대정비
	8. 18	웃나무골 적 집결지 기습공격
	9. 8	구석동으로 이동 사단예비
	10. 19	철원 서쪽 천덕산—덕산리 방어
	10. 29	미 해군으로부터 프리깃함 2척 인수
	11. 13	T-Bone고지 남쪽 에리전초진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12. 15	금곡으로 이동 예비
	12. 26	미 제2사단으로 배속변경, 와수리로 이동
1952	1. 1	파라새 II호 및 타친호 제95기동부대 배속
	1. 25	김화 서북쪽 탑골 부근 방어진지 점령
	2. 16	Bangpakong호 태국으로 귀환
	7.중순	대광리 서북쪽 울전리로 이동, 미 제9연대 예비
	10. 1	악어고지에서 철수, 동두천으로 이동
	10. 22	제임스타운선 호막리 진출
	10. 27	복개고지 기습공격
	11. 1	포크참고지에서 중공군의 1차공격 격퇴
	11. 7	포크참고지에서 중공군의 2차공격 격퇴
	11. 10	포크참고지에서 중공군의 3차공격 격퇴
	12. 1	악어고지 서남방 정찰
	12. 3	덕은골 부근에서 정찰활동
	12. 29	포천 남쪽 비석거리로 이동 예비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	1. 29	임진강 부근 제임스타운선으로 이동
	2. 13	나부리 진출
	3. 1	나부리에서 2개 중대규모 중공군의 공격 격퇴
	3. 13	나부리 북쪽 155고지 기습공격
	4. 6	포천 남쪽 부평리로 이동 예비
	5. 4	철원 서쪽 교동으로 이동
	7. 12	우구동으로 이동 해리전초 진출
	7. 15	내촌 부근에서 중공군과 교전
	7. 17	지감리에서 중공군의 공격 격퇴

타이 대대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11 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1. 참전경위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약칭함)은 유엔의 대한군사원조결의안이 통과되자 7월 1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2차로 발표된 성명에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전투부대의 파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할 뜻을 밝히는 한편 이를 미국과 논의하였다.⁴¹²⁾ 남아공 정부는 7월 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자 8월 4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투비행대대의 파견을 결정하고, 부대편성에 착수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남아공 군 당국자는 최초 정규군에서 새로운 대대를 창설하여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원자를 공모하자 정규군은 물론 예비역, 민간인들까지 지원이 쇄도하였다. 이에 당황한 공군은 이 계획을 포기하고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단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때 대대의 소요항공기 및 장비는 본국으로부터 휴대하지 않고 병력만 극동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면 즉시 미국이 장비를 지원한 후 사후 청산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보았다.⁴¹³⁾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중 동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4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64.

41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1.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대대 장병들

아, 중동전선에서 용맹을 떨쳐 ‘날으는 표범(Flying Cheetha)’으로 별명이 붙은 제2전투비행대는 본격적으로 참전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남아공 정부는 9월 5일 전투비행대대의 파견에 앞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유엔군사령부와 연락업무를 담당할 공군연락본부를 도쿄(東京)에 설치하였다.

참전준비가 완료되자 206명으로 편성된 전투비행대대는 9월 26일 더반(Durban)항을 출발함으로써 남아공 정부는 건국 이래 최초로 극동지역에 병력을 파견하게 되었다. 대대는 40일간의 긴 항해 끝에 1950년 11월 5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 도착한 후 바로 도쿄 외곽에 위치한 미 공군의 존슨(Jhonson)기지로 이동하였다.⁴¹⁴⁾

대대는 11월 6일 미 공군으로부터 F-51기(Mustang)와 장비를 인수하였다. 이때 항공기는 최초 25대를 인수하기로 되었으나 이

4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65.

중 16대만 인수하였고, 부수장비와 기재들도 부족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이날 장병들은 잠정 배속된 미 제6002전술지원비행단을 방문하여 비행단의 편성, 조종사들의 비상탈출 및 적 대공포화로부터 자위요령 등을 교육받음으로써 본격적인 현지적응 훈련에 돌입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이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자 제6002전술지원비행단장은 11월 15일 남아공 대대에 선발대를 편성하여 즉시 한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대대는 장교 13명과 사병 21명으로 선발대를 편성하여 16일 미 수송기 편으로 부산 수영비행장으로 이동하였고, 대대장 외 4명의 조종사는 F-51기를 몰고 선발대보다 조금 늦게 활주로가 거칠고, 정비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강한 해풍마저 불어대는 수영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하였다.⁴¹⁵⁾

선발대는 이날 이 기지에서 활동중인 미 제18폭격비행단에 배속됨으로써 남아공 공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2. 공군의 활동

(1) 1950년도 작전

남아공 전투비행편대는 한국에서 첫 밤을 보낸 후 19일 아침에 4대의 무스탕기 편대를 구성하여 미 제18폭격비행단 제12전폭기 대대와 함께 서부전선의 청천강 북쪽 상공으로 출격하였고, 이때 편대는 처음으로 북한군 병력집결지와 야전보급소를 공격하였다.

4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66.

그러나 대대는 수영기지에서 작전을 개시한 지 이틀 만인 20일 밤에 제18폭격비행단으로부터 평양기지로 이동명령을 받았다.⁴¹⁶⁾ 이는 11월 24일로 예정된 유엔군의 최종공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지시에 따라 대대는 22일 평양으로 이동을 완료함으로써 전선과의 비행거리가 단축되고 항속시간은 연장되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평양비행장(K-24)은 그 동안 유엔군의 폭격과 북한군의 거부작전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었고, 또 활주로는 도처에 웅덩이가 산재해 있어 무스탕기의 이착륙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비행조건에서도 대대는 23일부터 연일 출격하여 한만국경선의 공중초계와 적 후방차단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지방주민들을 동원하여 철야로 평양기지 보수공사를 강행하여 간이막사, 격납고, 활주로 등을 보수하여 비행조건을 개선시켰다. 그럼에도 활주로는 여전히 노면이 견고하지 못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시에는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조종사들의 시야를 방해하였다.

평양기지에서 임무를 개시한 지 4일째인 26일 불행하게도 대대장이 우려했던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출격임무를 마치고 기지에 착륙하던 무스탕기 조종사가 착륙시 생긴 먼지에 시야가 가려져 격납고에서 고장난 무스탕기를 끌어내고 있던 견인차와 충돌하여 전투기 2대가 대파되었다.⁴¹⁷⁾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대는 유엔군의 최종공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일 군우리(軍隅里), 개천 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지원하였고, 한편으로는 철저한 위장과 대공포의 엄호하에 신의주-신안주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보급차

4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68.

4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68~169.

량 대열을 폭격하였다.

대대의 이러한 헌신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초 유엔군이 철수를 결정하자 편대도 4일 정오경에 수원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2대의 무스탕기 편대는 유엔군이 철수시 미처 후송하지 못한 폭발물이 실린 수대의 유개차 폭격임무를 받고 안주 상공으로 출격하였다. 이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무스탕기 1대가 폭발물의 파편에 맞아 추락하였고, 다행히 조종사는 부근 상공에서 정찰중이던 미군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는 국적을 초월한 전우애로서 후일 유엔공군 조종사들의 귀감이 되었다.⁴¹⁸⁾

중공군이 남하하자 대대는 12월 20일 무려 20회를 출격하여 수안-사리원 지역에서 건물 57동, 트럭 15대, 철도시설 1곳을 파괴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37도선으로 철수하자 편대도 1951년 1월 5일 진해기지(K-10)로 이동하였다. 이때 편대는 그 동안 일본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지난해 12월 13일 진해기지로 이동해 온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주력과 합류함으로써 비로소 독립전투비행대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비행기지 또한 지금까지 대대가 사용했던 어떤 비행기지보다 비행조건이 우수하여 장병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되었다.⁴¹⁹⁾

(2) 1951년도 작전

1951년 1월 초 지상군이 평택-원주-삼척 선에서 재반격을 준비하자 유엔공군도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지역내 산재한 철교, 육교, 터널, 철도조차장 등을 폭격하는 차단작전을 개시하였다.

4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73.

4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74.

이 작전에 참가한 대대는 1월 19일부터 주로 중부전선으로 출격하여 북으로부터 한강 이남의 전선으로 이어지는 교량을 비롯한 병력 집결지 및 보급소 등 172개의 목표를 폭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는 15일 춘천지역으로 출격하여 적의 야전보급소로 추정되는 시설 12동과 중공군이 집결하고 있는 촌락 5개소, 교량 1개소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⁴²⁰⁾

유엔군이 재반격작전을 개시하면서부터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 요청이 쇄도하여 대대의 출격횟수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대대는 2월 12일부터 만 2개월 동안 무려 1,000회를 출격하였고, 특히 3월 1일에는 36회를 출격함으로써 제18전폭비행단 예하부대 중 최다 출격횟수를 기록하였다. 이 무렵 적도 대공화력을 증가 배치함으로써 대대는 2월에 3대, 3월에 3대의 무스탕기를 잃었다. 대대는 3월 23일 진해기지의 보수관계로 수영기지로 이동하여 잠시 미제35전폭전대에 배속되었다가 4월 23일 다시 진해기지로 복귀하였다.⁴²¹⁾

그리고 대대는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원거리로 출격하는 유엔공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5월 7일 여의도기지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연료 및 탄약을 중간보급함으로써 1일 평균 2회의 출격횟수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4월로 접어들면서 유엔공군은 MIG-15기의 북한기지 이동설을 뒷받침할 징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북한내 비행기지들을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대의 무스탕기 16대는 5월 9일 신의주비행장 폭격에 투입된 유엔해군의 항공모함 및 구조함정들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8일 4대의 무스탕기 편대는 제18전폭비행단 예하부대와 합

4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175.

4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81.

계 강동비행장을 폭격차 출격하였다가 비행장 폭격이 끝날 무렵 그 동안 말로만 들던 공산군의 MIG-15기 4대와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조우하였다. 그러나 이 조우전은 편대기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에 위축된 MIG기가 전투를 회피함으로써 무산되었다.⁴²²⁾

그리고 23일 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악의 불운을 맞았다. 이날 무스탕기 편대는 15:50에 서해안의 기상정찰차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였고, 도중에 기상이 악화되자 편대는 기지로 복귀하면서 지상 목표물을 찾던 중 시변리(市邊里) 상공에서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편대장을 포함한 3명의 조종사가 행방불명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⁴²³⁾

이후 휴전회담이 개최되면서 지상전은 교착되었고, 적은 이 틈을 이용하여 전력증강에 혈안이 되었다. 이때 유엔공군은 공산측의 휴전조건 수락을 강요하고, 적의 전력증강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내 군수시설과 교통요지에 대한 폭격작전(Operation Strangle)을 계획하였다. 대대도 8월 19일부터 선천-사리원 일대로 출격하여 적의 치열한 대공포화를 뚫고 철로폭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대대는 진해기지의 보수관계로 9월 22일 중부전선의 횡성기지로 이동함으로써 전선까지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었다.⁴²⁴⁾ 그러나 이 무렵 적이 철로변에 대한 대공방어력을 증강시켰음은 물론 파괴된 교량과 철도에 대한 보수능력도 크게 향상시켜 대대의 폭격 효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연말을 맞게 되었다.

4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187~188.

4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92.

4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94.

(3) 1952년도 작전

유엔공군은 2월 25일 1951년 말부터 실시해 온 스트랭글 작전의 결함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의 중요 철로 4개선을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새로운 새추레이트(Saturate) 차단작전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대는 청천강 북쪽으로 출격하여 철로 및 교량을 폭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3월 20일 참전 이후 북한 상공에서 두 번째로 MIG기와 공중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날 8대의 무스탕기 편대는 청천강 북쪽으로 출격하여 이른바 압록강 남쪽의 MIG 회랑에서 공중초계 임무를 수행중 정주-군우리 사이로 침투한 MIG기 5대와 쫓고 쫓기는 공중전을 전개하였다. 공중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스탕기 1대가 적탄에 맞았다. 이에 남아공 무스탕기 편대도 구름 속을 넘나드는 뛰어난 조종술로 추격중인 MIG기 1대를 격추시켜 진 빔을 갇았다. 이 대결에서 대대는 보유한 프로펠러식 무스탕기가 비록 제트기식 MIG기보다 성능은 열세하지만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⁴²⁵⁾

전반기 동안 유엔공군은 새추레이트 차단작전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반면 적도 대공화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유엔공군의 손실도 날로 증가되었다. 이에 유엔공군은 6월 23일 적의 산업 시설, 군수공장, 보급품집적소 등을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프레스(Pressure) 작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부전호와 장진호를 포격한 데 이어 7월 11일 평양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8월에 접어들어서 날씨가 회복되자 대대는 8월 11일 길주의 텅스텐 광산, 14일 함흥 부근 인흥리에 위치한 화학공장, 그리고 29일에는

4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197.

제2차 평양폭격에 참가하였다.

9월에 접어들어서는 지상군의 전초진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엔공군은 일부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담당하고 주력은 공산군의 전쟁의지를 말살시키고자 군수물자공급원을 중점적으로 폭격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대는 9월 한 달 동안 고원-영흥, 평양-사리원 사이의 철로를 폭격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10월 중순부터는 중부전선에서 미 제9군단이 쇼다운(Showdown) 작전을 개시하자 대대는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을 공격중인 미 제7사단과 국군 제2사단의 지원에 주력하였다.⁴²⁶⁾ 대대는 저격능선 일대에 네이팜(Napalm)탄을 투하하여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작전은 철의 삼각지대 내에서 11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4) 1953년도 작전

공산군의 MIG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펠러식인 무스탕기는 한국의 험준한 지형에서는 제트기보다 효과적인 전폭기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MIG기가 등장하고, 또한 북한의 대공화력이 강화되자 유엔공군은 1952년 중반부터 무스탕기의 재평가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도 1952년 9월 말에 일부 요원으로 F-86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대대는 10월 말 한국을 방문한 남아공 국방장관에게 제트기로 기종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또한 12월 말 무스탕기의 부속품 부족으로 폐기율이 급증되자 대대는 12월 27일 출격을 마지막으로 무스탕기를 전부 진해기지에 집결시켜 반납을 준비하였다.⁴²⁷⁾

1953년 1월 2일 대대는 횡성비행장에서 건설중인 오산기지로

4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02.

4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05.

이동하였고, 조종사들은 성능과 조작이 근본적으로 다른 F-86기에 대한 조종훈련을 받았다. 이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격훈련이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대대는 28일 처음으로 F-86기 3대를 인수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조종사들은 대부분 만족하였다. 남아공 비행대대는 부대의 재편성과 교육훈련에 주력한 결과 3월 중순에 이르러 비로소 F-86기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⁴²⁸⁾

남아공 대대는 제트기로 편제한 이후 3월 11일 처음으로 압록강 남쪽으로 진출하여 공중초계정찰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MIG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엔 공군은 지난해 6월과 8월 2차에 걸쳐 평양을 폭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양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자 5월 1일 다시 평양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였고, 대대도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5월로 접어들면서 적의 공세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하자 대대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야 구분 없이 군단 정면에 배치된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7월 중순 유엔군이 공산군의 7월공세를 격퇴하자 휴전 후 공산군이 북한내 비행장을 이용하여 공군력의 건설을 꾀할 수 없도록 휴전이 발효되기 이전에 북한내 모든 비행장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유엔공군은 18일부터 10일 동안 북한의 의주, 평양, 사리원, 원산, 회령, 함흥 비행장 등을 폭격하였고, 대대도 이 작전에 참가하여 7월 18일 신의주비행장에서 6대의 재래식 항공기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휴전이 임박하여서는 끝까지 적 공군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하루에 41회의 출격기록을 수

4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206.

립하기도 하였다.⁴²⁹⁾

7월 27일 밤 출격임무를 끝으로 대대의 항공작전은 종결되었고, 대대는 3월 중순 프로펠러식 F-51 무스탕기에서 제트기식 F-86기로 교체한 이래 4개월 동안 4대의 제트기를 손실하였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비상대기는 물론 교육훈련에 주력하다가 9월 7일부터 수차에 걸쳐 항공기를 미 공군에 반납하고 10월 29일 오산비행장을 떠남으로써 공군작전은 일단락되었다.

3.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제2전투비행대대	1950. 9~1953. 10	제18전투비행단 배속 (1950. 11)

(2) 인적피해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공 군	42	34	-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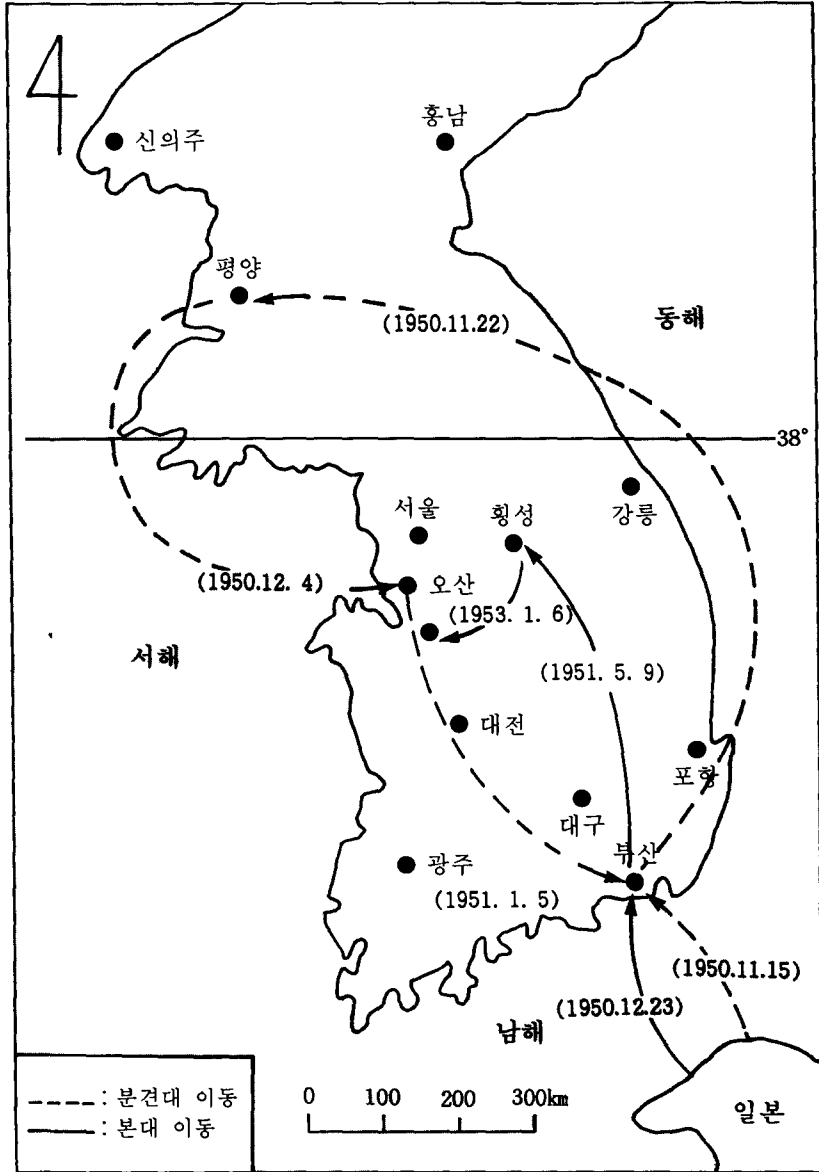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6	미군으로부터 무스탕기 16대 인수
	11. 16	무스탕기 편대 수영기지 전개, 미 제18폭격비행단 배속

4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09.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19	청천강 상공으로 첫 출격
	11. 20	평양기지로 이동
	11. 26	충돌사고로 무스탕기 2대 파손
	12. 4	무스탕기 편대 수원비행장으로 이동
	12. 13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본대, 진해기지로 이동
	12. 20	수안-사리원 지역 폭격
1951	1. 5	무스탕기 편대 진해기지로 이동, 대대 주력과 합류
	1. 19	중부전선에서 한강 이남으로 연결되는 교량 폭격
	3. 1	일일 36회 출격기록 수립
	3. 23	진해에서 수영기지로 이동, 미 제35포격전대 배속
	4. 23	진해기지로 복귀
	5. 7	여의도 기지 전개
	5. 9	신의주비행장 폭격에 참가한 유엔해군 함정 엄호
	7. 8	강동비행장 상공에서 최초 MIG기와 조우
	7. 23	시변리 상공에서 기상악화로 무스탕기 3대 손실
9. 22	황성기지로 이동	
1952	3. 20	청천강 상공에서 두 번째로 미그기와 공중전
	7. 11	평양 폭격에 참가
	8. 11	길주 텅스텐 광산 폭격
	8. 14	함흥 부근 화학공장 폭격
	8. 29	제2차 평양 폭격작전 참가
	12. 27	무스탕기 마지막 출격, 반납준비
1953	1. 2	황성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
	1. 28	미군으로부터 최초로 F-86 제트기 3대 인수
	3. 11	제2전투비행대대 제트기로 교체 후 첫 출격
	7. 18	신의주비행장에서 적기 6대 파괴

남아공 공군의 기지 이동 경로



제 12 절 그리스(Greece)

1. 참전경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한 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연합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소련과 그 위성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국내 공산당과 내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는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아 양국의 우호관계는 밀접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한 데 이어 유엔사 무총장이 유엔회원국에 전투부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내란을 수습한 지 1년도 채 못 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6대의 C-47 수송기, 3,800명으로 증강된 1개 보병여단, 그리고 이들을 통합 지휘할 그리스군 사령부 등을 파견하기로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대들은 11월 중순까지 편성과 훈련을 완료하고 출국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의 지원규모를 접수한 미 합참본부는 공군의 파견은 자국의 공군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들어 거부할 방침이었으나, 그리스 내전에 관여한 바 있는 밴플리트 장군의 건의에 따라 공군의 파견은 물론 보병여단의 참전도 승인하였다.⁴³⁰⁾

그리스가 파견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전황이 급격히 호전되어 유엔군이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피멸

430)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1.



국왕 Paul I 세(우측)의 군기하사

이 시간문제로 대두되자 미 합참은 그리스의 파견규모를 대대규모로 축소하도록 그리스 주미대사로부터 통보받았다.⁴³¹⁾ 이에 그리스 정부는 여단에 편성된 요원 중에서 내전에 참전하여 전투경험이 있는 장병들을 엄선하여 788명의 1개 대대와 61명으로 구성된 보충대를 각각 편성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파견할 예정이던 주한 그리스군 사령부도 해체하고 대신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할 연락장교단을 구성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10월 13일 파견할 부대 중 먼저 공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본국에 주둔중인 제355수송비행대대에서 C-47 수송기 6대와 병력 67명을 차출하여 제13수송편대를 창설하였다. 제13수송편대는 11월 1일 그리스를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 미 제5공

4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62.

군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대대규모로 축소된 이후 교육훈련에 주력한 지상군도 11월 10일 무명용사위령탑 참배에 이어 국왕으로부터 군기를 하사받는 등 일련의 행사가 끝나자 16일 아침 미국 수송선(General Han)에 승선하여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그리스 대대는 수에즈 운하와 세이론을 경유하여 2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9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아침 정부대표, 한·미고위장성,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식이 끝나자 김해 공군기지 부근에 설치된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하였다.⁴³²⁾ 이 무렵 전선 상황은 대대가 그리스를 출발할 당시와는 정반대로 한만국경선으로 북진하였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38도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어 가용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대는 출전준비를 서두르게 되었고, 4일 동안 장비 및 피복을 수령한 후 극히 기초적인 기상과 지형, 간략한 전황만 숙지한 채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12월 초 공군이 참전한 데 이어 지상군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이천 부근 전투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그리스 대대는 1951년 1월 5일 충주 서쪽의 대소리(大召里)로 철수하여 충주-문경 후보급로의 경비와 지대 내 패잔병 소탕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패잔병들이 산악

4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564~565.

내륙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자 미 제5기병연대장은 그리스 북부 산악지대에서 공산반군의 토벌경험이 있는 그리스 대대를 공격선봉에 내세웠다. 대대는 지역 내에서 패잔병의 출현이 빈번한 월악산(1093고지), 하설산(1028고지), 문수산(1162고지), 신선봉(967고지) 등 고산 준봉을 수색정찰하였지만 겹겹이 감싸고 있는 고산 준봉에는 적설량이 많아 기동력을 제한하여 이렇다 할 접전은 없었다.⁴³³⁾

대대는 유엔군이 37도선에서 재반격작전을 개시할 무렵인 24일 이천 동남쪽 웅암리(鷹巖里)로 이동하여 제7기병연대에 배속되었다. 연대공격의 선봉에 나선 그리스 대대는 25일 이천-곤지암-경안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26일 이천 북쪽의 정개산(鼎蓋山)으로 진출하였다. 대대는 이 과정에서 소정리(小亭里) 부근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4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 첫 번째 전상사가 발생하였다. 사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대대는 28일 좌인점 관리(冠里)로 이동 곤지암(昆池岩) 공격의 발판이 되는 양각산(羊角山) 북쪽의 381고지, 307고지, 258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대대는 적의 역습에 대비,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혹독한 한파와 땅이 푹푹 얼어붙어 진지구축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 미상의 중공군은 29일 자정이 지날 무렵 제3중대가 배치된 381고지로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이천(利川) 서쪽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⁴³⁴⁾ 적의 파상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었고, 이에 대대가 포병의 지원사격과 대대의 전 화력을 집중시켜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들이 물러난 지 채 20분도 안 된 30일 01:00에 적은 새로

4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68.

4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76.

운 부대를 증원받아 재공격을 기도하였고, 포위공격을 기도한 적이 순식간에 381고지로 진입함으로써 고지 정상은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수라장이 되었다. 제3중대는 통신마저 두절되어 잔설이 붉게 물든 381고지에 완전 고립된 상황에서도 치열한 백병전으로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대대를 지원차 출격한 항공기가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비로소 제3중대의 상황을 파악한 대대장은 제2중대의 역습에 앞서 특공분대를 긴급히 파견토록 조치하였다. 특공분대가 총검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381고지로 진출하자 이에 사기가 고조된 중대는 총력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였다.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재편성을 완료한 후 02:20에 세 번째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제3중대는 항공조명과, 포병의 화력지원하에 처절한 백병전을 벌이어 이마져 격퇴시켰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3,000여 명의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치르어 11명이 전사하고 실종 1명, 부상 14명의 손실을 입었고, 381고지에서 적이 유기한 시체 28구를 확인하였다. 이날 대대가 용전분투한 활약상은 높이 평가되어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고, 외신들도 이들의 활약상을 타전하였다.⁴³⁵⁾

(2) 흥천-춘천-화천 진격전

유엔군이 3월 7일 춘천 일대에 돌파구를 형성하여 적의 전선을 분할할 목적으로 리퍼작전(Operation Ripper)을 개시하자 대대도 제7기병연대에 배속되어 용두리-흥천 도로의 우측방 화채봉(畫綵峯)을 공격하게 되었다.

4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80.

대대는 고지를 선점한 중공군의 감제관측하에 기동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병과 전차의 화력지원하에 화채봉 공격의 발판이 되는 326고지를 공격하였다. 적은 후방의 화채봉으로부터 화력증원을 받으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대대는 이를 격퇴하였고, 이후 2차에 걸친 적의 역습도 수류탄 세례를 퍼부어 고지를 장악하였다. 대대는 8일 새벽 무렵 적의 완강한 저항을 예상하고 화채봉 일대에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집중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 주력이 지난밤에 철수한 듯 대대는 공격개시 20여 분 만에 용두리-횡성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인 화채봉을 수중에 넣었다.⁴³⁶⁾

적을 추격한 대대는 14일 양덕원리를 경유 북쪽 홍천강변의 어룡와지(魚龍臥池)로 진출하여 홍천강을 도하 북쪽의 금학산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다.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중대는 해빙기로 홍천강이 불어나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병화력이 적진을 강타하는 동안 도하에 성공하였다. 중대는 소대중대 대형으로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칼날 같은 고주암(顧柱岩) 능선 끝부분에 위치한 325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중대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며 금학산(金鶴山) 공격의 발판이 되는 325고지를 탈취하였고, 2차에 걸친 적의 역습도 격퇴하였다. 이어서 18일 새벽 제1중대가 홍천강을 도하한 후 제2중대의 엄호하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 적 주력이 전날 야음을 이용하여 철수함으로써 중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정오 무렵에 홍천 서쪽의 금학산을 점령하였다.⁴³⁷⁾

이후 대대는 춘천 남쪽의 구암리(鳩岩里)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

4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592.

4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97.

정비한 후 유엔군이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캔자스선 진출을 위한 러기드작전(Operation Rugged)을 준비하자 3월 27일 춘천 북동쪽 장학리(獐鶴里)로 이동하였다. 대대는 4월 2일 소양강을 도하한 후 3일 접적 없이 수리봉 공격의 발판이 되는 148고지로 진출하였다. 대대가 수리봉으로 접근하자 처음에는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며 아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대포병사격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대대는 일련의 종격실 능선을 따라 철수하는 중공군을 추격하여 4월 7일 화천저수지 남쪽의 수불무산(袖佛舞山)을 점령함으로써 최종목표인 캔자스선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대대의 캔자스선 진출작전은 일단락되었다.

(3) 313고지 전투

제8군은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울-철원 간의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임스타운(Jamestown)선 진출을 위한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미 제1기병사단은 임진강을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 서쪽 고지군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에 제7기병연대에 배속되어 조박골(栗田里) 남쪽을 방어중인 그리스 대대도 선벽(仙壁) 부근 313고지(Scotch고지)와 갈현리(葛峴里) 부근 334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준비하였다.⁴³⁸⁾

10월 3일 새벽 아군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1중대가 313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중대의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정오 무렵 증원을 받은 중공군이 오히려 역공을 개시하여 쌍방은 313고지 전방에서 2시간여 동안 예측불허 혼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제3중대를 증

4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18.

원부대로 투입하였으나 이마저 집중포격의 표적이 된 듯 사상자만 증가되자 14:30 313고지 하록의 은행골(銀杏谷)로 철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참전 이후 하루 전투에서는 가장 많은 14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⁴³⁹⁾

이날 저녁 미 제7기병연대장은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부진하자 그리스 대대의 우인접에서 공격중인 제2대대가 313고지 우측방의 418고지를 탈취하면 그리스 대대가 313고지를 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4일 정오가 지날 때까지 제2대대가 418고지 탈취가 어렵게 되자 연대장은 그리스 대대 단독으로 313고지를 재공격하도록 하였다. 대대는 14:00에 제2중대를 내세워 항공 폭격과 포병화력을 집중한 후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이때 중공군도 후방고지로부터 화력지원과 증원부대를 투입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전투는 18:00까지 계속되었으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대대는 다시 철수하고 말았다. 이날 전투 역시 첫날 전투의 재판으로 14명이 전사한 가운데 대대는 탄약과 보급품을 보충하면서 차기공격을 준비하였다.

5일 새벽부터 유엔공군기들과 각종 포병들이 전례 없이 313고지를 폭격하였고, 그리스 대대는 2차에 걸친 공격 실패에도 불구하고 필승을 다짐하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선봉에 나선 제2중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적의 저항이 전무하여 14:00경 313고지로 진출하였다. 이때 적 주력은 이미 철수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각종 진지와 교통호 안에는 150여 구의 시체와 부상자 12명만이 남아 있었다.⁴⁴⁰⁾ 이후 대대는 전투정찰대를 후방의 334고지를 정찰하여 무인지대임을 확인함으로써 313고지는 일단

4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19.

44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187.

락되었다.

이 전투는 3일간의 공방전에서 105명이란 전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그리스 대대가 한국전쟁에서 겪은 가장 피비린내나는 전투로 기록되었으나 그리스 대대의 불굴의 투혼은 각국 지휘관으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이 전투의 공훈으로 후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 노리고지 전투

대대가 1952년 9월 부대정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중공군이 추계공세를 개시함으로써 대대는 25일 낮익은 임진강 동쪽의 중산리(中山里)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저항선에 재배치되었다. 그리고 26일 아침에 미 제65연대장으로부터 대노리고지 공격명령을 받았다.⁴⁴¹⁾ 대대가 공격할 노리(Nori)고지는 아군이 주저항선을 구축하는 데 장애물인 임진강 ‘S’형 만곡부 입구에 위치한 야산으로서 중앙의 골짜기를 경계로 북쪽의 대노리고지와 남쪽의 소노리고지로 양분되어 있고, 대대도 지난 3월 중순에 이를 점령한 바 있어 지형에는 익숙하였다.

공격선봉에 나선 제2중대는 임진강을 우회 기동하여 26일 20:00에 제65연대 제3대대 전초진지인 소노리고지를 인수하고 공격준비에 주력하였다. 28일 새벽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한 야포와 전차는 적의 주요거점인 고양대(高陽堡), 대노리고지, 그 북쪽의 117고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였다. 사격이 끝난 05:00 제1소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적도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대노리고지 일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소대가 고지로 접근하자 중공군은 기관총사

4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45.

격과 수류탄을 투척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제1소대는 빗발치는 탄우를 뚫고 들어가 30여 분 만에 대노리고지를 장악하였다.⁴⁴²⁾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07:00까지 무려 4차에 걸쳐 소대-중대규모로 역습을 시도하였지만 제2중대는 항공 및 포병화력을 지원받아 이들을 격퇴하였다. 적이 물러나자 유엔공군은 적의 전초거점으로 추정되는 서북쪽의 117고지와 121고지를 맹폭격하여 적의 공격준비를 방해하였다. 전투는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듯하였으나 09:00경 돌연히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5차로 주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다시 대노리고지는 화염에 휩싸였다. 소대는 이들을 맞아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고, 소대의 용전분투로 중공군이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소대를 지원차 출격한 아군기가 소대를 오폭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를 눈치챈 중공군이 재역습을 감행함으로써 오폭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기가 저하된 소대는 부득이 고지에서 물러나고 말았다.⁴⁴³⁾

제2중대도 이에 굴하지 않고 29일 자정이 지나자 증강된 소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2시간여 동안 격전을 벌여 대노리고지를 재탈환하였다. 그리고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이 역습을 개시하여 또한 차례 예측불허의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중대는 아군의 부대교대계획에 따라 철수하므로 대노리고지는 다시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대노리고지를 두고 중공군과 의지의 대결을 벌인 그리스 대대는 10월 1일 작전지역을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에 인계하고 운천 남쪽의 성동리(城洞里)로 이동하여 사단에 비가 되었다.⁴⁴⁴⁾

4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49.

4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52.

4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53.

(5) 420고지(Harry) 전투

중공군의 6월공세 여파는 6월 10일을 전후하여 김화 서쪽을 방어중인 미 제3사단 지역으로 파급되었고, 중공군의 공격은 제15연대의 중요한 전초진지인 서방산 남쪽의 420고지(Harry)⁴⁴⁵에 집중되었다. 이때부터 제15연대는 휴전선 획정에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대들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면서 중공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였고, 배속중인 그리스 대대도 휴전을 목전에 둔 16일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대대가 이 지역에 배치될 무렵 적의 포격에 일선 진지가 거의 파괴되어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하였고, 그리스 장병들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서둘러 진지보수 및 장애물을 구축하였다.

17일 자정 무렵 폭풍우가 몰아쳐 시계가 극히 제한된 틈을 이용수 미상의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420고지 전투는 시작되었다. 대대가 조명탄을 쏘아 올리자 2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양익포위로 고지로 접근하였고, 대대는 탄막사격을 포함한 전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 사격에 중공군은 분산 철수하였다.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빗줄기가 멈추자 02:00경 이번에는 연대규모로 증강되어 좌우 정면에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고지를 방어중인 제3중대장에게 미 제15연대가 앞선 전투에서 상당한 전사상자를 내면서 지켜 낸 고지임을 강조하고, 그리스군의 명예를 걸고 420고지를 기필코 사수하도록 독려했다.⁴⁴⁶

445) 420고지(Harry): 이 고지는 ‘魔의 高地’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동 고지가 지닌 전술상의 중요성 때문에 적이 인적 손실에 구애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하였다는 점과, 지형이 기이하게 생긴데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67.

02:30을 전후하여 피아의 사격에 장애물은 파괴되고 유선이 두절되었다. 고지에 고립된 제3중대는 피성을 지르며 진내로 접근하는 중공군을 맞아 백병전을 시작하였고, 고지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지원된 전차로 증강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계곡 통로를 따라 적의 측후방에 투입하였고, 이때부터 절망적이던 전황은 급반전되었다. 측후방에서 보전조의 기습공격에 일격을 당한 중공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분산 도주하였다.⁴⁴⁷⁾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2차에 걸친 파상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04:00경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새벽 이전에 전투를 종결지으려는 듯 인명손실에 구애됨이 없이 저돌적인 파상공격을 계속하였고, 이에 맞서 고군분투한 중대도 상당히 지쳐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대대가 제1중대를 긴급히 증원시킴으로써 제3중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고, 공격하다 지친 중공군도 새벽이 가까워오자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전투는 일단락되었다.⁴⁴⁸⁾

대대는 이 전투에서 5시간 동안 중공군과 사투를 벌여 전사 5명, 부상 20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5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스 대대는 중대규모로 연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시킴으로써 그리스군의 용맹성을 다시 한 번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는 이 전투의 공훈으로 한·미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받았다.

(6) 북정령 부근 전투

중공군이 7월공세를 개시하자 미 제3사단은 국군 수도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궁동(齋宮洞)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미 제15연대

4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70.

4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72.

에 배속된 그리스 대대도 14일 적근산 서남쪽 고비목(高飛木)으로 이동하여 다음날 김화-금성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북정령(北亭嶺) 남쪽의 구릉지대로 진출하였다.

중공군은 16일 밤부터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우인접 제15연대 제1대대를 공격하였고, 자정 무렵 적의 포격은 연대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포격에 미처 진지구축을 끝내지 못한 대대도 다수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우인접 미 제15연대 제1대대를 공격한 중공군은 진지들과가 여의치 못하자 또 다른 1개 대대를 투입하여 04:00경 그리스 대대를 공격하였다.⁴⁴⁹⁾ 이때부터 대대는 파상공격을 벌이는 중공군과 치열한 진내전을 펼쳐 새벽 무렵에 이적을 격퇴하였다.

중공군이 물러나자 대대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적의 포격으로 손상된 진지보수를 서둘렀다. 그러나 15:00경 중공군 2개 중대 규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대대의 좌전방 495고지 일대에서 다시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대대는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2시간 30여 분 동안 숨막히는 혈전을 벌여 이 적도 격퇴하였다. 전선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대대는 20일 작전지역을 국군 제1기갑연대에 인계하고 21일 새벽에 김화-금성 도로와 진현리-마현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인 북정령 남쪽의 532고지, 492고지에 재배치되었다.⁴⁵⁰⁾

전선의 소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대대는 북정령 일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휴전을 불과 3일 앞둔 25일 22:30경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포병사격을 집중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고, 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적을 포병화력과 대대의 집중사격으로 저

4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75.

4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76.

지하였다. 도로 북쪽으로 물러난 중공군은 26일 02:00에 재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여 30여 분 만에 이 적마저 격퇴시킴으로써 대대는 한국전쟁의 대미를 장식하였다.⁴⁵¹⁾

이 전투에서 대대는 19명이 전사하고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150명을 사살하고 27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려 휴전 직전까지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중공군에게 일침을 가하였다. 특히 대대는 휴전을 앞두고 피해를 줄이려는 미 제15연대장의 철수 종용도 마다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함으로써 오늘날 승암고개(承岩峴)가 휴전선 남쪽에 남아 있게 되었다.⁴⁵²⁾

3. 공군의 활동

C-47 수송기 7대로 구성된 그리스 제13수송편대는 1950년 12월 1일 일본에 도착하여 미 제315전투수송비행사단에 배속되었다. 이 무렵 동부전선 장진호(長津湖)로 진출한 미 제10군단의 전황이 악화되자 그리스 수송편대는 4일 미 제21수송비행대대와 함께 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포기지(K-27)로 파견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⁴⁵³⁾

장진호 전투에서 악전고투중인 미 해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토리(古土里)와 하갈우리(下礪隅里)에 간이활주로가 건설되자 그리스 수송기편대는 이 지원작전에 투입되었다. 당시 급조된 활주로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빙판같이 미끄러웠고, 또한 강풍과 눈보라를 동반한 악천후, 적의 치열한 대공사격 등 최악의 비행조건이

4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80.

4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78.

4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92.

었다. 그러나 그리스 편대는 적지 상공을 누비면서 퇴로가 차단되어 포위된 미 해병사단에 다수의 보급품을 공수하고 흑한에 시달리는 전사상자 600여 명을 후송시키는 맹활약을 하였다.⁴⁵⁴⁾ 이후 편대는 12월 중순 흥남철수작전을 지원한 후 편대 본부는 일본으로 이동하고 수송기 4대로 편성된 작전편대는 수영기지(K-9)에 전개되었다.

그리스 편대가 보유한 C-47 수송기는 협소한 간이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기종으로 재반격을 개시한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진출하자 편대도 수영에서 대구기지(K-2)를 경유 5월 14일 김포기지(K-14)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편대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여주활주로, 원주활주로를 이용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다.⁴⁵⁵⁾ 이 과정에서 편대는 1월 초 원주비행장과 5월 하순 추풍령 상공에서 수송기를 손실하여 미군으로부터 재보충을 받기도 하였다.

8월로 접어들면서부터 편대는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에 대한 지원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편대는 도서가 적지에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조시에만 천연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착륙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⁴⁵⁶⁾

1952년 1월 중순 편대의 효율적인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일본에 잔류하고 있던 편대본부가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여 수송편대와 합류함으로써 출격횟수도 전년도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다. 그러나 편대는 연말을 맞아 참전 이래 최대의 불운을 맞았다. 12월 22일 편대장이 직접 조종한 수송기가 수원비행장에서 미공군기와 충돌하여 승무원 5명과 후송중인 미군 부상자 5명이 전

4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693.

4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94.

4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97.

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 27일에는 5일 전의 비행사고로 편대장 대리로 임명된 조종사가 진해기지를 이륙 후 고지 정상에서 충돌하여 14명이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함으로써 편대의 분위기는 매우 침통하였다.⁴⁵⁷⁾

1953년에 접어들어 신임 편대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심기일전한 편대는 1월 9일부터 지원활동을 속개하였고, 2월 초에는 미 공군의 주력 수송기종 교체에 따라 신편된 제6461대대가 여의도기지로 진출함으로써 지원임무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대형기종인 C-124 수송기가 대구와 김포기지까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면 편대는 이를 전방까지 추진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미 제315전투수송비행단장은 “그리스 편대의 장병들은 전술전기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강인하며, 외국군과의 빈틈없는 유대로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대대를 극구 칭찬하였다.⁴⁵⁸⁾

그리스 편대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도 김포기지와 여의도기지를 오가며 5대의 C-47 수송기로 비행임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한국 정부는 10월 편대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이후 편대는 1955년 3월 하순 한국에서의 지원임무를 종료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4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698.

4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00.

4.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육군	보병대대	1950. 12~1955.12	1950. 12. 13 미 제1기병사단 배속
공군	제13수송편대	1950. 11~1955. 5	미 제21비행대대 배속 (1950. 12) 미 제6461수송대대 배속 (1951. 12)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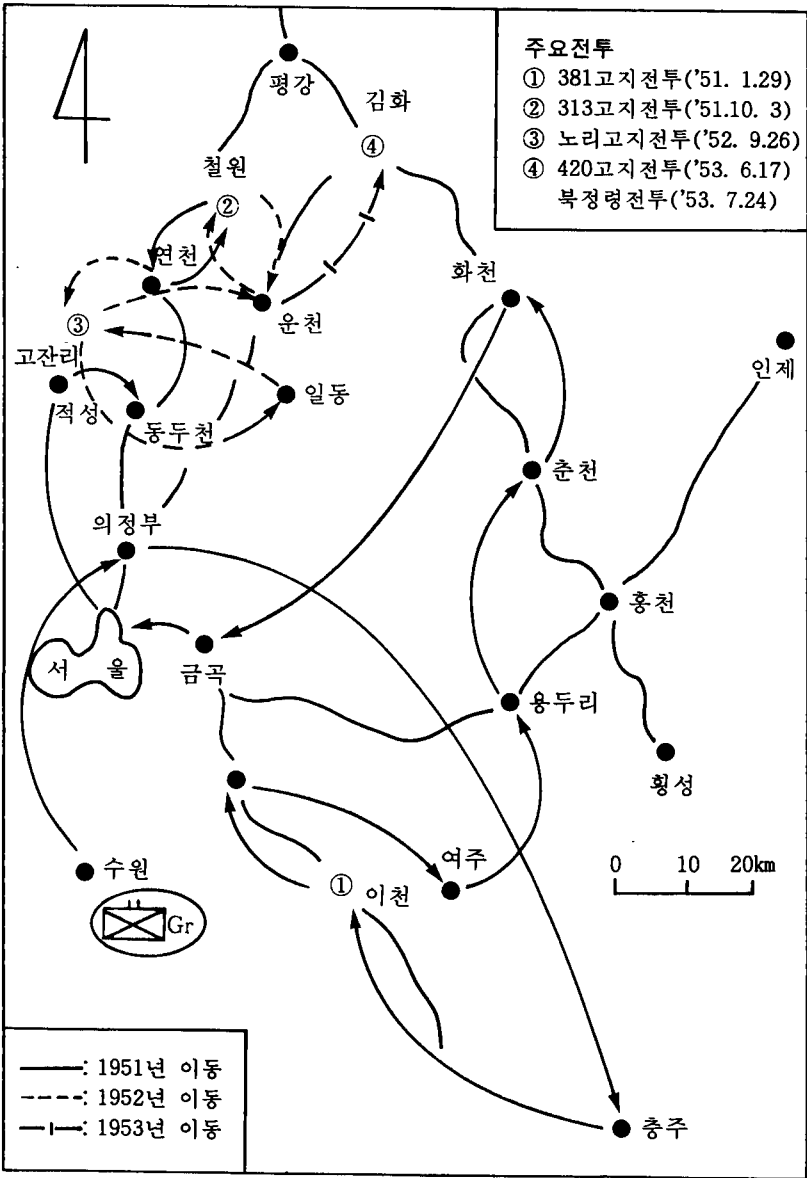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총 계	647	188	459
육 군	635	176	459
해 군	12	12	-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1	제13수송편대 일본으로 이동, 미 제5공군 배속
	12. 4	그리스 대대, 부산 도착
	"	제13수송편대 연포기지 전개, 하갈우리에서 환자 후송작전
	12. 16	그리스 대대 수원으로 이동, 미 제1기병사단 배속
1951	1. 5	충주로 이동, 충주-문경 도로 경비
	1. 16	월악산, 하설산, 문수산, 신선봉 일대에서 패잔병 소탕작전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1. 29	이천 서쪽 381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2. 8	근지암리 북쪽 489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3. 7	용두리 동쪽 326고지 공격
	4. 7	홍천 북쪽 금학산 진출
	4. 27	서울 홍제동 부근 방어
	5. 14	제13수송편대 김포기지 전개
	5. 26	노고산-감악산 경유 임진강변 진출
	6. 9	연천 북쪽 와이오밍선 진출
	8. 4	추라동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
	10. 3	313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11. 28	미 제1기병사단에서 미 제3사단으로 배속 전환
	12. 30	임진강 'S'형 굴곡부 배치
1952	3. 2	중공군과 Kelly고지 쟁탈전
	3. 17	Kelly, Nori, Betty 진초진지 전투
	5. 23	제1중대, 거제도 포로수용소 경비
	7. 26	4개월간 부대정비 후 임진강 굴곡부 재진출
	8. 7	임진강변 167고지 기습공격
	9. 28	노리고지에서 중공군과 공방전
	10. 29	미 제9군단으로 복귀, 철원지구로 이동
	12. 14	유정리에서 중공군 1개 중대 유인 격멸
12. 27	진해에서 수송기 추락 14명 전사	
1953	3. 11	438고지에서 정찰대간 조우전
	5. 16	철원 동북쪽 증가산 배치
	6. 17	420고지(Harry)에서 중공군과 격전
	7. 14	북정령 남쪽 구릉지대 진출
	7. 16	북정령 남쪽 495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7. 25	승암리 북쪽 492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그리스 대대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13절 벨기에·룩셈부르크 (Belgium·Luxemburg)

1. 참전경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에 영세중립국을 포기하고 NATO에 가입하였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일천하여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 양국은 1950년 7월 14일 유엔의 지원요청에 이어 미국으로부터도 파병을 증용받았으나 즉각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상비군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22일 통합된 대대를 편성하여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고 모병과 부대창설 준비에 주력하였다.⁴⁵⁹⁾

벨기에 정부가 8월 25일 파병을 공표하고 지원병 모집을 개시하자 현역, 예비역, 레지스탕스 출신 등 여러 계층에서 2,000여 명이 지원하였다. 정부는 엄격한 파병기준과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9월 18일 기간요원이 될 장교와 하사관을, 10월 2일 700명의 사병을 선발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사회적 직위와 보장된 생활도 포기하고 지원한 전 상원의원이며 당시 국방장관인 메론(Melon)도 끼어 있었다.

룩셈부르크도 10월 1일 벨기에의 일정계획에 맞추어 지원병을 모집하여 48명으로 편성된 1개 소대를 벨기에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 소대는 벨기에 대대 A중대에 편입되었다.⁴⁶⁰⁾

4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161.

4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62.



참전준비를 완료한 룩셈부르크 소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성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이하 ‘벨기에 대대’로 약칭함)는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 3개 소총중대, 그리고 1개 화기중대로 구성되었고, 초대 대대장 크라헤이(B. E. M. Crahay) 중령이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대대는 개인화기의 취급과 사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한국지형과 유사한 지형에서 야외기동훈련도 실시하였다. 특히 단결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완전무장으로 16km를 2시간 이내에 주파한 장병들에게는 ‘반공십자군’을 상징하는 전통의 십자모표를 붙인 갈색의 베레모를 착용하도록 하였다.⁴⁶¹⁾

출동준비를 완료한 대대는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하여 38도선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있을 무렵인 12월 18일 영국의 수송선(Kamina) 편으로 벨기에를 출발하였다. 지브랄타해역을 통과한 카

4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163.



참전준비를 완료하고 출항을 기다리는 벨기에군

미나(Kamina)호는 29일 포트사이드(Port-said)에 기항하여 연료와 식량을 보충받은 다음 말라카해역을 지나 1951년 1월 25일 마닐라(Manila)에 기항하였다. 그리고 30일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에 도착하여 미 제8군에 배속된 후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하였다. 벨기에 대대는 벨기에를 출발한 지 44일 만인 1월 30일 밤에 부산에 입항하였고, 다음날 아침 시민과 한·미 고위관계자의 열렬한 환영 속에 부산에 상륙하였다.⁴⁶²⁾ 간단한 환영식이 끝나자 대대는 바로 동래에 위치한 유엔군수용소에 입소하였다. 이때부터 대대는 6주간의 긴 항해로 인하여 둔화된 장병들의 신체 단련과 부대정비에 주력하면서 참전을 준비하였다.

462)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84.

2. 지상군의 활동

(1) 동두천 진격전

미 제1군단 주력부대들이 1951년 3월 21일 임진강 진출작전을 개시하자 미 제3사단 제15연대에 배속된 벨기에 대대도 태릉 부근으로 이동하여 22일 아침에 지원된 미 전차소대를 앞세우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경미한 중공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불암산-순화궁 고개-수락산을 경유 23일 의정부-포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155고지로 진출한 후 우인접에서 진출중인 미 제25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로 전환하였다. 대대는 이날 자정 무렵 참전 이후 처음으로 중공군 1개 소대규모의 야간 기습공격을 받아 진지 일부가 돌파되기도 하였으나 10여 분 간의 백병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⁴⁶³⁾

이후 미 제7연대로 배속이 전환된 대대는 25일 미 제187공수연대가 탈취한 의정부-동두천, 의정부-포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337고지를 인수한 데 이어 29일 칠봉산(七峰山), 30일 소요산 계곡 입구의 보산리(保山里)로 진출하였다. 이때 대대는 미 제7연대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공격에 실패한 소요산(逍遙山) 공격의 발판이 되는 482고지 공격임무를 인수하고 공격준비에 주력하는 한편 적의 야간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목표고지에 대한 야간 교란사격을 집중하였다. 31일 아침 대대의 공격에 앞서 목표고지를 정찰한 정찰대가 적의 철수를 보고해 옴으로써 대대는 482고지를 무혈 점령한 후 도처에 널린 중공군의 사체만 수습하였다.⁴⁶⁴⁾

4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183.

4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188.

유엔군 주력부대들이 38도선으로 진출하여 리퍼작전은 일단락되었고, 미 제1군단은 그 동안 예비로 영등포에 집결하고 있던 영 제29여단을 임진강 남쪽의 적성(積城)으로 이동시켜 4월 2일 미 제65연대 진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벨기에 대대도 3일 영 제29여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신산리(莘山里)로 이동하여 여단 지휘소 및 후방지역 보급로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대대는 그 동안 미군으로부터 식량, 탄약 등의 보급품을 지원받았으나 미군과 편제장비가 상이하여 보급물자 획득에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대대가 편제장비가 유사한 영 제29여단에 배속됨으로써 이러한 군수지원상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어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⁴⁶⁵⁾

(2) 금굴산 전투

영 제29여단에 배속된 대대는 중공군의 4월공세가 임박한 19일 얼스터대대의 임진강 북쪽의 금굴산(金窟山) 지역을 인수함으로써 여단의 전초부대가 되었다.

당시 대대가 인수한 금굴산 지역은 임진강변을 따라 배치된 영 제29여단 지역을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인접에서 임진강 동쪽의 진상리(進祥里) 일대에 배치된 미 제3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그럼에도 유일한 통로가 임진강과 한탄강(漢灘江)에 설치된 교량을 통과해야 하므로 군수지원은 물론 적의 공격에 고립될 위험도 안고 있었다.⁴⁶⁶⁾

대대가 금굴산 일대에 거점방어 편성을 완료할 무렵인 22일 자정 무렵 4월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의 제1파가 대대를 강타하였다.

4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p. 43.

4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7.

대대는 이들을 맞아 혈전을 벌여 금굴산 진지를 고수하였으나 23일 새벽 대대를 우회한 중공군의 일부가 철수로상의 요충인 임진강 남쪽 257고지를 탈취함으로써 임진강에 부설된 두 개의 부교에 의존하고 있던 벨기에 대대는 우려했던 대로 퇴로가 차단되어 적중에도 고립되고 말았다.⁴⁶⁷⁾

이때 미 제3사단은 벨기에 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전차 2개 소대와 보병 1개 중대를 파견하였으나 도감포 일대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전차 1개 소대만 겨우 교량을 통과하여 대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전차의 증원으로 대대의 전의가 다소 회복되어 역습으로 새벽에 피탈한 진지도 탈환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어정면은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장은 정오 무렵 여단장에게 장비를 파괴하고 병력만 임진강을 건너 전곡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영 제29 여단장은 미 제7연대 제1대대가 벨기에 대대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는 257고지를 공격할 계획임을 들어 대대의 철수계획에 반대하고, 대신 일몰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준비명령만 하달하였다.⁴⁶⁸⁾

이날 여단은 고립무원에 빠진 벨기에 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오전에 전차로 증강된 푸실리아대대를 투입한 데 이어 14:00 지원된 미 제7연대 제1대대로 257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마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벨기에 대대장은 미군의 구출작전마저 실패하자 강력 돌파작전을 구상하여 철수준비를 서둘렀고, 이를 간파한 중공군은 15:00부터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대대의 방어정면은 금굴산 거점으로 축소되었다.

46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p. 385~386.

4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pp. 64~65.

이런 상황에서 17:00경 대대는 미 제3사단으로부터 점적단절을 위한 충분한 항공지원이 개시되면 전곡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80대의 차량제대는 전차의 엄호하에 교량을 통과하여 전곡으로 철수하고 보병들은 임진강을 도하한 후 단애지역을 등판하여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⁴⁶⁹⁾

잠시 후 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격한 폭격기들이 대대 전방과 후방의 257고지를 폭격하기 시작하였고, 네이팜탄의 연기가 적의 시계를 차장하자 먼저 차량제대가 출발한 데 이어 보병들도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군도 대대의 철수를 극력 저지하기 위하여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였으나 대대의 강력돌파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벨기에 대대 장병들은 갈수기로 임진강이 줄어들어 도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단애지역이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장병들은 밧기 어려울 정도의 투혼을 발휘하여 15m나 되는 단애지역을 단숨에 등판한 후 18:30경 우인접의 미 제65연대 제3대대 지역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조금 전에 부대대장이 인솔한 차량제대도 적의 포격에 차량 4대만 손실을 입고 무사히 이 지역을 통과하였음도 확인되었다.⁴⁷⁰⁾

이 전투에서 대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와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중공군의 4월공세를 저지하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차단선을 강력 돌파해 성공함으로써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3) 학당리 전투

1951년 8월 미식장비로 재무장한 벨기에 대대는 미 제3사단에

4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p. 67.

4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8.

배속되어 기본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새로운 대대로 변모하였고, 10월 7일 미 제15연대의 예비가 되어 철원 남쪽 읍지리(栗枝里)로 이동하였다.⁴⁷¹⁾

대대가 이곳에 도착할 무렵 제15연대는 제임스타운(Jamestown) 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철원 서쪽의 324고지(악어고지)를 공격중에 있었다. 대대는 연대의 작전이 일단락될 무렵인 10월 10일 철원-평강 중간지점에 위치한 학당리(鶴堂里)로 이동하여 388고지에 전초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388고지는 각종 지뢰와 전술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 주변에는 강력한 탄막지대도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쪽의 발이봉(發利峯)과 동쪽의 서방산(西方山)의 중공군으로부터 감제되고 있어 방어에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중공 제78사단은 11일 새벽 대대의 방어태세를 시험해 보기라도 하듯 1개 분대규모로 선제공격을 가해 왔으나 격퇴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82mm 박격포와 76.2mm 곡사포 사격을 집중한 후 1개 중대규모를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공격 또한 대대의 탄막과 집중사격에 걸려 무산되었다. 잠시 후 중공군은 1개 대대규모로 증강되어 2차 공격을 기도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철조망지대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적은 대대의 완강한 저항과 박격포 및 지원포병의 탄막사격에 휘말려 오히려 큰 피해만 입고 철수하였다. 동이 틀 무렵 대대 정찰대는 적이 유기한 사체 10구를 확인한 후 2km 북쪽의 발이봉까지 진출하여 적의 관측소를 파괴하고 복귀하였다.⁴⁷²⁾

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눈앞에 걸림돌 같은 존재인 388고지를

47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84.

4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19.

기필코 탈취하려는 듯 12일 자정 직전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1개 중대규모는 조공으로 정면에서 전방의 C중대를 주공인 1개 중대 규모는 우측방으로 우회하여 중앙의 B중대를 포위공격하였다. 대대의 청음초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지한 데 이어 외곽 경계 지역에서도 소화기와 수류탄이 난무하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주저항선에 도착한 적은 전력이 크게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진내로 돌격을 기도하였다. 이 전투에서 쌍방은 4시간 동안 전술적 요충인 388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측불허의 사투를 벌였으나 새벽 무렵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대대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⁴⁷³⁾

벨기에 대대는 날이 밝자 전장도 정리하기 이전에 도착한 미 제 65연대 제2대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울지리의 예비진지로 이동하였다.

이 전투에서 벨기에 대대는 전초진지인 388고지에서 3일 동안 4차에 걸친 중공군의 집요한 파상공격을 격퇴함으로써 미 제1군단의 제임스타운선 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4) 잣골 전투

미 제3사단에 배속된 벨기에 대대는 1953년 1월 26일 김화 서쪽의 우구동-유곡리 일대로 이동하여 2월 26일 미 제7연대의 우전방 지역인 잣골(栢洞) 부근의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⁴⁷⁴⁾ 대대가 배치된 잣골은 중공군의 강력한 방어거점인 오성산(五聖山)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대대도 강력한 탄막지대와 지뢰지대의 구축은 물론 적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다

4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20.

4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27.

록 통나무로 각종 진지를 유개화하는 등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전방중대들은 주저항선 전방에 분대규모의 강력한 전초진지를 설치하였고, 중공군도 C중대 전초인 카롤(Carol) 진지에서 350m 떨어져 있는 400고지에 소대규모의 전초를 설치하고 중대의 활동을 감제하고 있었다.

3월 8일 저녁 무렵 오성산에 배치된 중공군이 대대 지역으로 직사포와 122mm 박격포 사격을 개시함으로써 전선의 소강상태는 깨어지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9일 01:00경 중공군은 전초진지에 산발적인 포격을 개시하였고, 이 포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되었다. 02:30을 전후하여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중앙 B중대의 전초인 바바라(Barbara)를 공격한 데 이어 좌전방 A중대의 엘리스(Alice)전초와 우전방 C중대의 카롤전초를 공격하였다. 이때부터 쌍방간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시작되었고, 이 포격전은 04:00경 절정에 달하였다. 이 와중에 C중대의 전초진지가 피탈되었다.⁴⁷⁵⁾ 대대는 이날 새벽에 카롤전초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역습을 개시하였으나 적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적이 유기한 사체 25구만 확인하고 전초진지를 확보하였다. 이후에도 중공군은 13일 1개 소대규모로 A중대의 엘리스전초를 기습공격하였으나 중대의 역습으로 격퇴되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중공군이 4월 8일 01:30경 강력한 포병의 화력지원하에 1개 소대규모로 카롤전초를 기습공격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날 적의 포격에 전초진지의 유개호, 지뢰, 철조망 등이 완전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병 2명도 전사하였다. 이에

4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30.

대대장은 2차에 걸쳐 카롤전초에서 격전을 치른 C중대를 접적이 경미한 A중대와 교대하도록 하였다.

8일 C중대 진지를 인수한 A중대는 사단지시에 의거 카롤전초의 긴급복구에 주력하여 13일 진지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적은 17일 밤부터 다시 포격을 재개하였고, 이 포격은 18일 밤까지도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자정 무렵 중공군은 B중대 정면과 카롤전초를 목표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대대는 탄막사격으로 대항하였다. 이때 중공군의 일부는 B중대의 교통호까지 육박하였으나 진내사격과 혼신을 다한 중대의 백병전에 밀려 30여 구의 사체를 유기하고 물러났다.⁴⁷⁶⁾

대대는 이 전투를 끝으로 55일 동안 전초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포격전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면서 사투한 잣골지역을 미 제7연대에 인계하고 4월 21일 예비진지인 우구동-유곡리 일대로 이동함으로써 대대의 잣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대대기에는 ‘임진’, ‘학당리’에 이어 세 번째로 ‘잣골’이라고 쓰여진 영광의 전투리본이 추가되었다.⁴⁷⁷⁾

3.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벨 기 에 대 대	1951. 1~ 1955. 6	1951. 3. 미 제3사단 배속
		1951. 4. 영 제29여단 배속
		1951. 8. 미 제3사단 배속

4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33.

4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227~228.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룩셈부르크 소대(1차)	1951. 1~ 1951. 8	벨기에 대대 배속
룩셈부르크 소대(2차)	1952. 3~ 1953. 1	"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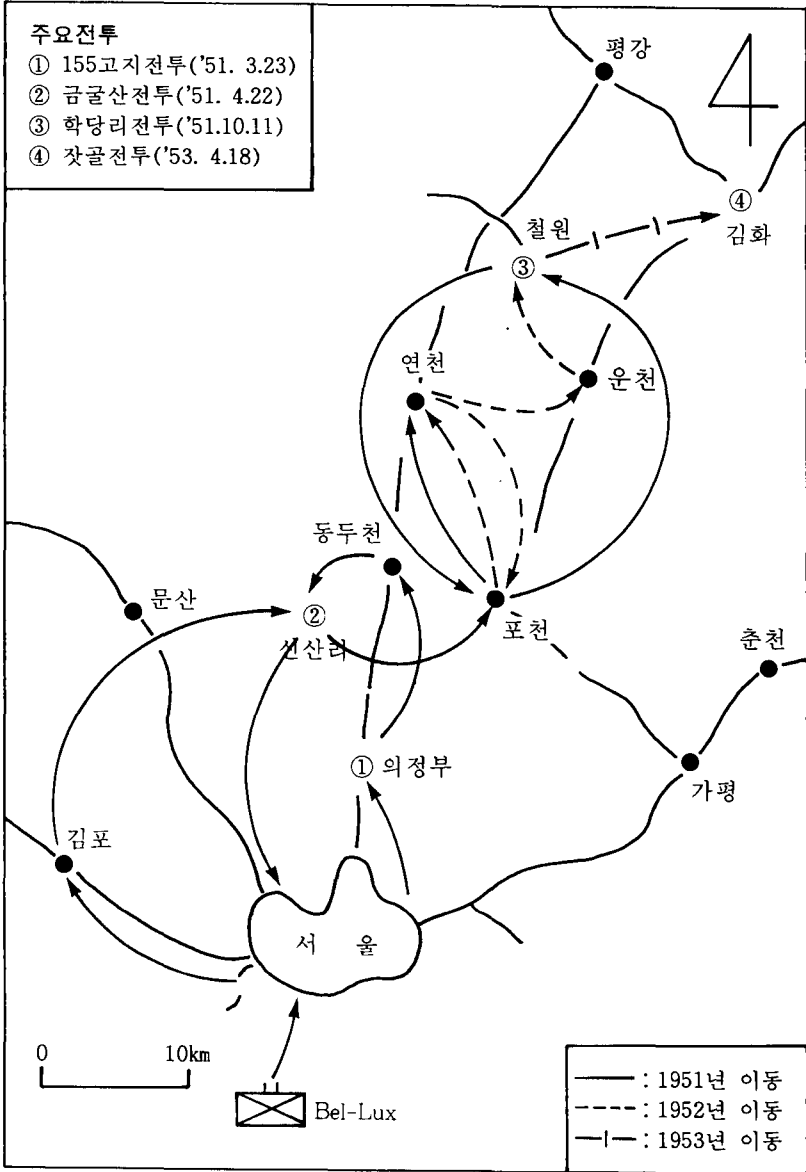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증	포 로
총 계	458	106	351	-	1
벨 기 에	441	104	336	-	1
룩셈부르크	17	2	15	-	-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1. 31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 부산 도착
	2. 10	왜관으로 이동, 대구-김천 병참선 경비
	3. 6	경기 죽전리 이동, 미 제3사단 제15연대 배속
	3. 9	죽섬 남쪽 한강변 진출
	3. 22	임진강 진출작전 개시
	3. 31	불암산-수락산-155고지-칠봉산 경유 보산리 진출
	4. 3	영 제29여단 배속, 신산리 이동
	4. 19	금굴산 전초진지 진출
	4. 22	임진강 강력 돌파, 전곡으로 철수
	4. 25	제29여단의 철수 엄호 후 덕정으로 철수
	4. 27	김포반도로 이동
	5. 27	임진강변 적성으로 복귀
	8. 19	1차 참전자 귀국, 룩셈부르크 소대 귀국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8. 31	미 제3사단 배속, 미군 장비로 재편성
	10. 12	학당리 부근 388고지에서 중공군과 격전
	11. 21	임진강 동쪽 202고지 진출
1952	1. 19	임진강 동쪽 계호동으로 재진출
	2. 26	미 제7연대로 배속, 전환 사단예비
	3. 26	룩셈부르크 소대, 제2진 대대와 합류
	4. 26	8군예비, FTC로 이동
	7. 5	계호동 부근으로 재진출
	8. 19	상골로 이동, 역곡천 방어
	9. 25	룩셈부르크 소대, King 전초진지에서 격전
	10. 25	중부전선 중마산 진출
	11. 24	백마고지 진출
1953	1. 7	룩셈부르크 소대 귀국
	2. 27	잣골지역 배치
	3. 9	중공군과 전초진지 쟁탈전
	4. 8	Carol 전초진지 공방전
	4. 21	55일간 잣골지역을 방어 후 사단예비로 전환
	5. 15	하덕리로 진출, 주저항선 복귀
	5. 20	포로획득을 위한 Leopold작전 개시
	6. 20	Jeff전초 기습공격
7. 2	Carol전초 기습공격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14 절 에티오피아(Ethiopia)

1. 참전경위

에티오피아도 유엔의 대한군사지원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의 지원요청을 받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1935년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당시 국제연맹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무위로 끝난 쓰라린 경험이 있어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는 군사지원의 제공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자국내 사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파병계획은 결정하지 못하였다.⁴⁷⁸⁾ 당시 에티오피아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탈리아에 무장해제되어 군사장비는 낙후되었고, 1950년 영국의 지원을 받아 10개 대대를 창설하였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은 황실근위대에 불과하여 전투부대로서의 임무수행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세라시에 황제는 황실근위대에서 1,200명을 차출 1개 대대규모를 파견할 것을 계획하고 1950년 8월부터 편성에 착수하였다.⁴⁷⁹⁾ 지원병 선발계획이 예하부대에 하달되자 장병들이 앞을 다투어 지원함으로써 이 임무를 맡은 근위대사령관은 지원병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참전 1진으로 편성된 대대는 영국군에서 파견된 교관단의 지원하에 9~10월 동안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근교의 한국의 지형과 유사한 지역에서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유엔군이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고 있을 무

47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3.

4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03.



이승만 대통령 임석하에 부산에 상륙하는 에티오피아군

렵인 11월 20일 1,069명으로 편성된 대대를 파견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미 합동참모본부도 에티오피아 대대의 전투능력보다도 참전국을 수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참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대의 훈련이 종료되자 1951년 4월 출국을 서둘러 준비하였다. 그리고 셀라시에 황제는 출국 환송치사에서 이 대대에 가그뉴(Kagnew) 대대라는 명칭을 하사하였다. 에티오피아어로 'Kagnew'는 관통하기 어려운 물체, 또는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거나 그를 괴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⁴⁸⁰⁾

출국신고를 마친 가그뉴 대대와 지원사령부 요원 1,158명은 사령관 구에브레(Kebbede Guebre) 대령의 지휘하에 4월 16일 미 수

4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04.

송선(General Macrea)에 승선하여 출항하였고, 20일간의 긴 항해 끝에 5월 6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환영식이 끝나자 바로 동래(東萊)에 위치한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하여 미군으로부터 장비와 피복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2개월 동안 미군교관들의 지도하에 화기조작, 사격술, 전술 등 기초교육도 받았다. 이후 대대는 7월 6일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서울을 경유 가평으로 이동하여 11일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2. 지상군의 활동

(1) 삼현 부근 전투

1951년 8월 9일 화천 북쪽의 노동리(盧洞里)로 이동하여 사단에 비가 되었다. 이때 제2중대가 제32연대 제3대대에 배속되어 적근산(赤根山) 전방 전초진지인 797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대대는 처음으로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⁴⁸¹⁾

그리고 전방에 배치된 지 3일 만인 12일 정오 무렵에 증강된 분대규모의 정찰대가 봉당덕리(鳳堂德里) 부근에서 10여 분 간 적과 교전함으로써 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적과 조우전을 벌였다. 이어서 15일에는 중공군과 4시간여 동안 격전을 벌여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 차후전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⁴⁸²⁾

에티오피아 대대는 9월 16일 적근산 전방 797고지 일대의 산악

4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08.

4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10.

지역에 주력부대가 배치되었다. 이 무렵 중동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금성 공격의 발판이 되는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 전초진지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대는 삼현(三峴) 부근의 700고지와 602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들 고지들은 적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악능선상에 위치하고 사방이 험준한 고지들로 둘러싸여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기동공간마저 협소하였다. 대대는 그 동안 정찰작전을 통하여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공격계획을 준비하였다. 21일 04:00 예정된 각종 지원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자 공격선봉에 나선 제2중대도 700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가 고지로 접근하자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은 수류탄을 투척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포병의 화력지원에 힘입어 공격개시 1시간 30분 만에 700고지를 점령하였다.⁴⁸³⁾

이어서 제1중대가 정오 무렵 제2중대의 엄호하에 602고지로 접근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공격이 둔좌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대장은 적진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였고, 중대는 이 틈을 이용 고지로 진출하였으나 적의 증원으로 다시 밀려났다. 중대는 3시간 30분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중대장이 총상을 입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대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철수하였다.

602고지 탈환에 실패한 대대는 22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가랑비가 내려 화력지원에 차질을 빚는 등 공격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정오부터 비가 멈추어 날씨도 쾌청해지자 13:40경 602고지에 포병화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적도 대응사격으로 저항하였으나 제1중대는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고지 정상으로 진출하여 백병전을

4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23.

벌였다. 이 무렵 아군기 편대가 적진을 강타하자 혼란에 빠진 적은 앞을 다투며 분산 철수하였다. 고지를 확보한 중대는 602고지에 구축된 제반 적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대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16:00에 복귀하였다.⁴⁸⁴⁾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적이 유기한 시체 179구를 확인하고 1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려 참전 이후 가장 치열한 격전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었다.⁴⁸⁵⁾ 이 결과 후일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전분투한 다수의 장병들은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 대대는 이 일대에서 수색정찰활동을 계속하다가 10월 7일 가평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2) 삼각고지 전투

에티오피아의 두 번째 부대로 1952년 3월 29일 부산에 도착한 가그뉴 제2대대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되어 부대정비, 전술훈련 등을 마치고 철원 일대에서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대대는 10월 3일 사단의 전선조정에 따라 한탄강과 남대천이 합류하는 개활지 부근의 도창리(道昌里)로 이동하였다.⁴⁸⁶⁾

10월로 접어들면서 중부전선의 중공군이 백마고지 일대로 공격을 개시하자 미 제9군단은 이에 맞서 김화 북쪽에서 아군의 주저항선을 감제관측하고 있는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일대를 목표로 제한된 공격작전(Operation Showdown)을 준비하였다. 이때 미 제7사단은 589고지-상감령-무명고지로 이어지는 삼각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삼각고지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자 에

484)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89.

4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26.

4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48.

티오피아 제2대대도 20일 계웅산(鷄雄山)을 경유 598고지 서쪽으로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대대가 배치되면서 전선은 소강국면이 유지되었으나 23일 중공군은 일몰과 동시에 연대 주력이 배치된 우인점 598고지와 상감령(上甘嶺) 일대를 집중포격한 후 19:00 공격을 재개함으로써 삼각고지 일대는 화염에 휩싸였고, 잠시 후인 19:30경에는 제32연대의 좌측방을 방어중인 대대지역으로도 공격을 확대하였다. 이때 중대 중대대형의 최전방에 배치된 제4중대는 대대장의 진지고수 명령에 따라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진지 일부가 돌파되어 위기에 봉착하였다.⁴⁸⁷⁾ 이에 대대장이 진내사격을 요청하자 중공군의 공세는 주춤하였고, 대대는 이 틈을 이용 직후방에 배치된 제2중대를 증원시켜 22:00경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이를 계기로 우인점 미 제32연대 주력부대들도 24일 03:00경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598고지(삼각고지)와 상감령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미 제7사단이 삼각고지 일대를 국군 제2사단에 인계하고 철수함으로써 대대도 지난 9월 말에 점령한 바 있는 유곡리 부근의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유곡리 일대에서 정찰전을 수행한 후 11월 13일 가평 북쪽의 소법리(所法里)로 이동하여 군단에비가 되어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주력하게 되었다.

(3) 요크·엔클 고지 전투

에티오피아 가그뉴 제3대대는 휴전협정 조인을 목전에 둔 1953년 4월 16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되었

487)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3.

다. 대대는 앞서 참전한 제1, 제2대대와는 달리 참전한 지 26일 만인 5월 11일 제2대대가 점령하였던 요크(Yoke), 언클(Uncle)고지가 있는 갈화동-덕산리 일대의 주저항선에 배치됨으로써 티본(T-Bone)고지의 중공군과 마주하게 되었다.⁴⁸⁸⁾ 진지편성을 완료한 대대는 14일 처음으로 주저항선 전방 악어고지(Alligator Jaws)에 1개 소대규모의 정찰대를 파견하였다.

정찰소대는 15일 03:00경 15분 동안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으나 적은 증원병력을 투입하여 고지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소대는 실전경험의 부족은 물론 탄약마저 떨어져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지원포병의 VT신관 사격으로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이 전투에서 소대는 적이 유기한 시체 22구를 확인하였고, 부상당한 포로 2명을 획득한 반면 전사 2명, 전상 8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에도 대대는 휴전을 목전에 둔 5월 15~18일 새벽까지 무려 4차에 걸쳐 요크고지로 침투를 기도하는 중공군 정찰대를 사격으로 격퇴시켰다. 적이 물러가자 제1중대는 또 다른 공격에 대비 진지를 보강하면서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날(19일) 가랑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대는 중공군 포로를 획득할 목적으로 23:00경 요크고지 전방 개활지에 15명의 정찰대를 매복시켰다. 자정 직전 매복대는 전방에서 접근 중인 수 미상의 적을 발견하였고, 또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에는 매복대를 우회한 각각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요크·언클 고지로 포위공격을 기도함으로써 매복대는 완전 적중에 고립되었다.⁴⁸⁹⁾ 이에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탄막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때 중공군도 요크고지로 각종 포격을 집중함으로써 요크고지는

4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469.

489)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85.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는 에티오피아 대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이 포격에 구축된 장애물이 파괴되고 유선마저 두절되었다. 20일 02:00경 요크고지를 공격한 중공군의 일부는 고지로 기어올라가기 시작하였고, 진내에서는 처절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매복대 정면에서 공격중인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도 매복대를 포위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요크고지가 위기상황에 처하자 중대장은 요크고지에 VT신관 사격을 요구하였고, 이 포격에 물러난 중공군이 매복대 정면을 공격중인 적을 증원함으로써 이번에는 매복대가 위기에 빠졌다. 시간이 갈수록 정면은 축소되고 탄약마저 바닥나자 매복 소대장은 탄

막사격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 아군 포탄은 매복대 주변에 정확하게 낙탄되었다. 이 포격에 혼비백산된 중공군이 티본고지 쪽으로 철수하자 아군 포병들은 사격을 연신하여 이들을 격멸하였다.⁴⁹⁰⁾

중공군이 물러난 04:00를 전후하여 전선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매복대는 2시간 동안 주변을 정찰하여 적이 유기한 사체 110구를 확인하고 주진지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3대대는 비록 전투경험은 일천하였지만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중공군을 격퇴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⁴⁹¹⁾

이후 대대는 6월 30일까지 이 일대에서 수색 및 매복작전을 수행한 후 잠시 예비로 전환되었다가 7월 15일 요크·언클 고지 좌인점의 선벽 일대의 주저항선에 재배치되어 휴전을 맞게 되었다.

3. 참전결과

(1) 참전현황

구 분	참 전 기 간	비 고
Kagnew 제1 대대	1951. 5~1952. 7	미 제7사단 제32연대 배속
Kagnew 제2 대대	1952. 7~1953. 4	"
Kagnew 제3 대대	1953. 4~미상	"

(2) 인적피해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657	121	536	-	-

4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482~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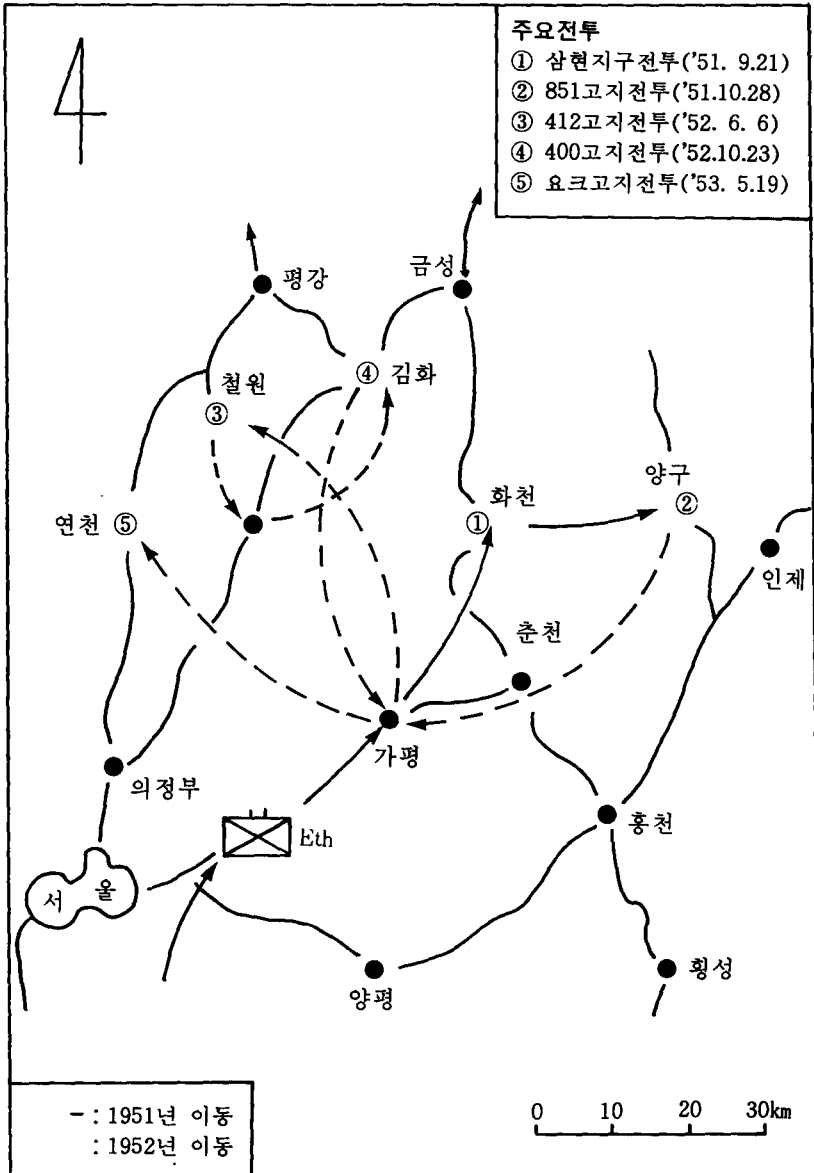
4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83.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5. 6	가그뉴 제1대대, 부산 도착
	7. 11	가평으로 미 제7사단 제32연대 배속
	8. 9	화천 북쪽 노동리로 진출
	8. 12	봉당덕리에서 참전 후 첫 교전
	8. 29	적근산 전방 797고지 배치
	9. 21	삼현지구 공격
	10. 21	중동부전선 사태리 진출
	11. 19	문동리 진출
1952	1. 6	가칠봉 남서쪽 1,169고지 진출
	3. 28	제1대대, 에티오피아로 귀국
	3. 29	제2대대, 부산 도착
	4. 13	제2대대 가평으로 이동, 미 제32연대 배속
	4. 22	철의 삼각지대내 상사리로 이동
	6. 3	참전 후 최초로 증가산 부근 주저항선 배치
	6. 6	412고지에서 중공군과 첫 교전
	9. 23	김화 서쪽 성계산 진출
	9. 25	정찰대 백덕리 부근에서 중공군과 교전
	10. 3	도창리로 이동
	10. 20	삼각고지(598고지) 서쪽 진출
	10. 23	삼각고지 서쪽에서 중공군 공격 격퇴
	11. 2	백덕리 400고지 기습공격
	12. 7	불모고지 부근 덕은동으로 이동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	1. 24	덕은동 180고지 기습공격
	3. 30	T-Bone고지 남단 갈화동 배치
	4. 16	요크고지에서 중공군 격퇴
	"	제3대대 부산 도착
	4. 21	제3대대 연천으로 이동, 미 제32연대 배속
	4. 30	제2대대 귀국
	5. 11	제3대대 갈화동 요크·언클 전초 진출
	5. 15	악어고지에서 중공군과 첫 격돌
	5. 19	요크·언클 전초에서 중공군 격퇴
	7. 18	선벽 북쪽 187고지(Snook)에서 중공군과 교전

에티오피아 대대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15 절 콜롬비아(Colombia)

1. 참전경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은 53개 유엔회원국에 군사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선뜻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8월 중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개별 국가와 파병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결과 1948년 4월 적색분자들에 의한 최악의 폭력사건으로 참변을 겪은 바 있는 콜롬비아가 파견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파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프리깃함 1척의 파견을 결의하고 1950년 9월 18일 유엔과 미국에 통보하였다.⁴⁹²⁾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는 이후에도 지상군의 파견문제를 두고 미국과 수차례 걸쳐 협상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10월 하순 미국 정부로부터 파견되는 부대의 수송, 훈련, 무기, 식량 등의 모든 지원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11월 14일 1,000명 규모의 1개 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하였다.

한편 지상군의 파병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무렵인 11월 1일 189명이 승조한 프리깃함(Almirante Padilla)은 한국전에 투입되기 이전에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샌디에이고(Sandiego)로 출

4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52.

발하였다. 그리고 콜롬비아 육군도 본격적인 참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11월 하순 보고타(Bogota) 부근에 임시훈련소를 설치하고 전투경험이 있는 현역 및 퇴역장병 중에서 창설될 대대의 기간요원과 신병모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개시하여 한민국경선 진출을 목전에 두게 되자 전쟁이 곧 종료될 것으로 판단한 유엔군사령부가 미 합참에 추가로 파병될 부대에 대한 제고를 요청함으로써 콜롬비아 대대의 파견은 주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콜롬비아 정부는 1950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콜롬비아 보병 제1대대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날 대대의 창설식에서 고메스(Gomez) 대통령은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될 장병들에게 세계평화와 조국의 명예를 위해 이역만리로 출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대대장으로 임명된 푸요(Jaime Polania Puyo) 중령의 지휘하에 미국식 장비로 재무장과 아울러 지원된 미 교관단으로부터 12주간 훈련에 매진하게 되었다.⁴⁹³⁾ 이 무렵 진주만으로 이동한 파딜라(Almirante Padilla)호도 한국해역에서의 작전에 필요한 절차와 요령의 습득은 물론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에 주력하였다.

1951년 4월 중순 중공군의 춘계공세로 다시 전쟁이 가열되자 먼저 프리깃함 파딜라호가 일본의 사세보(佐世保)항으로 출발한 데 이어 1,080명으로 편성된 제1보병대대도 5월 21일 미 수송선(Aiken Victory)에 승선하여 콜롬비아를 출발하였다. 대대는 25일간의 긴 항해 끝에 6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고위장성은 물론 부산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4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52.



전선으로 이동중인 콜롬비아 대대

받았다.⁴⁹⁴⁾

콜롬비아는 참전국 중 제일 마지막으로 지상군 1개 대대와 프리깃함 1척을 파병시켜 유엔군의 일원으로 합류하였다. 콜롬비아의 파병은 참전규모 면에서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유엔의 라틴아메리카 회원국 중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53.

2. 지상군의 활동

(1) 금성 진격전

미 제24사단 제21연대에 배속된 콜롬비아 대대는 1951년 8월 6일 한국에서 첫 전투인 흑운토령(黑雲吐嶺), 정찰작전에서 11명의 부상자를 낸 이후 화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2개월 동안 전술훈련과 부대정비를 하였다.⁴⁹⁵⁾

이 무렵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서부 및 동부전선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10월 13일 하소리-죽동-여문리-금성천 하구를 연하는 노매드(Nomad)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미 제21연대에 배속된 콜롬비아 대대는 사단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흑운토령 북쪽의 570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대대는 05:30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유리한 감제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적으로부터 강력한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받아 대대의 공격이 일시 둔화되었다. 이때 대대는 특공조를 편성하여 수류탄 공격과 포병의 지원사격으로 공격의 돌파구를 열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의 저항이 둔화되자 대대는 16:00가 조금 지나 포위공격으로 57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적 진지에는 시체 38구가 덩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적 중대장을 포함한 포로 4명과 다수의 화기와 탄약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⁴⁹⁶⁾

미 제9군단장은 공격제대들이 노매드선으로 진출하자 2단계 작전으로 하소리-외야동-교암산-금성천 하구를 연하는 폴라(Polar)선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콜롬비아 대대

4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56.

4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61.

는 미 제21연대의 좌전방이 되어 금성 남서쪽의 회고개(灰古介)를 공격하게 되었다. 19일 오후 월봉리(月峰里)를 출발한 대대는 20일 06:00에 552고지에 배치된 제21연대 제2대대를 초월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부진하고 부상자가 속출하자 대대는 제2대대 진지로 철수하였다. 재정비를 완료한 대대는 다음날(21일) 새벽에 공격을 재개하여 3시간여 동안 치열한 격전을 펼쳐 중공군을 격퇴하고 회고개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는 적 8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대도 대대장이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⁴⁹⁷⁾

이 전투에서 대대는 비록 전투경험도 일천하고 수적으로도 열세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중공군을 물리치고 회고개를 확보함으로써 미 제9군단이 금성 남방으로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2) 400고지 전투

미 제7사단 제31연대에 배속된 대대는 1952년 5월 중순 김화 북쪽 탑동(塔洞) 부근의 주저항선인 미주리(Missouri)선 방어와 전초진지 325고지, 400고지, 454고지 일대에 대한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⁴⁹⁸⁾

당시 중공군은 이들 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대대의 정찰대가 진출하면 각종 구경의 곡사포로 집중포격을 가해 왔다. 특히 400고지에는 1개 소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견고한 방어시설이 구축된 강력한 방어거점이었다. 이로 인하여 대대의 정찰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적지 않은 인명손실까지 주고 있어 대대로서는 400고지가 눈앞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4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63.

4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70.

이 무렵 소대규모 이상의 야간정찰과 기습공격은 예비대가 전담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대는 6월 21일 가시 같은 존재인 400고지를 공격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04:00 A중대 제3소대는 제31연대 제1대대 주저항선 진지를 통과하여 가파른 고지를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한 달 전에 이곳을 방어한 바 있어 지형에 익숙한 이점을 십분 발휘하여 25분 만에 적진에 접근하였고, 진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자 소대는 단숨에 수류탄과 자동화기사격을 집중하며 돌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소대의 기습에 허를 찔린 중공군은 뒤늦게 교통호 밖으로 나왔지만 기선을 장악한 소대의 돌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진지 속에서 저항하던 적의 일부도 진지 폭파와 함께 폭사하였고, 소대는 400고지 점령을 확인이라도 하듯 콜롬비아 국기를 꽂는 여유를 보였다.⁴⁹⁹⁾ 잠시 후 소대는 적의 역습을 우려하여 전차와 포병의 화력엄호에 철수함으로써 기습작전은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이 기습공격에서 소대는 2명이 전사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반면 중공군 28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영광도 잠시일 뿐 어두운 전운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8월 17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전과 다름없이 포로를 생포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에 의거 소대규모로 편성된 2개의 정찰대를 적의 전초진지인 325고지와 400고지로 파견하였다. 각 정찰대는 기도비닉을 유지하면서 목표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정찰대가 목표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은 지난 6월의 패배를 앙갚음이라도 하듯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대대 정찰계획을 사전 탐지한 듯 포위대형을 구축하고 매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격포,

4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72.

중기관총의 화망까지 구성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집중사격을 가해 왔다. 이에 정찰대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정찰전에서 장교 2명과 사병 94명이 전사하는 대참변이 발생하였다.⁵⁰⁰⁾

당시 이 사건은 한국전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대대장은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고, 장병들의 사기도 극도로 저하되어 대대는 참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이를 극복하고 8월 20일 와수리로 철수하여 부대 재정비와 교육훈련에 주력하면서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3) 덕현동 전투

콜롬비아 대대는 1953년 2월 27일 미 제31연대의 예비가 대광리 서쪽의 마거리(馬巨里)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제31연대와 좌인접 제32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무명고지(180고지)에 강력한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제31연대장은 예비로 집결중인 콜롬비아 대대에 연대의 주저항선을 감제관측하고 있는 눈앞의 걸림돌 같은 존재인 무명고지를 기습공격하여 적 전초를 파괴함은 물론 적을 역곡천 서쪽으로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제C중대를 공격중대로 선정하고 주도면밀한 기습계획을 수립하고, 수차에 걸쳐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 3월 9일 주저항선을 방어중인 제31연대 제1대대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제3중대는 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10일 06:00 공격준비사격 없이 2개 제대로 나누어 목표고지로 이동하여 25분 만에 덕현동(德峴洞) 북

5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74.

쪽의 180고지로 접근하였다. 잠시 후 중대장이 공격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돌격소대는 지난 8월에 진 빔을 갇기라도 하듯 노도같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수류탄과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였다.⁵⁰¹⁾

이때 불의에 기습을 당한 중공군의 일부는 엄체호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되자 엄체호와 교통호 속으로 숨어들었다. 중대가 기습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자 중공군도 진지 속에서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무명고지 일대는 순식간에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30여 분간의 혈전 끝에 중공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중대장은 적의 역습을 우려하여 대기중인 구호소대를 긴급히 출동시켜 부상자를 후송하도록 하고 돌격소대도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⁵⁰²⁾

이 무렵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후방 220고지 일대에서 재편성을 한 듯 역습을 개시하였고, 중대는 포병화력으로 이들의 진출을 극력 저지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일부는 아군의 치열한 탄막사격을 뚫고 180고지로 진출하여 철수를 준비중인 중대를 공격하였다. 이때 고지 정상에서는 일시 혼란이 있었으나 돌격중대는 이 적마저 격퇴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구호소대를 엄호하면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선제기습공격으로 180고지상의 적 엄체호와 화기진지를 전부 파괴하고 150여 명(추정) 이상의 적을 사살하였으나 대대도 전사 19명, 부상 44명, 실종 8명의 손실을 입었다.

50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82.

5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85.

(4) 불모고지 전투

콜롬비아 대대는 180고지에서 격전을 치른 지 이틀 만인 1953년 3월 12일 불모고지 전초가 있는 미 제31연대의 중앙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때 대대가 인수한 불모고지(275고지)는 역곡천 남쪽에 위치한 감제고지로 주변 일대를 감제관측할 수 있어 1952년 6월부터 쌍방간에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다. 대대가 이곳에 배치되면서부터 중공군의 포격은 연일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격량과 빈도도 한층 증가되었다. 이 포격에 진지가 파괴되자 전초에 배치된 A중대와 50여 명의 노무자는 진지보수에 매진하였으나 파괴된 진지를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⁵⁰³⁾

이 무렵 미 제31연대장은 날로 증강되는 적의 포격은 물론 전방지역에서 적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되자 불모고지와 포크참고지에 대한 특별경계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대대장은 전초를 방어중인 A중대가 지난 180고지 전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불모고지에서도 계속된 적의 포격을 받아 몹시 지쳐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불모고지 방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A중대를 B중대와 교대하도록 조치하였다.

대대는 중공군이 부대교대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23일 해가 넘어가면서 부대교대를 시작하였다. 대대가 기도비닉을 유지하면서 교대를 시작한 지 3시간도 못된 21:00경부터 중공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중공군의 통상적인 사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각종 구경의 곡사포와 박격포탄이 불모고지로 집중되었다.

이 포격으로 불모고지는 삼시간에 포연과 화염에 휩싸였고, 전

5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86.

초와 대대 간에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교대중인 A·B 중대가 순식간에 뒤섞여 지휘체제마저 마비되어 혼란상황에 빠져 들었다. 이 틈을 노린 중공군은 1개 대대규모로 괴성을 지르며 파상공격을 개시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를 찔린 A·B중대는 조직적인 저항도 불가하였고, 오로지 참호와 벙커에 갇힌 채 마지막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⁵⁰⁴⁾

잠시 후 전의를 잃었던 콜롬비아 장병들은 사생결단을 각오한 듯 이곳 저곳에서 벙커 밖으로 나와 수류탄과 총검으로 중공군을 몰아붙여 전초를 회복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대들이 사기가 충천된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부득이 전초 중대는 불모고지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동남쪽 능선으로 철수하였다.⁵⁰⁵⁾

이날 밤 미 제31연대장은 연대의 B중대와 불모고지에서 철수한 콜롬비아 장병들을 수습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미 제7사단은 예비연대인 미 제32연대를 투입하여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이 공격마저 실패하였다. 사단이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26일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이 휴전을 앞두고 인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모고지 탈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함으로써 불모고지는 중공군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⁵⁰⁶⁾

이 전투에서 대대는 미군과 함께 2일간의 전투에서 60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반면 대대도 전사 95명, 부상 97명, 실종 30명의 큰 손실을 입었다.

5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p. 386~387.

505)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78.

5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88.

3. 해군의 활동

콜롬비아 프리깃함 파딜라(Almirante Padilla)호는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마치고 1951년 5월 8일 일본 사세보(佐世保)에 도착하여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었고, 3일 후 영국함대가 주축이 된 서해안봉쇄전대에 재배속되었다.⁵⁰⁷⁾ 14일 서해로 이동한 파딜라호는 초도-석도 간 해상초계작전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5월 20일 일본 사세보로 이동한 파딜라호는 동해봉쇄전대로 배속이 전환됨으로써 이때부터 주로 동해안에서 보급선단 엄호, 해안초계, 함포지원사격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6월 초 동해로 출동한 파딜라호는 원산-성진 간에서 유엔군 함정들과 함께 함포사격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콜롬비아 함정은 75mm 함포를 장착하고 있어 사거리가 짧아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파딜라호는 10월 하순 청진 부근에서는 적 해안포대를 집중사격하여 침묵시켜 그들의 사격술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1952년 2월 12일에는 두 번째 참전함인 토노(Capitan Tono)호가 파딜라호의 임무를 인수한 후 합동작전에 필요한 절차를 숙달한 후 4월 19일 미 호위전대에 배속되었다. 토노호는 5월 하순 동해로 출동하여 원산항과 성진항 부근에서 소해작전중인 유엔 소해함들의 엄호임무와 수송선단의 호위임무를 수행하였다. 9월 하순에는 처음으로 동해안으로 수송되는 탄약수송함의 호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토노호는 11월 4일 부산에 입항하여 그 동안 해상작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해군

5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94.

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승무원들은 유엔군 묘지를 참배하기도 하였다.⁵⁰⁷⁾

11월에는 세 번째 참전인 브리온(Almirante Brion)호가 도착하여 12일 토노호로부터 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 함정은 선체가 낡은데다가 이동중에 고장까지 발생하여 도착과 동시에 대대적인 수리를 받게 되었다. 이 수리는 휴전이 임박한 1953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재정비를 완료한 브리온호는 6월 29일 처음으로 동해에서 활동중인 유엔해군 함정에 가는 보급품을 수송하는 선단을 엄호하게 되었고, 이 임무는 9월 6일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콜롬비아 해군은 참전기간 내내 최소한 1척의 프리깃함을 간단없이 파견하여 주로 동해에서 보급품 수송선단의 호위, 해안초계활동, 대지함포사격 및 소해정 엄호 등 소형함정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잡다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엔군의 해상 작전에 기여하였다.

4. 참전결과

(1) 참전현황

○ 지 상 군

구 분	참전기간	비 고
콜롬비아 대대	1951. 6~1955. 10	미군사단 배속

5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396.

○ 해 군

구 분	함 정 명	참 전 기 간
프 리 깃 함	Almirante Padilla	1차 : 1950. 11. 7~1951. 1. 7 2차 : 1955. 3~1955. 10
	Capitan Tono	1차 : 1952. 4~1953. 1 2차 : 1954. 4~1955. 3
	Almirante Brion	1953. 6~1954. 4

(2) 인적피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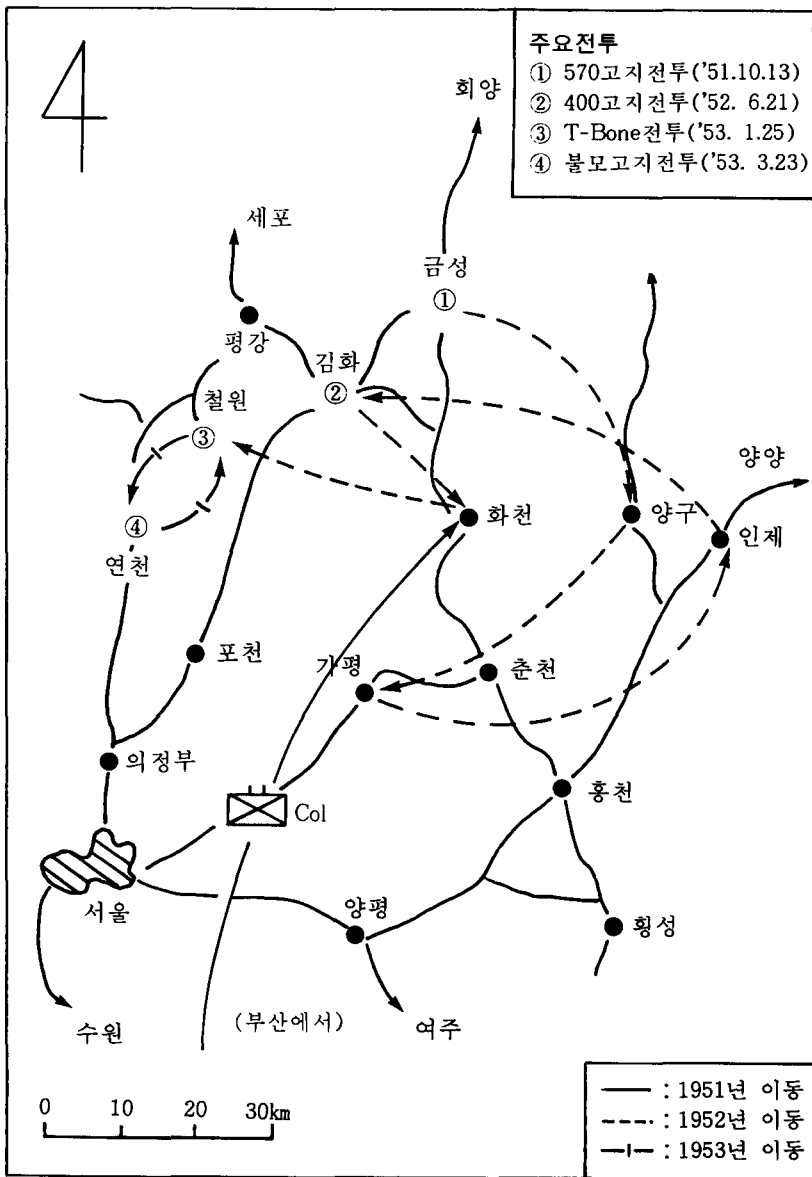
구 분	계	전 사	실 종	포 로	부 상
총 계	809	143	69	30	567
전 투 손 실	678	131	69	30	448
비전투손실	131	12	-	-	119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5. 8	파딜라호, 미 극동해군 배속
	6. 15	부산 도착, 동래 유엔군수용소 이동
	8. 1	화천 북쪽 산양리로 이동, 미 제24사단 제21연대 배속
	8. 6	흑운토령 정찰, 중공군과 첫 교전
	8. 7	대이리로 이동, 교육훈련
	10. 5	흑운토령 재진출
	10. 13	노매드선의 570고지 공격
	10. 20	월봉리에서 회고개 공격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1. 28	양구 원당리로 이동, 미 제7사단 제31연대 배속
	2. 12	두 번째 참전함 토노호 임무 인수
	2. 26	가평으로 이동, 미 제9군단 예비
	3. 18	인제로 이동, 미 제10군단의 후방지역 경비
	4. 28	와수리로 이동, 미 제9군단으로 원대복귀
	5. 10	탑골 부근의 미주리선 배치
	6. 21	400고지 기습공격작전
	7. 13	325고지와 400고지 정찰
	8. 18	325고지와 400고지 조우전
	10. 7	이길리-정연리 와이오밍선 방어
	11. 12	세 번째 참전함 브리온호 임무 인수
	11. 15	원천리로 이동, 교육훈련
12. 29	대광리 북서 선창동으로 이동, 제임스타운선 복귀	
1953	1. 13	티본고지 동남쪽 갈화동 주저항선 방어
	1. 30	연천으로 부대정비
	2. 27	마거리로 이동, 미 제31연대 예비
	3. 10	180고지 기습공격
	3. 12	불모고지 진출
	3. 23	불모고지 공방전
	4. 27	연천으로 이동, 부대정비
	5. 20	갈화리 부근 주저항선으로 복귀
	6. 19	포로잡기 매복전
7. 3	고포리로 이동, 미 제17연대 예비	

콜롬비아 대대의 이동경로 및 주요전투



제 4 장 의료지원국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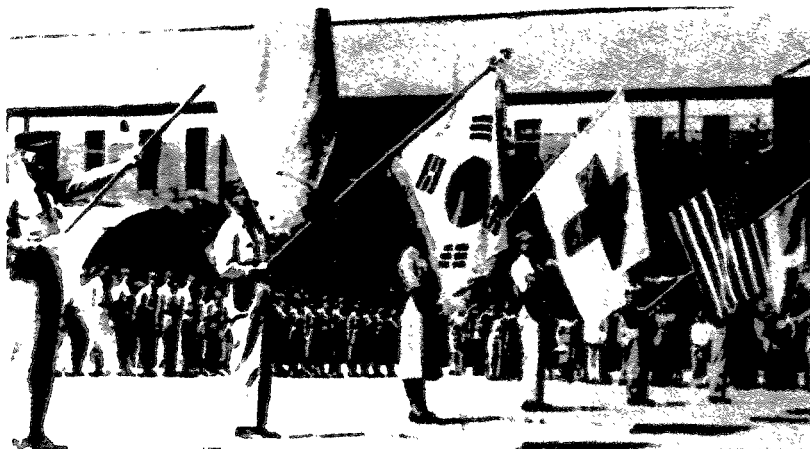
제 1 절 스웨덴(Sweden)

1. 참전경위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서방국가와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국(自國)의 지리적 및 역사적 특수사정으로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영세중립국이였다. 그럼에도 스웨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8일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권고하는 결의를 하자 7월 14일 1개 야전병원단의 파견의사를 유엔에 통보하였다.¹⁾ 그리고 8월 10일 야전병원단의 파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스웨덴 정부는 적십자사에 이 임무를 위임하였다.

이때부터 스웨덴 적십자사는 한국에 파견될 의료제대는 3~6개월마다 교대시킨다는 방침하에 야전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선발은 물론 의료장비 및 의약품 확보 등 파견준비에 주력하였다. 이 결과 적십자사는 보름도 채 못 된 단기간에 의사, 간호사, 기타 지원요원 등 160명을 선발하여 야전병원을 편성하였고, 또 병원설치에 필요한 다수의 의료기재와 의약품도 확보하였다.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17.



부산에 개설한 스웨덴 적십자 병원의 기념식

야전병원의 파견준비가 완료되자 스웨덴 정부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병력, 치료시설 부족 등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둘러 의료지원부대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8월 24일 스톡홀름을 출발한 스웨덴 의료지원부대는 대서양과 미국을 경유 태평양을 횡단하여 한 달여 만인 9월 28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또한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도착과 동시에 미 제8군에 배속된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최초에는 200명상 규모의 이동야전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총반격작전으로 부상자의 숫자가 급증하자 미 제8군은 후송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웨덴 적십자병원을 후방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²⁾ 그리고 병상규모도 400명상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적십자병원은 서둘러 부산상업고등학교로 이동하였고, 일

2)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500.

반의사 10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30명, 그리고 기타 기술자 및 행정요원들은 병원 개소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무행정 파견대가 배속되었고, 그 결과 10월 초에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안과, 방사선과와 수술실, 연구실, 조제실을 둔 400병상 규모의 시설을 갖춘 병원을 개소하였다. 이후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환자수가 급증하자 450병상으로 확장되었고, 또 1952년 5월 초에는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독립된 부속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파견된 의무요원들은 교대로 인한 치료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최소단위로 교대함은 물론 새로 도착한 요원들에게는 충분한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 주요활동

병원이 개소될 무렵 유엔군은 인천상륙과 총반격으로 전상자들이 급증하였고, 적십자병원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수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중상자들은 응급조치 후 이용가능한 항공 및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으로 후송하는 중간기지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북진으로 환자들의 증가는 잠시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11월 말 중공군의 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환자의 수효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쟁발발 이후 첫 동절기를 맞아 동상환자가 급증함으로써 외과의사들은 매일 반복적인 수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당시 입원환자 중에는 유엔군 및 한국군 전상자는 물론 유격대, 노무자와 북한군 포로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특히 국군병원의 의료기술 부족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의

퇴한 중환자들도 상당수가 있었다.³⁾

1951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전선의 소강 상태로 환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자 적십자병원도 다소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적십자병원은 주임무인 유엔군 전상자들의 치료와 병행하여 민간인들을 구호하고 진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민간환자의 입원 치료는 물론 다른 민간병원에서 의뢰해 오는 방사선 촬영도 지원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산에 있는 민간병원들은 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의 부족은 물론 전문의마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적십자병원은 유일한 민간인 구호병원인 철도병원과 적기병원(赤崎病院)에 스웨덴 간호원들을 고정배치시켜 상주근무를 하도록 하였다.⁴⁾ 그리고 가을부터는 적십자병원의 내과, 외과 의사들은 이들 병원을 정기적으로 매주 1회씩 순방하여 한국 의사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힘쓰는 한편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이때 현지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는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기도 하였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이 1951년 6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치료한 민간인은 입원환자수만 900여 명이었고, 특히 방사선과에서 검진한 환자수는 7,800명에 달하였다. 이때 촬영된 방사선 사진만 10,000매 이상이나 되었다.⁵⁾

민간인의 환자수가 날로 증가하자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2년 5월 초에 민간인 환자를 위한 진료소를 개소하여 5~6월 동안에 2,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들 민간인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이거나 일반병원에서는 치료가 힘들어 이송된 환자들이었다.

이후에도 스웨덴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병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3)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제5권), p. 205.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18.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19.

위하여 최신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또 스웨덴의 저명한 내·외과 의사들도 자진 방한하여 적십자병원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복무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보통 1~2년 이상 장기근무를 자원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었으나 적십자병원의 치료업무는 입원중인 전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휴전 후 1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후에도 스웨덴 적십자가 한국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및 민간 구호업무에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적십자병원은 1954년 말부터 본격적인 민간인 치료업무에 주력하게 되었다.

적십자병원의 치료업무 중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BCG 접종이었다. 당시 적기병원의 환자들 중 대부분은 결핵환자일 정도로 결핵환자들이 많았다. 이에 적십자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총동원하여 부산시내 전역에 걸쳐 BCG 접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⁶⁾ 이때 적십자병원은 의료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구호품을 수집하여 민간인들에게 분배하였으며, 스웨덴 간호사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아동복을 만들어 피난민들에게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 철수할 때까지 6년 6개월 동안 참전함으로써 한국전쟁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 중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였다.⁷⁾ 이들은 한국 의료진이 진료하기 어려운 중환자들을 거의 도맡아 치료하였고, 또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20.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820.

특히 스웨덴은 한국의 전후복구를 위하여 한국의 보건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덴마크, 노르웨이와 협조하여 서울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한 것이다.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9. 28	스웨덴 적십자병원, 부산 도착
	10. 초	적십자병원 개소
1951	6.	민간진료 개시
1952	5.	민간인 진료소 개소
1954	12.	민간인 치료로 전환
1957	4.	적십자병원 철수

제 2절 인 도(India)

1. 참전경위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한 이후 줄곧 중립 또는 비동맹노선을 견지하였다. 유엔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국에 대한 식민정책에 반대하면서 강대국간의 화해모색, 국제간 분규의 평화적 해결에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한국의 조속한 통일을 위하여 구성된 유엔 한국위원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인도는 1950년 6월 28일 안보리가 한국군사원조를 결의하였을 때는 본국의 훈령이 도착하지 않아 기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결의안을 수락하는 것도 그들의 중립외교정책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혀 군사지원에 미온적이었다.⁸⁾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자 이에 찬성표를 던져 한국지원안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1950년 11월 초에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경력이 있는 제60야전병원은 참전을 서둘러 준비하였다. 당시 제60야전병원은 외과의사 4명, 마취의사 2명,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보급관 1명 등 총 331명의 장병으로 2개의 외과반과 1개의 치과반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이들은 완전한 수송부대, 식량, 의류 및 6개월분의 예비식량

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1990, p. 118.

과 의무보급품과 장비도 확보하고 있었다. 란가라지(Rangaraj) 중령이 지휘한 제60야전병원은 유엔군이 청천강교두보에서 최종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1950년 11월 20일 부산에 상륙하여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후 미 제8군에 배속되어 대구로 이동하였다.

제60야전병원은 10일 동안 부대를 재정비한 후 의료지원부대도 없이 한민국경선을 향해 진출중인 영 제27여단을 직접 지원할 목적으로 12월 4일 6개월분의 의약품과 장비를 휴대하고 평양으로 이동하였다.⁹⁾ 이로써 제60야전병원은 한국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2. 주요활동

(1) 1950년도 활동

제60야전병원이 평양으로 진출할 무렵 중공군의 11월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평양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제60야전병원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당시 평양은 공산군의 포위망이 압축되는 가운데 유엔군의 철수, 여기에 피난민들까지 가세함으로써 극도로 혼란상황에 빠져 있어 제60야전병원이 정상적으로 철수를 위한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하여 야전병원은 귀중한 장비와 의약품의 포기는 물론 의무요원들의 안전한 철수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란가라지 중령이 철수대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우연하게도 요원 중 수명이 평양역 구내를 정찰중에 방치된 기관차와 수대

9)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4.

의 유개화차를 발견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위생병 중에서 과거 기관차 조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요원이 있어 이 기관차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60야전병원은 12월 5일 이 기관차에 병력은 물론 장비와 의약품을 싣고 미 공병대가 대동강 철교를 폭파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평양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¹⁰⁾

서울로 철수한 제60야전병원은 최초계획에 의거 영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미 제8군사령부가 제60야전병원의 지원능력이 영 제27여단을 지원하는 데 초과된다고 판단하고 2개 제대로 분할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란가라지 중령이 지휘하는 주력은 영 제27여단을 계속 지원하고 반넬사(Banerjee) 소령이 지휘하는 제대는 예비의약품을 가지고 대구로 이동하여 영연방 부대들을 위한 후방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다.¹¹⁾ 이때 대구로 이동한 후방병원은 의무요원들의 교육훈련은 물론 전방제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2개월마다 전후방 부대를 교대시킨다는 방침도 결정하였다.

이후 제60야전병원 본대는 12월 14일 의정부에서 영 제27여단과 합류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선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한동안 한산하던 야전병원은 중공군이 신정공세를 개시하자 의정부 북쪽 10km에 추진배치되었고, 이때 전상자의 수는 병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야전병원은 들것과 지프로 후송되어 오는 환자들로 초만원 을 이루었고, 의사들은 숙련된 기술과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이들의 치료는 물론 중환자들은 응급조치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10)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4.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83.

대 진력(盡力)하였다. 이후 제60야전병원은 다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여 부상자의 치료와 후송임무를 수행한 후 유엔군의 철수계획에 따라 1951년 1월 4일 한강을 도하하여 수원을 경유 6일 장호원으로 철수하였다.¹²⁾

한편 대구로 내려온 파견대도 12월 말경 영연방군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병원을 개소하였다.

(2) 1951년도 활동

1월 하순 유엔군이 재반격을 개시하면서부터 제60야전병원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이때 의무요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들도 문제이지만 한국의 한랭한 기후와 몰아치는 한파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천막에는 난로를 피웠으나 야간에 취사장의 화로까지 얼어붙는 강추위에는 난로도 무용지물과 같았다. 이로 인하여 액체로 된 의약품이 동결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였다. 특히 피와 얼음 조각으로 뒤범벅이 되어 후송되어 온 전상자의 얼어붙은 의복을 갈아주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제60야전병원의 마취전문의들은 난로가에서 발화될 위험도 무릅쓰고 기체로 된 마취약을 사용, 수술을 함으로써 영국군은 물론 영연방군과 미군들까지도 동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였다.¹³⁾

중공군이 2월공세를 개시하자 영 27여단은 지평리에 고립된 미 제23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월 14일 남한강을 도하 지평리-문막 사이의 산악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제60야전병원도 전방부대를 근접지원하기 위하여 19일 남한강을 도하 새말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전방부대들이 험준한 고지군으로 진출하면서부터 환자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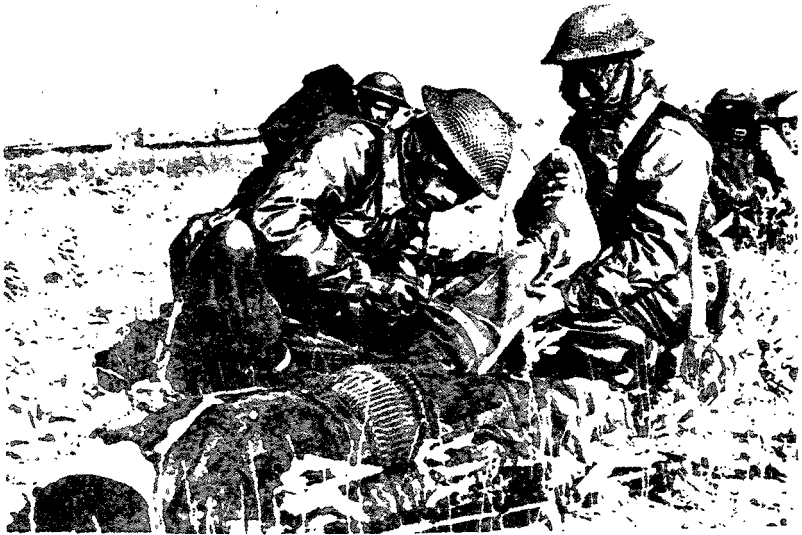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785.

를 구호소까지 후송하는 데 3~4시간이나 소요되어 환자후송은 물론 응급조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대대가 주암리 북쪽에서 격전을 벌이는 동안 위생병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 고지까지 나아가 중상자들을 들것으로 실어 오기도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중상자들은 응급조치 후 군단에서 지원된 환자후송용 헬리콥터로 후방지역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함으로써 많은 중상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 제8군이 3월 하순 문산지역에 공수투하를 계획하자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 전원이 본국에서 공수낙하 훈련을 받은 제60야전병원은 군의관 5명과 7명의 사병으로 편성된 외과반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문산리 일대에서 6일 동안 헬리콥터가 후송활동을 할 수 없는 악천후와 야간에 긴급한 수술을 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등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¹⁴⁾

이후 영 제27여단 주력이 중공군을 추격하여 38도선 부근으로 진출하자 제60야전병원도 중공군이 4월공세를 개시하기 직전에 가평 북쪽 중촌리(中村里)로 이동하였다. 이때 영 제27여단이 영 제28여단으로 개칭됨에 따라 제60야전병원도 영 제28여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1951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된 이후에도 제60야전병원은 계속 영 제28여단을 직접 지원하였다. 이후 휴전협상이 개시되면서부터 전투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제60야전병원의 의무활동도 다소 여유를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9월 초 영연방 제1사단의 주력부대들이 임진강 북쪽으로 진출하자 제60야전병원도 9월 8일 임진강 북쪽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적의 소화기 사격 및 포격으로 인한 입원환자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89.



인도 야전병원 요원들의 전상자 응급가료

10월 3일 아군이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을 개시함으로써 제60병원도 눈코 뜰 사이 없이 환자 후송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작전에서 의무요원들은 총검과 수류탄 대신에 의약품과 수술기구를 휴대하고 공격부대를 후속하면서 전상자들의 응급조치는 물론 험한 지형과 적의 저지사격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후송활동을 계속하였다. 이 결과 영연방 제1사단은 이 작전에서 전사 58명, 부상 262명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150여 명은 제60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후송되었다. 불행하게도 제60야전병원은 이 작전에서 부상자를 후송중에 적의 사격과 포격을 받아 의료요원 2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¹⁵⁾

한편 대구분전대는 1951년 2월 유엔민간구호사령부의 민간인

15)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제5권), p. 198.

전상자에 대한 구호요청을 받게 되자 장비와 예비의약품을 휴대한 1개 외과반을 대구 서부시립병원에 파견하였다. 당시 서부시립병원은 140병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환자는 화상환자, 총상환자 등 250명이 수용되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파견된 외과반은 한국인 의사와 간호원들의 지원을 받아 다수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대구분견대는 5월 한국군의 요청으로 대구에 있는 국군 제1육군병원에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수술업무를 인수하였고, 일부는 유엔민간구호사령부가 운용하는 동부시립병원과 서부시립병원에 파견하였다. 이때 인도 의료진은 한국군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마취교육을 실시하여 마취기술자 30명을 양성하였다.¹⁶⁾ 또한 7월에는 대구지역의 민간인 외래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소도 개소하였다. 처음에는 일일평균 10~15명 정도의 환자들이 찾아왔으나 날로 증가하여 연말에는 일일평균 250~300명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8월에는 부대 인근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150명 이상의 트라코마(Trachoma)환자가 발생하자 이들을 격리 수용하고 일본에서 긴급히 의약품을 획득하여 치료에 매진하여 1952년 9월에 이 병을 완전히 퇴치시키기도 하였다.¹⁷⁾

대구파견대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한국 의사들에게 수술기술 전수에도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능력도 향상시켜 1951년 말부터는 한국인들이 서부시립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중앙일보, 위의 책, p. 197.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p. 795~796.

(3) 1952년 이후 활동

1951년 동절기부터 시작된 전선의 소강상태는 1952년 전반기 동안에도 계속되었고, 또한 쌍방이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수도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적의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증가하였고, 이 포격의 일부는 후방지역까지 연신되었다. 특히 9월 13~14일 중공군의 포격이 제60야전병원본부 지역에 떨어져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방 물품보관소에서 작업중이던 2명도 파편상을 입었다. 이때 이들은 후송을 거부하고 응급조치만 받은 후 오히려 아군 부상병들의 치료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이후 영연방사단의 정면에서는 간헐적인 포격전만 있을 뿐 대체로 소강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월 말 영연방사단이 작전지역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동두천으로 이동함으로써 영 제28여단에 배속중인 제60야전병원도 모처럼 부대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25개월 동안 직접 수술조를 편성하여 전장을 누비면서 경부(頸部)환자를 수술하는 등 진두지휘하던 Rangaraj 중령이 귀국하고 M. B. K Mair 중령이 후임병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한 4월 중순 쌍방은 병상포로교환에 합의하는 등 휴전회담이 급진전을 보게 되었으나 목전으로 다가온 휴전회담 이전에 유리한 지형의 확보를 꾀함으로써 다시 전투는 가열되었다. 따라서 수색대의 조우전, 중요고지 쟁탈전 등으로 전사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제60야전병원은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7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230여 명의 전사상자를

치료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대구분견대 요원들은 1952년 6월부터 대구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한동안 일일평균 300여 명 이상을 진료하기도 하였다. 당시 인도 의료진이 치료한 질병 가운데 가장 효험을 본 것은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 안질(Trachoma)이었다. 그리고 대구분견대는 1953년 2월까지 총 1,400회에 달하는 중상자 또는 그 밖의 환자들을 수술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 제60야전병원은 한국전쟁에서 높은 의술과 박애정신을 발휘하여 한국 정부, 유엔군사령관, 인도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훈장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휴전 후 인도 정부가 송환거부포로의 경비를 위한 인도관리군을 파견하자 제60야전병원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견대와 합류한 후 그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한 영연방사단을 떠나 이들과 합류하였다.¹⁸⁾

3. 연 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20	제60야전병원, 부산 도착
	12. 4	대구에서 평양으로 이동
	12. 5	평양에서 철수
	12. 14	제60야전병원(-), 영 제27여단 배속
	12. 말	제60야전병원 대구파견대, 병원개소
1951	1. 4	제60야전병원(-), 수원으로 철수
	1. 6	수원에서 장호원으로 이동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94.

연도	월일	사건내용
1951	2. 19	남한강 도하 새말로 이동
	3. 23	이동외과반, 문산 공수투하작전 지원
	4. 하순	제60야전병원(-), 영 제28여단으로 배속 전환
	5. 21	임진강 부근에서 영 제28여단 지원
	10. 3	영 제28여단의 Commando작전 지원
1952	1.	영 제28여단의 임진강 부근 전투 지원
	6.	대구분견대, 민간병원 순회진료 개시
	9. 13	중공군의 포격으로 1명 사망, 7명 중경상
1953	4. 8	제60야전병원(-), 임진강전선 복귀
	7. 28	제60야전병원(-), 임진강 남쪽으로 철수

제 3절 덴마크(Denmark)

1. 참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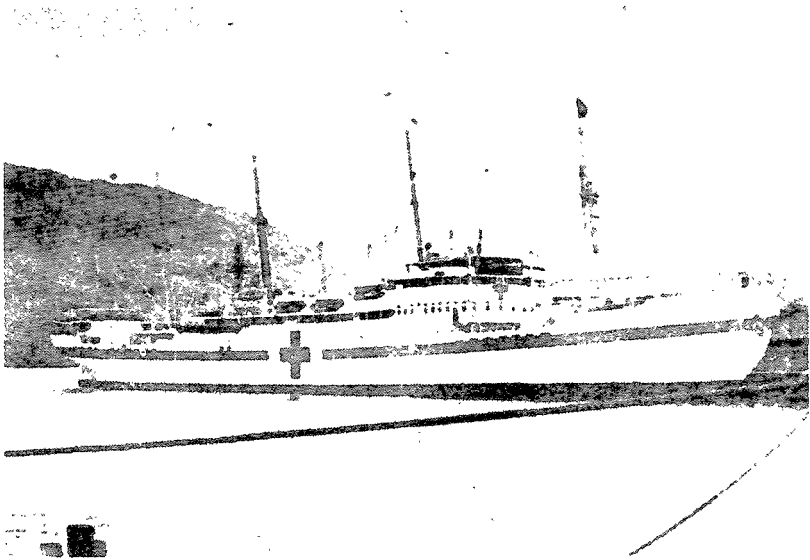
덴마크 정부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이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 하자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유엔회원국 중에서 제일 먼저 지원 의사를 통보하였다.¹⁹⁾ 그리고 적십자사로 하여금 그들의 병원선인 유틀란디아(Jutlandia)호를 한국으로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 적십자사는 한국파견을 자원하는 많은 의사 및 간호원들 중에서 적격자를 엄선하는 한편 각종 의료장비와 보급품의 준비, 의료진의 교육훈련 등 파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당시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는 의무요원, 행정요원, 선박요원으로 구성되었고, 진료과목은 외과, 내과, 치과, 방사선과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총지휘관은 병원선내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함은 물론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병원장은 의료업무를 그리고 선장은 항해와 안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무요원, 행정요원, 그리고 선박운항요원 등 100명 내외를 승선시킨 8,500톤급의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는 1951년 1월 23일 Kai Hammerich 준장의 지휘하에 덴마크를 출항하였다. 이들은 45여 일 간의 항해 끝에 일본 요코스카(横須賀) 미 해군기지에 도착하였고, 이 곳에서 식량, 음료수, 유류 등을 재보급받은 후 3월 7일 부산에 입항하였다.²⁰⁾

19)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18.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5.



부산항에 정박중인 병원선 Jutlandia호

특히 유틀란디아호는 8개월간의 한국전쟁 참전기간이 만료되면 근무요원들의 교대는 물론 의약품 및 부수기재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귀환하였는데, 전쟁기간중에 2차례나 본국으로 귀국하여 재정비한 후 재차 파견되었다.

2. 주요활동

(1) Jutlandia호의 1차 활동

유틀란디아호가 부산에 입항할 무렵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재반격작전을 실시중에 있어 전상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틀란디아호는 부산에 정박한 후 병원선을 개소하기가 무섭게 밀려오는 전상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전선으로부터 후송되어 온 대부분의 전상자들은 대수술을 요하는 환자들로서 의료진들은 참전 초기부터 눈코 뜰 사이 없이 정성껏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다행히 중환자들은 병원선이 최신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그리고 탁월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다.

이후 유틀란드아호는 주로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적으로부터 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항구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의료지원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때 병원선은 환자의 치료 못지않게 등화관계 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적십자 표시 등을 소등하면 제네바협약에 의한 병원선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점등을 하면 아군 군사작전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선은 이 문제를 유엔군 당국과 협의한 결과 안전한 항구에서는 등화관계를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²¹⁾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무활동을 수행중인 유틀란드아호는 1951년 6월 30일 의외의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유틀란드아호를 휴전협상 장소로 정하자고 제안하였고, 덴마크 정부도 이 제의에 동의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산측이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는 않았다.²²⁾

이후 유틀란드아호는 의료지원 활동을 계속하다가 7월 24일 승무원의 교대와 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산을 출항하여 9월 15일 덴마크의 로테르담(Rotterdam)항에 입항하였고, 제1제대는 덴마크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5.

2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p. 34.

(2) Jutlandia호의 2차 활동

유틀란드아호가 로테르담에 입항하고 있는 동안 지휘관, 행정요원 그리고 운항요원들은 대부분 계속근무를 지원함으로써 변동이 없었으나 의사, 간호사 등의 의무요원들은 신규 지원자로 전원이 교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요원들은 새로운 의약품과 한국 국민들에게 지원할 각종 구호품을 적재하는 등 2차 참전을 서둘러 준비하였다.

출동준비를 완료한 병원선 유틀란드아호는 1951년 9월 29일 덴마크를 출항하여 11월 16일 부산에 두 번째 입항하였고, 이들은 종전과 같이 병원을 개소하여 전상자를 수용하고 진료업무를 시작하였다.²³⁾ 2차과전 초기 병원선은 전황의 추이에 따라 전방지역으로 정박지를 옮겨 가면서 전상자를 치료하였다. 이때 유틀란드아호는 적의 해안포사격을 우려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전투함정과는 달리 적의 포격을 받지 않았다.

이후 휴전협상에서 쌍방이 잠정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전선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환자의 발생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2차과전팀은 1차과전 때와는 달리 다소 여유 있는 의료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병원선은 수시로 요원들의 휴가와 병원선 정비 및 재보급을 위해 수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마다 30일 이내 전방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전상자들을 일본에 있는 미군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병원선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중 일부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전방지역에 있는 야전병원이나 의무부대를 방문하여 외과환자들의 수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군병원 및 노르웨이 야전병원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6.

을 빈번히 지원하였다.

덴마크 병원선은 1951년 12월 6일 그 동안 전상자 치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던 Brocks 박사가 귀국하고 신임 병원장인 Zimsen 박사가 부임한 것 외는 특별한 변화 없이 1952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전선도 휴전협상의 영향으로 쌍방이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회피하고 국지적인 정찰활동과 진지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틀란드아호도 2차 파견기간이 만료되자 1952년 3월 29일 다시 부산항을 출항하였다. 이때 유틀란드아호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 참전국 전상자 수백명을 동승시켜 도중에 이들 국가마다 기항하여 안전하게 귀국을 지원하였다.²⁴⁾

(3) Jutlandia호의 3차 활동

유틀란드아호가 1952년 7월부터 9월까지 덴마크에서 제3차 파견을 준비하는 동안 덴마크 정부는 미 병원선과 동일한 규모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후송용 헬리콥터 1대를 탑재시켰다. 이로써 병원선은 응급을 요하는 전상자들을 원거리로부터 신속히 후송할 수 있어 진료업무의 능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과 의사가 보충되어 진료과목도 내과, 외과, 안과, 신경외과, 치과로 확대되었고, 의료요원도 선임장교 1명, 의사 14명, 약제사 1명, 간호사 52명, 의무 및 행정요원 23명 등 91명으로 증원되었다.

3차 출동준비를 완료한 유틀란드아호는 1952년 9월 20일 덴마크를 출발하였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쌍방이 유리한 전초진지를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7.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전상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하여 유틀란디아호는 1, 2차 때는 부산항에 정박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선에 근접하여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1월 20일 인천에 입항하여 진료를 개시하였다.²⁵⁾

이때부터 병원선은 열차, 차량 편으로 후송되어 오는 전상자들은 물론 병원선의 헬리콥터는 전방고지까지 나가 응급환자들을 후송함으로써 많은 전상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병원선에서 제일 고생한 의료진은 외과반으로서 이들은 전투가 치열하면 밀려드는 중상자들의 수술에 몰두하였고, 잠시 고지쟁탈전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환자수가 줄어들면 휴식도 없이 다음 수술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병원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약 2,000여 명을 수술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헬리콥터나 병원열차로 후송되어 온 부상자들이었다.²⁶⁾

병원선의 입원환자는 미군이 전체 환자의 1/3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군, 노무자, 그리고 다수의 민간인도 있었다. 당시 병원선은 정기적으로 인천항에서 6~8주를 근무한 후 2주 동안 정비를 위하여 일본으로 회항하였고, 이때마다 조기에 전선 복귀가 어려운 중환자들을 일본내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또한 병원선에 입원 중인 국군 중 해병대 중환자들도 도중에 전해 해군병원으로 후송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병원선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병원선의 기간요원, 군의관, 간호사 등 약간명은 한국에 잔류하여 일부는 한국병원, 일부는 미군 및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에서 외과치료를 도와 주었다.

1953년 초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쌍방이 휴전회담과 관련하여

25)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제5권), p. 199.

26)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83.

보다 양호한 방어선의 확보 그리고 정치·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종결 등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덴마크 병원선은 이 틈을 이용하기 위하여 3월부터 인천항에서 민간인에 대한 치료도 개시하였다. 병원선은 인천 기독교병원과 협조하여 내과, 외과 및 방사선 촬영 등으로 민간인들의 진료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병원선은 인천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유엔민간구호사령부(UNCACK) 및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민간인을 위한 진료병원으로써 활동하였다.²⁷⁾ 특히 유틀란디아호는 휴전협정 조인이 임박할 무렵에는 수차에 걸친 적기(敵機)의 인천폭격으로 육지와의 연락이 용이하지 못하여 민간인 구호에 다소 지장을 받았다.²⁸⁾

유틀란디아호는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귀국에 앞서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약품과 의료기재들을 유엔한국재건단을 통하여 여러 민간병원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8월 16일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인천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고 인천항을 떠났다. 이때 병원선은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및 영국의 송환포로 651명을 각자의 본국 후송에 지원하였다.

참전기간중 유틀란디아호에 근무한 연인원은 630명에 달하였고, 이들이 진료한 환자만도 6,000여 명이 넘었다. 이들 환자 중에는 대수술을 요하는 증상자가 상당수 있었으나 사망자는 25명에 불과함으로써 최신의 의료장비, 우수한 진료기술, 그리고 개인의 성실한 희생정신을 과시하였다.²⁹⁾ 그리고 휴전 이후에도 노르웨이, 스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8.

2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84.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778.

웨덴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의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사에 길이 남을 만큼 공헌하였다.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3. 7	병원선 Jutlandia호, 부산 도착
	6. 30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장소로 Jutlandia호 제의
	7. 24	병원선 Jutlandia호, 1차 파견임무 마치고 출항
	11. 16	병원선 Jutlandia호, 2차로 부산 도착
1952	3. 29	병원선 Jutlandia호, 2차 파견임무를 마치고 출항
	11. 20	병원선 Jutlandia호, 3차로 인천 도착
1953	8. 16	병원선 Jutlandia호 귀국

제 4 절 노르웨이(Norway)

1. 참전경위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6일 북한군의 공격중지를 결의한 데 이어 6월 28일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하였다. 이때 노르웨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들 결의안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7월 초순에 주유엔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유엔사 무총장에게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지원을 제의하였다.³⁰⁾ 이어서 7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민간인 구호 및 지원을 결의하자 자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십자로 하여금 미화 74,600달러와 의류 126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유엔한국재건단에도 미화 1,725,523달러를 기부하였다.

이후 유엔이 추가로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요구하자 노르웨이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계획하였다. 노르웨이 국회가 1951년 3월 2일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에 동의하자 적십자사는 6개월마다 파견인원을 교대시킨다는 방침하에 인원을 선발하는 등 파견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노르웨이 대표단이 일본으로 파견되어 미 극동군사령부 의무당국과 파견될 노르웨이 의료지원부대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노르웨이 적십자가 편성한 83명으로 구성된 이동의과병원은 1951

30)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p. 132.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년 5월 31일 항공기 편으로 일본에 도착하여 미군으로부터 60병상 규모의 이동외과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의료기재를 구입하였다.³¹⁾ 의료진들은 한국으로 이동에 앞서 새로운 의료장비의 취급 및 숙달은 물론 현지적응훈련을 받았다.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은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이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인 6월 22일 헤르만 람스타드(Herman Ramstad) 대령의 지휘하에 한국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한국 정부요인과 유엔군 장성, 그리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동외과병원은 유엔군사령부 의무당국과 병원운영을 협의한 결과 제8군 예하의 미 제1군단을 직접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 북쪽 19km 동두천으로 이동하였다.³²⁾ 이동외과병원이 병원 개소준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09.

32)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제5권), p. 200.

비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7월 19일 대부분 천막으로 된 임시건물에서 진료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병원을 개소할 당시 이동외과병원은 자국에서 파견된 인원이 83명에 불과하여 미군의 이동외과병원 편성수준인 126명을 맞추기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한국인으로 보충을 받았다. 이후 미군의 이동외과병원 정원이 1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은 부족한 인원인 의무요원 40명과 기타 요원 15명 정도를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때 노르웨이 정부는 유엔에 노르웨이가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추가로 의료요원 110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공식명칭도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NORMASH)으로 결정되었다. 이때부터 NORMASH는 한국인 경비요원과 노무자를 지원받아 190명 규모의 병원을 운용하게 되었다.³³⁾ 그리고 1951년 12월에는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외래환자진료소도 설치 운영하였다.

2. 주요활동

NORMASH는 수술실, 치과, 방사선실, 시약실, 회복실, 조제실 등의 시설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모든 전상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야전병원이었으나 보다 많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하여 수술 후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전상자들은 지체 없이 후방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

NORMASH는 1952년 8월 현재 외과의사들은 3,000회의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51명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동 병원의 사망률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09.

로 볼 때 약 1%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외과반은 참전기간중 크고 작은 수술을 합하여 총 9,600회를 실시함으로써 1일평균 8회의 수술을 실시한 결과가 되는데,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반복될 때에는 1일 64회의 대·소수술을 실시한 기록도 수립하였다.³⁴⁾

또한 NORMASH 내에서 가장 분주한 부서는 방사선과였는데, 전방지역의 전투가 가열되면 촬영업무는 더욱 폭주하였고, 전투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 지역내 장병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촬영도 지원하였다. 방사선과는 참전기간중 총 36,593명을 검사함으로써 이는 1일평균 31명꼴이며 사용한 필름 매수는 183,000매에 달하였다.

그리고 치과진료는 참전초기에는 의사가 없어 미군 치과의사 1명을 지원받아 치과를 운용하였으나, 1952년 8월 노르웨이에서 치과 군의관이 파견됨으로써 본격적인 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지역내 민간인들의 치료를 포함하여 참전기간중 8,000여 명을 진료하였다.

1954년 10월 철수할 때까지 NORMASH에 입원환자는 총 14,755명이었는데, 이 중 휴전 전에 입원환자는 12,201명, 휴전 후는 2,554명이었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은 국군, 미군, 영국군이었고,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참전국 환자들도 수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원환자 중 4,317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잔여환자 10,288명은 후방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NORMASH에서 사망자수는 150명으로서 전체환자수의 1.2%에 지나지 않았다.³⁵⁾ 그리고 1951년 12월에 동두천에 개설한 외래환자진료소는 월평균 600명 이상을 진료하였는데 당시 입원환자의 15%는 한국 민간인들이었다.

34)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7.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12.

NORMASH가 한국에서 활동한 기간은 1951년 7월 19일부터 1954년 10월 18일까지 3년 3개월이었고, 각 제대의 근무기간은 6월로서 기간중 7회에 걸쳐 제대가 교대되었다. NORMASH는 참전 기간 동안 일반의사 80명, 치과의사 5명, 약제사 6명, 군목 7명, 여간호사 111명, 남간호사 22명, 기타 지원요원 292명 등 총 623명을 파견하였다. 이들 중 다수의 의료인들은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1~2년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민간병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NORMASH가 철수한 이후에도 스웨덴, 덴마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연 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6. 22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한국 도착
	7. 19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개소
	12.	동두천에 외래진료소 개소
1952	8.	노르웨이 군의관, 치과진료 개시
1954	10. 18	이동외과병원 귀국

제 5 절 이탈리아(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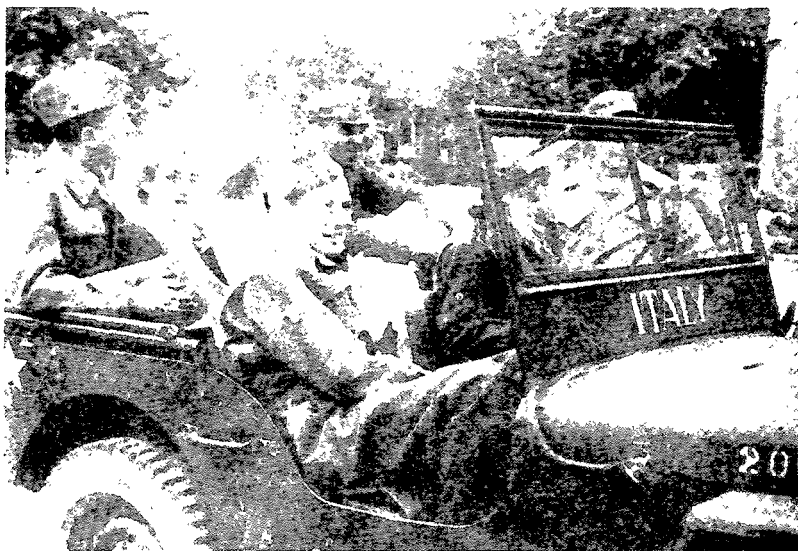
1. 참전경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탈리아는 서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NATO의 창설에 적극 참여한 창설국의 일원이었으나, 유엔회원국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탈리아는 빈번한 내각경질로 인한 불안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950년 8월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연맹이 한국전쟁에서의 전상자 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각국 적십자사 기구에 호소하자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적십자사로 하여금 파견할 부대를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³⁶⁾

적십자사는 파견할 의료요원 선발, 제반 의료장비 및 보급품의 획득, 파견할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파견준비에 주력하였다.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의무장교 6명, 행정관 2명, 약제사 1명, 군목 1명, 간호사 6명, 사병 50명으로 제68적십자병원을 편성하였다. 출동준비를 완료한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은 Luigi Coia 대위의 지휘하에 1950년 10월 16일 대량의 의약품과 부수기재(화차 3량분 이상)를 가지고 수송선으로 이탈리아를 출발, 한 달 만인 11월 16일 부산에 입항하였다.³⁷⁾ 이로써 이탈리아는 한국전쟁에 전투 및 의료지원부대에 파견한 마지막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전국 중 유일한 유엔 비회원국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02.

37)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5.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의 군의관들

제68적십자병원은 부산에서 열렬한 환영행사가 끝나자 바로 서울로 이동하였고, 12월 6일 서울 영등포 우신초등학교에 병원을 개소하였다. 당시 제68적십자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방사선과를 두고 있었다.

2. 주요활동

제68적십자병원이 개원할 무렵 전선은 쌍방이 잠정휴전선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선으로부터 후송되어 오는 환자수가 적어 다소 여유가 있었다. 이에 적십자병원은 1951년 12월 12일 민간인을 위한 진료소를 영등포에 설치하였다.³⁸⁾

3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96.

진료소는 내과, 소아과, 외과, 안과, 간결핵과를 두고 매일 06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였다. 이때 필요한 의약품은 일부 특수품목만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고 대부분은 이탈리아 적십자가 공급해 주었고, 이 진료소는 고지쟁탈전이 전개될 무렵인 1952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소부대에 의한 정찰활동이 증가하고 또한 치열한 고지쟁탈전으로 점차 가열되었다. 이때부터 적십자병원도 상당수의 전상자들이 몰려들어 치료업무가 폭주하였다. 적십자병원은 1952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내과(소아과 포함) 19,070명, 외과(수술 포함) 10,475명, 안과 2,239명, 간결핵과 9,369명, 치과 1,123명, 방사선과 7,754명 등의 외래환자들을 치료하였다. 그리고 입원진료한 환자도 내과 554명, 외과 456명이나 되었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1952년 9월 17일 경인선 구로동 부근에서 12명이 사망하고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열차충돌사고가 나자 즉시 응급비상대기반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기민한 구조활동으로 161명을 치료하였다. 이 중 수술을 받은 39명의 중환자들은 이탈리아 간호사들의 극진한 간호로 수술 후 2개월 이내에 대부분 퇴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10월 6일 적십자병원을 방문하여 이들이 열차충돌사고에서 보여 준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노고를 치하하고 부대표장을 수여하였다.³⁹⁾

그러나 제68적십자병원은 불운하게 11월 30일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건물이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 장병들의 기민한 구조활동으로 환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귀중한 의료장비가 약간 소실되었다. 이후 동 병원은 이탈리아 정부의 재건 노력과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804.

유엔의 지원을 받아 소실된 지 3개월도 채 못 된 1953년 2월 23일 새로운 Quonset 건물을 완공하였다. 또 의료시설도 이탈리아에서 직접 수송됨으로써 오히려 종전보다 더 많은 의료장비의 확보는 물론 병상도 현재는 145병상이나 긴급시에는 200병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68적십자병원은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응급실과 외래진료실도 설치하였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민간인들 진료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동 병원은 일일평균 300여 명을 진료하였고, 이들 외래환자 중 중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시켜 치료해 주었다. 동 병원이 1952년 7월부터 1953년 6월까지 1년 동안 치료한 환자수는 입원환자 1,639명과 외래환자 35,000명이었으며, 이 중 수술만 15,000건을 실시하였다.

7월 27일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총성은 멎었으나 이때까지도 제68적십자병원 내에는 많은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어 휴전 후 1년간이나 이들의 치료업무는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 병원은 수용되었던 유엔군 장병들의 귀국으로 점차 빈 병상이 늘어나자 병원의 주임무를 민간인 진료와 구호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68적십자병원은 참전 이후 외과수술 3,297명, 입원환자 7,250명, 외래환자 222,885명, 치과 1,155명, 병리시험 8,444명, 방사선 검사 17,115명 등을 치료하였다. 그리고 제68적십자병원은 파견기간중 민간인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장기생존 환자로 판명되자 본국으로부터 긴급히 구충제를 지원받아 기생충 박멸사업에도 공헌하였다. 또한 그들의 헌신적인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1955년 1월 2일 귀국함으로써 제68적십자병원의 활동도 일단락되었다.

3. 연 표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11. 16	제68적십자병원, 부산 도착
	12. 6	서울 우신초등학교에 병원 개소
	12. 12	민간인 진료소 설치
1952	9. 17	경인선 열차충돌사고 발생, 응급조치반 투입
	10. 6	이승만 대통령, 병원방문 부대표창
	11. 30	화재로 병원 소실
1953	2. 23	병원 신축 완료
1955	1. 2	제68적십자병원 철수

제 5 장 물자지원국의 활동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한국경제는 광복 이후 통화량 증발, 재정적자 누적,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으나, 한미경제협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를 지원받아 안정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항하여 독자적으로 막대한 군사비, 전재민구호비(戰災民救護費), 후방치안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엔회원국으로부터 원조를 획득하는 데에 경제외교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¹⁾

당시 피난민의 구호는 개전초기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황, 혼란에 빠진 행정체계, 부족한 물자와 예산 등으로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말 유엔군이 지연전을 마감하고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할 무렵 부산으로 철수한 피난민들의 무질서한 판자촌이 형성되면서 전재민에 대한 생필품 지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때까지의 민간인에 대한 구호는 미국이 긴급조치로써 제공하는 제한된 담요, 의복,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았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1)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p. 139.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지원요청에 의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은 한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7월 31일 비군사분야인 전재민(戰災民)을 구호하기 위한 민간원조를 의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의 원조인 CRIK(Civilian Relifin Korea) 원조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조는 식료품, 의류, 농업용품 등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어 한국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 1 절 유엔의 물자지원 결의

개전초기 한국의 90%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산과 물품을 약탈당하여 제반 물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남침 저지와 시급한 구호 사업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제국 및 국제기구에 지원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7월 31일 민간인 구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²⁾ 이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 민간인 구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결정짓는 임무와 구호물자를 현지에서 분배·공급하는 절차 등을 결정, 시행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제479차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가 민간인 구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유고슬라비아가 기권하고 참가한 나머지 9개국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었다.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지원사」, p. 2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국민이 당하고 있는 인고(忍苦)와 결핍을 인식하고……유엔군사령부에 대해 한국 국민의 구제와 급양에 필요한 품목의 결정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며,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요구한 구제와 급양에 관한 원조물자를 조달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안전보장이사회로 구호사업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에게는 경제이사회, 유엔의 유관 기관, 기타 비정부기관 등에도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한국 민간인에 대한 원조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1950년 8월 중순에 유엔회원국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아들이는 노력에 대하여 유엔사무총장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구체적인 절차가 협의·결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엔군사령부가 필요한 물품의 원조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그 요청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유엔회원국과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에 전달하였다. 이 요청에 대한 지원국의 회답과 지원신청서는 사무총장이 접수하여 이를 다시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이들 목록을 접수·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 결과를 해당되는 정부 및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그 뒤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직접 원조를 제공할 정부나 기관들과 협조하여 원조물자 명세를 결정짓고 또 한국으로 수송해 오는 모든 절차를 협의 결정하도록 되었다. 이로써 유엔의 한국에 대한 구호활동 및 원조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9월 8일 유엔으로 기부되는 징수금과 기타의 모든 현금수입을 유엔군사령관을 통하여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구제원조자금’을 설치하였다.⁴⁾

4)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pp. C117~C118.

그리고 유엔총회는 유엔군이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개시할 무렵인 10월 7일 통일된 한반도의 건설, 구호 및 재건을 다룰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을 창설하였다. 이어서 유엔총회는 11월 14일 북한의 침략결과로 한국 국민에게는 구호물품, 그리고 경제재건에 대한 원조가 사활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구제재건계획’을 결의하였다.

이 결과 유엔총회는 12월 1일 한국의 항구적인 평화유지와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창설도 결의하였다.⁵⁾ 아울러 1951년 1월 1일부터 1952년 초에 이르는 기간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안을 검토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은 유엔사무총장이 각국 정부에 새로 창설된 한국재건단 계획에 많은 기부를 해 달라는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1년 1월 31일 세계 각국 정부와 특별기관 및 민간단체에 “……지난 11월 말에는 해결된 듯이 보이던 피난민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으며 집 잃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침구류, 의류, 신탄(薪炭), 약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기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전쟁은 이전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작전지역의 도시, 촌락, 공장, 동력시설들은 수없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지원을 요청하였다.⁶⁾

이러한 유엔 물자지원 결의들은 우리 정부의 경제외교의 결과로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전적으로 유엔의 구호물자에 의존하고 있어 전재민 구호는 물론 한국의 재건에 활력소가 되었다.

5)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p. 139.

6)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pp. C184~185.

제 2 절 유엔의 지원체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는 1950년 8월 29일에 결성된 피난민구호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난민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모든 구호물품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대부분 유엔의 구호물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구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유엔은 한국에서 민간인 구호와 재건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2개의 기관을 설치하였다. 즉, 전쟁기간중 전재민 구호는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가 전담하고, 전쟁종결 후 전후복구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1.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1950년 7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책임을 맡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전쟁발발 이전부터 한국에 주재하고 있어 비교적 한국정세에 능숙한 경제협력처(ECA)를 통하여 구호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8월 중순에 이르러 유엔군사령부 본부에 보건복지처(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를 한국에서 구호활동을 전담할 책임부서로 지정하였다.⁷⁾

유엔군사령관은 민간인에 대한 구호활동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자 9월 말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내의 민간인에 대한 구호책임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이 임무를 차질

7)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p. 88.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투지역 내에서의 민간원조는 각 군단 및 사단의 민사원조처에서 제공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민간원조는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가 제공하도록 하였다.⁸⁾ 새로 창설된 UNCACK는 미 제8군 예하의 중요사령부로서 그 본부는 한국 정부와 도반(道班)은 지방의 도청과 구호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고, 이들은 제8군사령관이 발표한 정책과 명령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UNCACK는 한국에서 효과적인 구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직접 고용한 전문가들 외에도 유엔사무총장이 추천한 전문가, 유엔의 전문기구내 전문가, 국제적십자사연맹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고용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정부의 고문자격으로 정부의 구호활동에 관하여 협조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구호사업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당시 UNCACK의 기본 임무는 질병, 소요 및 기아 방지를 통하여 군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선 후방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군이 혼란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부차적인 임무는 임시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이 임무는 1951년 4월에 경제협력처(ECA)가 그 사업을 중지할 때 인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 제8군사령부 예하에서 민간인 구호활동을 전담하던 UNCACK는 1952년 8월 1일부터 제8군 예하의 사령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신설된 한국병참사령부(KCZC: Korean Communications Zone Command)에 통합되었다.⁹⁾ 그러나 한국병참사령부도 1953년 7월 1일부터 한국민사원조사령

8)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위의 책, p. 89.

9)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위의 책, pp. 226~227.

부(KCAC: 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로 다시 개칭되어 유엔 군사령관의 직접지휘를 받게 되었다. 유엔한국민사사령부는 소속과 명칭에는 변동이 있었으나 수행하던 임무에는 변동이 없었다.¹⁰⁾

2. 유엔한국재건단(UNKRA)

12월 1일 제5차 유엔총회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경제를 먼저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재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엔한국재건단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UNKRA는 유엔군의 조속한 군사적 승리와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어 경제적 재건사업이 민정하에 불원간 개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1950년 12월 말에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 대표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목전으로 다가왔던 한반도 통일이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종결이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어 UNKRA의 지원 활동은 창설 초기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오히려 확대되어 유엔군의 전투물자 수요는 물론 화물의 물동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지원에 우선권을 두고 선박을 통한 물자 수송과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항구의 사용권마저 독점하였다. 따라서 UNKRA의 재건활동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은 아직 전쟁중이므로 구호사업은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구호 및 경제재건활동은 계속 UNCKACK이 맡게 되었다.

10)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위의 책, pp. 308~309.

UNKRA는 창설 이후 UNCACK과 구호활동, 구호물자 운송, 지원창구의 단일화 등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12월 말 유엔군사령부, 미 합참본부와 협의하였다. 즉, UNKRA는 한국에서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제1국면)에는 한국의 재건계획만 수립하고, 전쟁종식 약 180일 이후(제2국면)부터는 한국에서 모든 구호 및 재건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UNKRA는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UNCACK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미국을 제외한 각국 정부에 각종 기부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이를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할 책임을 부여받았다.¹¹⁾

이 합의에 따라 UNKRA의 1951년과 1952년의 활동은 UNCACK의 전쟁이재민 구호계획을 지원하면서 차후 직접 실시할 재건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2년 10월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UNKRA는 처음으로 한국 구호 및 재건사업비로 7천만 달러를 획득함으로써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UNKRA는 명실공히 한국을 원조하는 데 유효한 기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¹²⁾

한국재건계획

부 문	세 부 사 업	합당금액(달러)
생 필 품	식량, 식염, 콩, 비료 등 수입	14,000,000
주 요 기 계	공업재건용 기계수입	11,500,000

1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459.

12)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107.

부 문	세 부 사 업	합당금액(달러)
교 육	학교실험기구, 직업교육, 학교보수 및 재건, 수산학교 설립 등	8,000,000
전 력	변전 및 송전선 정비, 발전소 재건, 신발전소 설치 등	7,100,000
교 통 및 통 신	항만 확충, 철로 및 침목 수리 등	7,000,000
식 량 및 농 업	농업연구, 수리사업 확충 등	6,900,000
주 택	전재민용 주택 건축 등	3,000,000
보건위생 및 후생	병원 재건, 이동진료소 설치 등	2,500,000
지 하 자 원	광물연구소 재건, 광물장려금 등	2,000,000

출처: 「한국전란 3년지」, p. C110.

제 3절 물자지원국(기관)의 활동

유엔의 한국에 대한 물자지원은 1950년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이 52개 유엔회원국¹³⁾에 지원을 요청하자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이 의무보급, 식량 등 비군사원조 제공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도 15일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작전 보고서에 수시로 물자지원국을 확대시켜 충분한 구호물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결과 1952년 9월 15일까지 유엔회원국 45개국 정부와 비회원국 3개국 정부로부터 약 475,800,000달러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이 제공되었다.¹⁴⁾

13) 당시 유엔회원국은 총 59개국이었으나 이미 원조를 제공한 미국과 지원 결의안에 반대한 유고슬라비아, 소련진영 5개국을 제외한 국가이다.

14)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109.

1. 유엔회원국의 지원

당시 서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규모 면에서는 적은 양이지만 물자지원에 동참하였다.

유엔회원국의 지원(1951. 2. 7. 현재)

국가명	일자	품목	수량	비고
오스트레일리아	1950.11.28	결정성 페니실린	-	제15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2.14	증류수	272,353병	
	"	세탁비누	116,000파운드	
	1951. 1. 8	프로카인 페니실린	39,000병	
	1951. 2. 1	대맥	20,000톤	미결중
벨기에	1950.11. 7	사탕	400톤	제6호 요청에 의한 제공
브라질	1950. 9.22	현금	270만 달러 상당	
중국	1950.10. 4	석탄	9,900톤	한국으로 직송
		미곡	1,000톤	
		식염	3,000톤	
		DDT	2,000톤	
쿠바	1950.10. 2	사탕	2,000톤	제6호 요청에 의한 제공
		혈장	-	미결중
		주정	10,000갤런	

국 가 명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덴 마 크	1950. 7. 5	의료보급	—	제6호 요청에
		사탕	500톤	의한 제공
에 콰 도 르	1950. 8. 1	의료물품	—	미수락
	1950.10.12	미곡	500톤	제5호 요청에 의한 제공
에티오피아	1950. 8. 5	현금	4,000만 달러	
프 랑 스	1950.10. 9	의료보급품	—	제15호 요청 에 의한 제공
	1950.12.29			
그 리 스	1950.10.20	비누	100톤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30	공책, 연필	115,000	
	1950.12.27	의료보급품	—	제15호 요청 에 의한 제공
아이슬란드	1950. 9.14	간유	125톤	
인 도	1950.10. 4	황마 포대	400,000매	제4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0.11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이스라엘	1950. 8.22	의료보급품	—	"
레 바논	1950. 7.26	현금	5만 달러	미예금
리베리아	1950. 7.17	생고무	10톤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멕시코	1950. 9.30	두류, 닭고기	—	제5호 요청에 의한 제공

국가명	일자	품목	수량	비고
뉴질랜드	1950.10. 6	마른 콩	200~500톤	제5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0	분유	150톤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비누	200톤	
니카라과	1950.11.16	미곡	50톤	미결중, 제5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2.16	미곡	100톤	
			주정	5,000쿼트
노르웨이	1951. 1.29	피복	—	제16호 요청에 의한 제공, 수집중
파키스탄	1950. 8.29	소맥	5,000톤	제5호 요청에 의한 제공
파라과이	1950.11. 3	의료보급품	—	미결중
페루	1950.11.21	군화 밀창		미공탁
필리핀	1950. 7. 7	비누	50,000장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9. 7	와쿠린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9. 8	혈청	518명분	
미곡		20,000톤	제4호 요청에 의한 제공	

국가명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타 이	1950. 9.20	미곡	40,000톤	제4호 요청에 의한 제공
터 키	1950. 8.29	와쿠린, 철장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의, 거절
영 국	1950.10.19	식염	6,000톤	제7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0.20	솔파조제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2.20	효모	50톤	
우 루 과 이	1950. 9.14	현금	200만 달러	미기탁
	1950.10.26	모포	70,000매	제9호 요청에 의한 제공
베네수엘라	1950. 9.14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출처 : 「한국전란 1년지」, pp. C191~193.

2. 국제기구의 지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전재민 구호를 결의하자 경제사회이사회도 8월 14일 국제전문기관 및 보조기관에 한국 민간인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지원에 동의하였다.¹⁵⁾

① 식량농업기구(FAO): 식량농업기구는 1950년 8월 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한

15)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pp. C187~189.

후 사무총장에게 수시로 식량보급 및 대금 그리고 가장 유리한 식량구입처 등에 관하여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950년 11월 동기구의 아시아·태평양삼립생산위원회는 한국에 있어 임시 주택 건설 및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제재(製材)된 재목(材木)과 화목(火木), 그리고 목탄이 응급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국가들은 유엔사령부가 요청시에는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제재된 목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② 국제피난민기구(IRO): 국제피난민기구는 1950년 8월 3일 사무총장에게 의료품 및 기타 보급물자 그리고 보건행정관 및 기타 훈련된 인원을 파견 또는 보충한다는 등의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한데 이어 10월 8일 제6차 회의에서 유엔이 요청하는 한국 민간인구호는 가능한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는 1950년 8월 24일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기부금(현금)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재의 구매를 담당할 구매분실을 워싱턴에 설치하였다. 이후에도 세계보건기구는 수차에 걸쳐 의료보급품과 그 대금, 그리고 가장 좋은 구입처에 관하여 조언을 함으로써 사무총장을 보좌하였다.

④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는 1950년 8월 28일 제23차회의에서 유엔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연합사령부 및 민간구제에 책임이 있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연락하여 한국의 민간소요물자를 조사하고 요구에 따라서는 비상사태에 처한 교육보급품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동 기구의 상무위원회는 1951년 12월 31일까지 한국민에 대한 교육과학문화 원조를 위한 10만 달

러에 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⑤ 국제무선연맹(ITU): 국제무선연맹은 1950년 10월 6일 제5차 회의에서 자체 권한 범위 내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요청하는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결의하였다.

⑥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는 1950년 11월 130차 회의에서 이사장에게 한국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엔에 적절한 모든 원조를 부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⑦ 유엔국제아동비상자금(UNICEF): 국제아동비상자금은 1950년 11월 28일 제7차회의에서 이후의 원조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한국 모자(母子)에 대한 비상원조로 전요된 원할당액을 충당시키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50만 달러의 할당을 승인하였다.

이들 기관 외에도 미국의 원조물자발송협회(CARE), 세계교회봉사단체, 전쟁구호봉사단체 등도 잡화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왔다.

국제기구의 지원(1951. 2. 7. 현재)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ILO	-	노무관	2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미결중
WHO	1950. 8. 8	보건관, 위생관	각 5명	제2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9. 4	보건후생고문관	3명	제3호 요청에 의한 제공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WHO	1950.11.22	보건관, 위생관	각 5명	제13호 요청 에 의한 제공
IRO	1950. 8. 3	피복, 잡종보급품	—	
	1950. 8. 8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 에 의한 제공
	1950. 8.19	후생관	5명	제2호 요청 에 의한 제공
	1950.11.27	후생관	4명	제13호 요청 에 의한 제공
UNICEF	1950. 9.27	모포	300,000매	제8호 요청 에 의한 제공
		분유	150톤	
	1950. 9.28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 에 의한 제공
	1951. 1.26	피복	20만 달러	제16호 요청 에 의한 제공
	1951. 2. 1	피복	20만 달러	
	1950. 9.28	비누	100,000 파운 드	제8호 요청 에 의한 제공
미국우호 봉사단	1950.11.16	중고의류, 신발, 비누	104,000달러 상당	
	1951. 1.23	중고의류	—	
유 럽 구제기관	1950. 9.21	식품 및 의복	100,000달러 상당	
	1950.11.20	모포 및 직물	237,150달러 상당	미결중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세계교회 봉 사 단	1950. 9.25	중고의류 및 일 반 보급품	104,958달러 상당	
	1950.11.16	비타민 조제	5,600달러 상당	
		중고의류	100,000달러 상당	
	1951. 1.30	중고의류	60,000달러 상당	미결중
적십자사 연 맹	1950.11.11	보건후생관	13명	제12호 요청 에 의한 제공
		보건후생관	14명	제12호 요청 에 의한 제 공, 거절
	1950.11.	천막, 모포, 의료 보급품, 피복	-	대한적십자에 직접 제공
미 국 적십자사	1951. 1.12	후생관	1명	제13호 요청 에 의한 제 공, 미결중
아동구조 연 맹	1950.12.12	중고 및 신의류	5,033달러 상당	
전 쟁구제 봉 사 단	1950.10.17	중고의류, 비누	290,749달러 상당	
	1950.10.27	의료반	7명	거절
	1950.11.17	의류, 신발, 비누	99,738달러 상당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전쟁구제 봉사단	1950.11.29	중고의류	100만 달러 상당	
	1950.12. 7	중고의류	100만 달러 상당	
		중고의류	7만 달러 상당	

출처: 「한국전란 1년지」, pp. C193~194.

그리고 1952년 10월 말에 한국원조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국이며, 특수단체로서는 유엔 4개 단체, 미국 2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참가국가 중 제일 많이 지원한 국가는 타이로서 4,368,000달러 상당의 미곡을 지원하였고, 제2위는 필리핀으로 1,875,468달러에 해당하는 미곡을, 그리고 제3위는 중국(대만)으로 617,130달러를 원조해 주었다. 비정부 단체로서는 미국의 한국원조사(The American Relief for Inc)가 선두로 3,871,145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제2위는 미국가톨릭교구구제회의 전란부(The War Relief Service)이었는데 3,623,492달러를 지원해 주었다.¹⁶⁾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유엔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 민간단체들의 물자지원은 계속되어 전쟁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들의 물자지원은 전재민의 고통 완화는 물론 한국의 재건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¹⁷⁾

16)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80.

17)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에 대한 물자지원은 주로 유엔을 통하여 지원되었으나, 한국에 직접 전달된 물자도 상당량 있었다. 그리고 물자지원은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가별,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 4 절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의 활동

한국전쟁중에 발생한 전쟁이재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자 이들에 대한 구호는 한국 정부는 물론 미 제8군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후방지역이 혼란하여 유엔군의 작전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가 한국전쟁중에 수행한 주요한 전재민 구호사업은 구호물자의 요청 및 도입, 피난민 구호, 고아원 등의 수용시설 지원, 피난민 재정착 지원, 의료시설 지원, 교육시설 지원 등이다.

1. 물자지원 요청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구호에 관한 결의안에 의거 한국의 민간인 구호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결정하는 책임과 획득된 물자를 현지에서 분배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권한이 부여되자 유엔으로부터 보건후생분야의 전문가를 지원받아 한국 정부 대표, 유엔대표들과 협조하여 원조물량을 산출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11일까지 유엔사무총장에게 8건을 특별요청하였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400만 달러에 상당하였으며, 요청 내용은 의료보급물자, 공공보건단체 파견, 보건위생전문가 파견, 곡물, 사탕, 식염, 일반보급품 등이었다.

이 결과 미국의 긴급조치로써 제공되던 구호품에 의존하던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의 구호활동은 10월부터 유엔의 구호물자가 들

어오면서 다소 안정을 되찾는 듯하였다. 그러나 복진한 유엔군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하면서부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태에 따라 제반 구호계획과 필요 물자의 수요량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공산 치하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수 천명씩 무리지어 자유를 찾아 월남하자 유엔군사령부는 금년 겨울이 지나면 백만 이상의 피난민들이 후생원조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긴급한 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51년 1월 10일까지 추가로 8건을 지원요청하였다. 이는 금액으로는 약 24,700,000달러에 상당하였고, 요청 내용은 모포, 의료보급품, 목재, 보건후생요원, 교육용 보급품, 피복 등이었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는 긴급히 소요되는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발발 이후 16건을 요청하였다. 이 중 12개의 요청은 보급물자의 요청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나머지 4개의 요청은 기타 협력을 요구하는 요청이었다.¹⁸⁾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사무총장은 이들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 각국 정부(미국 제외), 또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구에 전달하였다.

1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p. C186.

유엔군사령부의 요청 현황(1951. 2. 7. 기준)

순번	일 자	내 용	평가금액 (달러)	제 공 자
1	1950. 8. 5	의료보급품 29종	735,000	34개 회원국, WHO, IRO
2	1950. 8. 5	지방단위 보건반 (의료요원:5명, 후생전 문가:5명, 행정관:5명)	-	WHO, IRO
3	1950. 9. 1	국가단위 보건위생요원 (단장, 보건관, 보건후생 관, 행정관 각 1명)	-	WHO
4	1950. 9. 5	미곡:40,000톤, 대맥:4,100톤	6,875,000	12개 회원국
5	1950. 9.14	미곡:20,000톤, 대맥:27,400톤, 소맥:20,000톤, 소맥분:10,000톤, 단백질식물:10,000톤	7,912,500	15개 회원국
6	1950. 9.16	사탕:3,000톤	375,000	8개 회원국
7	1950. 9.18	식염:50,000톤	1,250,000	2개 회원국
8	1950. 9.20	일반보급품 13종(천막, 모포, 모직, 면피복, 피누, 우유 등)	14,378,000	54개 회원국, UNICEF
9	1950.10.12	모표:1,000,000	2,000,000	11개 회원국, IRO, UNICEF
10	1950.11. 6	의료보급품 12종	3,236,830	전회원국, IRO, UNICEF

순번	일 자	내 용	평가금액 (달러)	제 공 자
11	1950.11. 1	목재 : 110,000톤	500,000	13개 회원국
12	1950.11.11	보건후생요원(보건관 : 9명, 보건후생관 : 9명, 위생전문가 : 9명, 행정관 : 1명, 보급관 : 1명)	—	WHO, 적십자사연맹
13	1950.11.28	보건후생요원(보건관 : 5명, 후생관 : 5명, 위생전문가 : 5명, 행정관 : 4명, 재무관 : 3명, 노무관 : 2명, 토목기술자 : 5명, 보급관 : 5명)	—	ILO, WHO, IRO
14	1950.12. 4	교육용 보급물	4,000,000	UNESCO
15	1951. 1. 3	의료보급품	—	제10호에서 전달
16	1951. 1.10	피복	15,000,000	전회원국, UNICEF, 기타 비정부 기관

출처: 「한국전란 1년지」, pp. C189~190.

2. 구호물자의 도입

전쟁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일부터 1952년 7월 31일까지 민사구호계획과 경제원조계획의 일부로 한국에 인도된 공급물자 및 시설 등은 유엔에서 지원한 2,200만 달러와 미국에서 지원한 17,000

만 달러를 합한 약 2억 달러이었다.

그리고 1952년 7월 1일부터 1953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에도 한국에 대한 민간구호와 경제원조의 비용은 약 2억 달러로서 이에는 양곡과 기타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자 1억 4천만 달러, 경제원조물자 6천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 및 유엔으로부터 받은 구호원조의 총액은 4억 7천1백90만 달러에 달하였다.¹⁹⁾ 이러한 원조는 한국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UNCACK를 통해 도입된 물자는 곡물, 비료, 석탄, 석유제품, 건축자재, 의약품 등이었다. 당시 구호물자의 절반을 차지하였던 곡물은 쌀, 보리, 밀, 수수 등이었는데 1953회계연도의 경우 보리가 도입 곡물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쌀이 1/4이었으며, 밀과 수수가 나머지를 점하고 있었다. 이들 곡물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된 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때 식량자원으로 충당된 것은 외국에서 직접 도입한 곡물 외에도 미군 야전식량(C-Ration)이 있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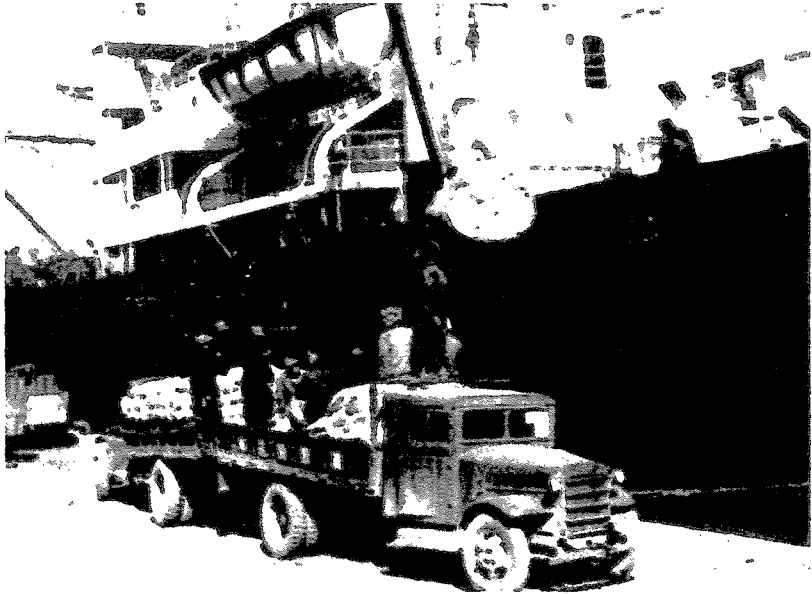
당시 서울의 식량 사정은 심각하여 소두 한 말에 전쟁 전에는 2천원이었으나 1950년 11월에는 8천원으로 4배나 인상되었다. 그러나 유엔한국원조사령부가 도입한 양곡을 무상배급을 실시하자 쌀 값은 3,700원으로 내렸다.²¹⁾

그리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1951년 4월 그들이 조사한 결과 1952년도에 접어들면 적어도 40만 톤의 식량이 수입되어야

19)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p. 140.

20) 최원규, “한국전쟁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의 전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p. 145.

2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p. C297.



부산에 양륙되는 구호미

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만 달러나 되므로 금년중에 한국 내 식량생산을 최대한 증산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비용의 확보를 결의하였다.²²⁾ 이에 UNCACK도 단위면적당 1파운드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3~6배의 곡물생산량을 증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비료를 도입하였다.

또한 석탄은 증기기관차의 연료, 구호시설의 취사 및 난방, 민간 산업체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석유제품은 민간부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건축자재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손된 공공시설, 주택 등을 보수, 개축하는 데 사용되었고, 의료품은 전재민을 위시한 한국 국민의 진료를 위해 도입되었다.

2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앞의 책, p. 9.

3. 전재민 구호

UNCACK가 전개한 전재민 구호사업은 수백만 명에 달한 전쟁 피난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피난민촌에 수용하거나, 피난민을 위한 급식소 설치, 방역, 환자의 치료 등을 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도 대구와 부산 등 60여 곳에 피난민수용소를 설치하고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 초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하였던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철수하자 북한 치하에서 고생을 경험하였던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 피난민 구호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피난민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그들의 생활상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식과 의류지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질병예방은 전선의 전투보다 더 심각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금년 겨울이 지나면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구호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질병예방과 아사(餓死)를 방지할 목적으로 긴급히 유엔사무총장에게 담요, 의복, 식량, 의약품 등을 요청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 문제가 미처 해결되기도 전인 1951년 벽두에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다시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한강 남쪽으로 철수한 이른바 '1·4후퇴'로 대규모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개전 초기와는 달리 유엔군이 피난민의 소개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통제와 적절한 곳에 피난민을 위한 수용소와 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혼란과 희생은 줄어들었으나 서울이 처음 함락되었을 당시 적 치하에서 고생을 경험한 주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나섬으로써 피난민의 숫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되었

다. 따라서 피난민에 대한 식량, 의복, 주거 및 치료의 제공문제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소요량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필요한 구호물자를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급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하였다. 다행히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실패한 이후 피난민의 수효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2월 말까지 도입된 ECA 원조 약 1,400만 달러와 4월 15일까지 도입된 UNCACK 원조 2,200만 달러가 도입되어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활력소가 됨으로써 심각하였던 식량, 의류, 주택, 연료 등의 문제가 해빙기를 맞아 상당히 완화되었다. 유엔한국원조사령부는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2년 4월 말까지 피난민 주택으로 계획된 17,912동 중 13,649동을 완료하였고, 1,188동을 건설중에 있었다.²³⁾

그리고 UNCACK가 구호대상으로 삼았던 피난민은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재민(War Sufferers)이었으나 그 지원도 전재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UNCACK에 등록된 난민만이 지원대상이 되었다.²⁴⁾

그러나 구호물자는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지는 않았다. UNCACK는 약 100여 만명의 전재민에게는 일일 1파운드의 곡물을 배급하였고, 여타 등록난민들에게는 일일 1/3~2/3파운드의 곡물을 배급하였다. 하루 1파운드의 곡물을 배급받은 전재민들은 궁핍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전재민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고아원에 수용된 전재민, 실업여성, 노인들이었다.²⁵⁾

23)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p. C328.

24) 최원규, 앞의 책, p. 147.

25) 최원규, 위의 책, p. 148.

4. 난민 재정착 지원

피난민과 실향민 등의 전재민에 대한 정착사업은 유엔, 한국 정부 등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었고,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정착사업의 대상자는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월남자와 미수복지구의 주민으로서 휴전 후 귀향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포로들 중 한국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1951년 9월에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 피난민들에게 임시 피난소를 신축할 제한된 양의 목재와 천막, 그리고 물자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민간구호계획에 따라 지방의 가옥을 재건하기 위하여 수입된 다량의 목재를 여러 항구를 통하여 각 지역으로 분배함으로써 주택난을 다소 완화시켰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2주년을 맞아 전선의 소강상태가 계속되자 1952년 6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에 ‘귀가작전’(Operation Homecoming)을 전개하여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유엔군에 수용되어 있던 27,000명의 민간인 억류자들을 귀가시켜 복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남한출신 민간인으로 전투지역에서 붙잡힌 사람이거나, 강제로 북한군에 징집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 전투지역에서 소개된 신원 미상의 피난민 낙오자들이었다. 이때 이들에게는 30일분의 식량(양곡, 생선통조림, 소금으로 구성된 레이션)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11월에도 ‘추수감사절 작전(Thanksgiving Op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1,641명의 수감자를 추가로 귀가조치시켰다.

그리고 북한지역으로부터의 피난민과 접적지역으로부터 소개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신거주지에서의 동화와 재정착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1952년 11월에 38도선 이북에 거주하던 627명의 농부들과 월남한 428명의 피난민에 대하여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정착민에게는 농기구와 가축이 제공되었으며 공한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재민 가운데 1953년까지 35만여 명이 재정착하였고, 이들에게는 UNCACK가 종자, 곡물, 농기구, 가축을 제공하였다.²⁶⁾

5. 보건 및 의료시설 지원

UNCACK가 전개한 전재민 구호활동 가운데 대규모로 추진된 사업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지원 사업이었다. 여기에는 피난민과 주민을 위한 방역사업, 의료시설 건축, 의료장비와 물품 지원, 의료인력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방역사업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창궐하기 쉬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950년 9월 하순 유엔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전쟁 전의 상황을 회복하였으나 전쟁 전에 경인지역에 비축해 두었던 의약품은 북한군이 대부분 약탈하여 사용함으로써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요청한 의약품 중 상당량이 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전염병의 발병을 우려하여 1951년 8월 까지 남한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천연두, 장티푸

26) 최원규, 위의 책, p. 151.

스, 발진티푸스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또한 3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기재를 도입하여 민간인 치료를 위하여 79개 병원과 312개 치료소를 설치 운용하였다.²⁷⁾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1952년 1월 초에 UNCACK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하여 BCG 예방접종사업을 계획하자 군병원인 이탈리아 적십자병원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UNCACK가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한 해 동안 천연두,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회귀열 등이 주요 전염병으로 발병하였으며,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질병들의 발병원인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취약한 영양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1953년 3월 초순 한국 국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의료분야였다. 당시 민간인들의 진료요청은 민간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전문의사의 부족으로 의료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8군사령부는 전선의 소강상태로 환자가 점차 감소하자 서울의 이탈리아 적십자병원과 부산의 스웨덴 적십자병원을 민간인 전문 치료병원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이들 적십자병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치료는 물론 상당액의 원조도 제공하였다.²⁸⁾

이외에도 UNCACK는 전쟁으로 파손된 의료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들 시설에 의료장비와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였다. 이들 사업은 주로 UNCACK의 통제 하에 있는 외국 민간 원조단체를 통해 추진되었다.²⁹⁾

27)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p. C348.

2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4년지」, p. C320.

29) 최원규, 앞의 책, p. 153.

6. 직업훈련 및 농사지도

UNCACK 야전팀의 구성에 농사기술자가 1인 포함되어 있고, UNCACK이 도입한 물자 가운데 비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UNCACK이 전개한 구호정책 가운데 직업훈련과 농사지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당시 한국의 주요한 생산기반이었다. 국민총생산의 40%가 농업부문인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전답의 황폐화, 농기구의 망실 등은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를 야기하였다. 1953회계연도에 UNCACK이 도입한 물량 151만 톤 가운데 곡물이 1/3인 51만 톤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국가인 한국이 구호곡물을 도입해야 했던 것은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에 UNCACK는 비료의 도입은 물론 농민들에게 농사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곡물수확량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1953 회계연도에 총 38만 톤의 비료를 도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전쟁 중의 UNCACK의 전재민 구호정책의 내용은 구호물자의 도입, 피난민 구호, 난민재정착 지원, 보건의료 지원, 직업훈련 및 농사지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중에 UNCACK의 전재민 구호정책의 영향으로 적지 않게 한국 국민들의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6 장 유엔군의 참전과 영향

제 1 절 유엔군의 참전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깨어지자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여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방침하에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첫 단계로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6일 새벽 4시(25일 14:00 현지)에 미국이 제의한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남침을 계속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8일 04:00(27일 11:45 현지)에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2단계 제재조치인 ‘한국원조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6·26결의’와 ‘6·28결의’는 유엔이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국제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공산군) 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회원국의 군사지원은 미국의 참전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전쟁초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해·공군이 참전하였고, 7월 말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할 무렵에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의 해·공군도 참전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이 한만국경선에서 진출하는 동안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터키, 인도, 타이, 그리스도 참전함으로써 12월 말에는 참전국이 14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유엔군의 참전은 해를 넘겨 1951년에도 계속되었는데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에 이어 11월 유엔의 비회원국인 이탈리아의 참전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들 전투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21개 국가 외에도 이 무렵 20여 개 국가가 물자 지원을 하였다.¹⁾

이때 일부 영연방국가의 부대를 제외한 부대들은 미군부대에 배속에 앞서 미군 무기와 장비에 대한 숙달훈련이 필요하였고, 또 그들의 풍습과 식성이 달라 단일 보급지원체제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연합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언어상의 장애요인이 있었으나 이는 통역과 연락장교를 두어 해결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 참전국의 병력 구성 비율이나, 유엔군의 작전이 전적으로 미군의 통제하에 실시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미국이 유엔군의 작전을 주도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이 전쟁이 유엔의 명분으로 수행된 최초의 전쟁이었다는 점과 또한 처음으로 자유세계가 공산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유엔의 깃발하에 굳게 결속되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참전국 현황

국가수	국 가 명	군 별	한국도착일자	전투참가일자
1	미 국	해군·공군 지상군	1950. 6. 27 1950. 7. 1	1950. 7. 5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p. 27.

국가수	국 가 명	군 별	한국도착일자	전투참가일자
2	영 국	공군·해군 지상군	1950. 7. 7 1950. 8. 29	1950. 9. 5
3	프 랑 스	해군 지상군	1950. 7. 29 1950. 11. 29	1950. 12. 10
4	캐 나 다	공군(수송대) 해군 지상군	1950. 7. 28 1950. 7. 30 1950. 12. 18	1951. 2. 15
5	오 스트 레 일 리 아	공군·해군 지상군	1950. 7. 7 1950. 9. 28	1950. 11. 5
6	네 델 란 드	해군 지상군	1950. 7. 15 1950. 11. 24	1950. 12. 3
7	그 리 스	공군 지상군	1950. 11. 25 1950. 12. 9	1951. 1. 27
8	필 리 핀	지상군	1950. 9. 19	1951. 3. 6
9	뉴 질 란 드	해군·공군 지상군	1950. 7. 7 1950. 9. 28	1950. 11. 5
10	터 키	지상군	1950. 10. 17	1950. 11. 10
11	타 이	해군 지상군 공군(수송대)	1950. 11. 10 1950. 11. 7 1951. 6. 23	1950. 11. 23
12	벨 기 에	지상군	1951. 1. 31	1951. 3. 6
13	남 아프리카 공 화 국	공군	1950. 10. 4	1950. 10. 4
14	룩셈부르크	지상군	1951. 1. 31	1951. 3. 13
15	콜 롬 비 아	해군 지상군	1951. 4. 30 1951. 6. 15	1951. 8. 1
16	에 티오피아	지상군	1951. 5. 5	1951. 8. 15

국가수	국 가 명	군 별	한국도착일자	전투참가일자
17	스 웨 덴	병원	1950. 9. 23	1950. 9. 23
18	인 도	병원	1950. 11. 20	1950. 11. 20
19	덴 마 크	병원선	1951. 3. 2	1951. 3. 2
20	노 르 웨 이	병원	1951. 6. 22	1951. 6. 22
21	이 탈 리 아	병원	1951. 11. 16	1951. 11. 19

출처: 「한국전란지 2년지」, p. C483.

제 2 절 참전결과

(1) 유엔군의 참전규모

국 가 명	지 상 군	해 군	공 군
미 국	보병사단 7, 해병사단 1, 연대전투단 2: 302,483명	극동함대, 제7함대 등 261척	극동공군 등 66개 대대
영 국	보병여단 2, 해병특공대 1: 14,198명	함정 17척 (항모 1척 포함)	-
오 스트 레 일 리 아	보병대대 3: 2,282명	항모 1척,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전투비행대대 1, 수송기편대 1
네 델 란 드	보병대대 1: 819명	구축함 1척	-
캐 나 다	보병여단 1: 6,146명	구축함 3척	수송기대대 1

국가명	지 상 군	해 군	공 군
뉴질랜드	포병대대 1 : 1,389명	프리깃함 1척	-
프랑스	보병대대 1 : 1,119명	구축함 1척	-
필리핀	보병대대 1 : 1,496명	-	-
터키	보병여단 1 : 5,455명	-	-
타이	보병대대 1 : 1,294명	프리깃함 2척	수송기편대 1
그리스	보병대대 1 : 1,263명	-	수송기편대 1
남아프리카 공화국	-	-	전투비행대대 1
벨기에	보병대대 1 : 900명	-	-
룩셈부르크	보병소대 1 : 44명	-	-
콜롬비아	보병대대 1 : 1,068명	프리깃함 1척	-
에티오피아	보병대대 1 : 1,271명	-	-
소계	341,227명	-	-
인도	의무부대 : 70명	-	-
이탈리아	의무부대 : 72명	-	-
노르웨이	의무부대 : 105명	-	-
스웨덴	의무부대 : 154명	-	-
총계	341,628명	-	-

* 덴마크 병원선 100여 명은 총병력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전쟁사」(하), p. 587.

(2) 국가별 피해

단위 : 명

구 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계
오스트레일리아	339	1,216	—	28	1,583
벨 기 에	104	336	—	1	441
룩셈부르크	2	15	—	—	17
캐 나 다	312	1,212	32	1	1,557
콜롬비아	143	567	69	30	809
에티오피아	121	536	—	—	657
프 랑 스	262	1,008	7	12	1,289
그 리 스	188	459	—	—	647
네덜란드	119	463	3	—	585
뉴질랜드	23	79	1	—	103
필리핀	112	299	16	41	468
남아프리카공화국	34	—	—	8	42
타 이	129	1,139	5	—	1,273
터 키	721	2,493	175	234	3,623
영 국	1,078	2,674	—	979	4,731
미 국	54,246	468,659	739	4,439	528,083
총 계	57,933	481,155	1,047	5,773	545,908

* 전사/사망에는 부상, 실종, 포로 중 사망 포함.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p. 110.

(3) 전쟁포로 승환

○ 송 환 자

단위 : 명

국	적	상병포로교환	포로교환	계
북	한	5,640	70,183	75,823
중	국	1,030	5,640	6,670
	계	6,670	75,823	82,493
미	국	149	3,597	3,746
영	국	32	945	977
터	키	15	229	243
필	리	1	40	41
캐	나	2	30	32
콜	롬	6	22	28
오	스트	5	21	26
프	랑	—	12	12
남	아프리카	1	8	9
그	리	1	2	3
네	덜	1	2	3
벨	기	—	1	1
뉴	질	—	1	1
일	본	—	1	1
한	국	471	7,862	8,321
	계	684	12,773	13,444

출처: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하), p. 496.

○ 송환거부 포로

- 유엔군측에 의한 포로

단위 : 명

처 리	중 국 인	한 국 인	계
공산군측 통제로 귀환	440	188	628
탈출 및 실종	2	11	13
인도군의 관리중 사망	15	23	38
인도로 이송	12	74	86
유엔군 통제로 전향	14,235	7,604	21,839
계	14,704	7,900	22,604

출처: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하), p. 497.

- 공산측에 의한 포로

단위 : 명

처 리	미 국 인	영 국 인	한 국 인	계
공산군측 통제로 전향	21	1	325	347
인도로 이송	-	-	2	2
유엔군 통제로 귀환	2	-	8	10
계	23	1	335	359

출처: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하), p. 497.

제 3절 참전영향

유엔의 지원결의에 따라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무지원 부대를 파견한 5개국은 유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유엔기의 깃발 아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들은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오르내리면서

한국전쟁을 주도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전현상만 회복한 채 휴전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료하였다. 이들의 참전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의 참전은 국군을 기사회생시키고, 공산군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중공 및 소련과 공모하여 극비리에 남침전쟁계획을 수립한 후 1950년 6월 25일 38도선을 돌파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이 결과 한국은 서울의 실함에다 국군이 심한 피해를 입어 전쟁수행의 중대한 고비에 처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엔에 직접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유엔의 지원 결의에 의거 16개국이 전투부대를,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한국에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엔기의 깃발 아래에 결속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오르내리면서 생소한 지형, 상이한 기후조건 등을 극복하고 북한군에 이어 중공군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벌였다. 그 결과 많은 양의 장비의 손실은 제쳐놓고 미군 141,000여 명과 기타 참전국에서 14,0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²⁾

이와 같이 유엔군은 한반도의 남단 일각마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망의 기로에 선 한국을 기사회생시키고, 나아가 공산침략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둘째, 유엔군의 개입을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은 외부 세력의 힘

2)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4년지」, p. C341.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유엔군은 인천상륙과 낙동강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여 북한군을 구축하고 전전현상을 회복하였다. 이때 미국과 자유진영 내에서 38도선 돌파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북진을 준비하였고, 유엔도 '10·7 통한(統韓) 결의'로 유엔의 주도하에 한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는 중공군이 개입하자 휴지화되고, 확산이나 또는 한반도의 포기나 양자택일의 궁지에 몰려 한때나마 한반도로부터 유엔군의 전면철수는 물론 우리 정부의 제주도 이전까지 검토하였다.

이후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서울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었던 유엔군이 재반격을 개시하여 다시 38도선으로 진출함으로써 미국은 유엔참전국들과 협의하여 군사적으로는 전쟁 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 수립은 그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전략을 결정하였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안아야 하는 불행한 정책이나 중공군이 38도선 북쪽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유엔은 우리 정부의 재분단을 반대하는 통일정책 추구하고 국민들의 휴전 반대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협상을 개시하였다. 휴전협상은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개최한 지 25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조인되었고, 지루한 전쟁은 진정한 승자를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종료되었다. 이로써 유엔은 한국전쟁에 '침략의 격퇴'라는 목표만 달성하고 '한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이룩하

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의 숙원인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은 미국이나 유엔의 전쟁목표로 될 수 없었던 것이며, 이는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세계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외세에 의한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³⁾ 또한 이와 같은 값진 교훈은 자주국방만이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셋째, 의료지원부대의 활동은 한국의 의료기술 향상은 물론 낙후된 의료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

유엔의 지원 결의에 이어 1950년 8월 국제적십자연맹이 한국전쟁에서 전상자 치료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각국 적십자기구에 호소하였다. 이 결과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유엔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의료지원부대들은 참전기간 동안 이들 의료진들의 숙련된 기술과 훌륭한 시설,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한국전쟁에서 많은 인명을 구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 간호사, 그외 의료기술자들에게 마취기술, 한국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성형외과 수술기술, 방사선 촬영 등 새로운 의술의 전수는 물론 병원 운용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피난민들의 영양 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안질(Trachoma), 결핵 등이 창궐하자 이들을 퇴치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특히 결핵을 퇴치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BCG 접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덴마크 병원선은 휴전협정

3)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 937.

의 조인으로 귀국에 앞서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약품과 의료기구 등을 한국재건단을 통하여 한국 내의 여러 민간병원에 기증하였고, 다른 회원국들도 귀국에 앞서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의약품을 기증하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3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전후복구를 위하여 국립의료원을 개원함으로써 한국의 보건사상(保健史上)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료지원부대들은 그들의 선진 의료기술의 전수는 물론 다량의 의약품과 의료기재를 기증함으로써 낙후된 한국의 의료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넷째, 한국은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 터전과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으나 유엔의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되고, 370만의 이재민과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그리고 남북한을 합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한국에서만 60여 만 호의 가옥을 비롯한 도로, 철로,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⁴⁾

당시 한국의 구호정책은 사회부의 소관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마비, 난민구호를 위한 자원의 절대부족, 전쟁상황의 급박성 등의 요인들에 의해 전쟁이재민에 대한 구호정책은 전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유엔민사원조사령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생필품 공급은 유엔회원국의 전적인 원조를 필요로 할 만큼 긴급문제로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식량,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1987, p. 168.

의류, 연료 및 의약품이었다. 또한 피난민의 문제는 한국경제에 막심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민간원조소요량의 끊임없는 재검토, 재평가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에 유엔민사원조사령부는 필요한 원조물자의 도입은 물론 피난민 구호사업, 수용시설 지원, 피난민 재정착사업 지원, 의료시설 지원, 교육시설 지원 등을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 기간중에 미국 및 유엔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총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원조는 식료품, 의류, 농업용품 등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어 전재민들을 기아와 질병에서 구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중에 유엔민사원조사령부에서 수행된 전재민을 위한 구호정책은 오늘날 직·간접으로 한국군의 사회개발 지원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미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다섯째, 유엔군의 참전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를 떠나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엔은 북한 공산집단이 불법남침을 개시하자 많은 유엔 비평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조기에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지체 없이 결의하였다. 이 결과 미국을 필두로 1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터키, 그리스)이 군사력을 지원하였고, 또 39개국(군사력을 지원한 16개국 포함)과 1개 비회원국(이탈리아) 및 9개 국제기구가 각종 비군사적 지원을 하였다.⁵⁾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집단안정보장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또한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적에 대한 인식의 빈곤은 미국이 한

5) 홍순호, “한국전쟁과 유엔군”,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평민사, 1989), p. 146.



부산에 위치한 유엔군 묘지

반도 정책에서 범한 모든 오류의 근원이었으며, 한국전쟁 수행과정에서도 미국 및 여타 유엔참전국들이 겪어야 했던 제반 우여곡절의 원인이기도 하였다.⁶⁾ 이러한 사실들은 그후 전세계 자유민들이 공산주자들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중 남북한을 지원한 여러 국가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체제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해관계에 근간을 두고 양국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해 전후에 본격화되었던 미국 중심의 서구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동구 공산진영 간의 양극적 냉전체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고착화되었으며,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6)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936.

던 것이다.

끝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유엔군으로 출동하여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려 자유를 수호한 유엔 참전 16개국의 전몰장병의 고귀한 희생, 또한 이들이 남긴 수많은 전공과 그 속에 숨은 숭한 교훈은 우리 역사와 함께 길이 남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자료

-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4년지」, 1951~195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제11권), 1971~198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198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1집), 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2집),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 전투」,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 전투」, 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199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하), 1995~1997.
-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 전투」, 1993.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 육군본부, 「6·25사변 육군전사」(제1권~제7권), 1952~1957.
- 육군본부 군사감실, 「후방전사」(인사편·군수편), 1953.

-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일신사, 1988.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제1권~제6권), 1993.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 1965.
-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 20년 부록」, 1966.
-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 문화공보부, 「실증자료로 본 한국전쟁」, 1990.
- 문교부, 「한국동란사」,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1959.
-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1973.
-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제1권~제6권), 1973.
- 서울신문, 「주한미군 30년」, 1979.
- 김병일·이해방(역), 「프랑스대대」, 동아일보사, 1983.
- 김재관(역), 「한국전쟁」, 정우사, 1984.
- 한표욱, 「한미외교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 홍순호, “한국전쟁과 유엔군”,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평민사, 1989.
- 최원규, “한국전쟁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의 전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 최종기, 「국제연합군」,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2.
-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신명문화사, 1961.

■ 국외자료

-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편위(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하), 1990.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

- 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1995.
-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1963.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U.S. Army, Washington, D.C., 1988,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 Matthew B. Ridgway, *The Korea War*, New York: A Da Capo paperback, 1967.
-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2,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 Malcolm W. Cagle·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Annapolis Maryland, 1957, 해군본부(역), 「해전사」, 1976.
-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국방부 전편위(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1989.
- The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30 june 1952)*, 1955,
공군본부(역), 「UN 공군사」(상), 1975.
- The Secretary of Den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nfense*, U.S. G.P.O.: 1988.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KMAG in Peace
and War*, CMH US ARMY, 1962.
- U.S. Marine Corps,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1954—1972*.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
53*, Department of the AirForce, 1983.
- Jerrold L. Schecter,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by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
- 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
(1776—1965)*
-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Army Logistics 1775—
1953*,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 Draft Field Manual, *The Logistical Command*, C&GSC, 1950.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
S. Naval Mine Countermesures(1777—1991)*, Naval Histori-
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C.,
1991.
- W.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 U.S. 25th infantry Div.,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

fantry Div. Georgia: Albert love Enterprises

Bradley J. Haldy, *Korean Service Corps—Past and present*, Army Logistician, 1987.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Hq. USFK/EUSA, 1983.

Brigadier C. N. Barclay,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Great Britain by Gale and Polden, 1954.

Anthony Farrar 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the United Kingdom for HMSO, 1990.

Anthony Farrar 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the United Kingdom for HMSO, 1995.

Kimon Skordiles, *Kagnew*, Tokyo, 195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an War* Vol I ~ II,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85.

Lieutenant Colone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Queen's Printer and Controller of Stationery Ottawa, 1966.

□ 企劃 및 執筆

主幹：戰史部長 蔡漢國

執筆：先任研究員 孫文植

UN軍支援史

1998年 12月 25日 印刷

1998年 12月 28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國防軍史研究所

發行人 朴 淳 贊

印刷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2街 12番地
軍人共濟會 第1文化事業所

〈非賣品〉

본 저작물의 복제, 복사 또는 인용시에
국방군사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할 것